

제5차 만주학센터 국제 학술회의
The 5th International Conference of Center for Manchu Studies

滿洲語文學 자료의 현황 및 그 연구와 활용

- ▶일시 : 2015년 6월 5일(금)
- ▶장소 : 고려대학교 민족문화연구원 B203호
- ▶주최 : 만주어 및 만주문학 자료 총서 간행팀
- ▶주관 : 고려대학교 민족문화연구원 만주학센터
- ▶후원 : 한국연구재단

The 5th International Conference of Center for Manchu Studies

**The Current Status of Materials on Manchu
Language and Literatures for Research and
Use on Manchu Study**

Date, Fri., June 5, 2015

Place, B203 at Research Institute of Korean Studies(RIKS), Korea University
Hosted by the Project Team, “Publication of a Collection of materials on Manchu
Language and Literatures”

Supervised by Center for Manchu Studies, Research Institute of Korean
Studies(RIKS), Korea University

Sponsored by National Research Foundation of Korea

환영사

청나라를 세운 만주족은 그들의 언어로 수많은 기록을 남겼습니다. 이들 자료에 대한 중요성을 간파한 일본·러시아·독일·미국 등에서는 일찍이 만주어와 그 기록에 대한 연구가 부단히 진행되어 왔습니다. 이를 통해 기존의 한문으로 기록된 자료에서는 얻을 수 없었던 정보를 접할 수 있었고 청나라 시대의 중국과 내륙아시아의 문화와 역사를 새로운 시각에서 이해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한국은 만주족 및 그 조상인 여진족과 밀접한 관계를 맺어 왔습니다. 그리고 한국어는 만주어와 계통적으로 가장 가까운 언어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와 같은 지리적, 그리고 언어적 이점에도 불구하고 이들에 대한 연구는 다른 나라에 비해 양적으로나 질적으로 많이 뒤쳐졌던 것이 사실입니다.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가장 빠르다는 말이 있지요. 다소 늦은 감이 없지 않지만, 우리 민족문화연구원은 한국학 연구의 중심으로 만주학이 성장할 수 있는 최적의 여건을 만들고자 2012년 5월 23일 만주학센터를 설립 하였습니다. 만주학센터 설립 이래 우리 민족문화연구원은 만주어문학 자료의 번역 및 이에 대한 연구 등을 바탕으로 단시일 내에 다양한 성과를 올릴 수 있었습니다.

민족문화연구원 만주학센터에서는 지난 네 차례의 국제학술대회를 통하여 국내의 만주학의 연구 현황 및 연구 성과를 점검하는 한편 해외 학계와의 학술교류 촉진이라는 큰 결실을 거둘 수 있었습니다. 본 학술대회도 그 연장선상에서 지금까지 민족문화연구원이 진행해 온 만주학 연구의 결과물을 소개하는 한편, 해외의 저명한 만주학 연구자들을 모시고 각국의 만주어문학 자료의 현황 및 그 연구와 활용에 대해서도 살펴보고자 마련되었습니다. 본 학술대회를 계기로 우리 민족문화연구원이 세계적인 만주학 연구의 거점으로 더욱 발전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아울러 이런 뜻깊은 국제 학술 대회가 훌륭히 치뤄질 수 있도록 지원해 준 한국연구재단과 국제학술회의에 참여하여 자리를 빛내 주신 많은 선생님들에게도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고려대학교 민족문화연구원

원장 조성택

[진행 순서]

09:20-09:40 등록

09:40-10:00 개회식 사회: 신상현(고려대)

개회사: 김유범(과제 책임자, 고려대 국어교육과)

환영사: 조성택(고려대 민족문화연구원장)

[제1부] 사회: 신상현(고려대)

10:00-10:30 발표1: 김유범(고려대) · 오민석(고려대): 역대 만주어 문법서의 체제와
특징

10:30-11:00 발표2: 바야르세훈(몽골국립대): 몽골역사아카이브의 만주어 자료

11:00-11:20 중간휴식

11:20-11:50 발표3: 요하네스 레켈(독일 괴팅겐대학): 19세기 이래 독일에서의 만주학
연구

11:50-12:20 발표4: 자오아핑(중국 흑룡강대학): 중국의 만주어 학문연구 성과와 인재
양성

12:20-13:20 점심식사

[제2부] 사회: 이선애(고려대)

13:20-13:50 발표5: 기시다 후미다카(일본 오사카대학): 일본의 만주어 학습을 위한
공구서 현황

13:50-14:20 발표6: 최형원(고려대): 18세기 만주어 河魚類 魚名 考察

14:20-14:30 중간휴식

14:30-15:00 발표7: 신상현(고려대): 『니산사만전』의 제판본과 그 내용 비교

15:00-15:30 발표8: 오토콩톨(몽골국립대): 몽골국립도서관의 만주어 자료

15:30-16:00 발표9: 김양진(경희대): 만주어 학습을 위한 『御製清文鑑』 어휘의 형태론
적 연구-권1을 중심으로

16:00-16:10 중간휴식

[제3부] 종합토론 사회: 최동권(상지대)

토론: 조영현(고려대), 황국정(경상대), 서형국(전북대), 연규동(연세대)

Schedule

09:20-09:40 Register

09:40-10:00 Opening(Chair by Shin, Sang Hyun, Korea University)

Opening Address by Kim, Yu Pum(Director of Project Team, Korea University)

Welcome Address by Jo, Sung Taek(Director of Research Institute of Korean Studies(RIKS), Korea University)

Session 1 Chair: Shin, Sang Hyun(Korea University)

10:00-10:30 Presenter 1: Kim, Yu Pum(Korea University, Korea) & O, Min Seok(Korea University, Korea): System and Characteristics of former written Manchu Grammar

10:30-11:00 Presenter 2: Magsarjav Bayarsaihan(Mongolian National University, Mongolia): About Manchu Materials in Mongolian History Archives

11:00-11:20 Break

11:20-11:50 Presenter 3: Johannes Reckel(Göttingen University, Germany): About Manchu Study after 19th century in German(Origin is Mandschuristik in Deutschland seit dem 19. Jahrhundert und heute)

11:50-12:20 Presenter 4: Zhao, A Ping(Heilongjiang University, China): Research Productivity of Manchu Study & Human Resource Development in China(Origin is 趙阿平(黑龍江大學), 中国满语教学研究成果及人才培养)

12:20-13:20 Lunch

Session 2 Chair: Lee, Seon Ae(Korea University)

13:20-13:50 Presenter 5: Kishida, Fumitaka(Osaka University, Japan): Current Status of Reference Books for Learning of Manchu Language in Japan(Origin is 岸田文隆(大阪大學), 日本の満洲語学習のための工具書について)

13:50-14:20 Presenter 6: Choi, Hyong Won(Korea University, Korea): A study on <I-yu-lu>

14:20-14:30 Break

14:30-15:00 Presenter 7: Shin, Sang Hyun(Korea University, Korea): Comparative Study on Every Different Editons of *The Tale of the Nisan Shaman* and it's texts

15:00-15:30 Presenter 8: Togtokh Otgontuul(Mongolian National University, Mongolia): About Manchu Materials in Mongolian National Library

15:30-16:00 Presenter 9: Kim, Ryang-jin(Kyung Hee University, Korea): Morphological Study of *Yuzhi Qingwenjian*(御製清文鑑) for learning Manchu Language, focusing on vol. 1

16:00-16:10 Break

Session 3 Concluding Discussion

Moderator: Choi, Dong Guen(Sangji University, Korea)

Discussant: Cho, Young Hun(Korea University, Korea)

Yurn, Gyu Dong(Yonsei University, Korea)

Hwang, Kuk Jung(Gyeongsang University, Korea)

Seo, Hyeong Guk(Chonbuk University, Korea)

목 차

환영사

Ⅰ 조성택 (고려대학교 민족문화연구원장)

발표1 역대 만주어 문법서의 체제와 특징 001

Ⅰ 김유범(고려대)·오민석 (고려대)

발표2 몽골역사아카이브의 만주어 자료 037

Ⅰ 바야르세훈(몽골국립대)

발표3 19세기 이래 독일에서의 만주학연구 057

Ⅰ 요하네스 레켈(독일 괴팅겐대학)

발표4 중국의 만주어 학문연구 성과와 인재 양성 071

Ⅰ 자오아핑(중국 흑룡강대학)

발표5 일본의 만주어 학습을 위한 공구서 현황 091

Ⅰ 기시다 후미다카(일본 오사카대학)

발표6 18세기 만주어 河魚類 魚名 考察 121

Ⅰ 최형원 (고려대)

발표7 『니산사만전』의 제판본과 그 내용 비교 135

Ⅰ 신상현 (고려대)

발표8 몽골국립도서관의 만주어 자료 149

Ⅰ 오토콩톨(몽골국립대)

발표9 만주어 학습을 위한 『御製清文鑑』 어휘의 형태론적 연구-권1을 중심으로 · 181

Ⅰ 김양진(경희대)

1 부

사회: 신상현(고려대)

10:00-10:30 발표1: 김유범(고려대) · 오민석(고려대): 역
대 만주어 문법서의 체제와 특징

10:30-11:00 발표2: 바야르세훈(몽골국립대): 몽골역사아
카이브의 만주어 자료

11:20-11:50 발표3: 요하네스 레켈(독일 괴팅겐대학): 19
세기 이래 독일에서의 만주학 연구

11:50-12:20 발표4: 자오아핑(중국 흑룡강대학): 중국의
만주어 학문연구 성과와 인재 양성

역대 만주어 문법서의 체제와 특징

김유범*1) · 오민석**2)

1. 머리말

중국의 明朝를 멸하고 淸朝를 세운 滿洲人들은 모든 것을 끌어안아 녹여 버리는 용광로와도 같은 漢語의 위력을 경계했다. 그래서 그들은 자신들의 언어인 만주어[淸語]를 보존하기 위해 여러 가지 노력을 기울였다. 비록 그 결과는 성공적이지 못했지만 만주 문자의 정비, 만주어 사전의 편찬 및 문법서 저술, 만주어 학습을 위한 학당의 설립, 만주어에 의한 과거제도의 운영, 만주어와 한어 두 언어로 된 공문서의 작성, 그리고 다양하고 방대한 서적들의 만주어 번역 작업 등은 모두 이러한 노력의 흔적이라고 할 수 있다.

어떤 하나의 언어에 대한 온전한 습득은 학습 대상 언어의 어휘와 문법이 모두 습득될 때 가능할 수 있다. 그러므로 해당 언어의 어휘들을 모아 어휘집(또는 사전)을 편찬하거나 그 언어의 문법적 특성을 설명한 문법서를 저술하는 일은 언어 학습을 위한 가장 기본적인 작업이 된다. 특히 문법서의 저술은 해당 언어가 지닌 유형적 양상에 대한 관찰을 기반으로 그 언어가 지닌 고유한 특성들을 드러내 준다는 점에서 흥미로운 고찰의 대상으로 생각된다.

본고는 만주어 문법의 학습을 위해 집필되었던 역대 만주어 문법서들을 전통적 문법서와 근대적 문법서로 나누어 개관하고, 그 체제의 변화 및 내용적 특징을 살펴보는 데 그 목적이 있다. 청조 자체 그리고 동양의 국가들은 물론, 중국에 관심을 가졌던 서양 여러 나라들에서 집필된 역대 문법서들을 정리해 보는 작업은 만주어 문법 기술을 위한 체계적이고 효과적인 방안을 찾는 데 중요한 출발점이 되리라 생각한다.

2. 역대 만주어 문법서의 개관

1) 전통적 문법서

淸朝의 만주어 문법서는 17세기 후반부터 19세기에 이르기까지 여러 번에 걸쳐 간행되었다. 이들 문법서 각각에 대한 연구는 전사나 해설의 방식을 통해서 어느 정도 다루어진 바 있지만¹⁾ 淸朝의 문법서들 전반에 대한 자료조사나 내용의 이동 관계에 대해서는 많은 연구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다행히 국내 연구인 박은용(1973:264-268)에서는 『同文類解』 소개 ‘語錄解’의 출전을 고증하기에 앞서 淸朝의 문법서들에 대한 간략한 소개를 하고 있으므로 참고가 된다. 본장에서는 이를 바탕으로 淸朝의 만주어 문법서, 조선조의 만주어 문법서, 그리고 근대적 문법서로 나누어 간략한 소개와 함께 도서목록을 기록한 각국의 참고

* 고려대학교 국어교육과 교수.

** 고려대학교 대학원 국어국문학과 박사과정.

1) 전사와 관련하여서는 대표적으로 『청서지남』 권3인 「飜淸虛字講約」, 『淸文啓蒙』 권3인 「淸文助語虛字」, 『同文類解』 소개 「語錄解」 등을 전사 및 번역한(만주어 문장만 일본어로 번역함) 竹越 孝(2007)가 대표적이고, 해설과 관련하여서는 Von der Gabelentz, H.C(1837, 1840), Wylie, A.(1885) Hoffmann, G.(1883) 등이 있고 최근에는 『重刻淸文虛字指南編』을 해독한 張華克(2006)을 들 수 있다.

滿洲語文學 자료의 현황 및 그 연구와 활용

서를 바탕으로 소장현황에 대해서 기술하고자 한다.²⁾ 단, 국내에 소장되어 있는 淸朝의 만주어 문법서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언급된 적이 없으므로 함께 소개하기로 한다. 이것은 앞으로 청대 만주어 문법서 연구를 위한 초석의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

[1] 『淸書指南(manju bithe ji nan)』 卷3: 『飜淸虛字講約』

『飜淸虛字講約』³⁾은 3卷1冊으로 구성된 『淸書指南』의 권3에 해당되는 것으로서 淸朝에 처음으로 간행된 만주어 문법서이다.⁴⁾ ‘be’부터 ‘esi’에 이르기까지 총67개의 표제어 항목을 설정하여 해당 표제어가 시작될 때마다 圈과 함께 1字씩 올려 적고 있다.

여기서 언급되는 67개의 표제어들이 바로 虛字라 불리는 것들로서 현대 언어학적 관점에서 보면 주로 문법형태소에 대응되는 것들이다. 그러나 단순히 해당 표제어의 의미에만 초점을 맞춘 것이 아니라 예문과 함께 선후행의 공기제약에 대해서도 관찰하여 기술하고 있으므로 현대 언어학의 형태·통사론적 기술에 대응될 만한 설명이라고 할 수 있다.

虛字라는 명칭에서 알 수 있듯이 한어를 제1언어로 사용하는 사람이 이해할 수 있도록 만주어의 문법형태소를 서술하고 있는데 이러한 서술방식은 이후 문법서들에까지 계속해서 이어진다. 그러나 문법형태소를 설명하는 과정에서 同音異議語인 어휘형태소도 함께 묶어서 설명하는 등⁵⁾ 현대 언어학과 인식의 차이를 보이는 부분도 발견된다.

『飜淸虛字講約』이 실린 『淸書指南』은 『大清全書』의 말미에 부록으로 실려있는 경우와 單本으로 존재하는 경우로 나누어 볼 수 있는데, 후자의 경우는 상대적으로 매우 적다. 우리의 도서 목록을 통해 확인한 바로는 『淸書指南』만 단독으로 존재하는 것은 1종이 확인됐다.

◎『淸書指南』 單本 소장 현황

소장국가	소장처	서지사항
英國	영국도서관	청구기호: 19951.b.7 서명: 淸書指南/Manju bithe ji'nan 판본: 목판본 책권수: 3권 1책 책광: 26.2×18.0cm

『淸書指南』의 대부분은 『大清全書』의 말미에 부록으로 현전하는 경우인데, 우리가 이용한 참고문헌에서는 『淸書指南』에 대한 언급 없이 단순히 『大清全書』만을 소개하는 경우도 있으므로 이에 대해서는 추후 확인조사가 필요하다.⁶⁾ 그러나 不在가 확실한 경우는 아래의 목록에서도 제외하였다. 『淸書指南』의 소재를 확인하지 못

2) 소장현황을 기록한 참고서들은 참고문헌에 제시하였다. 이 책들의 대부분은 성백인 선생님께서 민족문화연구원 만주학센터에 기증하신 자료들 중에 포함되어 있던 것들이다. 이 자리를 빌려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 또한 여기에 제시된 책 이외에도 만주어와 관련된 도서목록을 정리한 자료들이 더 있다. 이에 대해서는 추후에 확장해서 살펴보도록 한다. 한편 참고문헌만을 바탕으로 기술을 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으므로 각 도서관의 홈페이지를 이용하기도 하였다. 해당 도서관의 홈페이지 역시 참고문헌에 제시하였다.

3) 박은용(1973:264)에서는 『飜淸虛字講約』을 『虛字解』라고 소개하고 있는데 권3의 명칭을 그렇게 소개한 이유를 확인하기 어렵다. 天理圖書館 소장본의 경우 권3 자체에는 內題 없이 본문의 내용이 바로 시작하고 있지만 권1의 앞에서 각 권의 제목을 소개하고 있고 권3에 대해서는 『飜淸虛字講約』이라고 제시하고 있으므로 이를 따르도록 한다.

4) 卷1은 「十二字頭」 및 「註義德喜烏朱」(40조의 만주어 단문)을 제시하여 만주어에 대한 일종의 음운론적인 성격을 지닌 설명을 하고 있고, 卷2는 「滿洲雜話」로서 일종의 회화집이다.

5) <淸書指南 권3:1> Obe, 虛字解即漢文將字把字, 實字解我等·雀食·餌軌. 이를 보면 실사[實字]의 의미기능(곧 1인칭 복수대명사)과 함께 소개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6) 一例로 天理圖書館 소장 『대청전서』는 2종이 있는데(각각의 청구기호는 829.44-ㄹ1과 829.44-ㄹ3) 둘 다 부록에 대한 추가적인 설명은 없다. 그러나 성백인 선생님께서 복사해오신 天理圖書館 소장 『淸書指南』이 확인되므로 둘 중 하나는 『淸書指南』이 부록으로 실려 있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다 그런 것은 아니지만 대체로 『淸書指南』이 부재된 경우는 14권

한 것까지 일단 포함하면 이들에 대한 구분은 대청전서의 간행시기를 중심으로 康熙22년(1683)⁷⁾의 초각본(京都宛羽齋刻本)과 康熙52년(1713)의 중각본(三義堂重刻本), 그리고 간년을 알 수 없는 鈔本으로 나눌 수 있다. 그러나 이 구분은 어디까지나 『大清全書』의 간년에 따른 것이므로 이 분류에 따른 『淸書指南』에서도 차이가 있는지는 앞으로 확인이 필요하다.⁸⁾

◎『大清全書』 초각본 소재 『淸書指南』의 소장 현황

-공통된 서지 사항

- 저자: 沈啓亮(弘照)
- 간행년도: 『대청전서』(康熙22년, 1683), 『청서지남』(康熙21년, 1682)
- 간행처: 京都宛羽齋刻本
- 周邊: 四周雙邊 ·경계선: 有界 ·행자수: 5행 不定字 小字雙行
- 어미: 白口 單下向黑魚尾 ·장정: 線裝

소장국가	소장처	판본 간 차이를 보이는 서지사항
中國	內蒙古社會科學院圖書館	·14권(附 3권) 14책 ·반엽광곽: 25.7 x 17.1cm
	內蒙古(自治區)圖書館	·청구기호: H 1-14 ·14권(附 3권) 14책 ·반엽광곽: 25.7 x 17.1cm
	大連市圖書館	·14권(附 3권) 14책 ·반엽광곽: 25.7 x 17.1cm
	復旦大學校圖書館 (光華樓古籍書庫)	·청구기호: 001124676(4212) ·14권(附 3권) 14책 ·반엽광곽: 25.7 x 17.1cm
	中國國家圖書館	·14권(附 3권) 14책 ·序文 鈔本
	遼寧省圖書館	·청구기호: 30216 ·14권(附 3권) 14책 ·반엽광곽: 26 x 17.3cm
日本	天理圖書館	·청구기호: 829.44- 夕65 ·淸書指南 未確認 ·3질14책14권 ·30.4 x 19.5cm
		·淸書指南 未確認
英國	런던대 SOAS도서관	·청구기호: RM CK494.15 /82061 ·14권(附 3권) 20책 ·반엽광곽: 26 x 17.3cm (附26.3 x 18.3cm)
美國	美國議會圖書館	·간행년도: 康熙21(1682) ⁹⁾ ·반엽광곽: 25.7 x 17.2cm

14책 내지 13권 13책의 책권수를 가지는 반면에 『청서지남』이 부록으로 있는 경우는 3권1책의 이것까지 포함해서 17권 15책으로 기입된 경우가 많으므로 2질 15책인 청구기호 '829.44- 夕3'에 『청서지남』이 있을 가능성이 높다.

- 7) 한편 일부 『대청전서』는 간년을 康熙21년(1682)으로 기입해 놓은 경우도 있었다(미국의회도서관본). 이는 말미에 부록으로 실린 『청서지남』의 간행년도를 『대청전서』의 간행년도로 착각하고 기술한 단순한 오기이다.
- 8) 박은용(1973)에서는 『청서지남』이 康熙10년(1671)에 간행되었다는 기술이 있으나, 우리의 목록에서는 그러한 것을 발견하지 못하였고, 심지어 단행본으로 존재하는 희귀본인 영국도서관본 역시 康熙21년(1682)을 간년으로 하고 있다는 점에서 再考의 여지가 있다.
- 9) 간행년도의 오기에 대해선 각주12 참조.

滿洲語文學 자료의 현황 및 그 연구와 활용

◎『大清全書』 중각본 소재 『淸書指南』의 소장 현황

-공통된 서지 사항

·간행년도: 『대청전서』(康熙52년, 1713), 『청서지남』(康熙21년, 1682)

·간행처: 三義堂重刻本

·그 밖에 사항은 초각본과 같음

소장국가	소장처	판본 간 차이를 보이는 서지사항
中國	大連市圖書館	·14권(附 3권) 15책 ·25 x 16cm
	中國國家圖書館	·14권(附 3권) 15책 ·25 x 16cm
	中央民族學院圖書館	·14권(附 3권) 15책 ·25 x 16cm
日本	天理圖書館	·청구기호: 829.44- ㄹ3 ·2질15책 ·29.6 x 18.4cm

끝으로 『청서지남』이 함책되었는지 파악되지 않은 淸鈔本 『大清全書』 1종이 遼寧省圖書館에 있다. 13책14권으로 한 권이 결권되어 있으며 반엽광곽은 25.4 x 12.2cm이다. 국내에 소장된 『청서지남』은 아직 확인되지 않았다.

[2] 『淸文備考(manju gisun i yongkiyame toktobuha bithe)』 권1: 「虛字講約(de be i hergen be guyangnara oynggo)」

『淸文備考』는 일종의 어휘집으로, 소장처에 따라 책권수의 차이는 있으나 대체로 12권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 중 권1은 다시 「虛字講約」, 「形容語」, 「相連語」로 구성되어 있고, 「虛字講約」이 만주어 문법서의 성격을 띠고 있다.¹⁰⁾

「虛字講約」은 박은용(1973)에 따르면 「翻淸虛字講約」에서 수정을 가한 것이라고 하므로 어떠한 변개가 이루어졌는지 확인이 필요하다.¹¹⁾ 우리의 목록에서는 판본의 종류에 따라 木版本과 鈔本으로 구별해 볼 수 있다.

◎목판본 『淸文備考』의 소장 현황

-공통된 서지 사항

·편찬자: 載毅(子式) ·간행년도: 康熙61년(1722)

소장국가	소장처	판본 간 차이를 보이는 서지사항
中國	內蒙古(自治區)圖書館	·청구기호: H2589-2608 ·13卷11冊(缺卷一) ·반엽광곽: 23.5×16.5cm
	大連市圖書館	·12冊 ·반엽광곽: 23.5×16.5cm
	中央民族大學圖書館	·10冊 ·반엽광곽: 23.5×16.5cm
日本	天理圖書館	·청구기호: 829.44- ㄹ1 ·2帙12冊 ·32.2×20cm
美國	美國議會圖書館	·2帙12冊 ·29.5×18.5cm

10) 이 책의 앞에는 李鑑이 쓴 '淸文備考序'와 '自序'가 있다. 그 밖에 권2는 '吏·戶·禮 三部成語'로, 권3은 '兵·刑·工 三部成語'로, 권4부터 권12는 '淸文鑑總綱'으로 구성된 어휘집이다.

11) 竹越 孝(2007)에서는 『淸書指南』 권3의 「翻淸虛字講約」과 『淸文備考』 권1의 「虛字講約」의 내용이 동일하다고 하였다.

◎鈔本 『清文備考』의 소장 현황

- 鈔本인 관계로 간행년도는 모두 미상이다.
- 이중 1책으로 구성된 경우와 不分卷은 「虛字講約」이 수록되어 있는지 확인이 필요하다.

소장국가	소장처	판본 간 차이를 보이는 서지사항
中國	遼寧省圖書館	·청구기호: 50298 ·12卷6冊(缺卷一) ·반엽광곽: 24.5×17cm
	中國國家圖書館	·1冊 ·1函6冊不分卷
	中央民族大學圖書館	·1冊

끝으로 국내에 소장된 『清文備考』 역시 아직은 확인되지 않는다.

[3] 清文啓蒙(cing wen ki meng bithe) 권3: 「清文助語虛字(Manju bithei gisun de aisilara mudan i hergen)」

청대 만주어 문법서로 잘 알려진 『(滿漢字)清文啓蒙』¹²⁾ 권3¹³⁾에 수록된 「清文助語虛字」는 ‘de’에서 ‘je, jo’에 이르기까지 99개의 항목을 예문과 함께 설명하고, 그 이후는 일상어 152종에 대해 한어로 그 뜻을 풀고 있다. 「飜清虛字講約」보다 항목의 수와 용례가 더 풍부해졌고 예문 내에 해당 표제어가 출현할 때 그 옆에 한어를 병기하여 좀 더 독자의 편의를 도모하고 있다. 특히 「飜清虛字講約」과 함께 『同文類解』 소재 「語錄解」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끼쳤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목록을 통해서 확인한 『청문개몽』 중 권3이 수록된 책들만을 살펴보기로 한다. 간행년도는 대부분 雍正8년(1730)으로 기재되어 있고, 1종이 咸豐6년(1856, 品經堂刻本)으로 기입되어 있다. 그러므로 간행년도에 따라 분류하기보다는 간행처에 따라 분류를 하는 것이 좋다. 간행처는 三槐堂本이 가장 많이 존재하고 다음으로는 宏門閣本이며, 그 밖에 三益堂本, 文瑩堂本, 永魁齋本, 老二西堂本, 墨華堂本, 品經堂刻本 등이 존재한다.

◎三槐堂本 『清文啓蒙』

-공통된 서지 사항

- 저자: 舞格 著述 ; 程明遠(清) 校梓
- 간행년도: 雍正8년(1730)[序文에 따른 것임]
- 周邊: 四周雙邊 ·경계선: 無界 ·행자수: 6행 不定字
- 내제: 滿漢字清文啓蒙 ·권3의 분량: 61엽

소장국가	소장처	판본 간 차이를 보이는 서지사항
中國	古宮博物院圖書館	·4卷 4冊 1函
	中國國家圖書館 (古籍館普通古籍閱覽室)	·청구기호: m18 ·4卷 4冊 1函
	遼寧省圖書館	·청구기호: 50238-50240 30198 3199 ·4卷 4冊

12) 동일한 내용임에도 불구하고 表紙題에 따라 『清文啓蒙』으로 등록되어있는 경우와 『滿漢字清文啓蒙』으로 등록되어 있는 경우가 존재한다. 간혹 도서관에 따라 홈페이지에서 둘 중 다른 제목을 입력할 경우 검색이 안 되는 경우도 있으므로 검색 시 주의할 필요가 있다.

13) 『清文啓蒙』 각 권에 수록된 내용은 다음과 같다.

권1: 滿洲十二字頭單字聯字之南·切韻清字·滿洲外單字·滿洲外聯字·清字切韻法·異施清字·清書運筆先後
권2: 兼漢滿洲套話 권3: 清文助語虛字 권4: 清字辨似·清語解似

滿洲語文學 자료의 현황 및 그 연구와 활용

		·반엽광곽: 21.1 x 14.7cm ·청구기호: 30197 ·4卷 4冊 ·반엽광곽: 21.7 x 15cm
日本	天理圖書館	·청구기호: 829.44-31 ·4卷 4冊 1函 ·반엽광곽: 25.6×15.4cm ·청구기호: 829.44-81 ·4卷 4冊 1函 ·반엽광곽: 26.6×15.4cm
英國	英國圖書館	·청구기호: 19951.b.9 ·4卷 4冊 1函 ·반엽광곽: 21×13.5cm ·청구기호: 19951.b.10 ·4卷 4冊 ·반엽광곽: 21.1×13.9cm ·청구기호: 19951.b.11 ·4卷 4冊 1函 ·반엽광곽: 21×13.5cm

◎宏門閣本 『淸文啓蒙』

-간행처를 제외하고 본문의 형식은 三槐堂刻本과 같다.

소장국가	소장처	판본 간 차이를 보이는 서지사항
中國	中國國家圖書館 (古籍館普通古籍閱覽室)	·청구기호: m19 ·4卷 4冊 1函
	遼寧省圖書館	·청구기호: 50237 ·4卷 8冊 ·반엽광곽: 19.9 x 13.2cm
英國	英國圖書館	·청구기호: 19951.b.8 ·4卷 4冊 ·반엽광곽: 20×13.5cm

◎기타 『淸文啓蒙』

-간행처를 제외하고 본문의 형식은 앞의 三槐堂刻本과 같다.

간행처	소장국가	소장처	판본 간 차이를 보이는 서지사항
三益堂刻本	英國	英國圖書館	·청구기호: 19951.b.12. ·4卷 7冊(缺卷一) ·반엽광곽: 20.8×14.4cm
			·청구기호: 19951.b.13. ·零本2책(권1, 권3) ·반엽광곽: 21.1×14.8cm
永魁齊刻本	英國	런던大 SOAS圖 書館	·청구기호: 829.44-31 ·4卷 4冊 1函 ·반엽광곽: 25.6×15.4cm
文宝堂刻本	美國	美國議會圖書館	·청구기호: 19951.b.9 ·4卷 4冊 1函 ·반엽광곽: 21×13.5cm
老二西堂刻 本	美國	美國議會圖書館	·청구기호: 19951.b.10 ·4卷 4冊 ·반엽광곽: 21.1×13.9cm
墨華堂刻本	日本	天理圖書館	·청구기호: 19951.b.11 ·4卷 4冊 1函 ·반엽광곽: 21×13.5cm

끝으로 『淸文啓蒙』의 경우는 국내에도 권3을 포함한 책이 6종 존재하므로 소개를 할 필요가 있다.¹⁴⁾ 공통되는 서지사항은 앞의 소개와 같다.

◎韓國 所藏 『淸文啓蒙』

소장 국가	소장처	관본 간 차이를 보이는 서지사항
韓國	高麗大學校圖書館	·청구기호: 만송 C11 B6 1-4 ·宏文閣刻本 ·4卷 4冊 1函 ·반엽광곽: 19.7×13.4 cm ·四針案幀法 ·高麗大學校藏書 印 ·晚松金完燮文庫 印 ·권3은 보존 상태가 매우 양호하나 권2는 좀 먹어서 상태가 좋지 못하고, 권4는 난상부분이 조금 좀 먹음. ·도서관 정보의 '無正8年'은 '雍正8年'의 오기임.
	國立中央圖書館	·청구기호: 古329-22 ·간행처 미상 목판본 ·3권1책(缺卷四) ·20×13.2cm ·五針案幀法 ·國立圖書館藏書 印 ·권3의 경우 54엽 이후 낙장임. ·일본인 학자가 朱筆로 만주어 옆에 カタカナ주음, 대역한자, 로마자 전사 등을 필기한 흔적이 있음.
		·청구기호: 古329-24 ·간행처 미상 목판본 ·零本 2冊(卷3,4) ·반엽광곽: 21×14cm ·국립중앙도서관장서인 ·권3의 경우 61엽 낙장임. ·각각의 표제어 위에 번호를 기입해 놓았음.
		·청구기호: 古3010-5 ·三槐堂刻本 ·3卷3冊(缺卷四) ·冊廣: 23.3×15.4cm ·대한민국국립중앙도서관서인 ·국립중앙도서관 홈페이지에서 원문 보기 제공함. ·도서관 정보의 '雅正8年'은 '雍正8年'의 오기임
	서울大學校中央圖書館	·청구기호: 古 494.1 C422g v.1-4 ·文盛堂刻本 ·4卷4冊1函 ·반엽광곽: 19.8x13.2cm ·四針案幀法 ·상태는 매우 양호하고 필사로 기입한 흔적 없음.
		·청구기호: 3900-23-1-4 ·三槐堂刻本 ·4卷 4冊 ·반엽광곽: 20.3×13.5cm ·京城大學圖書 印 ·四針案幀法 ·서울대 중앙도서관 홈페이지에서 원문보기 제공

14) 권1, 2만을 가지고 있는 零本 2책의 국립중앙도서관본(청구기호: 古329-3)까지 포함하면 국내에는 7종의 『淸문계몽』이 확인된다.

滿洲語文學 자료의 현황 및 그 연구와 활용

[4] 『三合便覽(ilan hacin i gisun kamciuha tuwara de ja obuha bithe)』 권1: 「清文指要(manju gisun i oyonggo jorin i bithe)」

『三合便覽』은 한어, 만주어, 몽고어를 함께 제시한 대역 어휘집으로 敬齋가 纂輯하고 富俊이 增補했다. 이때 富俊이 증보를 하면서 권1에 「序」, 「十二字頭」, 「清文指要」, 「蒙文指要」를 수록하였다.¹⁵⁾ 여기서 「清文指要」가 만주어 문법서의 성격을 띠는 것인데,¹⁶⁾ 앞부분(1장~7장)에서는 만주어 일상어에 대해 한어로 그 뜻을 풀고 있으며 8장부터 34장까지는 ‘de’에서 ‘bu’에 이르기까지 85항목의 虛字(sula hergen)에 대해 간단한 뜻과 예문을 제시하여 설명하고 있다. 그 뒤 35장에서 37장까지는 虛字의 공기제약에 대해 기술하고, 38장부터 41장까지는 짧은 관용구와 긴 문장을 제시해 만주어를 익히도록 하였다.

『三合便覽』 역시 많이 이용된 만큼 세계 곳곳에 다수의 판본들이 흩어져 있다. 그런데 이때 권1에서 증보된 내용이 不在되고 (사실상 권2인) 어휘집이 바로 시작되는 판본도 존재하므로 추후 판본에 따른 「清文指要」의 존재여부를 파악하고 정리하는 작업이 필요하다. 『三合便覽』의 경우 우리의 도서목록에서 이에 대한 附記를 함께 기록한 경우가 거의 없기 때문에 부득이 「清文指要」의 존재가 확인되지 않은 판본들도 함께 제시하도록 한다.

먼저 「清文指要」의 소재가 확인된 『三合便覽』은 3종이 존재한다.

◎「清文指要」가 실린 『三合便覽』의 소장 현황

-공통된 서지 사항

·편찬자: 敬齋 輯, 富俊 增補 ·周邊: 四周雙邊

·경계선: 無界 ·행자수: 8행 不定字 ·어미: 白口 上下內向混魚尾

소장국가	소장처	판본 간 차이를 보이는 서지사항
中國	遼寧省圖書館	·청구기호: 50170 50233 30144 ·乾隆57(1792) ·12冊 不分卷 ·반엽광곽: 20.5×15.4cm
	廣西桂林圖書館	·간년 미상 ·12冊
日本	天理圖書館	·청구기호: 829.44-77④ ·乾隆57(1792) ·2帙 12冊 ·반엽광곽: 20×13.5cm

이 밖에 「清書指南」의 所在가 확인되지 않은 『三合便覽』은 다수 존재하는데, 크기는 목판본과 鈔本으로 나눌 수 있고 목판본은 다시 간행년도에 따라 乾隆45年(1780), 乾隆50年(1785), 乾隆57年(1792), 끝으로 간행년도가 미기입된 판본 등으로 나눌 수 있다.¹⁷⁾

◎「清文指要」 미확인 『三合便覽』(1): 乾隆45年(1780) 판본

-공통된 서지사항은 앞의 소개와 같음

15) 권1의 각각의 분량과 순서는 다음과 같다.

「序」: 12장 「十二字頭」: 12장 「清文指要」: 41장 「蒙文指要」: 28장

16) 동일한 이름의 단행본 회화서인 「清文指要」도 존재하므로 주의가 필요하다.

17) 이러한 구분은 앞서 제시한 도서목록의 기록을 바탕으로 구분한 것이다. 하지만 이러한 구분이 자료 분류의 명확한 기준이라고 하기는 어렵다. 왜냐하면 乾隆57年(1792)본인 경우 서문은 乾隆45年(1780)으로 기록되어 있는데 기입자에 따라 서문의 간행년도만을 확인해서 기록하였을 가능성이 있고, 사실상 후쇄본이나 복각본의 경우까지도 고려해야 하기 때문이다. 세계 곳곳에 있는 만주어 문법서 문헌들에 대해 실사를 할 수 없는 현 상황에서 이러한 분류는 임시 방편적인 것임을 밝혀둔다.

소장국가	소장처	차이를 보이는 서지사항
中國	古宮博物院圖書館	·11冊
	吉林省圖書館	·12冊 ·반엽광곽: 21.2 x 15.2cm
	南京圖書館	·12冊 ·반엽광곽: 21.2 x 15.2cm
	內蒙古大學圖書館	·12冊 ·반엽광곽: 21.2 x 15.2cm
	內蒙古師範大學圖書館	·12冊 ·반엽광곽: 21.2 x 15.2cm
	內蒙古社會科學院圖書館	·12冊 ·반엽광곽: 21.2 x 15.2cm
	遼寧省圖書館	·12冊 ·반엽광곽: 21.2 x 15.2cm
	首都圖書館	·12冊 ·반엽광곽: 21.2 x 15.2cm
	齊齊哈爾市圖書館	·6冊 ·반엽광곽: 21.2 x 15.2cm
日本	天理圖書館	·청구기호: 829.44-77 ·2帙 12冊 ·冊廣: 25.8×17.5cm
		·청구기호: 829.44-77② ·4帙 12冊 12卷 ·冊廣: 26.8×17.4cm
		·청구기호: 829.44-77③ ·2帙 12冊(不分卷) ·冊廣: 24.5×17cm
美國	美國議會圖書館	·2帙 12冊 ·冊廣: 25.5×17cm
		·2帙 12冊 ·冊廣: 21.1×13.9cm
		·2帙 12冊 ·冊廣: 21×13.5cm
		·1帙 6冊(缺第2帙) ·冊廣: 28.5×17.4cm

◎『淸文指要』 미확인 『三合便覽』(2): 乾隆52年(1785) 판본

-공통된 서지 사항은 앞의 소개와 같음

소장국가	소장처	차이를 보이는 서지사항
中國	古宮博物院圖書館	·2帙 12冊(不分卷)

◎『淸文指要』 미확인 『三合便覽』(3): 乾隆57年(1790) 판본

-공통된 서지 사항은 앞의 소개와 같음

소장국가	소장처	차이를 보이는 서지사항
中國	大連市圖書館	·12冊 ·반엽광곽: 20 x 15.5cm
	遼寧省圖書館	·12冊 不分卷 ·반엽광곽: 20 x 15.5cm
	齊齊哈爾市圖書館	·12冊 ·반엽광곽: 20 x 15.5cm
		·12冊 ·雙峰閣刻本
中國科學院圖書館	·12冊 ·반엽광곽: 20 x 15.5cm	

滿洲語文學 자료의 현황 및 그 연구와 활용

	中國國家圖書館	·12冊 ·반엽광곽: 20 x 15.5cm
	中國社會科學院歷史研究所圖書館	·12冊 ·반엽광곽: 20 x 15.5cm
	中國社會科學院民族研究所圖書館	·12冊 ·반엽광곽: 20 x 15.5cm
英國	英國圖書館	·청구기호: 19951.b.1 ·2帙 12冊 ·반엽광곽: 20.6cm×15.5cm
		·청구기호: 19951.b.2 ·2帙 12冊 ·20.6cm×15.5cm
		·청구기호: 19951.b.3 ·12冊 ·반엽광곽: 20.5cm×15.6cm
		·청구기호: 19951.b.4 ·4帙 24冊 ·반엽광곽: 20.5cm×15.5cm
		·청구기호: 19951.b.5 ·零本 1帙 1冊

◎「清文指要」 미확인 『三合便覽』(4): 鈔本과 간년 미상 木版本

소장국가	소장처	차이를 보이는 서지사항
中國	內蒙古社會科學院圖書館	·鈔本 ·5冊 ·반엽광곽: 24×22.6cm
	大連市圖書館	·鈔本 ·8冊 ·반엽광곽: 20.3×23.7cm
	中國國家圖書館 ¹⁸⁾	·鈔本 ·4冊
		·鈔本 ·1冊
		·鈔本 ·1冊 ·표지제는 ‘三合便覽譯抄’이나 만주어제목은 같음.
	新疆察布查爾報社	·간년 미상 목판본 ·10冊
中國第一歷史檔案館圖書館	·간년 미상 목판본 ·11冊	
日本	天理圖書館	·청구기호: 829.44-189 ·鈔本 ·2질14책(不分卷) ·冊廣: 25x17.3cm

끝으로 국내에도 「清文指要」를 수록하고 있는 『三合便覽』 3종이 확인된다.¹⁹⁾

18) 중국국가도서관의 홈페이지에는 三合便覽이 2종 검색되는데 우리가 제시한 도서목록에서 소개한 것과 다소 차이가 있다. 우선 鈔本은 검색되지 않고 2종 모두 刻本이며, 각각 11冊본과 1冊本이다. 11冊本の 청구기호는 '154199'이고, 1冊本은 乾隆57年(1792)라는 간기를 지니고 청구기호는 'm50'이다. 둘 다 古籍館普通古籍閱覽室에 소장되어 있다고 한다.

19) 「清文指要」를 수록하지 않은 2종의 『三合便覽』까지 포함하면 국내에는 5종의 『三合便覽』이 있는 셈이다. 「清文指要」가 없는 『삼합편람』은 우리의 관심에서 벗어나나 간략하게 그 서지사항을 제시한다. 하나는 고려대도서관 한적실 소장본으로 청구기호는 '대학원C11-B2-1-3'이고 하드커버 3책으로 합책한 것이다. 1책의 말미에는 이전 소장자가 「アジア歴史事典」에서 神田信夫가 기술한 삼합편람에 대한 해설을 한국어로 정리해서 붙여놓았다. 다른 한 책은 국립중앙도서관 소장본으로 청구기호는 '古 3010-4'이고 12권 12책이다. 이 책은 국립중앙도서관 홈페이지에서 원문보기를 제공하므로 쉽게 이용이 가능하다.

◎『淸書指南』이 수록된 韓國 所藏 『三合便覽』

소장국가	소장처	판본 간 차이를 보이는 서지사항
韓國	國立中央圖書館	·청구기호: 古朝49-4 ·간행처 미상 목판본 ·12卷 12冊 不分卷 ·冊廣: 29.6×17.3cm ·朝鮮總督府圖書 印 ·국립중앙도서관 홈페이지에서 원문보기 제공(단, 일반적인 한학서로 잘못 알고 제시순서가 우철 로 제공되므로 주의)
	서울大學校 中央圖書館	·청구기호: 3903-5-1 ·간행처 미상 석판본 ·12卷 12冊 ·책광: 25.8×17.3 ·반엽광곽: 19.2x14.1cm ·四針案幀法 ·『淸문지요』의 11장이 중복 인쇄되어서 12장이 누락됨. ·상태는 매우 양호하고 필사로 기입한 흔적 없음.
	서울大學校 奎章閣韓國學研究員	·청구기호: 奎中4507-v.1-12(M/F95-16-66) ·간행년도: 乾隆壬子年(1792) ·本宅藏版 ·12卷 12冊 ·冊廣: 27.6×17.8cm

[5] 淸文接字(cing wen jiye dz bithe)

長白 完顏 樸山 崇實이 그 부친인 嵩洛峯이 쓴 것을 출간한 것으로 만주어 虛字에 대한 단행본의 효시로 알려져 있다(박은용:1973 참조). 虛字라는 말 대신 接字라는 용어를 쓴 것은 만주어의 교착어적인 성격을 의식한 것으로 생각된다.

그러한 의식을 엿볼 수 있는 것으로 이전의 만주어 문법서와는 다른 방식으로 표제어를 제시하기도 하였다는 점을 들 수 있다. 예컨대 자주 쓰는 동사인 hūla-[念]와 baitala-[用]를 바탕으로 접자가 결합한 활용형 자체를 표제어로 제시하고 있다(念hūlambi, 念了hūlafi, 若是念hūlaci, 請念hūlaci 등). 그리고 각각의 표제어에 대한 뜻풀이는 소략하게 제시하고 그 표제어가 함께 올 수 있는 단어와의 공기관계 내지 함께 올 수 없는 단어와의 결합제약에 대한 설명에 주로 비중을 두고 있다는 점에서 만주어 통사론에 대한 의식이 한층 높아졌음을 알 수 있다.

『淸文接字』의 이본은 간행년도에 따라 聚珍堂刻本(同治5年, 1866)과 聚珍堂重刻本(同治6年, 1867), 그리고 三槐堂刻本(光緒14年, 1888)으로 크게 세 계통으로 분류해 볼 수 있다.

◎『淸文接字』聚珍堂刻本(1866)

-공통된 서지 사항

- 저자: 嵩洛峯 ·권책수: 1冊 不分卷
- 周邊: 四周雙邊 ·어미: 單下向黑魚尾 ·행자수: 5행 不定字

소장국가	소장처	차이를 보이는 서지사항
中國	吉林師範大學圖書館	·聚珍堂刻本을 참조한 鈔本임.
	大連市圖書館	·반엽광곽: 18.3 x 14cm
	首都圖書館	·반엽광곽: 18.3 x 14cm
	遼寧省圖書館	·반엽광곽: 18.5 x 13.5cm
	中國國家圖書館	·반엽광곽: 18.3 x 14cm
英國	中央民族大學圖書館	·청구기호: 50212 50213 ·반엽광곽: 18.5 x 13.5cm
	런던大 SOAS圖書館	·청구기호: SOAS II.1. Man.80.

滿洲語文學 자료의 현황 및 그 연구와 활용

		·반엽광곽: 18.8×14.1cm
美國	美國議會圖書館	·반엽광곽: 24.2 x 16cm
		·반엽광곽: 24.2 x 16cm

◎『清文接字』聚珍堂重刻本(1867)

소장국가	소장처	차이를 보이는 서지사항
中國	內蒙古師範大學圖書館	추가 정보 없음
	大連市圖書館	추가 정보 없음
日本	天理圖書館	·청구기호: 829.44-5 ·반엽광곽: 24.2×16cm

◎『清文接字』三槐堂刻本(1888)

소장국가	소장처	차이를 보이는 서지사항
中國	遼寧省圖書館	·청구기호: 30200 ·반엽광곽: 18.2×14.3cm
	中國國家圖書館	·冊廣: 24.2×16.4cm
	中國第一歷史檔案館圖書館	·冊廣: 24.2×16.4cm
日本	天理圖書館	·청구기호: 829.44-5② ·冊廣: 26.5×15.8cm

끝으로 국내에도 『清文接字』 1종이 존재한다.

◎韓國 소장 『清文接字』

소장국가	소장처	차이를 보이는 서지사항
韓國	國立中央圖書館	·청구기호: 古329-5 ·聚珍堂刻本 ·同治5年(1866) ·일본인 학자가 朱筆로 만주어 옆이나 난상에 カタカナ 주음, 대역한자, 로마자 전사 등을 필기한 흔적이 있음.

[6] 『清文虛字指南編(manju gisun i untuh'un i temgetu jorin bithe)』과 『重刻清文虛字指南編(dasame foloho manju gisun i untuh'un i temgetu jorin bithe)』

『清文虛字指南編』은 萬福이 저술하였고 이를 鳳山이 교정한 것이 『重刻清文虛字指南編』이다. 『重刻清文虛字指南編』은 315개의 표제어를 바탕으로 제시하였던 『清文虛字指南編』에 대해 크게 세 가지 방면에서 수정을 가하였다. 첫째는 해설에서 한자의 자형을 잘못 적은 것을 고쳤고(예: 亥→豕), 둘째는 뜻이 분명하지 않았던 것을 밝혔으며, 셋째로 상세하지 않은 설명을 보충하였다. 또한 구성에 있어서도 차이를 보이는데 다음과 같이 두 항목이 제거되고 새롭게 세 가지 항목이 추가되었다.

『清文虛字指南編』	『重刻清文虛字指南編』
1. 長白覺爾察熙壹春序	1. 厚田萬福 序(heo tian wanfu i šuntucin)
2. 厚田萬福 序	2. 漢軍劉鳳山 序(ujen coohai gūsai lio fungšan i šutucin)
3. 本文	3. 發明
4. 跋文	4. 目錄(hacin meyen)
5. 厚田萬福 跋	5. 本文
	6. 跋文

『重刻清文虛字指南編』은 淸朝 만주어 문법서의 완성판이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체계를 갖추고 있다. 현대 중국에서 간행된 만주어 문법서들이 이 책을 바탕으로 예문이나 설명을 인용하고 있는 것이 단적인 예이다(王敌非:2009 참조).²⁰⁾

『清文虛字指南編』은 光緒11年(1885) 판본이 있고, 『重刻清文虛字指南編』은 다시 光緒20年(1894) 판본과 宣統1年(1909) 판본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重刻清文虛字指南編』의 경우, 宣統1年本은 中國邊疆歷史語文學會에서 영인본을 간행한 바 있고, 光緒20年本 와세다대 도서관 홈페이지에서 원문보기를 제공하고 있기 때문에 쉽게 확인이 가능한데,²¹⁾ 『清文虛字指南編』의 경우는 별도의 영인본이 간행되지 않았고 우리의 목록에서도 중국 내의 몇 군데에만 소장하고 있기 때문에 비교 연구를 위해서라도 앞으로 조사가 필요하다.

◎『清文虛字指南編』(光緒11年(1885))

-공통된 서지 사항

- 저자: 厚田萬福 ·주변: 四周雙邊 ·경계선: 無界 ·행자수: 10행 不定字
- 표지제: 清文虛字指南編 ·어미: 白口 單下向黑魚尾

소장국가	소장처	차이를 보이는 서지사항
中國	遼寧省圖書館	·청구기호: 50254 ·1권 2책 ·반엽광곽: 25×15.5cm
	中國國家圖書館	·1函 2冊 2卷 ·2卷 2冊 ·반엽광곽: 27.5×15.5cm
	中國社會科學院民族研究所圖書館	·2卷 2冊 ·반엽광곽: 27.5×15.5cm
	中央民族大學圖書館	·2卷 2冊 ·반엽광곽: 27.5×15.5cm

◎『重刻清文虛字指南編』(光緒20年(1894))²²⁾

-공통된 서지 사항

- 편저자: 厚田萬福 著 漢軍劉鳳山 訂 간행처: 聚珍堂刻本
- 주변: 四周雙邊 ·경계선: 無界 ·표지제: 重刻清文虛字指南編
- 어미: 白口 單下向黑魚尾 ·책권수: 2卷 2冊

소장국가	소장처	
中國 (17곳)	古宮博物院圖書館, 吉林省圖書館, 內蒙古大學圖書館, 內蒙古師範大學圖書館, 內蒙古(自治區)圖書館, 大連市圖書館, 北京大學圖書館, 首都圖書館, 新疆大學圖書館, 遼寧省圖書館(30178 30179), 張家口市圖書館, 長春市人民圖書館, 齊齊哈爾市圖書館, 中國科學院圖書館, 中國國家圖書館(154640), 中國歷史博物館圖書館, 中央民族大學圖書館	
英國	런던大 SOAS圖書館	·청구기호: SOAS II.1.Man.77. ·반엽광곽: 19.4×14.7cm
	英國圖書館	·청구기호: 19951.c.36 ·반엽광곽: 19.3cm×14.7cm
美國	美國議會圖書館	·반엽광곽: 24.2x16cm
日本	天理圖書館	·청구기호: 829.44-89② ·반엽광곽: 26.8cm×16.6cm

20) 王敌非(2009)에는 그 밖에 『清文虛字指南編』과 『重刻清文虛字指南編』의 차이점을 상세히 밝히고 『重刻清文虛字指南編』을 현대 언어학적인 입장에서 파악하려고 하므로 참고가 된다.

21) 영인본을 볼 수 있는 주소는 아래와 같다: http://archive.wul.waseda.ac.jp/kosho/ho05/ho05_00793/

22) 이 판본은 많은 이본들이 존재하는데, 특히 중국에 많이 있고 판본상의 차이는 발견되지 않으므로 중국의 경우 소장처만을 묶어서(괄호는 청구기호) 제시한다.

滿洲語文學 자료의 현황 및 그 연구와 활용

		·청구기호: 829.44-89③ ·반엽광곽: 26.8cm×16.6cm
		·청구기호: 829.44-89④ ·반엽광곽: 26.8cm×16.6cm

◎『重刻清文虛字指南編』(宣統1年(1909))

- ‘光緒20年本’과 간행처만 제외하고 동일.
- 간행처: 鏡古堂刻本
- 소장처: 中國社會科學院民族研究所圖書館

끝으로 국내에도 『重刻清文虛字指南編』 1종 확인된다. 국립중앙도서관 소장으로 청구기호는 ‘古329-6’이고 그 밖에 특이한 사항은 없다.

[7] 『字法舉一歌(zi fa gioi i i bithe)』

『清文字法舉一歌』 혹은 『滿漢合璧字法舉一歌』라고도 한다. 金州 隆泰 沃田徐氏(=徐隆泰)에 의해 편찬되었고, 그 문인 蒙古 壽榮 耀庭이 較正, 長白 承蔭 佩先이 較刊하였다. 清朝의 만주어 문법서로는 최종에 이루어진 것답게 기존의 장점들을 응용하였다. 우선 목차를 앞부분에 제시하여 여기서 다루고 있는 표제항을 한눈에 확인할 수 있도록 하고, 관심마다 해당 표제어항목을 기입하였다. 총76개의 항목 중에서 48항까지는 기존의 방식을 고수하여 만주어 표제어를 제시하였고, 50항과 51항은 插腰字라고 하여 파생접사에 대한 개념을 분명히 인식하고 있었음을 볼 수 있다. 이후 항목에서는 만주어를 표제어로 제시하는 것이 아니라 일종의 통사론적인 규칙 그리고 번역과 관련된 설명 등을 풀이하고 있다. 풀이와 관련하여서 해당 표제어의 핵심적인 설명은 암기하기 편하도록 5자 내지 7자의 한시체를 모방했고, 예문은 허자에 대응되는 부분만 한역하는 것이 아니라 만문 전체를 한역하여 제시하고 있다.

『字法舉一歌』의 간행년도는 光緒11년(1885)이고 간행처는 文寶堂刻本으로 이본들이 모두 일치한다. 周邊은 四周雙邊에 無界이고 행자수는 6행 不定字 小字雙行이며, 어미는 單下向黑魚尾이다. 차이가 나는 점만을 중심으로 소장현황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소장국가	소장처	차이를 보이는 서지사항
中國	古宮博物院圖書館	·零本 1책 上卷
	內蒙古師範大學圖書館	·2冊
	大連市圖書館	·2冊
	首都圖書館	·2冊
	遼寧省圖書館	·청구기호: 30162
	張家口市圖書館	·2冊
	中國國家圖書館	1函 2冊 不分卷
	中國社會科學院民族研究所圖書館	·2冊
日本	天理圖書館	·청구기호: 829.44-23 ·1帙 1冊
英國	런던대 SOAS圖書館	·청구기호: SOASII.1.Man.75 ·4冊 1합 ·반엽광곽: 19.7×13.6cm
美國	美國議會圖書館	·2冊 ·반엽광곽: 19.7×13.6cm

[8] 朝鮮朝의 문법서: 『同文類解』의 ‘語錄解’

漢朝滿 어휘집 『同文類解』(1748)에 부재된 ‘語錄解’는 49개의 항목으로 나누어 만주어의 문법적 요소들에 대해 설명해 놓았다는 점에서 역시 문법서의 성격을 지니고 있다. 이는 주로 청조에 간행되었던 여러 문법

서들을 참조해 그 내용을 정리한 것인데,²³⁾ ‘虛字’를 중심으로 만주어의 문법적 특성을 설명해 놓고, 그에 대응되는 당시의 근대국어어를 병기해 놓았다는 특징이 있다. 이번엔 확인한 이본은 3종으로 서울대 규장각에 2종이 있고, 미국 의회도서관에 1종이 있다.²⁴⁾

2) 근대적 문법서

만주어의 문법서는 서구 언어학의 영향으로 인해 그 체제나 기술방식이 새롭게 바뀌게 된다. 그러나 지금까지의 연구에서는 전통적인 문법서와 근대적인 문법서의 상관관계를 살펴보려는 연구는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여기에서는 그러한 관계를 파악하기 위한 기초 작업으로서 서구 언어학의 영향 아래서 쓰인 만주어 문법서들의 목록을 제시하고자 한다.²⁵⁾

[유럽·미국]

- Amiot, J.J.M.(1788), 『Grammaire tartare-manchou(A Tartar-Manchu Grammar)』, Mémoires concernant les Chinois, X III, Paris, 39-73.
 De la Gabelentz, H.C.(1832), 『Elémens de la grammaire mandchoue』, Atlenbourg.
 Kaulen, F.(1856), 『Linguae mandshuricae institutiones(The Rules of the Manchu Language)』, Ratisbonae.
 Adam, Lucien(1873), 『Grammaire de la langue mandchoue』, Paris : Maisonneuve et cie.
 De Harlez, Ch.(1884), 『Manuel de la langue mandchoue(A Handbook of the Manchu Language)』, Paris.
 Harlez, Charles de(1884), 『Manuel de la langue mandchoue : grammaire, anthologie & lexique』, Paris : Maisonneuve et Ch. Leclerc.
 De Harlez, Ch.(1885), 『Grammaire mandchoue(A Manchu Grammar)』, Alencon.
 Wylie, A.(1885), 『Manchu-Tartar Grammar, with the Russian Treaty of Peace in 1727』, Shanghai.
 Von Möllendorff, P.G.(1892), 『A Manchu Grammar with Analysed Texts』, Shanghai.
 Von Erich Haenisch(1961). 『Mandschu-Grammatik(A Manchu Grammar)』. Leipzig.
 Norman, J(1965), 『A Grammatical Sketch of Manchu』, Phi Theta Annual. Papers of the Oriental Languages Honor Society, University of California, Berkeley, IX, 1-43.
 Budenz, J.(1977), 『A mandsu nyelv alakana(A Manch Grammar)』, Körösi Csoma társaság, Budapest.

[러시아]

- Orlov, A(1873), 『Grammatika man'čžurskogo jazyka(A Grammar of the Manchu Language)』, Sanktpeterburg.
 Zacharov, I(1879), 『Grammatika man'čžurskogo jazyka(A Grammar of the Manchu Language)』, Sanktpeterburg.
 Šmidt, P.(1907-1908), 『Učebnik man'čžurskogo jazyka v trech častjach(A Manual of the Manchu Language, in Three Parts)』, Izvestija Vostočnogo Instituta, X VIII, vypusk 1-2, Vladivostok.
 Peeters, H.(1940), 『Manjurische Grammatik(A Manchu Grammar)』, Monumenta Serica 5, 349-417.
 Paškov, B.K.(1947), 『Materialy dlja grammatiki man'čžurskogo literaturnogo jazyka(Material for a Grammar of Literary Manchu)』, Moskva-Leningrad.
 Pashkov, B.K.(1963), 『The Manchu Language[Б. К. ПАШКОВ. МАНЬЧЖУРСКИЙ ЯЗЫК]』, Izdatel'stvo Vostochno Literaturny. Moskva.
 Avrorin, B.A(2000), 『Manchu Grammar(Г р а м м а т и к а м а н ь ч ж у р с к о г о п и с ь м е н н о г о я з ы к а)』, Hayka.
 Liliya M. Gorelova(2002), 『Manchu Grammar』, Leiden Boston Brill.

[일본]

- 渡邊薰太郎(1926), 『滿洲語文典(訂正版)』, 大阪東洋學會.
 小島武男(1937), 『滿洲語文典』, Yamato bunka, 9-10.²⁶⁾

23) 이에 대해서는 박은용(1970)에서 언급이 있었고 박은용(1973:265-282)에서는 매우 구체적으로 내용의 영향 관계를 밝혀 놓았다.

24) 규장각본 중 청구기호가 494.1-H996d인 것은 해당 홈페이지에서 원문보기를 제공하고 있고, 미국의회도서관본 역시 2006년 국립중앙도서관에서 조사하여 홈페이지에서 원문보기를 제공하고 있다.

25) 주로 Giovanni Stary(1990:596)를 참조하되, 회화서의 성격을 띠는 것과 清朝 문법서의 번역에 기반한 것은 제외하고 여기에 소개되지 않은 것을 추가로 포함시켰다.

26) 小島武男는 주로 몽고어학에 관심을 두고 연구를 했고 『蒙古語文典』이 1938년도에 나왔다는 점에서 『滿洲語文典』을 1937년에 간행했다는 것은 Stary(1990)의 착오일 가능성이 있다. 필자가 조사한 바로는 『滿洲語文典』이라는 제목

滿洲語文學 자료의 현황 및 그 연구와 활용

山本謙吾(1959), 『滿洲語問語形態論』, 『世界言語概說』下卷, 489-506.
津曲敏郎(2001), 『滿洲語入門20講』, 大學書林.
河內良弘, 清瀨義三郎則府 編著(愛新覺羅烏拉熙春 助編)(2002). 滿洲語文語入門. 京都大學學術出版會.

[한국]

박은용(1969, 1973), 『滿洲語文語研究』 1-2. 형설출판사.
최학근(1980), 『滿洲語의 文法』, 『알타이 語學論考: 文獻과 文法』, 현문사, 193-324.
Eung-Jin Baek(2013), 『A colloquial Manchu grammar』, Hallym University Press.

[중국]

愛新覺羅·烏拉熙春(1985), 『滿語語法』, 內蒙古人民出版社.
劉厚生(1982), 『滿語語法』, 長春: 東北師範大學明清研究室.
季永海·劉景憲·屈六生(1986), 『滿語語法』, 民族出版社.
劉景憲·趙阿平·趙金純(1997), 『滿語研究通論』, 黑龍江朝鮮民族出版社.
修永功(2002), 『簡明滿文文法』, 沈陽: 遼寧民族出版社.

[몽골]

Dendeb, L.(1961), 『Manž chelnij surach bičig/Manju gisun de tacire bithe(A Grammar of the Manchu Language)』, Ulaanbaatar.

3. 만주어 문법서의 체제와 변천

2장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만주어의 문법을 기술한 책들은 清代로부터 시작해 18세기 이후에는 서구의 여러 나라들에서 간행된 사실을 알 수 있다. 이 장에서는 이들 문법서들을 청대의 전통적인 문법 기술 방식을 따른 ‘전통적 문법서’와 서구의 근대적인 문법 기술 방식을 따른 ‘근대적 문법서’로 나누어 그 체제가 어떻게 변화되어 왔는지를 살펴보고자 한다. 자료의 입수 상황이나 지면의 한정성 등으로 인해 2장에서 언급되었던 모든 문법서들을 빠짐없이 다루지는 못하였다. 독자들의 양해를 바란다.

1) 전통적 문법서의 체제

다음의 설명은 청대에 간행되었던 전통적 문법서들이 지닌 특성을 잘 이해할 수 있도록 해 준다.

清朝時代의 滿洲文法書라고 할 수 있는 淸書指南의 翻譯虛字講約, 淸文備考의 虛字講約, 淸文啓蒙의 淸文助語虛字, 三合便覽의 淸文指要, 淸文接字, 淸文虛字指南編, 字法學一歌等書에서도 나타나고 있는데, 前者 卽 自由形態를 「實解」라 하고, 拘束形態를 「虛字」라 하여 區分하였던 것은 實辭가 大部分인 中國語的인 觀點에서 볼 때는 至極히 當然한 分類方法이고, 또한 孤立語的인 그들로서 滿洲語를 터득하는 데는 무엇보다도 이 文法的인 關係를 나타내는 拘束形態 卽 虛字가 問題視되지 않을 수 없었을 것이다. 換言하면 添加語인 Altai諸語에 있어 그 文法을 論하는 限 文法的인 關係를 나타내기 爲하여 存在하는 拘束形態 卽 虛字(虛辭)를 外面하고는 文法的 成立이 不可能한 것이다. 그러므로 已往의 諸文法書에서도 意義의 分類에서 그 한 갈래인 拘束形態를 特設하여 後置詞(postposition) 接續詞(conjunction) 終助詞(finalpartikel)라 한 것도 이런 까닭이 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박은용 1973:25-26).

이와 같이 청대의 문법서들이 중심이 되는 전통적 문법서들은 이른바 ‘虛字’를 중심으로 만주어의 문법적 특징을 설명해 놓았다는 특성을 지닌다. 첨가어로서 문법적 요소가 발달한 만주어의 특성을 각 전통적 문법서들이 어떻게 다루고 있는지 주요 문법서들을 중심으로 그 구성 체제를 살펴보도록 하자.²⁷⁾

의 논문이나 저서를 찾지 못했다.

27) 전통적 문법서의 체제를 살피는 데 다케코시 타카시(竹越 孝) 교수가 행한 일련의 번역 작업에 크게 힘입었음을 밝히며 감사의 뜻을 전한다.

[1] 清朝의 문법서

먼저 沈啓亮의 『淸書指南』(1671) 권3에 ‘翻淸虛字講約’이라는 이름으로 만주어의 문법 요소들을 다음과 같이 약 67개로 항목화해 설명하였다.

- ① be ② de ③ i, ni ④ ra, re, ro ⑤ la, le, lo ⑥ ka, ha, ke, he, ko, ho ⑦ me ⑧ fi ⑨ pi ⑩ bi ⑪ bifi, bici, bisire ⑫ bihe ⑬ bihe bici ⑭ bihebi ⑮ ombi ⑯ mbi ⑰ o ⑱ ume ⑲ ci ⑳ se ㉑ ki ㉒ kini ㉓ bu ㉔ mbo<mbu>²⁸⁾ ㉕ so, su, cina, fu, nu ㉖ ša, še, ja, je, šo ㉗ kiya, hiya, kiye, hiye ㉘ ca, ce, du, nu, cu, ne ㉙ ungg, tuwanggi, bonggi, gonggi ㉚ manggi ㉛ ohode ㉜ jakade ㉝ na, ne, ji ㉞ reo ㉟ mbio, bio, kao, hao, keo, heo, nio ㊱ rangge, rengge, rongge, kangge, hangge, hūgge, kengge, hengge ㊲ rakū, kakū, hakū, kekū, hekū ㊳ rahū ayoo ㊴ sa ㊵ te ㊶ da ㊷ kai ㊸ ken, kan, hei, hai, hoi, pi, kon ㊹ aikabade ㊺ udu seme, udu bicibe, udu cibe ㊻ hono bade ㊼ tere anggala ㊽ tere dade ㊾ dere ㊿ dabala, gojime ① nememe ② tala, tele, tolo ③ gala, gele ④ makan<maka> ⑤ aika ⑥ aise ⑦ mene ⑧ jaci ⑨ eitereci ⑩ tetendere ⑪ ere ⑫ ainci ⑬ <eici> ⑭ <cuka, cuke> ⑮ <uttu> ⑯ tuttu ⑰ esi

이것은 만주어의 조사, 어미, 접미사 등에 해당하는 문법적 요소들이 항목별로 소개된 체제로서 다음에서 보듯이 하나의 형태를 중심으로 다양한 문법적 기능을 한자리에서 설명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다.

ᄃᆞ [be]

虛字解。即漢文將字。把字。實字解。我等。雀食。餌軌。如云。把此物如何。即云。ere jaka be. 將此人如何。即云。ere niyalma be. 如接虛語用。凡已然者。即用 ka, ha, ke, he, ko, ho 字。方可接 be 字。未然者。即用 ra, re, ro, ru 字。方可接 be 字。其 i, ni, fi, de, ci 等類字。俱不可接 be 字。若係整語。如 bayan wesihun(富貴)之類。即可直用 be 字。亦有連寫者。必用 m 字帶下。如 gisumbe, cembe之類。亦有因上一字。係 an, en, in頭者。如 imbe, mimbe, simbe, membe之類。方可用也。又有整語。如勤曰kicebe. 精細人曰serebe. 總之曰eicibe. 那箇曰yabe. 好了曰yebe. 不在此例。凡dahame之上。必用 be 字。如云。你們既到我家裡來了。suwe meni boode emgeri jihe be dahame. 凡書法。不可以 be 字。提寫一行之首。至於 de, ci, se, i, ni, kai 等字亦然。凡此等字。用於連字之頭者。名曰整字。或有用於中。或有用於尾。及單用者。方爲虛字解耳。

이와 같은 체제와 방식은 전통적 문법서의 전형이 되어 후대에 간행된 문법서들에 영향을 주었다. 戴穀의 『淸文備考』(1722) 권1에 있는 ‘虛字講約’ 또한 『淸書指南』(1671)의 ‘翻淸虛字講約’과 거의 같은 체제와 내용을 갖추고 있다.²⁹⁾

다음으로 長白 舞格 壽平이 저술한 『淸文啓蒙』(1730) 권3에는 ‘淸文助語虛字’라는 이름으로 만주어의 문법 요소들을 다음과 같이 약 99개로 항목화해 설명하고 이어서 152개의 상용 어휘와 표현을 첨부하고 있다.

- ① de_[jakade, sere jakade, ki sere jakade, ooro jakade, bisire jakade, bisirede, serede, ki serede, ohode, sehede, bihede, dade, ede, tede, aide] ② deo ③ be ④ beo ⑤ i ⑥ ni ⑦ nio ⑧ ga, go, ge ⑨ ningge. ingge ⑩ kai ⑪ me_[ome, bime, bimbime, seme, bihe seme] ⑫ ki_[oki] ⑬ ci_[bici, sehe bici, bihe bici] ⑭ deri ⑮ aikabade ⑯ aika ⑰ fi ⑱ ofi_[bifi, sefi] ⑲ pi ⑳ ka, ha, ko, ho, ke, he_[oho, bihe, bihe bihei, sehe] ㉑ kao, hao, koo, hoo, keo, heo ㉒ kangge, hangge, kongge, hongge, kengge, hengge ㉓ kanggeo, hanggeo, konggeo, honggeo, kenggeo, henggeo ㉔ bi ㉕ kabi, habi, kobi, hobi, kebi, hebi_[bihebi] ㉖ ra. re. ro_[sere] ㉗ reo. roo ㉘ rangge, rengge, rongge_[serengge] ㉙ ranggeo, renggeo, ronggeo ㉚ mbi_[ombi, seci ombi, sembi] ㉛ mbio, bio ㉜ rakū ㉝ rakūn ㉞ rakūngge ㉟ rakūnggeo ㊱ kakū, hakū, kekū, hekū ㊲ kakūn, hakūn, kekūn, hekūn ㊳ kakūngge, hakūngge, kekūngge, hekūngge ㊴ kakūnggeo, hakūnggeo, kekūnggeo, hekūnggeo ㊵ gala, gele ㊶ doigonde ㊷ onggolo ㊸ na, ne, no, ya ㊹ kini ㊺ cina ㊻ nu, so, su, fu ㊼ ju ㊽ sa, se, si, ta, te ㊾ hori, hū.ri, huri ㊿ la, le ① ta, te, to ② mudan, mari ③ dari ④ geri ⑤ tome ⑥ jiya, jiye ⑦ hai, hoi, hei ⑧ hai, tai, tei ⑨ bai ⑩ baibi ⑪ cun ⑫ hon, hū, hun ⑬ cibe ⑭ udu ⑮ gojime ⑯ eitereme ⑰ eiterecibe ⑱ tala, tele, tolo ⑲ rahū, ayoo ⑳ kan, kon, ken, si, liyan, shūn, shun ㉑ jaka, saka ㉒ ungg, bonggi, gonggi, tuwanggi ㉓ be dahame ㉔ tetendere ㉕ manggi ㉖ nakū ㉗ cuka, cuke ㉘ cukangga, cukengge ㉙ teile ㉚ ebsihe ㉛

28) 각 항목에서 < > 괄호 안의 형태는 잘못되거나 보이지 않는 것을 바르게 제시한 것으로 다케코시 타카시 교수의 견해를 반영한 것이다.

29) 이에 대해서는 竹越 孝(2005)의 설명을 참조하였다.

滿洲語文學 자료의 현황 및 그 연구와 활용

dule 82 ainci 83 aise 84 dere 85 dabala 86 wajihā 87 hono 88 bade 89 ai hendure 90 anggala 91 tere anggala 92 sere anggala 93 na, ne, no 94 ji 95 nu, du, ca, ce, co 96 bu 97 š, š, mi, ce, ja, je, jo 98 ša, še, ta, da, te, de, do, tu, la, le, lo, mi, je, ra, re, ro, niye, kiya, giya, kiye, hiya, hiye 99 je, jo 및 152개의 상용 어휘와 표현(ai~farhūdaha)

앞의 문법서들에 비해 항목들의 수가 늘어났고 각 항목에 더 많은 만주어 예문들이 제시된 점이 눈에 띈다. 이렇듯 늘어난 항목과 풍부한 예문들을 통해 『淸文啓蒙』의 ‘淸文助語虛字’는 청대의 종합적 만주어 문법서의 성격을 갖추게 되었다고 평가해 볼 수 있겠다.

이 밖에 청대에 간행된 여러 문법서들은 지금까지 살펴본 체제 및 내용과 대동소이한 모습을 보여준다. 앞으로 각 문법 항목들에 대한 면밀한 비교 연구가 필요한 상황이지만, 청대에 간행된 만주어 문법서들의 전체적인 체제와 구성이 어떠했는지는 대략적이거나 살펴볼 수 있었다.

[2] 朝鮮朝의 문법서

漢朝滿 어휘집 『同文類解』(1748)에 부재된 ‘語錄解’에는 만주어의 문법적 요소들을 다음과 같이 49개 항목으로 나누어 설명하였다.

1 be(을/써/으로) 2 de(에/게) 3 i, ni(의/씨) 4 ra, re, ro(는) 5 la, le, lo 6 ka, ha, ke, he, ko, ho 7 me(혀/혀머)
8 fi(혀고/혀여서) 9 bi 10 bihe(혀엇더니) 11 bihe bici(혀엇면) 12 bihebi(혀여실러니라) 13 ombi 14 mbi 15 o 16 ci(혀면/부터/로/에서/재) 17 se(혀-/들/니라/혀드라) 18 ki(혀고져/혀자/쇼셔) 19 kini(혀게혀라) 20 bu(혀게) 21 mbu
22 so, su, tu, nu, cina(혀라) 23 ša, še, šo, mi, ce, ja, je, jo(즈로/저기/微微) 24 ša, še, ta, da, te, de, do, tu, mi, je, niye, kiya, giya, kiye, hiya, hiye 25 ca, ce, du, nu, co 26 manggi(거든) 27 ohode(혀면) 28 jakade(根前(根底)/홀제) 29 na, ne, no, ji 30 reo, roo(혀리잇가) 31 mbio, bio 32 rangge, rengge, rongge, kangge, hangge, hūngge, kengge, hengge(거시/거슨)
33 rakū, kakū, hakū, kekū, hekū(아니/못혀다) 34 rahū, ayoo(홀까) 35 sa, se, si, ta, te(들) 36 ta, te, to(식/각각) 37 kai(혀도다) 38 kan, ken, hei, hai, hoi, pi, kon(혀재/저기) 39 udu seme, udu bicibe, udu cibe(비록 그러혀여/지라도) 40 hono bade(尙且 오히려) 41 tere anggala(혀물며) 42 dere(혀리라) 43 deri(으로서) 44 tala, tele, tolo(도록) 45 gala, gele(못혀여서) 46 cuka, cuke 47 tetendere 48 ang, eng, ing 49 i

각 항목들은 주로 만주어의 조사와 어미, 접사에 대해 설명한 것으로 그 체제와 내용을 살펴보면 대개 청대의 문법서들을 참조했음을 알 수 있다. 『同文類解』 ‘語錄解’의 경우 개별 문법 요소들에 대응하는 당시의 조선어, 즉 근대 국어의 형태들이 제시되어 있어 만주어와 조선어의 비교 언어학적 관찰을 가능하게 해준다. 이 점이 『同文類解』의 ‘語錄解’가 조선에서 간행된 만주어 문법서로서 지니는 가치라고 할 수 있다.

2) 근대적 문법서의 체제

1855년 Wylie가 『淸文啓蒙』(Tsing Wan Ki Mung)을 번역하여 上海에서 출판한 것이 있긴 하지만,³⁰⁾ 이것은 만주어의 문법을 서구 언어학의 체계에 맞춰 기술한 근대적 문법서라 보기는 어렵다. 이번 절에서는 서구 언어학의 영향 아래 러시아, 독일, 프랑스를 비롯해 현대의 일본, 한국, 중국 등에서 쓰인 만주어 문법서들의 전체적인 체제를 조망해 보고자 한다.³¹⁾

[1] 러시아의 문법서

30) Möllendorff(1892)의 서문 중 첫 부분에서 이와 같은 내용을 볼 수 있다.

There is as yet no grammar of the Manchu language in English. Wylie's translation of the Tsing Wan Ki Mung(淸文啓蒙), Shanghai, 1855, a kind of Manchu hand-book for the use of Chinese, though useful and full of interest, is by no means a grammar.

31) 러시아어, 독일어 및 현대 중국어로 된 만주어 문법서들의 목차를 각각 번역해 준 만주어 및 만주문학 자료 총서 간행팀의 최해빈, 최형원, 여채려 연구원에게 감사의 뜻을 전한다.

만주어의 문법을 서구 언어학의 체제에 맞춰 설명한 초기의 업적으로 러시아의 만주어 학자 Zakharov의 문법서 *Grammatika manczurskogo jazyka*(A Grammar of Manchu)를 들 수 있다. 1879년 상트페테르부르크에서 출판된 이 문법서는 라틴어 문법의 전통에 따라 쓰였지만, 이후에 나온 많은 만주어 문법서들에 중요한 영향을 끼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³²⁾ 이 문법서의 목차를 보이면 다음과 같다.

머리말

- a. 만주 문서의 성격
 - 만주인이 채택한 12 카테고리의 만주인 문서
 - 문서 글자의 구성 요소적 특징과 기능 형태의 추정
 - 만주의 글자와 음절의 기술표
- b. 외부 용도의 만주인 문서
- c. 구두점 표시
- d. 만주의 문자와 음절, 조음의 발음표기
- e. 억양, 악센트

1장

활용

명사 구성

형용사 구성

비교 정도

수사 구성

수사 집합어(輯合語) 표, 많은 물건 소비에 대한 계산법, 측정(測定)어, 무게 기표, 측정 단위, 동전 연대, 통용되는 계산법, 시대

분할 수사

서수의 수사

대명사 구성

성별과 수(數)의 말

격 또는 어미 변화 관련 말의 변화

변천표

동사와 그 구성

양태 또는 동사의 상

동사 변화 혹은 서법과 시간의 변화

직설서법

명령서법

형동사

부사의 분사

가정서법

양보서법

희망서법

요청법

미완성의 서법

부정형 동사

의문형 동사

만주의 동사에 대한 공통어와 특징

만주어 동사변화표

부사

후치사(전치사)

32) Alexander Vovin 교수는 2010년 Zakharov의 문법서를 재출판하며 간단한 소개의 글을 붙여 두었다. 여기서 그는 Zakharov의 생애와 그의 문법서 지닌 가치를 재조명하였다.

滿洲語文學 자료의 현황 및 그 연구와 활용

접속어
감탄사
그 외의 품사

만주어 문서 및 만주 문자에 대한 설명 후 품사를 중심으로 만주어의 문법적 특성을 기술해 놓았다. 수사 및 동사의 구성에 대해 비교적 자세히 설명하고자 했는데, 특히 서법에 대한 분류가 세부적이고 동사의 변화에 집중하고 있음이 눈에 띈다.

러시아 만주어 연구의 선구자 중 한 사람인 V.A. Avrorin이 남긴 미완의 만주어 문법서는 지난 2000년에 세상의 빛을 보게 되었다.³³⁾ 그의 문법서는 다음과 같은 체재를 지니고 있다.

서문
음운론
모음과 모음조화
자음
단어의 음절 구조
형태론적 언어 구조
명사
명사의 조어(造語)
명사의 격변화
명사의 수
명사 기능
고유 단어의 범주
관계사의 범주
수량 수사의 범주
정도 명사의 범주
의문·지시의 단어 범주
미정·일반화된 단어 범주
부정적인 단어 범주
굴절 명사
조어 명사
대명사
인칭 대명사
한정 재귀대명사
동사
동사의 기본 구성
상(相)
유형
양태, 상(狀)
동사의 품사
형동사
부동사
정동사
비유적인 언어
언어, 나눈 언어 외의 남아있는 언어

이를 통해 주로 만주어의 음운론과 형태론 관련 내용들이 다루어졌음을 볼 수 있다. Avrorin이 집필한 부분과 후에 다른 두 사람이 관여해 집필한 부분을 정확히 구분하기는 힘들지만, 명사 부분이 비교적 자세

33) Gorelova(2002)의 서문에 따르면 Avrorin이 집필하던 미완의 문법서가 20여 년간 공개되지 않은 채로 있다가 A.M. Pevnov와 M.M. Khasanova 두 사람에 의해 2000년에 출판된 사실을 알 수 있다.

히 설명된 점을 볼 때 실제로 이 부분까지가 Avrorin이 집필했던 부분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 본다.

한편, 1963년 B.K. Pashkov가 ‘만주의 언어’라는 제목으로 모스크바의 소비에트 연방 학문 아카데미에서 출판한 만주어 문법서가 있다. 그 체제를 정리해 보면 다음과 같다.

- 편집으로
- 서문
- 만주어 문자
- 음운론, 음성학
- 형태론
 - 명사
 - 형용사
 - 수사
 - 대명사
 - 동사
 - 상
 - 문법, 형태와 시제 동사
 - 형동사
 - 부동사
 - 부사
 - 후치사
 - 접속사
 - 보조사
 - 감탄사
- 문장론
 - 단어결합
 - 논리적인 문장론 표현법
 - 문장, 절
 - 단문
 - 문장 성분
 - 복합문
 - 병렬복합문
 - 종속복합문
 - 직접적 및 간접적 화법
- 부록

이 문법서의 경우 현대 언어학의 기본적인 틀에 잘 맞추어 만주어의 문법을 설명했다는 점에서 매우 현대적인 문법서라고 평가해 볼 수 있다. 특히 만주어의 문장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를 문장의 종류를 세분하여 설명한 점이 눈에 띈다. 러시아에서의 만주어 문법서가 현대화의 길을 걷게 되었음을 알 수 있는 저서라고 생각된다.

한편, 비교적 최근 출간된 문법서로서 영어로 쓰여 러시아 밖의 세계에 널리 알려진 것으로 Liliya M. Gorelova(2002)의 *Manchu Grammar*를 꼽을 수 있다. 러시아의 만주어 연구 전통이 담겨 쓰였다고 하는 이 문법서는 다음과 같이 크게 다섯 부분으로 나뉘어져 있다.

- 1장 만주어 연구 서론
 - 1. 알타이어족과 만주어
 - 2. 유형론적 관점에서 본 만주-통구스어 속의 만주어 위치
 - 3. 만주족: 간략한 역사 개관
 - 4. 만주어와 그 방언

2장 만주 문자

1. 만주어 표기의 역사
2. 만주 문자의 그래픽 구조
3. 만주 문자의 문자소와 서사 방법
4. 만주 문자의 외형
5. 구두점

3장 음운론

1. 모음과 자음
2. 모음조화
3. 만주어 단어에 나타나는 모음과 자음의 탈락
4. 강세
5. 만주어 단어의 음절 유형과 음절 구조
6. 형태음소론의 구성 요소, 단어의 형태소 구조, 어근과 접사

4장 형태론

1. 만주어의 중요한 두 특성인 언어 단위의 복합의미론과 복합기능론
2. 명사류, 서로 다른 기능과 의미를 지닌 명사 부류들
3. 수사
4. 대명사
5. 동사 형태론
6. 부사, 단어 형성 양상, 부사의 또 다른 의미 부류
7. 감탄사와 의성어
8. 통사적 단어
9. 불변화사(particles)
10. 단어의 중첩, 짝을 이룬 단어의 문법적 의미

5장 통사론

1. 예비 단계
2. 만주어 통사 관계 표현의 문법적 방법
3. 만주어 화용적 구조화의 방법
4. 단문의 통사론
5. 복문의 통사론, 접속문과 내포문

이처럼 Gorelova(2002)는 만주어의 문법과 관련해 필요한 내용들을 거의 담고 있는 종합적이고도 체계적인 문법서라고 할 수 있다. 또한 풍부한 예들을 통한 상세한 설명은 만주어의 특성들을 체계적이고도 깊이 있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해 준다. 이런 점에서 이 책은 지금까지의 만주어 문법서들 중 단연 으뜸의 자리를 차지하고 있다고 하겠다.

[2] 독일의 문법서

1892년 독일인 Möllendorff가 영어로 출판한 만주어 문법서 *A Manchu Grammar, with Analysed Texts*는 가장 유명한 초기의 문법서라고 할 수 있다. 특히 이른바 ‘뮐렌도르프식 표기법’이라 부르는 만주어의 로마자 표기법은 만주 문자로 쓰인 텍스트를 전사해야 하는 만주어 연구자들에게는 매우 중요한 길잡이가 되었다. 이 문법서의 체계를 보이면 다음과 같다.

도입(Introduction)

I. 음운론(Phonology)

1. 문자표, 발음(Alphabet Table, Pronunciation)
2. 모음조화(Harmony of Vowels)
3. 이중모음과 삼중모음(Diphthongs and Triphthongs)
4. 단어 변화와 외래어(Word-changes and Foreign Words)

II. 어원론(Etymology)

1. 명사와 형용사(Nouns and Adjectives)
2. 대명사(Pronouns)
3. 수사(Numerals)
4. 동사(Verbs)
5. 부사(Adverbs)
6. 후치사(Postpositions)
7. 접속사(Conjunctions)
8. 감탄사(Interjections)

III. 통사론(Syntax)

: 만주 문헌에 대한 번역과 분석(Manchu Texts with Translation and Analysis)

[부록] 100장(Tanggū meyen, Hundred Chapters), 접사와 용어 색인(Index of Affixes and Terms), 만주어를 다룬 유럽의 자료

전체적인 구성은 크게 세 부분으로 되어 있는데, 품사를 다룬 부분이 형태론이 아닌 어원론으로 되어 있는 것이 특이하다. 또한 통사론은 문장의 구성에 대해 이론적으로 논하기보다 실제의 만주어 문장들을 번역해 놓고 있어 실용적인 차원에서 만주어를 익힐 수 있게 해 놓은 점이 특징이다.

한편, 1961년 출판된 von Erich Haenisch의 *Mandschu-Grammatik mit Lesestücken und 23 Texttafeln*은 독일어로 쓰인 만주어 문법서이다. 그 체제는 다음과 같다.

머리말	
	문법
문자론	
문자표	
음운론	
발음	
모음조화	
모음탈락	
자음탈락	
어휘론	
형태론	
명사	
대명사	
형용사	
수사	
부사	
후치사	
어말 불변화사	
동사	
활용, 능동과 사동/수동, 동사형태, 불규칙활용	
조동사	
문장론	
연습문장	
접미사와 후치사 목록	
	텍스트 독본(전사와 독어 번역)
문헌목록	
텍스트 독본	

문자로부터 텍스트 독본에 이르기까지 만주어를 익힐 수 있는 기본적인 내용들을 차례로 담고 있음을

滿洲語文學 자료의 현황 및 그 연구와 활용

볼 수 있다. 특히 형태론에서 동사와 조동사를 분리해 설명한 것이 눈에 띄는데, 만주어에 있어서 다른 품사보다도 동사에 비중을 두고 있음이 흥미롭다.

[3] 현대 일본의 문법서

『世界言語概説』의 한 부분인 山本謙吾(1959)의 ‘滿洲語文語形態論’은 만주어의 문법을 크게 활용과 곡용 및 연결 가능한 제 형식의 세 부분으로 나누어 설명하고 있다.

1. 활용: 어미 -mbi, -babi, -ki, -kini, -cina, -rarû, -ba etc., -mbibe, -ra etc., -me, -fi, -ci, -cibe, -bai, -tala, -nggala, 활용형과 부속어 bi 및 조동사-bi와의 연결
2. 곡용: 부속어 (-)i~ni, be, de, ci
3. 각종 활용형 및 곡용형과 연결 가능한 제 형식

만주어의 문법 요소, 즉 ‘虛字’를 중심으로 만주어의 형태론적 특성을 설명한 이러한 방식은 청대에 나왔던 전통적 문법서의 성격을 지니고 있다는 점에서 흥미롭다. 간단한 설명과 예문으로 이루어진 각 항목의 통일된 구성 역시 눈에 띈다.

津曲 敏郎(2001)의 『滿洲語入門20講』은 만주어 강의를 위해 교재 형식으로 만들어진 책으로 교육적 시각에서 만주어를 어떠한 방법으로 이해하는 것이 효과적인지 생각해 보게 한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 제1강 만주어란
- 제2강 음의 종류와 조합
- 제3강 문자
- 제4강 문법의 대강
- 제5강 명사
- 제6강 대명사와 기타 지시사·의문사
- 제7강 수사
- 제8강 동사(1): 의구법과 종지법
- 제9강 동사(2): 연체법(連體法)과 연용법(連用法)
- 제10강 불변화사
- 제11강 어간형성접미사
- 제12강 부정, 의문, 가능
- 제13강 복문의 주어
- 제14강 인용문
- 제15강 독해(1)~제18강 독해(4)
- 제19강 만주어의 과거와 현재
- 제20강 만주어와 통구스 제어
- 보 강 주요참고문헌
- 만주어 소어휘
- 어미·접미사 색인

만주어와 관련해 음운과 형태, 문장에 대한 내용들이 고루 언급되어 있는데, ‘불변화사’(형용사, 부사, 후치사)와 ‘어간형성접미사’를 따로 설정해 설명한 점이 눈에 띈다. 또한 동사와 관련해 미래형(-ra~re~ro), 과거형(-ha~he~ho, -kA), 회상형(-mbihe)을 ‘연체법’으로, 부정형(-me), 선행형(-fi), 조건형(-ci), 역접형(-cibe), 지속형(-hai~hei~hoi, kAi), 종접형(-tala~tele~tolo), 미연형(-nggala~nggele~nggolo)을 연용법으로 설명한 점도 주목된다.

한편, 河内良弘·清瀬義三郎則府(2002)의 『滿洲語文語入門』은 항목별로 간략한 설명과 예문이 제시되어 있

어 만주어의 문법적 요소들을 살피기에 좋은 안내서의 역할을 해 준다. 여기에서는 만주어의 요소들이 다음과 같은 체제로 설명되어 있다.

1. 문자·발음편
 - 모음, 자음, 특수자음
2. 문법편
 - 명사, 대명사, 수사, 형용사, 부사, 격조사, 동사, 불규칙동사, 보조동사, 파생접미사, 어휘적 접미사, 무활용동사, 조동사, 후치사, 접속사, 종조사(終助詞), 감동사, 상징사
3. 독본편
4. 어휘편
5. 색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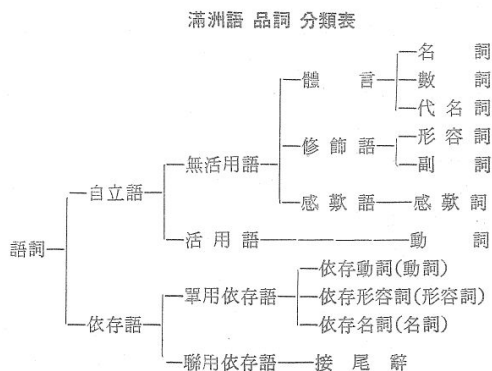
이 책에서는 문자와 발음을 내내 함께 설명함으로써 문자의 이해에 도움을 주고 있다. 더불어 품사별로 만주어의 요소들을 일목요연하게 정리해 설명하고 있는데, 특히 동사가 지닌 특징들을 여러 항목으로 나누어 체계적으로 설명한 점이 눈에 띈다.

[4] 현대 한국의 문법서

박은용(1973)의 제1부에는 ‘滿洲語文語文法論’이라는 이름으로 그동안 자신이 정리해 온 만주어의 문법적 특징들을 종합해 제시함으로써 일종의 만주어 문법서의 모습을 띠고 있다. 전체적인 체재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제1장 총론: 민족, 언어, 문자, 자료
- 제2장 음운: 문어의 음소, 십이자두, 문자와 발음, 모음조화
- 제3장 품사의 설정: 의의(意義), 형태, 기능, 분류
- 제4장 명사: 명사의 성, 명사의 수, 명사의 격, 형태적 특징, 외래어, 신조어
- 제5장 대명사: 인칭대명사, 지시대명사, 의문대명사
- 제6장 수사: 기수사, 서수사, 개별수사, 회차수사, 분수사, 배수사, 역(曆)수사, 개수(概數)표현
- 제7장 형용사: 형용사의 형태, 형용사의 기능, 의존형용사
- 제8장 부사: 부사의 기능, 부사의 형태
- 제9장 감탄사: 감탄사의 기능, 감탄사의 분류
- 제10장 동사: 동사의 형태, 동사의 어간형성부, 불규칙동사, 조동사
- 제11장 접미사

여기에서는 품사의 설정을 별도의 장에서 다루고 있는 것이 눈에 띄는데, 실제로 분류한 만주어의 품사 체계는 다음과 같다.(박은용 1973:35 참조)



滿洲語文學 자료의 현황 및 그 연구와 활용

여기에서는 자립어와 대립되는 의존어를 설정하고 이를 다시 단용의존어와 연용의존어로 나눈 것이 특징이다. 단용의존어 중에는 명사적인 기능을 가진 것(jaka, urse, ba, ningge)과 용언적인 기능을 가진 것(sembi, ombi, bi, inu)이 있고 ‘kai, ni, dere, aise, ayoo, bai’와 같은 경우는 연용의존어들과 함께 묶어 접미사류로 분류할 수 있다고 설명하고 있다.

최학근(1980)에서는 제2편에서 만주어의 문법을 다루고 있는데, 다음과 같은 내용들이 언급되고 있다.

1. 만주어 조어법 연구
 - 1) 만주어 어휘구성의 일반적 법칙
 - 2) 접미사에 의한 어휘구성
 - 3) 삽요사(插腰辭)에 의한 어휘구성
2. 만주어 동사활용어미
: -mbi, -me, -ha(-he, -ho, -ka, -ke, -ko, -ngka, -ngko, -ngke)
3. 만주어에 있어서의 미완결 과거어미 -fi(-mpi, -pi)에 대하여
4. 만주어의 격, 성, 수에 대하여

이것은 만주어의 문법을 체계적으로 조직화해 제시한 것은 아니지만 만주어의 중요한 문법적 특징들이 이러한 체재 속에서 설명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조어법과 관련해 단어의 품사를 바꾸는 요소를 ‘접미사’로, 주로 동사에 삽입되어 품사는 변화시키지 않지만 다양한 의미를 더하는 요소를 ‘삽요사’로 부른 것이 특징적이라고 생각된다.³⁴⁾

한편, Eung-Jin Baek(2011)은 『淸語老乞大新釋』의 자료를 바탕으로 해 구어적인(colloquial) 만주어의 문법을 영어로 정리한 것인데, 그 전체적인 체재를 정리해 보이면 다음과 같다.

제1장 음운론

1. 18세기의 구어 만주어 / 2. 자음 / 3. 모음 / 4. 현대 만주어 / 5. 청어노걸대에서의 음역(transliterations)

제2장 단어 부류

1. 명사 / 2. 대명사 / 3. 수사 / 4. 형용사 / 5. 동사 / 6. 부사 / 7. 후치사 / 8. 접속사 / 9. 문말 불변화사, 감탄사와 의성어 / 10. 중국어 차용어

제3장 형태론

1. 과생 형태론 / 2. 명사 형태론 / 3. 동사 형태론

제4장 통사론

1. 서술어 / 2. 주어와 주제 / 3. 목적어 / 4. 명사구 / 5. 명사상당어구 / 6. 형용사상당어구 / 7. 부사상당어구 / 8. 의문문 / 9. 부정문 / 10. 피동과 사동 / 11. 인용문 / 12. 종속절 / 13. 대등절 / 14. 시제, 상, 서법

주로 ‘문어(文語)’로서 언급되는 만주어와는 달리 ‘구어(口語)’ 만주어를 대상으로 그 문법을 기술한 점이 특징이라고 할 수 있다. 이것은 『淸語老乞大新釋』이라는 만주어 회화서를 대상으로 했다는 점에서 지니게 된 특징인데, 하나의 문헌만을 대상으로 문법이 기술되었다는 점에서 만주어의 문법을 얼마나 보편성 있게 담아냈는지에 대한 논란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한다. 문법 기술의 전체적인 체재는 일반적인 언어학적 기술을 따르고 있다.

[5] 현대 중국의 문법서

현대의 언어학을 접한 이후 중국에서 간행된 만주어 문법서들은 청대의 전통과는 다른 방식으로 새롭게 만주어의 문법을 기술해 놓았다. 먼저 1985년 愛新覺羅 烏拉熙春이 저술한 『滿語語法』은 다음과 같은 체재를 가지고 있다.

34) ‘삽요사’라는 명칭은 2장에서 소개했던 『字法學一歌』의 ‘插腰字’를 활용한 것으로 보인다.

<만주어 문법> 서
 머리말
 만문자모표
 제1장 만주어 개론
 제1절 만주어 및 그의 역사
 제2절 만문의 발전과 변천
 제3절 만주어 음절구조
 제4절 모음조화
 제2장 형태론
 제1절 만주어의 어휘
 제2절 만주어의 조어법
 제3절 어간, 어근 및 접사
 제4절 만주어 품사의 구분
 제5절 체언
 제6절 동사
 제7절 부속사(부사, 후치사, 접속사 등을 묶어 설명)
 제3장 통사론
 제1절 만주어 통사론 개설
 제2절 단어의 구조 관계
 제3절 문장의 기본 성분
 제4절 문장의 특수 성분
 제5절 문장 성분의 배열
 제6절 문장 성분의 복잡화
 제7절 문장의 분류
 맺는 말

문자와 음운에 대한 설명이 있긴 하지만 형태론과 통사론이 중심이 된 만주어 문법에 대한 설명을 볼 수 있다. 바로 다음 해인 1986년 季永海, 劉景憲, 屈六生 세 사람이 공저한 『滿語語法』은 말소리, 형태론, 통사론의 3편으로 구성된 만주어 문법서로서 다음과 같은 체제로 이루어져 있다.

머리말
 서
 <만주어 문법>
 도입
 [상편 말소리]
 제1장 말소리와 자모
 1. 모음과 자모
 2. 자음과 자모
 제2장 모음조화
 1. 모음조화와 모음조화규칙
 2. 만주어의 모음조화
 제3장 음절과 악센트(강음)
 1. 음절
 2. 악센트(강음)
 [중편 형태론]
 제1장 만주어의 어휘
 1. 만주어 어휘의 특징
 2. 만주어 품사의 분류
 3. 어간과 부속 성분
 4. 만주어 단어의 구성

滿洲語文學 자료의 현황 및 그 연구와 활용

제2장 실사

1. 명사
2. 동사
3. 형용사
4. 대명사
5. 수사와 양사

제3장 허사

1. 부사
2. 격조사
3. 접속사
4. 후치사
5. 어조사
6. 의태어
7. 감탄사

[하편 통사론]

제1장 구

1. 병렬연합구
2. 수식구
3. 서술어와 목적어 구
4. 주술구
5. 보어와 서술어 구
6. 후치구
7. 방위구
8. 수량구
9. 보조동사구
10. 대등구
11. 고정적인 구와 구의 복잡화

제2장 문장과 문장 성분

1. 문장의 주요성분
2. 문장의 부속성분
3. 문장의 특수성분
4. 문장의 어순

제3장 문장의 유형

1. 서술문
2. 의문문
3. 명령문
4. 감탄문

제4장 단문과 복문

1. 단문
2. 복문

부록

1. 만문의 문장 부호
2. 만문과 한문의 대조 문선 읽기
3. 상용 어휘집

맺는 말

특히 형태론의 구성이 실사와 허사로 되어 있는 것은 전통적인 방식을 반영한 것으로 현대 언어학의 틀 속에 청대의 전통적 방식을 반영하고 있다는 점에서 흥미로운 체재라고 생각된다. 이처럼 현대 중국에서 간행된 만주어 문법서들은 기본적으로 서구적인 현대 언어학의 틀에 따라 만주어의 문법을 설명하고 있지만, 여러 부분에서 전통적인 체재나 방식을 따르고 있음을 볼 수 있다.

3. 만주어 문법서의 내용적 특징

이 장에서는 역대 만주어 문법서들을 살펴볼 때 시대에 따라 또는 인식에 따라 문법서의 내용적 특징이 어떻게 달라져 왔는지 문법 의식의 변화라는 측면에서 고찰해 보고자 한다. 특히 청대에 간행된 문법서들을 통해 고립어인 한어 사용자들이 교착어인 만주어를 인식해 가는 과정에서 그들의 문법 의식이 어떻게 발달해 왔는지에 주목하고자 한다.

첫째, 문자론적 인식의 발달에 따라 형태론적 인식과 통사론적 인식이 구별되는 특징을 볼 수 있다. 먼저 만주어 ‘be’에 대한 기술 방식의 차이를 보여 주는 다음의 예들을 살펴보자.

(1)

가. ㉠be, ㉡虛字解即漢文將字,把字, ㉢實字解我等,雀食,餌軌, ㉣如云,把此物如何,即云,ere jaka be.將此人如何,即云,ere niyalma be. 如接虛語用, ㉤凡已然者,即用ka.ha.ke. he.ko.ho.字,方可接be字.<續清虛字講約,1a>³⁵⁾

나. be ㉠把字.將字.也字又以字.用字.用使字.令字.教字.聯用單用俱可. ㉡實解我們.魚食.鳥食.牛車轆頭橫木. ㉢如云.terebе [把字] gaifi gene.將他領了去.tere be[將字] gaju.把那個拿來.siyang serengge ujire be[也字]. hiyoo serengge tacibure be [也字].sioi serengge gabtabure be[也字].庠者養也.校者教也.序者射也.ai be[以字] fulehe da obumbi.以何作根本.aibe[用字] temgetu obumbi.以何爲憑據.sefu simbe[令字] gene sehe.師傅說了教你去.imbe[使字] jikini.教他來罷. ㉣[한줄 들어 씌]凡遇ai hendure. dahame等虛字之上.必用be字.凡如i. ni. de. me. ci. fi等虛字之下.不可用be字. ㉤[空欄]mimbe把我.教我.[공란]membe 將我們.令我們.[공란]suwembe 把你們.教你們.[공란]cembe 將他們.使他們.[공란]sehebe 將說了的.[공란]henduhe be 把說了的.之謂也.<清文助語虛字,6a>

다. be ㉠^{使令教}把將以 ㉡單聯義同如云giyan be mohobure banin be akūmbure.窮理盡性erdemu be da obumbi. muten be dube obumbi.以德爲本以才爲末simbe gene sembi.使以去imbe jio sembi.教他來<清文指要,‘sula hergen i hacin’,9b>

㉢. ㉣de, be, i, ni, ci, kai.此六字不可拾寫於行首<清文指要, ‘tokdoho kemu i hacin’, 35a>

여기에서 ㉠은 문법형태소의 의미기능, ㉡는 실질형태소의 의미기능, ㉢은 문법형태소의 용례, ㉣는 해당 문법형태소의 공기관계 및 결합 제약에 대한 설명, ㉤는 문법형태소의 또 다른 용례이다. 이러한 내용을 담고 있는 문법서들은 시기적으로 (1가)~(1다)의 순서로 간행되었는데, (1가,나)에서와는 달리 문법형태소에 대한 설명과 무관한 ㉡가 (1다)에서는 빠졌음을 볼 수 있다. 이것은 표의문자인 한자의 인식을 벗어나서 표음문자인 만주문자를 인식하려 한 사실과 관련된 것으로 생각해 볼 수 있다. 예컨대 한자는 그 자체에 의미적인 속성도 함께 가지고 있으므로 해당 글자가 어휘적인 의미와 문법적인 의미를 모두 지니고 있다면 음운론적 차용이 아닌 경우 1차적으로 두 의미는 기원적인 관련성을 가진 것으로 이해될 수 있다.

(1가,나)에서 만주어 ‘be’의 문법적 의미와 어휘적 의미를 함께 제시한 것도 이와 유사한 인식을 보여주는 것으로 생각된다. 표음문자인 만주문자로 적힌 ‘be’가 어휘적인 의미와 문법적인 의미를 모두 가지고 있더라도 이로부터 두 의미가 동일한 기원을 가졌다고 생각할 필요는 없다. 그것은 서로 다른 두 형태소가 우연히 동일한 형태를 지니고 있을 뿐이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1가,나)와 (1다)의 차이는 바로 이러한 문자적 인식의 차이에서 비롯된 체계의 記述的 차이라고 이해해 볼 수 있다.

또한 ㉣의 변화와 관련하여서도 주목된다. ㉣는 통사론적 제약에 대한 기술이므로 엄밀히 말해서 문법형태소의 단순한 의미만을 기술하는 ㉡와는 별개의 것이다. 즉 ㉡가 문법형태소의 형태론적 의미를 밝힌 것이라면, ㉣는 문법형태소의 통사론적 의미를 밝힌 것이라고 할 수 있다. (1가)에서는 ㉢에 이어서 특별히 다른 표시 없이 ㉣를 바로 기술하고 있는 반면에, (1나)에서는 한 줄을 들어 씌므로써 앞의 기술과 다음을

35) be, ㉠허자(문법형태소 be)는 곧 한문의 將과 把로 풀이되고, ㉡실자(어휘형태소 be)는 我等, 雀食, 餌軌로 풀이되니 다음과 같이 말한다. ㉢(허자의 용례) 把此物은 만주어로 ere jaka be(이것을)과 같이 말하고, 將此人은 ere niyalma be(이 사람)과 같이 말하니, 허어(be)를 붙여 사용함과 같다. ㉣무릇 已然是 곧 만주어로 ka, ha ke, he, ko, ho자로 쓰는데, 바야흐로 be자를 붙일 수 있다.

표시해 주고 있다. 또한 (1다, 다)에서는 통사론적인 내용에 대해 장을 달리해 별도로 기술하고 있다. 단순히 개별 문법서(예를 들어 『淸文啓蒙』, 『淸文助語虛字』)만을 놓고 보았을 때는 이러한 구분이 특별한 의미를 지니는 것 같지 않지만, (1가)~(1다)까지의 관계를 놓고 보면 만주어 통사론에 대한 기술을 독자적으로 시도하려 했던 점을 엿볼 수 있다.

둘째, 어미(=굴절접사)와 접사(=파생접사)를 구별하려는 인식의 특징을 볼 수 있다. 한 예로 3장에서 언급했던 『淸書指南』의 「飜淸虛字講約」의 항목과 『三合便覽』의 「淸文指要」의 항목을 비교해 보자.

(2)

가. 『淸書指南』 소개 「飜淸虛字講約」의 표제항

① be ② de ③ i, ni ④ ra, re, ro ⑤ la, le, lo ⑥ ka, ha, ke, he, ko, ho ⑦ me ⑧ fi ⑨ pi ⑩ bi ⑪ bifī, bici, bisire ⑫ bihe ⑬ bihe bici ⑭ bihebi ⑮ ombi ⑯ mbi ⑰ o ⑱ ume ⑲ ci ⑳ se ㉑ ki ㉒ kini ㉓ bu ㉔ mbo<mbu> ㉕ so, su, cina, fu, nu ㉖ ša, še, ja, je, šo ㉗ kiya, hiya, kiye, hiye ㉘ ca, ce, du, nu, cu, ne ㉙ unggī, tuwanggi, bonggi, gonggi ㉚ manggi ㉛ ohode ㉜ jakade ㉝ na, ne, ji ㉞ reo ㉟ mbio, bio, kao, hao, keo, heo, nio ㊱ rangge, rengge, rongge, kangge, hangge, hūgge, kengge, hengge ㊲ rakū, kakū, hakū, kekū, hekū ㊳ rahū ayoo ㊴ sa ㊵ te ㊶ da ㊷ kai ㊸ ken, kan, hei, hai, hoi, pi, kon ㊹ aikabade ㊺ udu seme, udu bicibe, udu cibe ㊻ hono bade ㊼ tere anggala ㊽ tere dade ㊾ dere ㊿ dabala, gojime ① nememe ② tala, tele, tolo ③ gala, gele ④ makan<maka> ⑤ aika ⑥ aise ⑦ mene ⑧ jaci ⑨ eitereci ⑩ tetendere ⑪ ere ⑫ ainci ⑬ <eici> ⑭ <cuka, cuke> ⑮ <uttu> ⑯ tuttu ⑰ esi

나. 『三合便覽』 소개 「淸文指要」의 표제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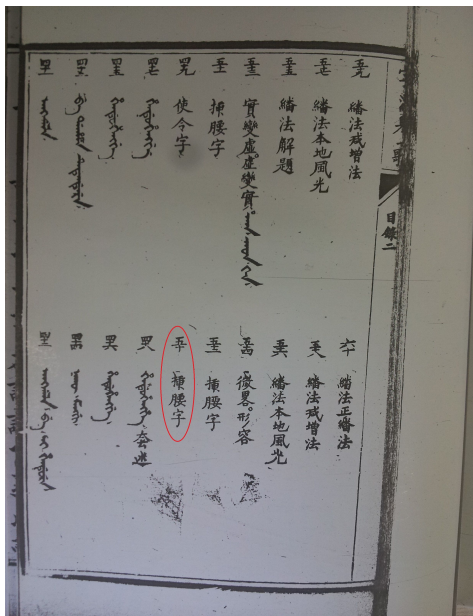
① de ② be ③ i ④ ni ⑤ ci ⑥ kai ⑦ jakade ⑧ ohode ⑨ dade ⑩ bime ⑪ gojime ⑫ seme ⑬ bicibe ⑭ ofi ⑮ bihe ⑯ bihe bici ⑰ serengge ⑱ be dahame ⑲ tetendere ⑳ manggi ㉑ akū ㉒ deri ㉓ dere ㉔ dabala ㉕ anggala ㉖ sere anggala ㉗ wajiha ㉘ hono bade ai hendure ㉙ seci ㉚ sehei ㉛ jaka, saka ㉜ saka ㉝ oso ㉞ mbi ㉟ me ㊱ fi ㊲ ra, re, ro ㊳ ka, ha, ko, ho, ke, he ㊴ habi ㊵ ki ㊶ ki sembi ㊷ ci[5가지 용법을 자세히 설명] ㊸ kini ㊹ cina ㊺ rahū ㊻ hai ㊼ tala, tele, tolo ㊽ dari ㊾ le ㊿ mbihede ① pi, fi ② rakū ③ kakū, hakū, kekū, hekū ④ rangge ⑤ hangge ⑥ rakūngge ⑦ hakūngge ⑧ cuka, cuke ⑨ angga, engge, onngo ⑩ o[2가지 용법을 자세히 설명] ⑪ rakūn, hakūn ⑫ on ⑬ kan, ken, kon ⑭ saliyan ⑮ sa, se, si, so, ta, te ⑯ ta, te, to ⑰ nggala, nggele, nggolo ⑱ tai, tei ⑲ ju ⑳ kū, ku ㉑ cun ㉒ hon, hūn, hun, hūri, huri, sahūn, sahun ㉓ na-, ne-, no- ㉔ ša-, še-, šo- ㉕ ta-, te- ㉖ ta-, da-, do- ㉗ la-, le-, lo- ㉘ ca-, ce-, co- ㉙ ja-, je-, jo- ㉚ ra-, re-, ro- ㉛ tu-, mi-, niya-, kiya-, hiye- ㉜ da-, de-, do- ㉝ ji- ㉞ ju-, nu- ㉟ bu-

밑줄 그은 표제항들은 동사의 어간에 결합하여 의미나 품사를 바꿔주는 파생접미사를 가리킨다. 그런데 이 파생접미사의 배열 순서를 보면 (2가)는 ⑤, ㉓, ㉔, ㉖, ㉗, ㉘과 같이 순서가 일정하지 않고, 그 뒤에는 다시 굴절적인 문법 요소가 배열되어 현대 언어학적 관점에서 보면 다소 비체계적인 듯이 보인다. 반면 (2나)에서는 이러한 접미사적인 문법요소를 굴절적인 기능을 하는 접사들이 끝난 다음에 ㉓에서부터 ㉟에 이르기까지 차례대로 모아 놓았다. 이것은 동사가 ‘어간-접미사-어미’의 결합 순서를 보이는 것을 인식하여 ‘접미사’와 ‘어미’를 구별하려고 한 것임을 짐작하게 한다. 이러한 추정은 다음의 그림을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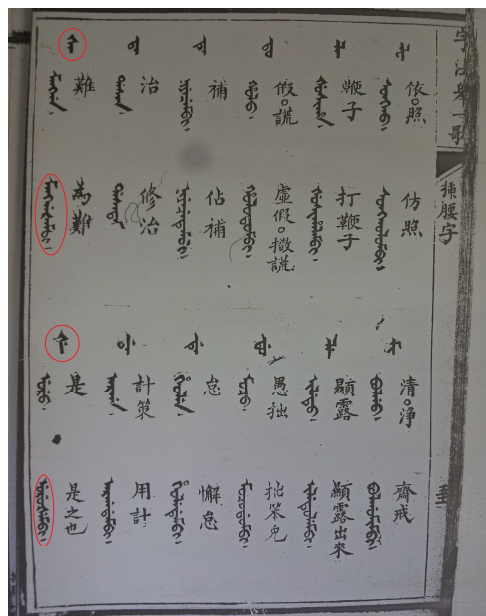
『翻清虛字講約』(1682) ša, še, ja, je, šo	『清文助語虛字』(1730) ša, še, šo, mi, je, ja, je, jo	『清文指要』(1792) ša-, še-, šo-	『清文接字』(1866) -ša-, -še-, -ja-, -je-

위 그림은 여러 접미사들 중 강조의 의미를 드러내는 ‘-ša-, -še-, -šo-’가 포함된 표제항의 변천을 보인 것이다. 여기에서 주목할 점은 표제항에 쓰인 만주문자의 형식이다. 초기 문헌들의 설명에서는 해당 표제어가 ‘句中’에 쓰인다는 설명은 있지만 표제어로 제시한 만주문자는 ‘句末’의 표기형식을 제시하여서 접미사에 대한 인식이 그리 강하지 않았음을 엿볼 수 있다. 그러나 『清文指要』에서는 句中에서의 문자 형식을 표제어에도 그대로 드러냈고(š는 어두형식, e는 어중 형식: še-), 『清文接字』에 가서는 완전하게 -še(š와 e 모두 어중 형식)로 표제어를 제시하였다.

셋째, 개별 문법 요소들에 대한 설명에서 각 요소들을 범주화하여 설명하려는 특징을 볼 수 있다. 구체적인 예로 앞서 언급했던 접미사에 대한 인식의 변화가 청대의 마지막 문법서인 『字法舉一歌』에 가서는 더욱 발전하여 하나의 범주로서 이를 설명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다. 이것은 그 이전 논의들에서 하나의 표제항에 하나의 문법 요소만을 설명하던 방식에서 벗어나 각 요소들을 문법적으로 범주화하려 했던 인식의 발로라고 생각된다.



[그림1] 『字法舉一歌』의 목록



[그림2] 『字法舉一歌』의 插腰字 항의 문법요소들

2장에서 이미 언급한 바와 같이 『字法學一歌』는 앞장에 目錄이 실려 있는데, [그림1]에서처럼 기존의 문법서들과는 달리 한자로 쓰인 표제어들을 찾아볼 수 있다. 이 중 50번째 ‘插腰字’가 바로 『三合便覽』 소개 「청문지요」에서 말미에 함께 다루었던 접미사들이다. [그림2]는 해당 ‘插腰字’항으로 가면 제시되어 있는 접미사들로 앞부분에 ‘sa, še’ 등이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즉 접미사들을 ‘插腰字’라는 이름으로 범주화해 설명하고 있는 것이다.

4. 맺음말

이제까지 역대 만주어 문법서들을 전통적 문법서와 근대적 문법서로 나누어 개관하고, 대략적으로 그 체계의 변화 및 내용적 특징을 살펴보았다. 아쉽지만 만주어와 관련된 자료들을 광범위하게 수집하고 그 목록을 정리하고 있는 지금의 단계에서는 다루고자 했던 주제를 깊이 있고 정밀하게 취급하지 못한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이러한 과정이 만주어 연구를 심화시키고 내일을 위한 만주학 발전을 준비해 가는 희망찬 출발이라는 점을 상기하고자 한다. 더불어 앞선 시대에 외롭게 만주어를 연구했던 선학들의 발자취를 더듬으며 앞으로 우리가 가야 할 길을 그려 보고 우리의 마음도 새롭게 해 보는 뜻 깊은 시간을 가질 수 있었음을 기쁘게 생각한다.

참고문헌

강신항, 『李朝時代の 譯學政策과 譯學者』(塔出版社, 1985).

김유범, 『『清語總解 語彙集』 편찬을 위한 구상』(第3次 民族文化研究院 滿洲學센터 國際學術會議: 滿洲學 研究의 言語學的 接近, 2012).

_____, 「문자 표기의 형태론적 장치에 대하여」, 『어문논집』 제58호(민족어문학회, 2012).

김유범·김미미, 『『同文類解』의 滿洲語 한글 표기 체계에 대하여』, 『민족문화연구』 제58호(고려대학교 민족문화연구원, 2013).

_____, 「만주어 사전 구축을 위한 『同文類解』의 활용 가능성 모색」, 『민족문화연구』 제62호(고려대학교 민족문화연구원, 2014).

박은용, 「同文類解 語錄解 研究(上) - 李朝時代の 滿洲語 文法書에 對하여」, 『曉大論文集』 3(曉星大學校, 1968).

_____, 「滿洲語 文語 形態素 研究」, 『曉大論文集』 4(大邱曉星카톨릭大學校, 1969).

_____, 「同文類解 語錄解 研究(下) - 李朝時代の 滿洲語 文法書에 對하여」, 『曉大論文集』 5(曉星大學校, 1969).

_____, 「同文類解 語錄解의 出典에 對하여」, 『國文學研究』 第3輯(曉星女大 國文學研究室, 1970).

_____, 『滿洲語文語研究(二)』(螢雪出版社, 1973).

성백인, 『滿洲語와 알타이語學 研究』(太學社, 1999).

연규동, 「런던에 있는 '대청전사'의 이본들」, 『대동문화연구』 81(성균관대학교 대동문화연구원, 2013).

오민석, 「18세기 국어의 시제체계에 관한 쟁점 연구: 『清語老乞大新釋』에 나타난 한국어와 만주어의 대역관계를 중심으로」(고려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13).

_____, 「『清語老乞大新釋』 諸異本 간의 판본 비교 연구: 선본 확정을 위한 기초 작업」, 『국어사 연구』 17(국어사학회, 2013).

정 광, 『譯學書研究』(제이앤씨, 2002).

최동권 외, 『譯註 清語老乞大新釋』(博文社, 2012).

_____, 『언두리(神)가 들려주는 끝나지 않는 이야기』(博文社, 2012).

최학근, 『알타이語學論攷: 文獻과 文法』(玄文社, 1980).

최학근, 『增補 알타이語學論攷: 文獻과 文法』(保景文化史, 1989).

今西春秋, 「清書指南のことなど」, *Biuria* 7(1956).

松岡雄太, 「『첩해몽어(捷解蒙語)』와 만주어 자료의 관계」, 『알타이학보』 제15-1호(2005).

王故非, 「『重刻清文虛字指南編』研究」(黑龍江大學 석사학위논문, 2009).

張華克, 『清文虛字指南解讀』(映玉文化出版社, 2006).

竹越 孝, 『翻字翻訳 『清文助語虛字』(合冊版)』(古代文字資料館, 2004)

_____, 『翻字翻訳 『清書指南 ■ 飜清虛字講約』(合冊版)』(古代文字資料館, 2005)

_____, 『清代滿洲語文法書三種』(古代文字資料館, 2007)

_____, 「翻字翻訳 『同文類解 ■ 語錄解』(上)」, 『KOTONOHA』 第71号(古代文字資料館, 2008)

_____, 「翻字翻訳 『同文類解 ■ 語錄解』(中)」, 『KOTONOHA』 第72号(古代文字資料館, 2008)

_____, 「翻字翻訳 『同文類解 ■ 語錄解』(下)」, 『KOTONOHA』 第73号(古代文字資料館, 2008)

中國邊疆歷史語文學會 編, 『清文虛字指南』(中國邊疆歷史語文學會史料叢書之三)(台聯國風出版社, 1968).[重刻清文虛字指南編
입, 鏡古堂刻本].

Giovanni Stary, 『MANCHU STUDIES AN INTERNATIONAL BIBLIOGRAPHY vol.2: language, literature, sibe-manchu』
(Kommissionsverlag Otto Harrassowitz·Wiesbaden, 1990).

Haensch, von E., *Mandschu Grammatik*(VEB, 1986).

Hoffmann, G., 「Grammatica mancese compendiata dall'opera cinese Zing-ven-ki-mung, prima parte(A Manchu Grammar Summarized from the Chinese Work Zing-ven-ki-mung[Ch'ing-wen ch'i-meng], First Part)」(Firenze, 1883).

Gabelentz, H. C., *Eléments de la Grammaire Mandchoue*(Altenburg, 1832).

_____, 「Mandschu-mongolische Grammatik aus dem San-ho-pian-lan übersetzt(A Manchu-Mongol Grammar Translated from the San-ho-pian-lan)」, *Zeitschrift der Deutschen Morgenländischen Gesellschaft* 1/3(1837).

_____, 「Mandschu-sinesische Grammatik nach dem San-ho-pian-lan(A Manchu-Chinese Grammar Based on the San-ho-pian-lan)」, *Zeitschrift der Deutschen Morgenländischen Gesellschaft* 3(1840).

Gorelova, L. M., *Manchu Grammar*(Brill, 2002).

Möllendorff, von P.G., *A Manchu Grammar, with Analysed Texts*(Shanghai: Printed at the American Presbyterian Mission Press, 1892).

Norman, Jerry, *A Concise Manchu-English Lexicon*(University of Washington Press, 1978).

Wylie, A., *Translation of the Ts'ing Wan K'e Mung, a Chinese Grammar of the Manchu Tartar Language*(Shanghai, 1885).

[청대 만주어 문법서를 소개하고 있는 각국의 도서목록 관련 참고서]

(중국)

滿洲語文學 자료의 현황 및 그 연구와 활용

李德啓·于道泉(1933), 國立北平圖書館 古宮博物院圖書館 滿文書籍聯合目錄, 國立北平圖書館及古宮博物院圖書館合印.
黃潤華·屈六生 主編(1991), 全國滿文圖書資料聯合目錄, 書目文獻出版社.
盧秀麗·閻向東 編著(2002), 遼寧省圖書館滿文古籍圖書綜錄, 遼寧民族出版社.
北京市民族古籍整理出版規劃小組辦公室滿文編輯部(2008), 北京地區滿文圖書總目: 北京地區少數民族古籍目錄從書之一, 遼寧民族出版社.
中國國家圖書館·中國國家古籍保護中心 編(2008), 第一批國家珍貴古籍名錄圖錄, 國家圖書館出版社,
中國國家圖書館·中國國家古籍保護中心 編(2010), 第二批國家珍貴古籍名錄圖錄, 國家圖書館出版社,
中國國家圖書館·中國國家古籍保護中心 編(2012), 第三批國家珍貴古籍名錄圖錄, 國家圖書館出版社.

(일본)

河內良弘·趙展 (1985), 「天理大圖書館 滿文圖書目錄」, 『天理圖書館報: BIBLIA』 No.84

(몽골)

최동권(2014). 몽골의 만주어 자료 연구. 인문학연구 25. 경희대학교 인문학연구원. 275-303

(러시아)

A.V. Grebenshchikov(1909), Short Sketch of Manchu Literature(滿文文獻目錄), Vladivostok Oriental Institute.
Volkova M.P.(1965), The description of Manchurian manuscripts of the institute of the peoples of Asia AN SSSR(滿文手稿本目錄), Moscow : Nauka, Gl. red. vost. liter.
Volkova M.P.(1988), The description of Manchurian xylographs of the Institute of oriental studies of AN SSSR. Issue I(滿文本本書目), Moscow : Nauka, Gl. red. vost. liter.
Tatjana A. Pang.(2001), AETAS MANJURICA 9: Descriptive Catalogue of Manchu Manuscripts and Blockprints in the St. Petersburg Branch of the Institute of Oriental Studies Russian Academy of Sciences Issue 2, Harrassowitz Verlag.

(영국)

Herbert A. Giles(1898), A catalogue of the Wade collection of Chinese and Manchu books in the library of the University of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W. Simon and H.G.H.Nelson(1977), Manchu Books in London. A Union Catalogue, Lodon: The British Library.

(독일)

Walter Fuchs(1932), Neues Material zur Mandjurischen Literatur aus Pekingener Bibliotheken, Asia Major. 7
Walter Fuchs(1936), (Supplementband XIV) Beiträge zur Mandjurischen Bibliographie und Literatur, OTTO HARRASSOWITZ LEIPZIG.

(프랑스)

Jeanne-Marie Puyraimond. et al.(1979), Catalogue du Fonds Mandchou, BIBLIOTHEQUE NATIONALE.

(네덜란드)

Koos Kuiper(2014). Old Manchu and Mongolian books and manuscripts: The East Asian Library in Leiden University. Leiden Univ.

(미국)

松村 潤(1999), 美國議會圖書館滿文圖書目錄(東北アジア文獻研究叢刊1), 東北アジア文獻研究會.

[청대 만주어 문법서가 소장되어 있는 도서관 홈페이지]

(한국)

奎章閣韓國學圖書館: <http://kyujanggak.snu.ac.kr/main.jsp>
國立中央圖書館: <http://www.nl.go.kr/nl/index.jsp>
서울大中央圖書館: <http://library.snu.ac.kr/index.ax>

(중국)

古宮博物院圖書館: <http://www.dpm.org.cn/shtml/115/@/9036.html#115>
廣西桂林圖書館: <http://www.gll-gx.org.cn/> [이전 이름: 廣西第一圖書館]

吉林師範大學圖書館: <http://lib.jlnu.edu.cn/>
吉林省圖書館: <http://www.jlplib.com.cn/>
南京圖書館: <http://www.jslib.org.cn/>
內蒙古大學圖書館: <http://lib.imu.edu.cn/>
內蒙古(自治區)圖書館: <http://www.nmglib.com/>
內蒙古社會科學院圖書館: <http://nmgshkxy.nmgnews.com.cn/jggk/tsg/>
大連市圖書館: <http://www.dl-library.net.cn/>
復旦大學校圖書館: <http://www.library.fudan.edu.cn/#>
首都圖書館: <http://www.clcn.net.cn/>
遼寧省圖書館: <http://www.lnlib.com/>
張家口市圖書館: <http://www.zjklb.net/>
中國國家圖書館: <http://www.nlc.gov.cn/> [이전 이름: 국립북경도서관, 북경도서관, 북평도서관, 경사도서관 등]
中國民族圖書館: <http://www.celib.cn/index.html>
中國社會科學院歷史研究所: <http://lishisuo.cass.cn/cate/1207.htm> [홈페이지 안에 도서관 링크있음]
第一歷史檔案館: <http://www.lsdag.com/>
中央民族大學圖書館: <http://210.31.3.219/opac/search.php> [별칭: 중앙민족학원도서관]

(일본)

天理大學附屬天理圖書館: <http://www.tcl.gr.jp/index.htm>

(영국)

던던大 SOAS圖書館: <https://library.soas.ac.uk/>
英國博物館: <http://www.bl.uk/>

(미국)

美國議會圖書館: <http://www.loc.gov/>

Монгол улсын Үндэсний төв архив дахь манж баримтын тухайд

М.Баярсайхан

Чин улсын бүрэлдэхүүнд орохоос өмнө монголчууд манж нартай монгол хэл бичгээр харилцаж байсан бөгөөд түүнийг нь манжийн Дотоод бичгийн яамны түшмэд манж хэл бичгээр орчуулан хаанд айлтгах буюу дансанд тэмдэглэн хадгалж байв. Монголчууд XVII-XVIII дугаар зуунд хэсэг хэсгээр Чин улсын захиргаанд орсны дотор Ар Халх 1691 онд Долон нуурт болсон чуулганаар Чин улсад дагаар орсон юм. Тэр цагаас хойш төрийн албан ёсны хэл бичиг нь манж хэл бичиг болж, аливаа албан бичиг баримтыг манж ба монгол бичгээр зэрэг үйлдэх болсон билээ. Манж хэлээрх архивын баримтын хамгийн баялаг сан хөмрөг нь Бээжингийн түүхийн нэгдүгээр данс хадгаламжийн газар¹⁾, Тайваний үндэсний ордон музейн архив²⁾, БНХАУ-ын Шэньян хот дахь Ляонин мужийн архив³⁾ зэрэг юм. Монгол улс дахь манж албан баримтууд нь Үндэсний төв архивт (Цаашид МУҮТА) хадгалагдаж байгаа бөгөөд өргөмжлөл голдуу цөөн баримт Үндэсний номын санд буй.

1921 онд Монгол улсад Судар бичгийн хүрээлэнг байгуулж, тус хүрээлэнгээс юуны өмнө Монголын түүхэнд холбогдох ном судар, данс, архивын баримтуудыг орон нутаг болон хилийн чанадаас эрж сурвалжлан хуучны ном судрыг олж цуглуулах талаар онцгой анхаарч байв. Улмаар Судар бичгийн хүрээлэнгийн 1927 оны 12 дугаар сарын 5-ны өдрийн 10 дугаар тогтоолоор архивын төвлөрсөн сан хөмрөгийг хариуцан ажиллах орон тооны ажилтныг бий болгожээ. Үүнийг үндэсний архивын байгууллагын үндэс суурь болсон гэж үздэг. 1932 оны 10 дугаар сарын 14-нд гаргасан Ерөнхий сайдын 29 дүгээр тушаалд “Шинжлэх ухааны хүрээлэнгээс шинжлэх, боловсруулах, тэмдэглэж хадгалах, зохион дэлгэрүүлэх зэрэгт эрдэм ном, судар бичиг, дэвтэр шастир, түүх, Улсын гэрийн хэрэг зүйлийг шийтгэж өнгөрсөн албан газруудын данс хараа, чухал холбогдох материал болох бөгөөд урьдын Чин улсын үеэс Ардын засаг байгуулах хүртэлх Хүрээ сайдуудын яамны, Шавийн яам, Түшээт хан, Сэцэн хан, автономийн 5 яамны зэрэг газруудын данс харааг хураамжлан авч Улиастайн жанжны зэрэг зарим ихээхэн газрын

1) First Historical Archives of China

2) National Palace Museum Archives (Taipei)

3) Liaoning Provincial Archives (Shenyang)

данс харааг бүртгэн хадгалж үрэгдүүлэхгүйгээр сайтар хадгалуулж, улмаар бүртгэн ирүүлээд шалган боловсруулж чухалд бэлтгэн нийлүүлэхийг Засгийн газраас тушаан гаргаж гүйцэтгүүлэх нь зүйтэй...” гэжээ. Ийнхүү түүхэн албан баримтуудыг архивт төвлөрүүлэн бүртгэх, ангилж төрөлжүүлэх, хадгалах, орчуулж сийрүүлэх, ашиглалт, судалгааны эргэлтэд оруулах ажлыг хийж ирсэн байна.

МУУТА-т хадгалж буй бичиг баримтуудыг он цагийн хувьд ерөнхийлэн 1. Чин улсын үеийн, 2. Богд хаант Монгол улсын үеийн, 3. Ардын засгаас хойших үеийн гэж гурав ангилж болно. Тус архивт баримтуудыг хөмрөг үүсгэгчээр нь, эсвэл ерөнхий нийтлэг шинжээр нь ялган тус тус хөмрөг (фонд) болгож, дотор нь нэг он цагийн нэг төрлийн хэрэг явдалд хамааралтайгаар нь хадгаламжийн нэгж болгон бүлэглэн ангилдаг. Чингийн үеийн хөмрөгүүд дэх хадгаламжийн нэгжүүд нь хэмжээний хувьд харилцан адилгүй, зарим нь ганц хоёр ширхэг, ганц нэг хуудастай баримт бүхий хадгаламжийн нэгжтэй байхад зарим нь 300-400 орчим баримттай, нэг баримт нь олон арван хуудастай байх тохиолдол ч бий. Хөмрөг бүрийн баримт буюу хадгаламжийн нэрийн жагсаалтыг холбогдох хэргийн товч гарчиг, он цаг, хуудас, баримтын тоо ширхэгийг заасан бүртгэл үйлдэж дансалдаг юм. Ихэнх хөмрөг нэг данстай, томхон хөмрөгүүд 2-4 данстай байна. Тэгвэл, Чин улсын үеийн сан хөмрөг нь 1674-1911 оны үеийг хамардаг ба М-1-ээс М-224 хүртэл дугаарласан нийт 224 хөмрөгт бүгд 134247 хадгаламжийн нэгж хадгалдаг бөгөөд эдгээрийг 288 дансанд бүртгэсэн байна (Хөмрөгийн жагсаалтыг хавсралтаас үзнэ үү). Тэдгээр Чин улсын үеийн баримтууд нь зонхилон манж, монгол хэлээр байх ба хятад, төвд, орос хэлээр хэсэг баримт буй.

Чин улсын үеийн 224 хөмрөгийн 213 нь хөмрөг үүсгэгч байгууллага, хувь хүний хамаатай, 11 нь ерөнхий шинжээр нь нэгтгэсэн баримтын цуглуулгаас бүрдсэн хөмрөг байна. Манжийн үеийн архивын баримтын агуулга, эрдэм шинжилгээний учир холбогдлыг тоймлон өгүүлэхэд тэр үеийн хөмрөг үүсгэгч байгууллагууд, тэдгээрийн эрх үүрэг, үйл ажиллагааны хүрээ хэмжээний талаар дурдах шаардлагатай.

Чин улсын үеийн архивын баримтад холбогдох 213 хөмрөгийг үүсгэгч нь:

1. **Манжийн төлөөний байгууллагууд.** Үүнд, Чингийн төрөөс Монголд байгуулсан Зарлигаар зарсан Хүрээнд сууж хэрэг шийтгэгч сайдын яам (Хүрээ сайд), Хязгаар дахиныг тогтоогч зүүн этгээдийн туслагч жанжны газар (Улиастайн жанжин)... зэрэг цэрэг захиргааны 11 байгууллагын хөмрөг байна. Үүнээс Хүрээ сайд, Улиастайн жанжны газрын хөмрөгийн талаар жич дурдах болно.
2. **Аймаг, хошууд.** Үүнд, Халхын дөрвөн аймаг (Түшээт хан, Сэцэн хан, Сайн ноён, Засагт хан) тус бүрийн чуулган даргын жасаа, аймгийн туслагч жанжны жасаа, Хүрээн дэх аймгуудын суурин жасаа, дөрвөн аймгийн хошууд, Дөрвөд

Монгол улсын Үндэсний төв архив дахь манж баримтын тухайд

хоёр аймгийн чуулган даргын жасаа, Алтайн урианхай, Тагна урианхай, Хөвсгөлийн урианхайн бүгдийн даргын жасаа, Мянгад хошуу зэрэг газрын нийт 105 хөмрөг байна. Эдгээр орон нутгийн засаг захиргааны нэгж байгууллагуудын албан баримтад тайж түшмэд, лам, хамжлага ард, сумын албат, цэрэг эрсийн болон хөгшдийн гэх мэт хүн ам, өрхийн элдэв тоо бүртгэл, мал сүргийн тоо бүртгэл, алба татвар төлж барагдуулах, уул овоо тахих, тухайн нутаг оронд гарсан ган зуд, бэрхшээл, тухайн аймаг, хошууны нутаг дэвсгэр дэх худалдаа наймааны хэрэг, гэмт хэрэг, дээд газраас дагаж мөрдүүлэхээр тушаасан элдэв бичгийн зүйл зэрэг нийтлэг агуулга бүхий албан баримтууд зонхилно.

3. **Их шавь, харьяа сүм дацангууд.** Үүнд, Халхын Богд Жавзандамба хутагтын их сан, Их Хүрээний аймаг, дацан, хурлууд, Их шавь, тамгатай хутагтуудын шавь болон сүм хийдүүд зэрэг нийт 78 хөмрөг буй. Шавь гэдэг нь хутагт лам нарын харьяанд байх ард иргэдийг заасан үг бөгөөд өөрөөр ламын хошуу гэж хэлдэг. Эдгээр хөмрөгт хутагт лам нарын сан хөмрөг дэх эд зүйл, мал сүргийн тоо хэмжээ, лам нарын тоо бүртгэл, шавь ардын өрх амын тоо, хурал ном хурах болон бусад сүм хийдийн үйл ажиллагаанд хэрэглэх зүйлийн тоо, сан жасын тоо бүртгэл, өргөл барьц болон зарлагын хэмжээ, сүм хийдэд унших, хурал хурах номын нэр жагсаалт, хутагтуудын уг эх гэх мэт ламын хошуу болон сүм хийдийн байнгын үйл ажиллагаатай холбоотой баримтууд зонхилно.
4. **Өртөө.** Үүнд, Хүрээний зүүн замын өртөө, Хүрээ-Хиагтын буухиа өртөө, Улиастай-Хүрээ замы өртөө, Улиастай-Ховд замын өртөө, Харчин хавсрага өртөө, Халхын 20 өртөө, Хүрээ-Далдолооны буухиа өртөөний ...зэрэг 9 хөмрөг буй. Өртөөний алба хаагчдын өрх ам, малын тоо, өртөө улаа шүүс хэрэглүүлэх, өртөөний хүнс мал, хэрэглэх зүйлийг ханган бэлтгэх, өртөөг шалгах зэрэг хэрэг явдалд холбогдсон баримт нийтлэг буй.
5. **Харуул.** Үүнд, Зүүн хоёр аймгийн харуулыг бүгд захирах засгийн жасаа, Баруун хоёр аймгийн харуулыг бүгд захирах засгийн жасаа, аймгуудын харуулыг товчлон захирах засаг ба харуулууд, Алтайн суман харуул... зэрэг газрын 7 хөмрөг буй. Эдгээр хөмрөгт харуулын алба хааж буй өрх амын цэс, харуулын газраас уламжилсан хэрэг явдлаар харилцсан хэрэг, харуулыг шалгах, харуулын хэрэглэл зүйлийг бэлтгэн хангах, занги, хүнд цэргийг томилох тухай баримт нийтлэг хадгалагдаж байна.
6. **Түүхэн хүмүүс.** 1755-1758 онд Манжийн эсрэг зэвсэгт тэмцлийг удирдагч Амарсанаа (М-180), Чингүнжав (М-181) нарын тухай баримтууд тус бүр нэг, нийт

2 хөмрөг бий.

7. **Хятадын худалдааны пүүс.** Хятадын Даашинхүүгийн⁴⁾ пүүсний нэг хөмрөг (M-219) буй. Энэ пүүс нь Хүрээ, Улиастай, Ховд хотод салбараа нээж, цай, торго, бөс бусад өргөн хэрэглээний хятад барааг Монголд авчирч, Монголоос мал худалдаж авдаг байжээ. Мөн Хиагтаар дамжуулан Оросуудтай худалдаа хийж байв. Монголчууд Чингийн төрийн хүнд алба татварыг төлөхийн тулд арга буюу мөнгө зээлэх, мөн өөрсдийн хэрэгцээний эд барааг зээлээр авах зэргээр тус пүүсэд их хэмжээний өртэй болсон байсан ба Даашинхүүгийн пүүс нь мөнгөө хүүлэх аргаар ихээхэн ашиг олж байсан юм.

Чин улсын үед хамаарах баримтуудыг ерөнхий шинжээр нэгтгэн үүсгэсэн 11 хөмрөг нь:

1. Наадмын баримтын цуглуулга (M-159)
2. Газрын зургийн цуглуулга (M-167)
3. Ноёд тайж нарын гэрийн үеийн бичмэлийн цуглуулга (M-168)
4. Тамга тэмдгийн цуглуулга (M-169)
5. Ноёд түшмэд, лам нарын захидлын цуглуулга (M-170)
6. Хуулбар болон орчуулгын баримтын цуглуулга (M-179)
7. Хууль зүйлийн бичгийн цуглуулга (M-182)
8. Манжийн үеийн баримтын цуглуулга (M-183)
9. Хятад хэлээрх баримт (M-222)
10. Эртний сурвалж, бичиг зохиолын цуглуулга (M-223)
11. Төвд хэлээрх ном судрын цуглуулга (M-224) зэрэг болно.

Албан бичгүүдийн төрөл зүйл нь хааны зарлиг, өргөмжлөл, айлтгал, өргөх бичиг, тушаах болон илгээх бичиг, угийн бичиг, хууль зүйлийн бичиг, тэмдэгт бичиг, цэс, данс, захидал гэх мэт Чингийн үеийн уламжлалт албан бичгийн олон төрөл зүйл бүхий бөгөөд тухай үеийн албан бичгийг үйлдэх, хөглөх тогтсон хэв журмын дагуу үйлдсэн эх ноорог, ирсэн ба явуулсан жинхэнэ эх, хуулга эх байдлаар аль аль нь тохиолдож байна. Хэлбэрийн хувьд баримтын агуулга, тухайн эхийн зориулалтаас шалтгаалан нуга лбар, дэвтэрлэсэн, хуйлмал хэлбэртэй. Баримтын ихэнхийг муутуу цаасанд, өргөмжлөл, гэрийн үеийн бичмэл зэрэг зарим цөөн баримтыг маажиндсан даавуунд бичсэн ажээ.

Гэвч, Чингийн үеийн баримтын сан хөмрөгүүдэд манж хэлээр хэдий орчим баримт байгаа талаар тодорхой судалгаа хараахан үгүй, манж хэлээрх баримтын бүртгэлийг тусад нь бүртгэж гаргаагүй байгаа юм. Дээр дурдсанчлан олон хөмрөг дэх хадгаламжийн нэгжүүдийг түүхэн хэрэг явдал, он цагаар нь төрөлжүүлэн ангилдаг тул нэг хадгаламжийн нэгжид манж, монгол хэлээр бичсэн баримтууд хутгалдан ордог. Иймээс манж хэлээрх баримтыг бүртгэж, жагсаалт гаргах нь цаг хүч шаардсан хүчир мөртөө, нөгөө

4) Da shèng kuì (大盛魁) пүүс нь Хөх хотод төвтэй, Чингийн үед Монголд худалдаа хийж байсан хамгийн том пүүс байсан бөгөөд Оросод цайний лүүлэхэд чухал үүрэг гүйцэтгэж байв.

Монгол улсын Үндэсний төв архив дахь манж баримтын тухайд

талаар ач холбогдол багатай, илүүц шахам ажил юм. Ерөнхийд нь ажиглаж үзвэл, хошуу, орон нутгийн захиргааны байгууллагуудын хөмрөгт монгол бичгээрх баримт зонхилж, манжаар бичсэн баримт цөөвтөр байдаг бол, Чингийн төрөөс Монголд байгуулсан төлөөний байгууллагууд, аймгийн чуулган болон туслагч жанжны жасаа гэх мэт байгууллагын хөмрөг дэх манж бичгээрх баримтын тоо хэмжээ их, монгол бичгээрх баримт нь харьцангуй бага хувийг эзэлж байна. Өөрөөр хэлбэл, Манжийн үеийн архивын хөмрөг үүсгэгч байгууллагууд эрх хэмжээний хувьд томрох тусам, мөн Гадаад Монголын төрийг засах явдлын яам зэрэг Чин улсын яам жургаантай шууд харилцдаг байгууллага байх тусам манж хэлээрх баримтын тоо хэмжээ нь зонхилох хандлагатай юм. Манж, монголоор бичсэн баримт агуулгын хувьд адил, өөрөөр хэлбэл аль нэг нь орчуулга байхаас гадна, манж хэлээрх бичиг монголоор байхгүй, монгол бичгээрх баримт манжаар байхгүй буюу харилцан нөхвөр болох баримтууд ч олон байна.

Архивын аливаа баримт нь төрөл зүйл, агуулга, хэлбэр хэмжээний хувьд ямар ч байсан ялгаагүй, жинхэнэ эх, хуулга эх, ноорог эх алин боловч түүхэн үнэ цэнтэй баримт мөн. Аль ч баримт нь түүхэн тодорхой он цагт өөрийн гэсэн хэрэгцээ зориулалтаар бий болсон байдаг. Тиймээс огт үнэ цэнгүй архивын баримт гэж байхгүй. Хэдий тийм боловч, тухайн түүхэн хэрэг явдал хэр өргөн далайцтай, хэр нөлөөтэй байсан, эсвэл тухайн хувь хүн буюу байгууллагын эрх үүрэг, түүхэнд гүйцэтгэж байсан үүрэг, нөлөө хэр байсан зэргээс шалтгаалан зарим байгууллагын албан баримт эрдэм шинжилгээний чухал ач холбогдолтой бөгөөд судлаачдын анхаарлыг илүү татдаг нь зүй ёсны хэрэг билээ. Тэгвэл, Чин улсын үед Монголын нийгмийн байгууллын тогтолцоонд чухал байр эзэлж байсан Хүрээ сайд, Улиастайн жанжны газар, Улиастайн аймгийн жасаад, Ховд хотын Халхын жасаа гэх мэт голлох байгууллагуудын түүхэн үйл ажиллагааны явцад бий болсон архивын сан хөмрөгүүдийн баримтын дийлэнхийг манж хэлээрх баримтууд эзэлж байна. МУҮТА дахь цаг хугацааны хувьд хамгийн эртний баримт нь Ойрдын Галдан бошогт ханы тухай 1674 оны баримт юм. Нарийвчилсан тооцоо байхгүй боловч, МУҮТА-ын мэргэжилтнүүдийн багцаалан хэлдэг баримжаагаар Чин улсын үеийн монгол дахь цэрэг захиргааны гол төвлөрсөн байгууллагуудын баримтын 70-аас доошгүй хувь нь манж бичгээр хадгалагдаж байгаа ажээ. МУҮТА-ын ажилтан, архивч судлаач Ү.Дэлгэрмаа “Улиастайн жанжны газрын сан хөмрөгийн тухайд” хэмээх өгүүлэлдээ « Хязгаар дахиныг тогтоогч зүүн этгээдийн туслагч жанжны⁵⁾ газрын хөмрөгийн баримтын хэлний онцлогийг авч үзвэл, 83,9 хувь нь манж хэлээр, 13,04 хувь нь монгол бичгээр, 3,86 хувь нь манж монгол бичгээр хослуулан бичсэн байна » гэж тооцоолжээ⁶⁾.

5) Jecen be togtobure hashū ergi aisilara jiyangiyūn

6) Ү. Дэлгэрмаа, “Улиастайн жанжны газрын сан хөмрөгийн тухай д” // Монголын түүхийн сурвалж судлал: Өнөөгийн байдал, судалгааны асуудлууд, УБ, 2004 он. 83-87 т.

Дээрх багцаа баримжаанаас үзэхэд МУУТА дахь манж хэл бичгээр уламжилсан баримтууд нь түүх, хэл, соёлын нэн чухал дурсгал бөгөөд эрдэм шинжилгээний их ач холбогдолтой гэдэг нь маргаангүй юм. Гэвч, өнөөгийн байдлаар МУУТА дахь манж хэлээрх баримтыг судалгаа шинжилгээний эргэлтэд төдийлэн хангалттай ашиглаж чада хгүй байсаар иржээ. Зөвхөн манж хэл бичгээр уламжилсан өдий төдий чухаг баримт судалгааны эргэлтэд орохгүй байсаар буй нь тодорхой юм. Монголд Манжийн үеийн түүхийг судалсан ахмад түүхчид ихэвчлэн манж хэл сайн мэдэх хуучин цагийн боловсролтон өвөгчүүлийн тусламжтайгаар манж архивын баримтыг ашиглаж байсан бол эдүгээ манж хэл бичиг сайн мэдэх залуу түүхчид цөөнгүй болж байна. Сүүлийн үед аль нэгэн түүхэн хэрэг явдалд хамаарах баримтын хүрээ хэмжээнд манж хэлээр буй анхаарал татахуйц баримтуудыг гэрэл зургаар хэвлэн нийтэлж, судалгааны эргэлтэд оруулах, орчуулах эмхэтгэх зэрэг ажлыг санаачлан хийж эхэлж байгаа нь сайшаалтай. Үүнд, зөвхөн Монголын төдийгүй, гадаадын эрдэмтэн судлаачид ч ихээхэн анхаарч байна.

МУУТА дахь манж хэлээрх баримтууд нь Чингийн үеийн Монголын түүх болон Чин улсаас Оросын хаант улстай харилцсан түүхэнд холбогдох чухаг баримтууд билээ. Түүхэн дурсгал баримтыг хадгалах, хамгаалах хамгийн шилдэг арга бол түүнийг судлах, судалгааны эргэлтэд оруулж нийтлэх явдал юм.

Холбогдох ном зохиол:

1. Ү. Дэлгэрмаа, “Улиастайн жанжны газрын сан хөмрөгийн тухайд” // Монголын түүхийн сурвалж судлал: Өнөөгийн байдал, судалгааны асуудлууд, Уб, 2004 он. 83-87 т.
2. Манжийн эрхшээлийн үеийн Монгол, МУИС, Түүхийн тэнхим, Уб, 2004 он.
3. МУУТА-ын М-1 хөмрөгийн 1 дүгээр дансны өмнөх үг /албан хэрэгцээнд/
4. МУУТА-ын М-2 хөмрөгийн дансны өмнөх үг /албан хэрэгцээнд/
5. Монголын түүхийн сурвалж судлал: Өнөөгийн байдал, судалгааны асуудлууд, эрхэлсэн Ц.Гантулга, МУБИС, Монголын түүхийн тэнхим, Уб, 2004 он
6. Г. Норовсамбуу, Монголын эрт эдүгээгийн төрийн бичиг, архивын товчоон, Уб 2003, 222т
7. Г.Норовсамбуу, Монголын архив, албан хэрэг, түүний бичгийн хэв. Уб, 1975.

Монгол улсын Үндэсний төв архив дахь манж баримтын тухайд

Хавсралт

ҮНДЭСНИЙ ТӨВ АРХИВЫН ТҮҮХИЙН БАРИМТЫН ТӨВИЙН ЧИН УЛСЫНҮЕИЙН ХӨМРӨГИЙН ЖАГСААЛТ

Д/д	Хөмрөгийн нэр	Хөмрөгийн дугаар	Хадгаламжийн нэгжийн тоо /ойролцоо/
1	Хүрээнд сууж хэрэг шийтгэгч манж сайдын яам	М-1	8923
2	Улиастайн манж жанжны газар	М-2	206
3	Улиастайн жасаалын монгол жанжны газар	М-3	1209
4	Улиастай дахь Түшээт хан аймгийн жасаа	М-4	909
5	Улиастай дахь Сэцэн хан аймгийн жасаа	М-5	770
6	Улиастай дахь Засагт хан аймгийн жасаа	М-6	66
7	Улиастай дахь Сайн ноён хан аймгийн жасаа	М-7	105
8	Ховд хотын халхын жасаа	М-8	102
9	Түшээт хан аймгийн чуулган даргын жасаа	М-9	21533
10	Түшээт хан аймгийн туслагч жанжны жасаа	М-10	7440
11	Хүрээн дэх Түшээт хан аймгийн суурин жасаа	М-11	3333
12	Халхын Очирбат түшээт ханы хошуу	М-12	64
13	Түшээт хан аймгийн Дархан чин вангийн хошуу	М-13	124
14	Түшээт хан аймгийн Эрдэнэ дайчин вангийн хошуу	М-14	138
15	Түшээт хан аймгийн Зоригт вангийн хошуу	М-15	42
16	Түшээт хан аймгийн Мэргэн вангийн хошуу	М-16	236
17	Түшээт хан аймгийн Түшээт вангийн хошуу	М-17	391
18	Түшээт хан аймгийн Эрдэнэ вангийн хошуу	М-18	322
19	Түшээт хан аймгийн Дайчин вангийн хошуу	М-19	66
20	Түшээт хан аймгийн Баатар вангийн хошуу	М-20	20
21	Түшээт хан аймгийн Сэцэн вангийн хошуу	М-21	29
22	Түшээт хан аймгийн Бишрэлт гүний хошуу	М-22	43
23	Түшээт хан аймгийн Ачит гүний хошуу	М-23	23
24	Түшээт хан аймгийн Ахай гүний хошуу	М-24	46
25	Түшээт хан аймгийн Сүжигт гүний хошуу	М-25	30
26	Түшээт хан аймгийн Цогтой гүний хошуу	М-26	14
27	Түшээт хан аймгийн Жонон гүний хошуу	М-27	28
28	Түшээт хан аймгийн Илдэн гүний хошуу	М-28	26
29	Түшээт хан аймгийн Эетэй гүний хошуу	М-29	20
30	Түшээт хан аймгийн Далай гүний хошуу	М-30	55
31	Сэцэн хан аймгийн чуулган даргын жасаа	М-31	11252
32	Сэцэн хан аймгийн туслагч жанжны жасаа	М-32	7418
33	Хүрээн дэх Сэцэн хан аймгийн суурин жасаа	М-33	2877
34	Халхын Сэцэн ханы хошуу	М-34	1503
35	Сэцэн хан аймгийн Дархан хошой чин вангийн хошуу	М-35	27
36	Сэцэн хан аймгийн Чин ачит вангийн хошуу	М-36	7761
37	Сэцэн хан аймгийн Илдэн вангийн хошуу	М-37	957
38	Сэцэн хан аймгийн Эрхэмсэг бэйсийн хошуу	М-38	318
39	Сэцэн хан аймгийн Эрдэнэ далай вангийн хошуу	М-39	44
40	Сэцэн хан аймгийн Жонон вангийн хошуу	М-40	51
41	Сэцэн хан аймгийн Бишрэлт вангийн хошуу	М-41	226
42	Сэцэн хан аймгийн Хурц вангийн хошуу	М-42	48
43	Сэцэн хан аймгийн Сэцэн вангийн хошуу	М-43	54
44	Сэцэн хан аймгийн Үйзэн вангийн хошуу	М-44	57
45	Сэцэн хан аймгийн Дайчин бэйсийн хошуу	М-45	32
46	Сэцэн хан аймгийн Дархан бэйсийн хошуу	М-46	23
47	Сэцэн хан аймгийн Баатар бэйсийн хошуу	М-47	22
48	Сэцэн хан аймгийн Ест бэйсийн хошуу	М-48	44
49	Сэцэн хан аймгийн Сүжигт бэйсийн хошуу	М-49	208
50	Сэцэн хан аймгийн Зоригт бэйсийн хошуу	М-50	33
51	Сэцэн хан аймгийн Эрх гүний хошуу	М-51	33
52	Сэцэн хан аймгийн Ахай гүний хошуу	М-52	38
53	Сэцэн хан аймгийн Саруул гүний хошуу	М-53	16
54	Сэцэн хан аймгийн Эрдэнэ гүний хошуу	М-54	14
55	Сэцэн хан аймгийн Сэргэлэн гүний хошуу	М-55	421
56	Сэцэн хан аймгийн Мэргэн гүний хошуу	М-56	31
57	Сэцэн хан аймгийн Егүзэр хутагтын шавь	М-57	520

滿洲語文學 자료의 현황 및 그 연구와 활용

58	Сайн ноён хан аймгийн чуулган даргын жасаа	M-58	637
59	Сайн ноён хан аймгийн туслагч жанжны жасаа	M-59	95
60	Хүрээн дэх Сайн ноён хан аймгийн суурин жасаа	M-60	25
61	Халхын Сайн ноёны хошуу	M-61	72
62	Сайн ноён хан аймгийн Далай чойнхор вангийн хошуу	M-62	403
63	Сайн ноён хан аймгийн Дайчин вангийн хошуу	M-63	28
64	Сайн ноён хан аймгийн Хошууч мэргэн бэйсийн хошуу	M-64	279
65	Сайн ноён хан аймгийн Баатар гүний хошуу	M-65	1834
66	• • Сайн ноён хан аймгийн Ест бэйсийн хошуу	M-66	810
67	Сайн ноён хан аймгийн Илдэн вангийн хошуу	M-67	257
68	Сайн ноён хан аймгийн Мэргэн гүний хошуу	M-68	39
69	Сайн ноён хан аймгийн Итгэмжит бэйсийн хошуу	M-69	5
70	Сайн ноён хан аймгийн Эрх гүний хошуу	M-70	9
71	Сайн ноён хан аймгийн Саруул гүний хошуу	M-71	7
72	Сайн ноён хан аймгийн Цогтой гүний хошуу	M-72	6
73	Сайн ноён хан аймгийн Ачит гүний хошуу	M-73	4
74	Сайн ноён хан аймгийн Түшээт гүний хошуу	M-74	7
75	Сайн ноён хан аймгийн Сэцэн чин вангийн хошуу	M-75	7
76	Сайн ноён хан аймгийн Эрдэнэ бандид хутагт ламын гэгээний шавь	M-76	88
77	Сайн ноён хан аймгийн Нар ванчин хутагтын шавь	M-77	2
78	Засагт хан аймгийн чуулган даргын жасаа	M-78	272
79	Засагт хан аймгийн туслагч жанжны жасаа	M-79	283
80	Засагт хан аймгийн Чин ачит вангийн хошуу	M-80	74
81	Засагт хан аймгийн Дайчин вангийн хошуу	M-81	3
82	Засагт хан аймгийн Үйзэн бэйлийн хошуу	M-82	3
83	Засагт хан аймгийн Сартуул сэцэн вангийн хошуу	M-83	7
84	Засагт хан аймгийн Жалханз хутагтын шавь	M-84	3
85	Их шавийн Эрдэнэшанзудбын яам	M-85	3569
86	Жавзандамба хутагтын их сан	M-86	8207
87	Жавзандамба хутагтын дотоод сан	M-87	899
88	Их Хүрээний Бадамъег дацан	M-88	55
89	Их Хүрээний Г унгаачойлон дацан	M-89	599
90	Их Хүрээний Дашчоймбол дацан	M-90	898
91	Их Хүрээний Пунцагшаддублин дацан	M-91	313
92	Их Хүрээний Зурхайн дацан	M-92	201
93	Их Хүрээний Ламрим дацан	M-93	172
94	Их Хүрээний Майдар дацан	M-94	282
95	Их Хүрээний Эмч нарын дацан	M-95	541
96	Их Хүрээний Идгаачойлон дацан	M-96	11
97	Маймаа хотын Дашсамданлин дацан	M-97	139
98	Их Хүрээний Цогчин хурал	M-98	490
99	Их Хүрээний Андуу нарын аймаг	M-99	262
100	Их Хүрээний Вангайн аймаг	M-100	57
101	Их Хүрээний Дашдандарлин аймаг	M-101	49
102	Их Хүрээний Дархан эмчийн аймаг	M-102	159
103	Их Хүрээний Дондовлин аймаг	M-103	11
104	Их Хүрээний Дугарын аймаг	M-104	156
105	Их Хүрээний Дүйнхорын аймаг	M-105	13
106	Их Хүрээний Жасын аймаг	M-106	152
107	Их Хүрээний Жадарын амаг	M-107	142
108	Их Хүрээний Жамьянсүнгийн аймаг	M-108	134
109	Их Хүрээний Зоогийн аймаг	M-109	95
110	Их Хүрээний Лам нарын аймаг	M-110	134
111	Их Хүрээний Мэргэн номон ханы аймаг	M-111	71
112	Их Хүрээний Мэргэн хамбын аймаг	M-112	119
113	Их Хүрээний Намдоллин аймаг	M-113	179
114	Их Хүрээний Номчийн аймаг	M-114	104
115	Их Хүрээний Сангайн аймаг	M-115	195
116	Их Хүрээний Тойсомлин аймаг	M-116	116
117	Их Хүрээний Өрлүүдийн аймаг	M-117	4
118	Их Хүрээний Хүүхэн ноёны аймаг	M-118	115
119	Их Хүрээний Сэцэн тойны аймаг	M-119	285
120	Их Хүрээний Чойнхорлин аймаг	M-120	10
121	Их Хүрээний Шүтээний аймаг	M-121	1406
122	Их Хүрээний Эрдэнэ хувилгааны аймаг	M-122	224
123	Их Хүрээний Эрхэм тойны аймаг	M-123	388
124	Их Хүрээний Эрдэнэ сэцэн ноёны аймаг	M-124	45

Монгол улсын Үндэсний төв архив дахь манж баримтын тухайд

125	Их шавийн Эрдэнэ зуу хийд	М-125	36
126	Их шавийн Баруун хүрээ	М-126	24
127	Их шавийн Баруун хүрээний Ноён ламын хийд	М-127	11
128	Их шавийн Амарбаясгалантөндөр гэгээний хийд	М-128	47
129	Их шавийн Хэрлэнгийн Шаддүбдаржаалин зүүн хүрээ	М-129	7
130	Их шавийн Шашныг бадруулагч Дамбадаржаагийн хийд	М-130	94
131	Их шавийн Билэг өлзийт Бэрэвэнгийн хүрээ	М-131	17
132	Их шавийн Буюн ерөөлт Дашчойнхорлин хийд	М-132	13
133	Их шавийн Буюныг залбирагч Манзуширын хийд	М-133	166
134	Их шавийн Өршөөлийг соёгч Нинждолбийн хүрээ	М-134	16
135	Их шавийн Өлзий хутаг ном дэлгэрүүлэх Дашчойнхорлин ламын хүрээ	М-135	335
136	Их шавийн Дамчойжүрмидлин хүүхэн хутагтын хүрээ	М-136	8
137	Их шавийн Даяны Шаддүблингийн хүрээ	М-137	5
138	Их шавийн Чүлтэмжанчивлингийн рашааны хийд	М-138	86
139	Их шавийн Өглөгийг бадруулсан Дашдаржаалин Дарьгангын хүрээ	М-139	9
140	Их шавийн Г анданчойлон Эрдэнэ номон хамбын хүрээ	М-140	3
141	Их шавийн Доржчойлин сүм	М-141	5
142	Их Хүрээний Бизъяагийн аймаг	М-142	2
143	Халхын хорин өртөө	М-143	710
144	Харчин хавсарга өртөө	М-144	1890
145	Хүрээ-Далдолооны буухиа өртөө	М-145	1677
146	Хүрээ-Хиагтын буухиа өртөө	М-146	65
147	Улиастай, Ховд замын сүмэн өртөө	М-147	3
148	Улиастай, Хүрээ замын сүмэн өртөө	М-148	429
149	Хүрээний зүүн замын сүмэн өртөө	М-149	316
150	Улиастай-Жинжлэг замын өртөө	М-150	303
151	Зүүн хоёр аймгийн харуулыг бүгд захирах засгийн жасаа	М-151	238
152	Сэцэн хан аймгийн харуулыг товчлон захирах засаг ба харуулууд	М-152	4366
153	Түшээт хан аймгийн харуулыг товчлон захирах засаг ба харуулууд	М-153	3309
154	Баруун хоёр аймгийн харуулыг бүгд захирах засгийн жасаа	М-154	130
155	Сайн ноён хан аймгийн харуулыг товчлон захирах засаг ба харуулууд	М-155	149
156	Засагт хан аймгийн харуулыг товчлон захирах засаг ба харуулууд	М-156	190
157	Алтайн сүмэн харуул	М-157	42
158	Говьдүржүүлэх албаны тэмээн сүргийг захирагчийн жасаа	М-158	1411
159	Наадмын баримтын цуглуулга	М-159	381
160	Дөрвөдийн баруун гарын Сайн заяат аймгийн чуулган даргын жасаа	М-160	47
161	Алтай Урианхайн сүл амбаны тамгын жасаа	М-161	1
162	Дөрвөдийн зүүн гарын Төгс хөлөг далай ханы хошуу	М-162	15
163	Алтай Урианхайн зүүн гарын мэйрэн зангийн хошуу	М-163	19
164	Алтай Урианхайн зүүн гарын бүгдийн даргын жасаа	М-164	3
165	Тагна Урианхайн бүгдийн даргын жасаа	М-165	71
166	Долнуурын сүмийн бүгд лам банди нарыг захирах газрын баримтын цуглуулга	М-166	6
167	Г азрын зургийн цуглуулга	М-167	118
168	Ноёд тайж нарын гэрийн үеийн бичмэлийн цуглуулга	М-168	1877
169	Тамга тэмдгийн цуглуулга	М-169	56
170	Ноёд түшмэд, лам нарын захидлын цуглуулга	М-170	687
171	Их Хүрээний Баргын аймаг	М-171	6
172	Түшээт хан аймгийн Үйзэн гүний хошуу	М-172	28
173	Их Хүрээний Бандидын аймаг	М-173	2
174	Их Хүрээний Махмаягийн аймаг	М-174	7
175	Засагт хан аймгийн Цогтой вангийн хошуу	М-175	4
176	Алтай Урианхайн баруун гарын бүгдийн даргын хошуу	М-176	1
177	Засагт хан аймгийн Эрдэнэ дүүрэгч вангийн хошуу	М-177	2
178	Сайн ноён хан аймгийн Чин сүжигт номон ханы хутагтын шавь	М-178	98
179	Хуулбар болон орчуулгын баримтын цуглуулга	М-179	217
180	Амарсанаагийн тухай баримтын цуглуулга	М-180	54
181	Чингүнжавын тухай баримтын цуглуулга	М-181	57
182	Хууль зүйлийн бичгийн цуглуулга	М-182	138

滿洲語文學 자료의 현황 및 그 연구와 활용

183	Манжийн үеийн баримтын цуглуулга	M-183	3083
184	Сайн ноён хан аймгийн Жонон засгийн хошуу	M-184	1
185	Сайн ноён хан аймгийн Эетэй засгийн хошуу	M-185	4
186	Сайн ноён хан аймгийн Бишрэлт засгийн хошуу	M-186	6
187	Сайн ноён хан аймгийн Үйзэн засгийн хошуу	M-187	3
188	Сайн ноён хан аймгийн Зоригт засгийн хошуу	M-188	1
189	Сайн ноён хан аймгийн Ахай засгийн хошуу	M-189	11
190	Сайн ноён хан аймгийн Дархан засгийн хошуу	M-190	2
191	Сайн ноён хан аймгийн Эрдэнэ засгийн хошуу	M-191	13
192	Сайн ноён хан аймгийн Заябандид хутагтын шавь	M-192	6
193	Засагт хан аймгийн Засагт ханы хошуу	M-193	1
194	Сайн ноён хан аймгийн Зоригт вангийн хошуу	M-194	1
195	Сайн ноён хан аймгийн Зоригт вангийн хошуу	M-195	1
196	Засагт хан аймгийн Ахай засгийн хошуу	M-196	1
197	Засагт хан аймгийн Далай засгийн хошуу	M-197	2
198	Засагт хан аймгийн Жонон засгийн хошуу	M-198	1
199	Засагт хан аймгийн Мэргэн засгийн хошуу	M-199	1
200	Засагт хан аймгийн Баатар засгийн хошуу	M-200	1
201	Засагт хан аймгийн Дархан засгийн хошуу	M-201	1
202	Засагт хан аймгийн Бишрэлт гүний хошуу	M-202	1
203	Засагт хан аймгийн Ялгуусан хутагтын шавь	M-203	1
204	Хөвсгөл нуурын урианхай хошууг захирагч бүгдийн дарга	M-204	76
205	Мянгад нэгэн хошуу	M-205	1
206	Хурдан даяанч хувилгааны харьяат Дашчоймпиллин хийд	M-206	2
207	Их Хүрээний Дэчингалбын хийд	M-207	6
208	Г унгаадэжидлин сүм	M-208	4
209	Гайхамшигт Тохлогтой хийд	M-209	1
210	Их Хүрээний Чойжин ламын сүм	M-210	2
211	Пандилан сүм	M-211	10
212	Түшээт ханы Пунцагдашчойнхор-лин хурал	M-212	1
213	Сэцэн ханы Дэчинлхүндэвлин хурал	M-213	1
214	Сайн ноён хан аймгийн номон хан Эрдэнэ хамбын хутагтын шавь	M-214	4
215	Сэцэн ханы Дашпунцаглин хийд	M-215	2
216	Их Хүрээний Жүд дацан	M-216	2
217	Сэцэн ханы Чоймпиллин хурал	M-217	2
218	Түгээмэл ивээлт сүм	M-218	2
219	Даашинхүүгийн пүүс	M-219	74
220	Сэцэн хан аймгийн Да жанжны хоорондох өртөө	M-220	74
221	Түшээт хан аймгийн Да жанжны хоорондох өртөө	M-221	11
222	XII-XX зууны эхэн үед холбогдох хятад хэлээрх баримт	M-222	1089
223	Эртний сурвалж бичиг зохиолын цуглуулга	M-223	
224	Төвд ном судар, баримт бичгийн цуглуулга	M-224	360

[발표 2 - 번역문]

몽골국립중앙문서보관소의 만주어 자료에 대하여

바야르세хэн(몽골국립대)

청조 이전 몽골인들은 만주인들과 전통몽골문어를 사용하여 교류했으며, 만주 내부무의 내각 관료는 교류 서신 및 문서를 만주어로 번역하여 왕에게 보고하거나 기록 보관하였다. 17-18세기 몽골인 중 일부는 청의 관리로 들어가게 되었으며, 할호(Khalkh) 몽골 1691년에 델링 노르(Dolon nuur)에서 있었던 회맹(會盟)에서 몽골은 청에 복속되었다. 이후 국가공식 언어는 만주어가 되었으며, 모든 공문서와 문건은 만주어와 전통몽골문어로 기록되었다. 만주어로 기록된 문서가 가장 많이 소장되어 있는 곳은 중국 베이징의 제일역사당안관(中国第一历史档案馆)¹⁾, 대만의 국립고궁박물원(國立故宮博物院)²⁾, 중국 심양의 요녕성당안국(辽宁省档案局)³⁾ 등이다. 몽골은 만주와 관련된 공문서들을 대부분 몽골국립중앙문서보관소에 소장하고 있으며 소량의 중요문건은 국립도서관에 보관하고 있다.

1921년 몽골은 학술위원회⁴⁾를 설립하고, 국내외 각지에 산재해 있던 몽골 역사와 관련된 서적, 문서 등 각종 기록 자료를 발굴하여 수집하는 일에 큰 의의를 두었다. 이후 학술위원회는 1927년 12월 5일 10번째 안건으로 문서집중보관소 건립에 매진할 것을 결의하였으며, 이는 후에 몽골국립중앙문서보관소를 설립되는 토대가 되었다. 1932년 10월 14일 선출된 총리는 29번째 훈령에서 “과학연구소에서 시행하는 학술조사, 연구, 교육, 기록과 보관, 저작 및 보급 등의 사업에 옛 서적과 경전, 역사서, 관청의 업무기록, 세무관련 서류 등은 훌륭한 참고 자료가 된다. 청대부터 몽골인민혁명정부가 설립 될 때 까지 후레(Khüree)에 있던 부서, 즉 투셰트 한(Tüsheet khan), 세첸 한(Sečen khan) 도청 등 대규모 관청과 울리아스태(Uliastai) 등의 지방 관청의 다섯 부서의 문서를 회수한 후 각 문건 별로 기록하여 울란바타르로 송부하고 검토 및 자료화 하여 인민에게 제공하는 것을 정부가 맡아 수행해야 하는 일임은 마땅하다...” 라고 발표하였다. 이후 역사 기록 및 공문서들을 몽골국립중앙문서보관소에 집중적으로 등록, 분류, 보관, 번역 및 전사, 활용 및 연구하는 작업이 진행되어왔다.

몽골국립문서보관소에 소장되어 있는 문서들은 시대별로 1. 청대, 2. 복드 한(Bogd Khaan) 몽골 시대, 3. 인민혁명 이후, 세 시기로 분류한다. 몽골국립문서보관소에서는 기록물을 시대별, 혹은 한 특정 사건 별로 분류하여 각 기록물군(記錄物群)⁵⁾을 구성하고, 그 하위 항목에서는 한 시기에 각 사건에 관련되는 기록물들을 단위별로 분류하여 보관한다. 청대 기록물군에 포함된 사건 별 소단위들은 그 분량에 있어 편차를 보이는데, 몇몇은 1~2장의 문서에 지나지 않는 반면, 일부는 300~400여 건의 분량을 보이기도 하며, 한 건이 수십 장으로 구성되어 있는 경우도 있다. 기록물군마다 문서의

1) First Historical Archives of China

2) National Palace Museum Archives (Taipei)

3) Liaoning Provincial Archives (Shenyang)

4) 현재의 몽골과학아카데미의 전신으로, 1934년에 과학연구소(Committee of Sciences), 1957년에 과학-고등교육 위원회, 1960년에 과학아카데미(Academy of Sciences)로 개칭되었다. (역자 註)

5) 몽골국립중앙문서보관소에서는 기록물군을 러시아어를 차용하여 ‘F(Фонд, fond)’로 표시한다. 기록물군의 하위 단위인 문서철(File)은 몽골어로 ‘D(Данс, Dans)’로 표시한다. (역자 註)

滿洲語文學 자료의 현황 및 그 연구와 활용

분류 표제어를 관련되는 사건의 주제어와 제목, 발생 시기, 페이지 수, 건 수 등을 가리키는 구성으로 문서철을 제작한다. 대부분의 기록물군은 하나의 분류표로 되어 있으며, 대형 기록물군의 경우 2~4개의 분류표를 가진다. 청대 기록물군은 1674-1911년을 포괄하며, M-1 부터 M-224 까지의 정렬 번호가 매겨진 총 224개의 보관단위 별 분류와 134,247건의 문건이 보관되어 있다. 이는 다시 288개의 문서철로 나누어져 있다.(표 참조) 청대 문건들은 주로 만주어와 전통몽골문어로 기록되어 있으며, 일부는 중국어, 티베트어, 러시아어로 작성되었다.

청대 224건의 기록물군 중 213건은 각 기관과 인물에 대한 정보이며, 11건은 기록물군에 대한 총괄 개요를 엮은 문건으로 구성되어 있다. 청대 당시의 문서를 제공했던 부서 각 기관들의 권리와 의무, 활동과 범위에 대하여 연구해야 할 필요성이 있으며, 이는 학술적 가치와도 연관 지어 볼 수 있다.

청대 문서 출처와 관련되는 213건의 기록물군들은 아래와 같다:

1. 만주의 관할 기관들

청에서 몽골에 설치한 후레 새드(Khüree said), 변방 업무를 관장하는 울리아스태 잔징(Uliastai janjin) 등 군사 및 행정업무를 수행하는 11개 기관의 자료가 소장되어 있다. 이 중 후레 새드, 울리아스태 잔징에 대해서는 별도로 언급하겠다.

2. 아이막(Aimag) 호쇼(Khoshuu)

할호의 네 아이막 (TüsHEET khan, Sečen khan, Sain noyon, Zasagt khan)에는 각각 맹장(盟長), 부(副)맹장, 부장군(副將軍, tuslagch janjin)이 있었으며 해당 아이막의 정무와 군사업무를 담당하였다. 본 기록물군에는 후레에 위치한 각 지방 4개 아이막의 부속 관청들과 더르버드(Dörvöd) 두 아이막의 관청, 알타이 오리안하이(Altai Uriankhai), 타그나 오리안하이(Tagna Uriankhai), 험스겔 오리안하이(Khövsgöl Uriankhai)의 관청 등에 대한 105건의 내용이 소장되어 있다. 지방 행정기관들의 문서에는 귀족, 승려, 평민, 병역, 노인, 등의 호구(戶口), 가축보유 상황, 세금징수, 산신제, 오보제(Ovoo 祭), 각 지방의 자연재해, 경제활동, 범죄, 상부기관에서 내려온 명령 등의 업무내용을 담은 공문서들이 주를 이룬다.

3. 이호 샤비(Ikh shavi), 관할 사원(寺院)과 도량(道場)들

할호 북드 잠장담바 호탁트(Bogd Javzandamba khutagt)의 금고(金庫), 이호 후레의 각 사원과 도량, 말사(末寺)에 대한 총 78건의 기록물군이 소장되어 있다. 샤비(shavi)란 고승이나 활불(活佛)에게 예속된 자로, 활불에게 공납을 바치는 각 관할구역에 있는 주민들을 이룬다. 78건의 기록물군에는 활불들의 금고, 가축 수, 승려 수, 승려의 각종 기록, 관할 주민 수, 호구, 법회(法會), 법회에 사용된 물품 목록, 사원의 금고, 사원의 지출입, 법회의 불경 목록, 활불들의 기원 등 불교 사원들의 활동과 관련되는 문서들이 주를 이룬다.

4. 역참(驛站)

후레의 역참, 후레-카흐타(Kyakhta)구간 고속 역참, 울리아스태-후레 구간 역참, 울리아스태-홉드(Khovd)구간 역참, 하르칭(Kharchin)역참, 할호의 20개 역참, 후레-달덜러(Daldoloo)구간 고속 역참 등에 대한 9건의 기록물군이 소장되어 있다. 본 기록물군에는 역참에 종사하는 인구, 가축 수, 역참에서 제공하는 숙박 및 물품관리, 역참 감사(監査) 등에 대한 관련 기록이 있다.

5. 국경 수비

동부 두 아이막과 서부 두 아이막의 각 국경 수비대 관련 업무를 보는 관청에 대한 7건의 기록물군이 소장되어 있다. 수비대에 종사하는 호구, 수비대 관련 수발(受發) 문서, 수비 업무에 대한 감사, 물품관리, 인사관리에 대한 기록들이 보관되어 있다.

6. 역사 인물

1755-1758년 만주에 대항한 인민 항쟁 주동자 아마르 사나(Amarsanaa)(M-180), 칭궁자브(Chingünjav)(M-181) 에 대한 관련 문서가 각 1건씩 두 기록물군이 소장되어 있다.

7. 중국 무역회사

중국의 다성후(多) 상회에 대한 한 건의 기록물군(M-219)이 보관되어 있다. 다성후 상회는 후레, 울리아스태, 흙드 시에 분점을 내어 차(茶), 비단, 천 등 중국 생활 용품을 몽골에 팔고, 몽골에서 가축을 구매하였다. 또한 카흐타를 통하여 러시아인들과 거래하였다. 몽골인들은 청에 내야 할 세금, 생필품에 대한 외상값 등을 이유로 대규모의 가계대출을 다성후 상회에서 받을 수밖에 없었으며, 다성후 상회는 몽골인들에게 높은 이자를 매기는 형태로 불공정한 이익을 얻었다.

청대 관련 서류들에 대한 11건의 일반 기록물군 개요:

1. 나담축제 (M-159)
2. 지도 (M-167)
3. 귀족들의 문집 (M-168)
4. 인장(印章) (M-169)
5. 귀족, 승려들의 서신 (M-170)
6. 복사본 및 번역본 (M-179)
7. 법령 (M-182)
8. 만주 시대 문건 (M-183)
9. 중국어 문건 (M-222)
10. 고문헌, 고전 소설 (M-223)
11. 티베트어 경전 (M-224)

청대 문서들은 왕의 칙령, 상소문, 지령 및 송부 문서, 족보, 법령, 결재문서, 물품 관리 목록, 회계문서, 서신 등 청대 전통 공문서의 여러 종류 각각 분류되어 있으며 당시 문서를 작성하는 일정한 서식에 따라 제작한 원고, 수발문서의 원문, 복사본 등이 각각 포함되어 있다. 문서들의 형태는 각 서류의 내용과 필요에 따라 접이식, 제책(製冊), 두루마리 등으로 제작되었다. 서류의 대부분은 종이에 전해지는데, 일부 자료는 판각이나 직물에 기록되어있기도 하다.

그러나 청대 문서 기록물군에서는 만주어로 기록된 문건의 수량이 어느 정도인지에 대한 연구가 되어있지 않으며, 만주어 자료에 대하여 별도의 소항목 표제어로 분류해내지 못했다. 앞에서 언급했 다시피 여러 기록물군에는 자료들의 연도와 시기별로 분류되기 때문에 하나의 소항목 표제어 자료에 만주어 몽골어로 된 문서들이 섞여있다. 때문에 만주어 자료를 등록하여 소항목 표제어를 추출하

6) Daashingkhüü, (大盛魁) 상회 : 지금의 중국 내몽골자치구 후허하오터(Hohhot, 呼和浩特)에 본점을 두었다. 청대 외몽골에서 200여 년 동안 활동하였으며, 한족의 교역과 고리대금업을 하였던 큰 상회 중 하나였다. 이 점포는 매년 평균 200만 달러를 유통시켰으며, 몽골에서 매년 50만 마리의 양, 7만 마리의 말을 반출하여 몽골 인민을 착취하고 억압하였다.

는 작업은 시간과 인력을 요구하는 어려운 일이면서도 그 가치가 미미하다. 총괄하여 종합하여보면, 각 도와 지방, 기관들의 관청에 대한 기록물군에는 몽골어로 기록된 문건이 주를 이루고, 만주어로 된 서류는 소수를 차지한다. 반면 청에서 몽골에 세운 파견 기관과 각 도청의 기록물군에는 만주어로 된 문서가 다수이며, 몽골어 문서는 비교적 적은 양이다. 다시 말하면, 청대의 문서 기록물군은 그 문건의 출처 기관의 규모에 따라 비례하며, 몽골과 청의 교류를 직접적으로 담당했던 기관들에 만주어 기록된 문서가 많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만주어와 몽골어로 쓰여진 문서는 내용상 비슷하고, 어느 한 쪽은 번역물일 수도 있으며, 만주어로 기록된 문서가 몽골어본으로는 존재하지 않거나, 몽골어로 된 문서가 만주어본으로는 없거나, 혹은 양측의 문서 대조를 통해 보완할 수 있는 자료도 있다.

몽골국립중앙문서보관소의 어떠한 문서도 분류와 양, 또한 원문, 복사본, 습작본에 상관없이 역사적인 가치가 있는 자료들이며, 역사의 필요에 따라 생성된 것이다. 그렇기에 가치 없는 자료라는 것은 존재하지 않는다. 그렇지만, 당시 역사적 사건의 중량과 영향력, 혹은 기관이나 개인이 역사에 끼친 파급력 등에 따라 관련 문서가 학문적 가치와 연구자들의 관심을 끌게되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한편, 청대 몽골 사회 제도 수립에 중요한 역할을 했던 후레 새드와 올리아스테 장진, 올리아스테, 흙드, 할흐 등 주요 기관들의 활동 내역에 대한 문서의 대부분은 만주어로 기록된 것이 대부분이다. 몽골국립문서보관소에 소장된 가장 오래된 문헌은 오이라드(Oirad)의 갈단 보속트 한(Galdan Boshugt khan)에 대한 1674년 기록이다. 정밀한 분석은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문서보관소의 전문가의 추측에 의하면 청대 몽골의 군사와 정치 행정기관의 기록 중 70%는 만주어로 쓰여져 있다고 한다. 연구원 텔게르마는 “올리아스테 잔즈 지역의 기록물군에 대하여”라는 논문에서 <Хязгаар дахиныг тогтоогч зүүн этгээдийн туслагч жанжны(Khyazgaar dakhin'g togtoogch züün etgeedi'n tuslagch janjin')>7)의 언어적 특징을 살펴보면, 83.9%는 만주어, 13.04%는 몽골어, 3.86%는 만주어와 몽골어로가 함께 기록되어 있다고 언급한 바 있다8).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몽골국립문서보관소에 있는 만주어로 전해지는 문서들은 역사·언어·문화의 중요한 유산이며, 학문적 가치가 있다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그러나 오늘날 몽골국립중앙문서보관소에 있는 만주어 문서에 대한 연구는 활발하게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이며, 만주어로 전해진 수많은 중요 서류들이 분류 및 조사되지 않았다. 몽골의 청대 역사를 연구한 선행 연구자들은 주로 구시대의 교육을 받아 만주어 능숙하게 읽는 노인들의 도움을 받아 만주어 자료를 활용하였다면, 오늘날은 만주어를 잘 공부한 젊은 학자들이 배출되고 있다. 또한 최근, 역사적 사건과 관련된 만주어 기록문서와 주목할 만한 서류들을 전자화하여 기관 단위로 연구·번역하고 출간하는 일이 시작되고 있는 것은 바람직한 현상이다. 이에 대하여 몽골뿐만 아니라 해외 학자들 또한 많은 관심을 보이고 있다.

몽골국립중앙문서보관소에 있는 이상의 만주 자료들은 청대 문서뿐만 아니라 청과 몽골의 역사, 청과 러시아의 교류사에 있어 중요한 자료들이다. 역사적 문헌, 문서를 보관하고 보호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이를 연구하는 것이다.

<참고문헌>

7) Jecen be togtobure hashū ergi aisilara jiyangiyūn / Jecen be toktobure hashū ergi aisilara jiyangiyūn

8) 우. 텔게르마, “올리아스테 잔즈 지역의 기록물군에 대하여”, 몽골역사기록연구: 현대 연구의 문제들, 울란바타르, 2004, 83-87쪽.

Монгол улсын Үндэсний төв архив дахь манж баримтын тухайд

У. Телгерма, “Улиастай занз 지역의 기록물군에 대하여”, 몽골역사기록연구: 현대 연구의 문제들, 울란바타르, 2004, 83-87쪽.

만주 지배시기 몽골, 몽골국립대학교 역사과, 울란바타르, 2004년.

몽골국립중앙문서보관소 M-1 기록물군 제1 문서철 서문 /관공서/.

몽골국립중앙문서보관소 M-2 기록물군 문서철 서문 /관공서/.

몽골역사기록연구: 현대 연구의 문제들, 감수 체.강톨га, 몽골국립교육대학교, 몽골역사과, 울란바타르, 2004.

게.노롭삼보, 몽골의 고대 관공문서, 기록보관소총서, 울란바타르, 2003, 222쪽.

게.노롭삼보, 몽골의 기록보관소, 관공용, 필사본, 울란바타르, 1975.

[부록]

몽골국립중앙문서보관소 산하 역사자료센터의 청대 기록물군 열람표

연번	기록물군 제목	기록물군 열람번호	보관 건별 단위 수량
1	Хүрээнд сууж хэрэг шийтгэгч манж сайдын яам	M-1	8923
2	Улиастайн манж жанжны газар	M-2	206
3	Улиастайн жасаалын монгол жанжны газар	M-3	1209
4	Улиастай дахь Түшээт хан аймгийн жасаа	M-4	909
5	Улиастай дахь Сэцэн хан аймгийн жасаа	M-5	770
6	Улиастай дахь Засагт хан аймгийн жасаа	M-6	66
7	Улиастай дахь Сайн ноён хан аймгийн жасаа	M-7	105
8	Ховд хотын халхын жасаа	M-8	102
9	Түшээт хан аймгийн чуулган даргын жасаа	M-9	21533
10	Түшээт хан аймгийн туслагч жанжны жасаа	M-10	7440
11	Хүрээн дэх Түшээт хан аймгийн суурин жасаа	M-11	3333
12	Халхын Очирбат түшээт ханы хошуу	M-12	64
13	Түшээт хан аймгийн Дархан чин вангийн хошуу	M-13	124
14	Түшээт хан аймгийн Эрдэнэ дайчин вангийн хошуу	M-14	138
15	Түшээт хан аймгийн Зоригт вангийн хошуу	M-15	42
16	Түшээт хан аймгийн Мэргэн вангийн хошуу	M-16	236
17	Түшээт хан аймгийн Түшээт вангийн хошуу	M-17	391
18	Түшээт хан аймгийн Эрдэнэ вангийн хошуу	M-18	322
19	Түшээт хан аймгийн Дайчин вангийн хошуу	M-19	66
20	Түшээт хан аймгийн Баатар вангийн хошуу	M-20	20
21	Түшээт хан аймгийн Сэцэн вангийн хошуу	M-21	29
22	Түшээт хан аймгийн Бишрэлт гүний хошуу	M-22	43
23	Түшээт хан аймгийн Ачит гүний хошуу	M-23	23
24	Түшээт хан аймгийн Ахай гүний хошуу	M-24	46
25	Түшээт хан аймгийн Сүжигт гүний хошуу	M-25	30
26	Түшээт хан аймгийн Цогтой гүний хошуу	M-26	14
27	Түшээт хан аймгийн Жонон гүний хошуу	M-27	28
28	Түшээт хан аймгийн Илдэн гүний хошуу	M-28	26
29	Түшээт хан аймгийн Эетэй гүний хошуу	M-29	20
30	Түшээт хан аймгийн Далай гүний хошуу	M-30	55
31	Сэцэн хан аймгийн чуулган даргын жасаа	M-31	11252
32	Сэцэн хан аймгийн туслагч жанжны жасаа	M-32	7418
33	Хүрээн дэх Сэцэн хан аймгийн суурин жасаа	M-33	2877
34	Халхын Сэцэн ханы хошуу	M-34	1503
35	Сэцэн хан аймгийн Дархан хошой чин вангийн хошуу	M-35	27
36	Сэцэн хан аймгийн Чин ачит вангийн хошуу	M-36	7761
37	Сэцэн хан аймгийн Илдэн вангийн хошуу	M-37	957
38	Сэцэн хан аймгийн Эрхэмсэг бэйсийн хошуу	M-38	318
39	Сэцэн хан аймгийн Эрдэнэ далай вангийн хошуу	M-39	44
40	Сэцэн хан аймгийн Жонон вангийн хошуу	M-40	51
41	Сэцэн хан аймгийн Бишрэлт вангийн хошуу	M-41	226
42	Сэцэн хан аймгийн Хурц вангийн хошуу	M-42	48
43	Сэцэн хан аймгийн Сэцэн вангийн хошуу	M-43	54
44	Сэцэн хан аймгийн Үйзэн вангийн хошуу	M-44	57
45	Сэцэн хан аймгийн Дайчин бэйсийн хошуу	M-45	32
46	Сэцэн хан аймгийн Дархан бэйсийн хошуу	M-46	23
47	Сэцэн хан аймгийн Баатар бэйсийн хошуу	M-47	22
48	Сэцэн хан аймгийн Ест бэйсийн хошуу	M-48	44
49	Сэцэн хан аймгийн Сүжигт бэйсийн хошуу	M-49	208
50	Сэцэн хан аймгийн Зоригт бэйсийн хошуу	M-50	33
51	Сэцэн хан аймгийн Эрх гүний хошуу	M-51	33
52	Сэцэн хан аймгийн Ахай гүний хошуу	M-52	38
53	Сэцэн хан аймгийн Саруул гүний хошуу	M-53	16
54	Сэцэн хан аймгийн Эрдэнэ гүний хошуу	M-54	14
55	Сэцэн хан аймгийн Сэргэлэн гүний хошуу	M-55	421
56	Сэцэн хан аймгийн Мэргэн гүний хошуу	M-56	31
57	Сэцэн хан аймгийн Егүзэр хутагтын шавь	M-57	520
58	Сайн ноён хан аймгийн чуулган даргын жасаа	M-58	637

Монгол улсын Үндэсний төв архив дахь манж баримтын тухайд

59	Сайн ноён хан аймгийн туслагч жанжны жасаа	М-59	95
60	Хүрэн дэх Сайн ноён хан аймгийн суурин жасаа	М-60	25
61	Халхын Сайн ноёны хошуу	М-61	72
62	Сайн ноён хан аймгийн Далай чойнхор вангийн хошуу	М-62	403
63	Сайн ноён хан аймгийн Дайчин вангийн хошуу	М-63	28
64	Сайн ноён хан аймгийн Хошууч мэргэн бэйсийн хошуу	М-64	279
65	Сайн ноён хан аймгийн Баатар гүний хошуу	М-65	1834
66	• • Сайн ноён хан аймгийн Ест бэйсийн хошуу	М-66	810
67	Сайн ноён хан аймгийн Илдэн вангийн хошуу	М-67	257
68	Сайн ноён хан аймгийн Мэргэн гүний хошуу	М-68	39
69	Сайн ноён хан аймгийн Итгэмжит бэйсийн хошуу	М-69	5
70	Сайн ноён хан аймгийн Эрх гүний хошуу	М-70	9
71	Сайн ноён хан аймгийн Саруул гүний хошуу	М-71	7
72	Сайн ноён хан аймгийн Цогтой гүний хошуу	М-72	6
73	Сайн ноён хан аймгийн Ачит гүний хошуу	М-73	4
74	Сайн ноён хан аймгийн Түшээт гүний хошуу	М-74	7
75	Сайн ноён хан аймгийн Сэцэн чин вангийн хошуу	М-75	7
76	Сайн ноён хан аймгийн Эрдэнэ бандид хутагт ламын гэгээний шавь	М-76	88
77	Сайн ноён хан аймгийн Нар ванчин хутагтын шавь	М-77	2
78	Засагт хан аймгийн чуулган даргын жасаа	М-78	272
79	Засагт хан аймгийн туслагч жанжны жасаа	М-79	283
80	Засагт хан аймгийн Чин ачит вангийн хошуу	М-80	74
81	Засагт хан аймгийн Дайчин вангийн хошуу	М-81	3
82	Засагт хан аймгийн Үйзэн бэйлийн хошуу	М-82	3
83	Засагт хан аймгийн Сартуул сэцэн вангийн хошуу	М-83	7
84	Засагт хан аймгийн Жалханз хутагтын шавь	М-84	3
85	Их шавийн Эрдэнэшанзудбын яам	М-85	3569
86	Жавзандамба хутагтын их сан	М-86	8207
87	Жавзандамба хутагтын дотоод сан	М-87	899
88	Их Хүрээний Бадамъёг дацан	М-88	55
89	Их Хүрээний Г унгаачойлон дацан	М-89	599
90	Их Хүрээний Дашчоймбол дацан	М-90	898
91	Их Хүрээний Пунцагшаддублин дацан	М-91	313
92	Их Хүрээний Зурхайн дацан	М-92	201
93	Их Хүрээний Ламрим дацан	М-93	172
94	Их Хүрээний Майдар дацан	М-94	282
95	Их Хүрээний Эмч нарын дацан	М-95	541
96	Их Хүрээний Идгаачойлон дацан	М-96	11
97	Маймаа хотын Дашсамданлин дацан	М-97	139
98	Их Хүрээний Цогчин хурал	М-98	490
99	Их Хүрээний Андүү нарын аймаг	М-99	262
100	Их Хүрээний Вангайн аймаг	М-100	57
101	Их Хүрээний Дашдандарлин аймаг	М-101	49
102	Их Хүрээний Дархан эмчийн аймаг	М-102	159
103	Их Хүрээний Дондовлин аймаг	М-103	11
104	Их Хүрээний Дугарын аймаг	М-104	156
105	Их Хүрээний Дүйнхорын аймаг	М-105	13
106	Их Хүрээний Жасын аймаг	М-106	152
107	Их Хүрээний Жадарын амаг	М-107	142
108	Их Хүрээний Жамъянсүнгийн аймаг	М-108	134
109	Их Хүрээний Зоогойн аймаг	М-109	95
110	Их Хүрээний Лам нарын аймаг	М-110	134
111	Их Хүрээний Мэргэн номон ханы аймаг	М-111	71
112	Их Хүрээний Мэргэн хамбын аймаг	М-112	119
113	Их Хүрээний Намдоллин аймаг	М-113	179
114	Их Хүрээний Номчийн аймаг	М-114	104
115	Их Хүрээний Сангайн аймаг	М-115	195
116	Их Хүрээний Тойсомлин аймаг	М-116	116
117	Их Хүрээний Өрлүүдийн аймаг	М-117	4
118	Их Хүрээний Хүүхэн ноёны аймаг	М-118	115
119	Их Хүрээний Сэцэн тойны аймаг	М-119	285
120	Их Хүрээний Чойнхорлин аймаг	М-120	10
121	Их Хүрээний Шүтээний аймаг	М-121	1406
122	Их Хүрээний Эрдэнэ хувилгааны аймаг	М-122	224
123	Их Хүрээний Эрхэм тойны аймаг	М-123	388
124	Их Хүрээний Эрдэнэ сэцэн ноёны аймаг	М-124	45
125	Их шавийн Эрдэнэ зуу хийд	М-125	36

滿洲語文學 자료의 현황 및 그 연구와 활용

126	Их шавийн Баруун хүрээ	M-126	24
127	Их шавийн Баруун хүрээний Ноён ламын хийд	M-127	11
128	Их шавийн Амарбаясгалантөндөр гэгээний хийд	M-128	47
129	Их шавийн Хэрлэнгийн Шаддубдаржаалин зүүн хүрээ	M-129	7
130	Их шавийн Шашныг бадруулагч Дамбадаржаагийн хийд	M-130	94
131	Их шавийн Билэг өлзийт Бэрээвэнгийн хүрээ	M-131	17
132	Их шавийн Буян ерөөлт Дашчойнхорлин хийд	M-132	13
133	Их шавийн Буяныг залбирагч Манзуширын хийд	M-133	166
134	Их шавийн Өршөөлийг соёгч Нинждолбийн хүрээ	M-134	16
135	Их шавийн Өлзий хутаг ном дэлгэрүүлэх Дашчойнхорлин ламын хүрээ	M-135	335
136	Их шавийн Дамчойжүрмидлин хүүхэн хутагтын хүрээ	M-136	8
137	Их шавийн Даяны Шаддублингийн хүрээ	M-137	5
138	Их шавийн Чүлтэмжанчивлингийн рашааны хийд	M-138	86
139	Их шавийн Өглөгийг бадруулсан Дашдаржаалин Дарьгангын хүрээ	M-139	9
140	Их шавийн Г анданчойлон Эрдэнэ номон хамбын хүрээ	M-140	3
141	Их шавийн Доржчойлин сүм	M-141	5
142	Их Хүрээний Бизъяагийн аймаг	M-142	2
143	Халхын хорин өртөө	M-143	710
144	Харчин хавсарга өртөө	M-144	1890
145	Хүрээ-Далдолооны бүүхиа өртөө	M-145	1677
146	Хүрээ-Хиагтын бүүхиа өртөө	M-146	65
147	Улиастай, Ховд замын суман өртөө	M-147	3
148	Улиастай, Хүрээ замын суман өртөө	M-148	429
149	Хүрээний зүүн замын суман өртөө	M-149	316
150	Улиастай-Жинжлэг замын өртөө	M-150	303
151	Зүүн хоёр аймгийн харуулыг бүгд захирах засгийн жасаа	M-151	238
152	Сэцэн хан аймгийн харуулыг товчлон захирах засаг ба харуулууд	M-152	4366
153	Түшээт хан аймгийн харуулыг товчлон захирах засаг ба харуулууд	M-153	3309
154	Баруун хоёр аймгийн харуулыг бүгд захирах засгийн жасаа	M-154	130
155	Сайн ноён хан аймгийн харуулыг товчлон захирах засаг ба харуулууд	M-155	149
156	Засагт хан аймгийн харуулыг товчлон захирах засаг ба харуулууд	M-156	190
157	Алтайн суман харуул	M-157	42
158	Говьдүржүүлэх албаны тэмээн сүргийг захирагчийн жасаа	M-158	1411
159	Наадмын баримтын цуглуулга	M-159	381
160	Дөрвөдийн баруун гарын Сайн заяат аймгийн чуулган даргын жасаа	M-160	47
161	Алтай Урианхайн сул амбаны тамгын жасаа	M-161	1
162	Дөрвөдийн зүүн гарын Төгс хөлөг далай ханы хошуу	M-162	15
163	Алтай Урианхайн зүүн гарын мэйрэн зангийн хошуу	M-163	19
164	Алтай Урианхайн зүүн гарын бүгдийн даргын жасаа	M-164	3
165	Тагна Урианхайн бүгдийн даргын жасаа	M-165	71
166	Долнуурын сүмийн бүгд лам банди нарыг захирах газрын баримтын цуглуулга	M-166	6
167	Г азрын зургийн цуглуулга	M-167	118
168	Ноёд тайж нарын гэрийн үеийн бичмэлийн цуглуулга	M-168	1877
169	Тамга тэмдгийн цуглуулга	M-169	56
170	Ноёд түшмэд, лам нарын захидлын цуглуулга	M-170	687
171	Их Хүрээний Баргын аймаг	M-171	6
172	Түшээт хан аймгийн Үйзэн гүний хошуу	M-172	28
173	Их Хүрээний Бандидын аймаг	M-173	2
174	Их Хүрээний Махмаяагийн аймаг	M-174	7
175	Засагт хан аймгийн Цогтой вангийн хошуу	M-175	4
176	Алтай Урианхайн баруун гарын бүгдийн даргын хошуу	M-176	1
177	Засагт хан аймгийн Эрдэнэ дүүрэгч вангийн хошуу	M-177	2
178	Сайн ноён хан аймгийн Чин сүжигт номон ханы хутагтын шавь	M-178	98
179	Хуулбар болон орчуулгын баримтын цуглуулга	M-179	217
180	Амарсанаагийн тухай баримтын цуглуулга	M-180	54
181	Чингүнжавын тухай баримтын цуглуулга	M-181	57
182	Хууль зүйлийн бичгийн цуглуулга	M-182	138
183	Манжийн үеийн баримтын цуглуулга	M-183	3083

Монгол улсын Үндэсний төв архив дахь манж баримтын тухайд

184	Сайн ноён хан аймгийн Жонон засгийн хошуу	M-184	1
185	Сайн ноён хан аймгийн Эетэй засгийн хошуу	M-185	4
186	Сайн ноён хан аймгийн Бишрэлт засгийн хошуу	M-186	6
187	Сайн ноён хан аймгийн Үйзэн засгийн хошуу	M-187	3
188	Сайн ноён хан аймгийн Зоригт засгийн хошуу	M-188	1
189	Сайн ноён хан аймгийн Ахай засгийн хошуу	M-189	11
190	Сайн ноён хан аймгийн Дархан засгийн хошуу	M-190	2
191	Сайн ноён хан аймгийн Эрдэнэ засгийн хошуу	M-191	13
192	Сайн ноён хан аймгийн Заябандид хутагтын шавь	M-192	6
193	Засагт хан аймгийн Засагт ханы хошуу	M-193	1
194	Сайн ноён хан аймгийн Зоригт вангийн хошуу	M-194	1
195	Сайн ноён хан аймгийн Зоригт вангийн хошуу	M-195	1
196	Засагт хан аймгийн Ахай засгийн хошуу	M-196	1
197	Засагт хан аймгийн Далай засгийн хошуу	M-197	2
198	Засагт хан аймгийн Жонон засгийн хошуу	M-198	1
199	Засагт хан аймгийн Мэргэн засгийн хошуу	M-199	1
200	Засагт хан аймгийн Баатар засгийн хошуу	M-200	1
201	Засагт хан аймгийн Дархан засгийн хошуу	M-201	1
202	Засагт хан аймгийн Бишрэлт гүний хошуу	M-202	1
203	Засагт хан аймгийн Ялгуусан хутагтын шавь	M-203	1
204	Хөвсгөл нуурын урианхай хошууг захирагч бүгдийн дарга	M-204	76
205	Мянгад нэгэн хошуу	M-205	1
206	Хурдан даяагч хувилгааны харъяат Дашчоймпиллин хийд	M-206	2
207	Их Хүрээний Дэчингалбын хийд	M-207	6
208	Г унгаадэжидлин сүм	M-208	4
209	Гайхамшигт Тохлогтой хийд	M-209	1
210	Их Хүрээний Чойжин ламын сүм	M-210	2
211	Пандилан сүм	M-211	10
212	Түшээт ханы Пунцагдашчойнхор-лин хурал	M-212	1
213	Сэцэн ханы Дэчинлхүндэвлин хурал	M-213	1
214	Сайн ноён хан аймгийн номон хан Эрдэнэ хамбын хутагтын шавь	M-214	4
215	Сэцэн ханы Дашпунцаглин хийд	M-215	2
216	Их Хүрээний Жүд дацан	M-216	2
217	Сэцэн ханы Чоймпиллин хурал	M-217	2
218	Түгээмэл ивээлт сүм	M-218	2
219	Даашинхүүгийн пүүс	M-219	74
220	Сэцэн хан аймгийн Да жанжны хоорондох өртөө	M-220	74
221	Түшээт хан аймгийн Да жанжны хоорондох өртөө	M-221	11
222	XII-XX зууны эхэн үед холбогдох хятад хэлээрх баримт	M-222	1089
223	Эртний сурвалж бичиг зохиолын цуглуулга	M-223	
224	Төвд ном судар, баримт бичгийн цуглуулга	M-224	360

Manchu Studies in Germany since the 19th century

By Johannes Reckel(University of Goettingen, Germany)

The Manchu conquered Peking in 1644. Since then until 1911 the Manchu language was one of the official languages in China.

Knowledge of this language and script first reached Europe via the Jesuit scholars, who had been present at the Imperial Chinese court in Peking since the late 16th century. Ferdinand Verbiest (chin. 南懷仁), who was also a personal friend of the Kangxi emperor and who stayed in Peking since 1660 until his death there in 1688, wrote the first grammar of Manchu in the Latin language, published in Paris 1696 under the title “Elementa linguae Tartaricae” by M. Melchisedee Thevenot in his collection “Relations de divers voyages curieux, qui nont point esté publiées, et... Nouvelle ed., Tome 2., 3. et 4. Partie”. Knowledge of the Manchu script must have reached Europe before this publication, as two Manchu documents are mentioned in a catalogue from 1683 of the library in Berlin (cf. Walravens 2014). The librarian at the library in Berlin, Andreas Müller (1630-1694), knew Chinese and perhaps Manchu. At around the same time the famous German scholar Gottfried Wilhelm Leibniz (1646-1716) conducted an extensive correspondence with the Jesuits in Peking.

The Jesuits were also instrumental at the conclusion of the treaty of Nerchinsk in 1689 between Manchu-China and Russia. One version of this treaty was in Manchu. Because of these close contacts Manchu studies flourished in Russia relatively early. In 1750 Jean Joseph Marie Amiot (sometimes Amyot)(Chinese: 錢德明), a Jesuit, came to Peking and stayed at the Imperial Court until his death in 1793. He wrote a grammar and a Dictionary of the Manchu language, all in French. His works on Manchu had a large influence on early Manchu studies in Europe. Later it were especially France, Russia and Germany that took up the Study of the Manchu language.

About the same time as Amiot another French scholar, Louis-Mathieu Langlès published a Manchu-French dictionary in Paris in 1787-1790 (Alphabet mantchou, rédigé d'après le syllabaire et le dictionnaire universel de cette langue). He was the conservator of the oriental manuscripts at the Bibliothèque Nationale in Napoleonic France. Originally he had studied Arabic and Persian. Langlès was the provisional specialist on India at the Bibliothèque Nationale. His earliest works were on Tamerlan, Timur and other Mongol Khans and then on the Manchu script. He led an intensive correspondence to get his information and the books from Asia. Along with Antoine Léonard de Chézy (1773-1832), Jean-François Champollion (1790-1832) and Jean-Pierre Abel-Rémusat (1788-1832), Langlès was a pupil and protégé of Silvestre de Sacy (1758-1838). Langlès close links with the Collège de France were enhanced by Baron de Sacy's support, which also resulted in Chézy becoming the Collège's first Professor of Sanskrit, Rémusat becoming its first Professor of Chinese, and Champollion becoming its first Professor of Egyptology. The faculty encompassed Langlès as the college's Professor of Persian. In 1795, Langlès became the founder-director the Ecole des langues orientales vivantes

in Paris, which is still operating under the revised name of Institut national des langues et civilisations orientales (INALCO).

The name of Charles-Joseph de Harlez de Deulin should also be mentioned here, who in 1884 in Paris published a handbook of the Manchu language (Manuel de la langue Mandchoue : grammaire, anthologie & lexique).

But actual collections of Manchu books and documents started much earlier especially at Berlin and St. Petersburg, and also in Paris. The first two Manchu works at the Kurfürstliche Bibliothek, later the Royal Library, at Berlin appear in a catalogue printed in 1683 by the Sinologist and librarian Andreas Müller. One is a tract on the eclipse of the sun in 1669 and the other an Imperial decree to honour the Jesuit astronomer Adam Schall v. Bell in 1651. The next printed catalogue of the Chinese and Manchu books at the library at Berlin was prepared by Klaproth in 1810 (see below). (cf. Walravens 2014)

Theophilus Siegfried Bayer (1694-1738) was born in Königsberg in Germany and later worked at the Russian Academy of Sciences in St. Petersburg for a while. He also lead an extensive correspondence with the the Jesuits at Peking. He studied Chinese and Manchu. He wrote a Dissertation about the Manchu language, which was published in the year of his early death in 1738. His library and his correspondence with the Jesuits is now preserved in the University Library in Glasgow. <http://www.gla.ac.uk/services/specialcollections/collectionsa-z/bayercollection/> (cf. Lundbaek 1986)

Heinrich Julius Klaproth was born in Berlin in 1783. He came from an academic background as his father was a professor of chemistry at the university of Berlin. But the young Julius became soon interested in oriental languages. He discovered the good collection of Chinese books at the Royal Library in Berlin which had been collected around 1680 by early German Sinologists like Andreas Müller (1630-1694) and Christian Mentzel (1622-1701) and started to learn Chinese by himself when he was only 14 years old.. Later he wrote a Chinese-Latin Dictionary in 1819. He learned many more languages, including Uighur, Georgian and Manchu. In 1804 Julius Klaproth became a member of the Russian Academy of Sciences in St. Petersburg. In 1805 he accompanied a Russian embassy to Peking as a translator. The embassy came as far as Urga in Mongolia, then under Manchu rule, but never reached Peking because of quarrels about the ceremonies the Russians were supposed to conduct in front of the Emperor and his representatives. But Klaproth remained in Siberia for over 20 months and studied the language of the Buryat, Calmuck, Tungus, Tatars and other peoples. Later he was sent to the Caucasus to study the peoples there. Many of the Europeans who accompanied Klaproth on his extensive travels died of exhaustion but Klaproth could not be stopped.

Through his extensive studies of languages he developed the idea that nearly all languages could be traced back to one common language. For a short time he became a professor at the university of Wilna, then under Russian rule, but he was never really happy in Russia, probably because of the strong censorship in Russia, that made publishing difficult. For a while he was back in Berlin. But at that time Napoleon had occupied large parts of Germany and other countries. It was a time of war. In 1815, after the Napoleonic wars, he went to Paris. The Prussian King in Berlin made him a professor with a good income and allowed him to stay in Paris nevertheless.

Many languages Klaproth learned he had to learn completely without the help of teachers and also without

Manchu Studies in Germany since the 19th century

any written teaching material. To learn Chinese he copied by hand a handwritten Chinese-Spanish dictionary of Padre F. Francisco Diaz written around 1700 he found in the library at Berlin and other works. We don't know, how he learned Manchu. He may have used Amiot's or Langles' grammars and dictionaries published earlier in Paris.

Hans Conon von der Gabelentz was born in Germany in 1807. He came from a high ranking noble family, studied at the universities of Göttingen and Leipzig, became a politician but also a scholar of oriental languages. In 1833 he published a grammar of Manchu "Eléments de la grammaire mandchoue". Latin and French were the languages mostly used for publishing scientific books until the late 19th century. More than 30 years later Gabelentz published the Manchu versions of the Chinese classics Sishu 四书, Shujing 书经, Shijing 诗经 together with a Manchu-German dictionary. This grammar and dictionary were the first of its kind published in Germany and also the first scientific Manchu grammar written in Europe, only to be surpassed more than a hundred years later 1961 by Erich Haenisch's grammar. Gabelentz also published a Manchu-Mongolian grammar in 1837 and other works (see Martin Gimm on Gabelentz). The publication of the Chinese classics in the Manchu language showed, why most scholars learnt Manchu in Europe: It was to understand the very difficult old classical Chinese language with the help of Manchu translations. In his castle Gabelentz had the most extensive library of rare books in Chinese, Manchu and other Asian languages. This most valuable library was stolen by the Soviet army in 1945 and it is not known where it is now. His son Hans Georg von der Gabelentz became a famous Sinologist and professor of Chinese Studies at the university in Leipzig and Berlin in Germany. One of his students was Wilhelm Grube.

Wilhelm Grube was born in St.Petersburg 1855 as son of a German wine-merchant. His Parents died when he was still a boy. He then studied at the university at St.Petersberg Linguistics and Philosophie. Amongst his teachers was the famous Russian Prof. Zacharov, who had written a comprehensive Manchu-Russian dictionary in 1875. Ivan Il'ic Zacharov (1814-1885) had studied the Manchu language for many years at the Mission of the Orthodox Church in Peking, which had been the central place for Russian Manchu studies since the 17th century (cf. Pang, Tatiana). Wilhelm Grube studied the Chinese, Manchu, Mongolian, Tibetan languages. After having past the exams in St.Petersburg, Wilhelm Grube moved to the university of Leipzig in Germany where he continued studying Chinese and Manchu under Hans Georg von der Gabelentz 1878-1880. In 1883 he became a curator at the Museum of Ethnology in Berlin and two years later a lecturer (Privatdozent) at the university in Berlin. 1892 he became a professor. He died 1908. One of his major works was the publication of the linguistic material, mainly of the Gilyak and Goldi and other Tungus languages, following the expedition of Leopold von Schrenck, another German in Russia, from 1853 towards the area of the Amur and Ussuri. In 1896 he published the first scientific work in Europe on the language and script of the Jurchen, including a Jurchen-German dictionary. As a lecturer and then professor in Berlin he always taught Chinese and Manchu. The lists of students attending his lectures is preserved (Walravens 2007, p.27). For his lecture "Manchu grammar" there were usually only one to four students attending. This is interesting in the light of modern discussions about the future of small subjects taught at universities. Modern business-style universities only want courses and classes with 20 or more students, not realizing that the most famous professors and scholars often only had a handful of students, many of whom became famous professors themselves.

Other scholars in Germany in the mid 19th century include Franciscus (Franz Philipp) Kaulen, who wrote a Manchu grammar in Latin in 1856 in Bonn, which follows the Grammar by Gabelentz and adds some

parts of the bible translated into Manchu (cf. Gimm p.230). Following Gabelentz' grammar many books on the Manchu language were written in Europe. Only a few important names can be mentioned here. One was Paul Georg v. Möllendorff who was spending many years in China and Korea and who published a grammar of the Manchu language with analysed short Manchu lessons in 1892 in English. Moellendorff was the first European who served as a Vice-minister of foreign affairs in Korea as part of the Royal government and close ally of the king Kojong between 1882 and 1885.

Erich Haenisch (1880-1966) and Erich Hauer (1878-1936) were nearly the same age and both became the most influential scholars in Manchu studies in the early 20th century in Germany. Erich Hauer, professor at Berlin since 1925, wrote a three volume Manchu-German dictionary, which is still the best Manchu dictionary in a European language. The manuscript was nearly lost during the war and was only printed after the war in Japan. It has been reprinted in 2007. Hauer had a profound knowledge of the Chinese and Manchu language. Between 1901 and 1917 he stayed in Peking as a translator and diplomat at the German embassy.

Erich Haenisch, who for a time was the teacher of Erich Hauer, was a professor in Berlin from 1920, then went to Göttingen and later Leipzig. He wrote an early translation of the Secret History of the Mongols, including a dictionary for the same work, and a textbook and grammar for the study of the Manchu language which is still used and reprinted today.

From a slightly later generation than Hauer and Haenisch was Walther Fuchs (1902-1972), who like Hauer spent decades in the old China and had likewise a most profound knowledge of the Chinese and Manchu language. From 1926 to 1947 he had his home and a very large private library in Peking (1938-1947) and sometimes in Mukden (1926-1938). He followed the famous Mongolist Ferdinand Lessing in his post in Mukden as lecturer at the medical school there and from 1938 he taught at the Furen University in Peking. The greatest tragedy was the loss of his library when the communists took over Peking and he was sent back to Germany. He later became a professor first in Berlin then in Cologne. His bibliography of Manchu books is still very valuable. (cf. Walravens: 2007) The old tradition to combine Chinese and Manchu studies is still alive at some universities in Germany, mainly at Munich. But from the 1930s onward a new school of scholars developed who started their studies of Manchu without any or only little knowledge of Chinese. They came from the Altaistic point of view, starting from Turkic, Mongolian and Tungus languages. The most prominent representatives of that school are Karl Heinrich Menges (1908-1999) and his student Gerhard Doerfer and later Michael Weiers. Menges was born in Frankfurt, studied there, went to Turkey during the time of the third Reich, later became a professor at Vienna after the war. He was especially interested in the Altaic and Nostratic hypothesis, searching for a common language from which many modern languages of Central Asia devolved. His student Gerhard Doerfer (born 1920 in Königsberg, died 2003 in Göttingen), who later became a professor of Altaic Studies at Göttingen University, wrote many books and articles on the Manchu language, though he was much more cautious about the real value of the Altaic hypothesis. Michael Weiers, born 1937 is still alive. He was a professor for Mongolian and Manchu studies at Bonn University.

Another famous professor in the field of Manchu studies is Martin Gimm, born 1930 and still alive. He was a professor for Chinese and Manchu at Cologne university. Erling von Mende (born 1940) was likewise a professor for Chinese and Manchu studies at the Free University in Berlin. This tradition to combine Chinese studies with Manchu is slowly dying out now in the younger generation which regards Manchu as a language and literature of its own merit. In this field of studies of indigenous Manchu literature the name Giovanni

Manchu Studies in Germany since the 19th century

Stary should be mentioned. Stary, born in 1946 at Meran grew up German speaking in northern Italy and studied in Naples and in Germany under Prof. Walter Fuchs (Cologne) and Prof. Heissig (Bonn). He later became a professor of Manchu literature at the university of Venice. He published numerous books and articles on the Manchu and Sibo literature and language, including four volumes of Manchu Studies – An international bibliography.

There are two large Libraries in Germany, which have extensive holding of Manchu literature. One is the the Statelibrary at Berlin, where especially older books are kept, and the State- and University Library at Goettingen. Hiu Lie (李喜雨), born 1936 in Seoul, studied at Seoul National University under Prof. Yi Ki-mun and then moved to Germany to study Manchu and other Altaic languages at Goettingen under Prof. Doerfer to gain his PhD degree in Altaic Studies in 1962 with a dissertation on Manchu studies under the Choson dynasty in Korea, which was published 1972 in German. He became the curator of the Altaic collection at the State and University Library in Göttingen and made the Altaic collection there one of the best in Europe. There are more than 1500 Manchu titles in the catalogue of this library, including many Sibo books and newspapers from Sinkiang. The collection of Uighur literature in Goettingen is also the largest in Europe. Since 2003 Johannes Reckel continues this work. Hiu Lie for many years taught the Manchu language as well as other Tungus languages at Göttingen University. He was the teacher of Johannes Reckel who now in turn continues teaching Manchu in Göttingen.

At the end of this short overview of Manchu studies in Germany it should have become clear how difficult it is to say who of all these famous scholars are “real” Germans, as most of them moved between Germany, Russia, France and even Italy or spent many decades or only years in China, Turkey and other countries. German speaking scholars often published in Latin, French, English, following the fashion of their time. Nevertheless Germany was the centre of Manchu studies in Europe for nearly 200 years.

Short bibliography:

Amiot, Jean Joseph Marie; Dictionnaire tartare-mantchou-français, Paris, 1789

Bayer, Theophilus Siegfried; Dissertatio de lingua mangiurica; published in: Commentarii AcademiaeScientiarum Imperialis Petropolitanae 1732/33 (pp. 329-338); printed St.Petersburg 1738

Fuchs, Walter; Beiträge zur mandjurischen Bibliographie und Literatur (Mitteilungen der Deutschen Gesellschaft für Natur- und Völkerkunde Ostasiens, Supplement ; 14), Tokyo 1936

Gabelentz, Hans Conon von der; Éléments de la grammaire Mandchou, Altenburg 1832 (additional lithographic edition 1833)

Gabelentz, Hans Conon von der; Mandschu-mongolische Grammatik aus dem San-ho pian-lan; In: Zeitschrift für die Kunde des Morgenlandes, vol.1, Göttingen 1837 (pp. 255-296)

<https://books.google.de/books?id=DhUwAAAAYAAJ&pg=PA255&lpg=PA255&dq=gabelentz+mandschu&source=bl&ots=w7GEvjP7nr&sig=Jqkci8-5cdTaLpTUa9Ew6MdT7x4&hl=de&sa=X&ei=0tRgVcrGKcizswHdsYGDw&ved=0CDUQ6AEwBTgK#v=onepage&q=gabelentz%20mandschu&f=false>

滿洲語文學 자료의 현황 및 그 연구와 활용

Gabelentz, Hans Conon von der; Sse-schu, Schu-king, Schi-king : in Mandschuischer Uebersetzung mit einem Mandschu-Deutschen Wörterbuch, Leipzig 1864 (a German-Manchu version of this dictionary was published in Gimm, Martin; Hans Conon von der Gabelentz (1807-1874) und die erste manjurische Grammatik in Deutschland; In: Oriens Extremus vol. 40 (1997), pp. 216-262

<http://oriens-extremus.org/wp-content/uploads/2014/06/OE-40-2-03.pdf>

Grube, Wilhelm; Die Sprache und Schrift der Jučen; Leipzig 1896

De Harlez, Charles; Manuel de la langue Mandchoue : grammaire, anthologie & lexique, Paris 1884

Haenisch, Erich; (Nachruf auf) Erich Hauer (1878-1936); In: Zeitschrift der Deutschen Morgenländischen Gesellschaft vol. 107 (1957), pp. 1-6

<http://menadoc.bibliothek.uni-halle.de/dmg/periodical/pageview/82052>

Haenisch, Erich; Mandschu-Grammatik : mit Lesestücken und 23 Texttafeln, Leipzig 1961.

Erich Hauer, "Why the Sinologue Should Study Manchu"; In: JNCBRAS Journal of the North China Branch of the Royal Asiatic Society, Shanghai 1930, pp.156-164

<http://www.manchustudiesgroup.org/wp-content/uploads/2013/01/Hauer-Erich-Why-the-Sinologue-should-study-Manchu.pdf>

Hauer, Erich; Handwörterbuch der Mandschusprache; Tokyo 1952-1955

Kaulen, Franciscus; Linguae Mandshuricae institutiones : quas conscripsit, indicibus ornavit, chrestomathia et vocabulario auxit Franciscus Kaulen = Manju gisun tacibure bithe; Ratisbonae 1856

Klaproth, Heinrich Julius *1783-1835; Chrestomathie Mandchou ou recueil de textes Mandchou : destiné aux personnes qui veulent s'occuper de l'étude de cette langue; Paris 1828

Langlès, Louis-Mathieu ; Alphabet mantchou, rédigé d'après le syllabaire et le dictionnaire universel de cette langue. Paris, (1787), 1807³

Langlès, Louis-Mathieu, Alphabet Tartare-Mantchou, Dédié A L'Académie Royaöe Des Inscriptions Et Belles-Lettres, Avec des détails sur les lettres et l'écriture des Mantchoux ; Paris 1787

Langlès, Louis-Mathieu ; Dictionnaire Tartare-Mantchou François : composé d'après un Dictionnaire Mantchou-Chinoise / Par M. Amyot. Rédigé et publié avec des additions et l'Alphabet de cette langue, par L. Langlès ; Tome 1 et 2, Paris 1789 ; Tome 3, Paris 1790

Lundbaek, Knud; T.S. Bayer (1694TM1738: A Study of a Pioneer Sinologist (Sias Monographs, 54) Curzon

Manchu Studies in Germany since the 19th century

Press, Richmond 1986

Lie, Hiu ; Die Mandschu-Sprachkunde in Korea ; Indiana University publications - Uralic and Altaic series ; 114 ; Bloomington 1972

Möllendorff, Paul Georg von ; A Manchu grammar: with analysed texts ; Shanghai 1892

Pang, Tatiana ; A Historical Sketch of the Study and Teaching of the Manchu Language in Russia (First part: up to 1920) ; In: Central Asiatic Journal vol. 35 : 1-2 pp. 123-137

http://orientalstudies.ru/eng/images/pdf/a_pang_1991.pdf

Sary, Giovanni; Manchu studies : an international bibliography, 4 vols, Wiesbaden 1990-2003

Walravens, Hartmut; Julius Klaproth (1783-1835), Leben und Werk (Orientalistik-Bibliographien und Dokumentationen ; vol. 3), Wiesbaden 1999

Walravens, Hartmut; Julius Klaproth (1783 - 1835) : Briefe und Dokumente (Orientalistik Bibliographien und Dokumentationen ; 4), Wiesbaden 1999

Walravens, Hartmut; Julius Klaproth (1783 - 1835) : Briefwechsel mit Gelehrten ; größtenteils aus dem Akademiearchiv in St. Petersburg ; mit einem Namenregister zu Julius Klaproth: Briefe und Dokumente (BiblO 4); (Orientalistik Bibliographien und Dokumentationen ; 18), Wiesbaden 2002

Walravens, Hartmut: Zur Biographie des Sinologen Walter Fuchs (1902-1979). In: Nachrichten der Gesellschaft für Natur- und Völkerkunde Ostasiens. Nr. 177-178, 2005, pp. 117-149.

http://www.uni-hamburg.de/oag/noag/noag2005_6.pdf

http://www.uni-hamburg.de/oag/noag/noag177_178.html

Walravens, Hartmut; Wilhelm Grube (1855 - 1908) : Leben, Werk und Sammlungen des Sprachwissenschaftlers, Ethnologen und Sinologen; (Asien- und Afrika-Studien der Humboldt-Universität zu Berlin ; 28) Wiesbaden 2007

Walravens, Hartmut; "Freilich lag in den zu überwindenden Schwierigkeiten ein besonderer Reiz..." : Briefwechsel der Sprachwissenschaftler Hans Conon von der Gabelentz, Wilhelm Schott und Anton Schiefner, 1834 - 1874; (Sinologica Coloniensia ; 26); Wiesbaden 2008

Walravens, Hartmut; Mandschurische Handschriften und Drucke im Bestand der Staatsbibliothek zu Berlin (Verzeichnis der orientalischen Handschriften in Deutschland, vol. 12, part 8), Stuttgart 2014

Walravens, Hartmut; Hans Conon von der Gabelentz (1807-1874) und sein Umkreis : linguistische Briefwechsel mit Hermann Brockhaus, Heinrich Ewald, Karl Friedrich Neumann, August Friedrich Pott, Wilhelm Radloff und Karl Andree, Wiesbaden 2015

滿洲語文學 자료의 현황 및 그 연구와 활용

Walravens, H./Gimm, Martin (editors); Deutsch-mandjurisches Wörterverzeichnis : (nach H. C. von der Gabelentz' Mandschu-Deutschem Wörterbuch), Wiesbaden 1978

[발표 3 - 번역문]

19세기 이래 독일에서의 만주학 연구

요하네스 레켈 (독일 괴팅겐대학)

만주족은 1644년에 북경을 점령했다. 그 이래로 만주어는 1911년까지 공식 언어 중의 하나이었다. 이 언어와 문자에 대한 지식은 16세기 이래 북경의 황실 궁전에서 알현했던 예수회 학자들을 통해 처음으로 유럽에 알려졌다. Ferdinand Verbiest(중국어이름 南懷仁)는 강희제의 개인적인 친구였고 1660년부터 1688년 사망할 때까지 북경에 살았다. 그는 라틴어로 된 최초의 만주어 문법서를 썼는데, 이 책은 M. Melchisedee Thevenot의 컬렉션 “Relations de divers voyages curieux, qui nont point estè publiées (출판되지 않은 다양하고 진기한 여행들의 관계들), et ... Nouvelle ed., Tome 2., 3. et 4. Partie ” 속에 “Elementa Linguae Tartaricae”라는 제목으로 1696년에 파리에서 출간되었다. 그러나 베를린 도서관에 소장되어 있는 1683년에 출판된 한 카타로그에는 만주 문서 두 종이 언급되어 있어서 만주 문자에 대한 지식은 이 보다 이전에 유럽에 도달한 것으로 보인다(Walravens 2014 참고). 베를린 도서관의 사서 Andreas Müller (안드레아스 뮐러 1630-1694)은 중국어를 알았고 아마 만주어도 알고 있었을 것이다. 그와 거의 같은 때에 유명한 독일의 학자 Gottfried Wilhelm Leibnitz(고트프리트 라이프니츠 1646-1716)는 북경의 예수회 선교사들과 광범위한 서신을 주고 받았다.

예수회 선교사들은 또한 1689년 청나라와 러시아 사이의 네르친스크 조약의 체결에 도움이 되었다. 이 조약의 번역문의 하나는 만주어로 작성되었다. 이러한 긴밀한 관계로 인하여 만주학은 러시아에서 비교적 일찍 융성하였다. 예수회 선교사 Jean Joseph Marie Amiot (= Amyot) (장 아미오, 중국이름 錢德明)는 1750년 북경에 도착했다. 그는 1793년 사망할 때까지 궁정에 머물렀다. 그는 한 권의 만주어 문법서와 만주어 사전을 불어로 썼다. 그의 책들은 유럽의 초기 만주어 연구에 큰 영향을 끼쳤는데 특히 프랑스, 러시아 그리고 독일은 만주어 연구를 시작하였다.

Amiot와 거의 같은 시기에 또 다른 프랑스 학자 Louis-Mathieu Langlès (루이-마티외 랑글레)는 1787년부터 1790년까지 파리에서 만주어-프랑스어 사전 (Alphabet mantchou, rédigé d'après le syllabaire et le dictionnaire universel de cette langue 만주 문자, 이 언어의 음절문자와 범용 사전에 따라 씀)을 출간하였다. 그는 나폴레옹 치하 프랑스 국립 도서관의 동양 문서 관리자였다. 그는 본래 아랍어와 페르시아어를 공부하였다. 랑글레는 국립 도서관의 인디아 담당의 임시 전문가였다. 그의 가장 초기의 저서들은 타메를란, 티무르 그리고 다른 몽골 칸들 그리고 만주 문자에 관련된 것이다. 그는 아시아로부터 정보와 서적을 얻기 위해 집중적인 편지 왕래를 주도하였다. Antoine Léonard de Chézy (앙투안 레오나르 드 세지 1773-1832), Jean-François Champollion (장-프랑수아 샹폴리옹 1790-1832) 그리고 Jean-Pierre Abel-Rémusat (장-피에르 아벨-레무자 1788-1832)와 함께 랑글레는 Silvestre de Sacy (실베스트레 드 사시 1758-1838)의 학생이자 애제자였다. 랑글레와 콜레쥬 드 파리의 긴밀한 관계는 사시 남작의 적극적 지원에 의한 것인데, 그의 이러한 노력은 나중에 세지가 콜레쥬의 산스크리트어 첫 교수로, 레무자가 중국어, 샹폴리옹이 이집트학의 첫 교수로 임용이 되었다. 후에 랑글레도 그 곳의 페르시아어 교수로 부임하였다. 1795년 랑글레는 파리의 Ecole des langues orientales vivantes (현대 동양 언어 학교)의 설립자 겸 교장이 되었다. 이 곳은 Institut national des langues et civilisations orientales (동양언어문명연구소

INALCO)로 개칭되어 여전히 운영 중이다.

Charles-Joseph de Harlez de Deulin의 이름 또한 여기에 언급되어야 한다. 그는 1884년 파리에서 만주어 관련 안내서 (Manuel de la langue Mandchoue : grammaire, anthologie & lexique)를 출간했다.

그러나 만주어 서적과 기록물의 수집 훨씬 이전에 시작했는데, 주로 베를린, 상페테르부르크 그리고 파리에서 이루어졌다. 베를린 쿠르튀르스트 (나중에 왕립) 도서관에 소장되어 있는 첫 두 권의 만주어 관련 저서는 중국학자이자 도서관 직원인 Andreas Müller가 1683년에 인쇄한 카탈로그에 나온다. 하나는 1669년 일식에 관련한 소책자이고 다른 하나는 1651년 예수회의 천문학자 Adam Schall v. Bell을 서훈하는 황제 칙어이다. 베를린 도서관에서 중국과 만주 관련 서적 관련 다음 카탈로그는 1810년 Klaproth에 의해서 준비되었다 (아래 참고). (Walravens 2014 참고)

Theophilus Siegfried Bayer (1694-1738)는 독일의 쾨니히스베르크에서 태어났고 후에 상페테르부르크의 러시아 과학원에서 한 동안 일했다. 그 역시 북경의 예수회 선교사들과 집중적인 서신교환을 주도하였다. 그는 중국어와 만주어를 공부하여 만주어에 관한 박사논문을 썼다. 이것은 그가 요절한 해인 1738년에 출판되었다. 그의 책과 그가 예수회 선교사들과 통신했던 편지들은 현재 글래스고우 대학도서관에 보관되어 있다. <http://www.gla.ac.uk/services/specialcollections/collectionsa-z/bayercollection/> (cf. Lundbaek 1986)

Heinrich Julius Klaproth는 1783년 베를린에서 태어났다. 그가 학자의 길에 들어선 학문적 배경에는 아버지가 베를린 대학교의 화학 교수였다는 집안 내력이 있다. 그러나 젊었을 때 클랍로트는 동양 언어에 관심을 갖게 되었다. 그는 베를린 왕립 도서관에서 Andreas Müller (1630-1694)와 Christian Mentzel 등 초기 독일 중국학자들이 1680년 경에 수집한 훌륭한 중국 서적 컬렉션을 발견했고 겨우 14살 나이에 독학으로 중국어를 배우기 시작했다. 나중에 그는 1819년 중국어-라틴어 사전을 썼다. 그는 우이구르어, 그루지아어 그리고 만주어를 포함한 많은 언어를 배웠다. 1804년 클랍로트는 상페테르부르크의 러시아 과학원의 회원이 되었고 1805년 북경으로 가는 러시아 사절단의 번역사로서 동행하였다. 그들은 청나라 통치 하의 몽골의 우르가까지 갔으나 러시아인들이 황제와 그의 대표자들 앞에서 하기로 되어 있는 예의 문제로 다툼이 일어나 북경에는 가지 못하였다. 그러나 클랍로트는 20 달 이상 시베리아에 남아 있으면서 부리아트, 칼묵, 퉁구스인과 그 밖에 다른 민족들의 언어를 연구하였다. 후에 그는 코카서스로 파견되어 그 곳 사람들의 언어를 연구하였다. 클랍로트의 광대한 지역의 여행에 동행했던 많은 수의 유럽인들이 탈진으로 사망했으나 그는 중단하지 않았다.

그의 언어에 대한 광범위한 연구를 통하여 그는 거의 모든 언어가 하나의 공통 언어로 귀착될 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을 전개하였다. 짧은 기간 동안 그는 빌나 대학교의 교수가 되었다. 그리고 나서 러시아 통치 하에서 그는 결코 행복하지 않았다. 그것은 아마도 출판을 어렵게 만드는 러시아의 엄격한 검열제도 때문이었을 것이다. 그는 린으로 돌아가 한 동안 그 곳에 머물렀다. 그러나 당시 나폴레옹이 독일의 대부분의 영토와 다른 나라들을 점령하고 있던 전쟁 중이었다. 1815년 나폴레옹이 몰려가자 그는 파리로 갔다. 베를린의 프러시아 왕이 그에게 교수직과 넉넉한 봉급을 주었음에도 그가 파리에 머무는 것을 허락하였다.

클랍로트가 배운 많은 언어들은 전혀 선생들의 도움없이 또한 어떠한 교재나 독본 없이 배웠다. 중국어를 배울 때 그는 F. Francisco Diaz 신부가 1700년 경 손으로 쓴 중국어-스페인어 사전을 필사하였다. 이 사전은 그가 베를린 도서관에서 발견한 책들 중의 하나였다. 그가 어떻게 만주어를 배웠는지에 대해서는 알려진 바가 없다. 그는 아마도 이전에 파리에서 출판되었던 Amiot나 L'angles의 문법서와 사전들을 사용했을 것이다.

Hans Conon von der Gabelentz는 1807년 베를린에서 태어났다. 그는 고위직의 귀족 가문 출신이었다. 괴팅겐과 라이프치히 대학교에서 공부하였고 정치가 겸 동양언어 학자가 되었다. 1833년 만주 문법서 “*Eléments de la grammaire mandchoue* (만주 문법 기초)”를 출간하였다. 라틴어와 프랑스 어는 19세기 말까지 대부분 과학 서적 출판에 사용되던 언어였다. 30년이 이상이 흐른 뒤에 가벨렌츠는 중국 고전 四书, 书经, 诗经의 만주어본과 함께 만주어-독일어 사전을 펴냈다. 이들 문법서와 사전은 독일에서 출판된 이런 류의 서적 중 최초의 것이다. 또한 유럽에서 쓰여진 최초의 과학적 만주 문법서인데 백여 년 뒤 1961년 Erich Haenisch의 문법서가 간행될 때까지 타의 추종을 불허하는 저작이었다. 가벨렌츠는 1837년 만주-몽골 문법서를 비롯해서 다수의 저서를 출간하였다 (Martin Gim의 Gabelentz 참고). 만주어로 쓴 중국 고전 출판물은 왜 유럽에서 대부분의 학자들이 만주어를 배웠는가하는 이유를 보여준다: 아주 어려운 옛 중국 고전어를 만주어 번역을 통해 이해하였기 때문이다. 가벨렌츠는 그의 성 안에 중국, 만주 그리고 그 밖에 아시아 제어로 쓴 희귀한 책들로 채워진 큰 도서관을 갖고 있었다. 이 귀중한 서책들은 1945년 소련군에 의해 약탈되었고 현재 책들의 소재에 대해서 알려진 바가 없다. 그의 아들 Hans Georg von der Gabelentz는 유명한 중국학자되었고 독일 라이프치히와 베를린 대학교의 교수를 지냈다. 그의 학생 중 하나가 Wilhelm Grube이다.

Wilhelm Grube는 1855년 상페테르부르크에서 독일인 주류상의 아들로 태어났다. 그의 부모는 그가 아직 어릴 때 사망하였다. 그는 상페테르부르크 대학교에서 언어학과 문헌학을 공부하였다. 그의 스승들 중에는 1875년 만주-러시아 종합사전을 쓴 유명한 Zaharov 교수가 있다. Ivan Il'ic Zacharov (이반 일리치 자하로프 1814-1885)는 북경 주재 정교회에 수 년간 있으면서 만주어를 연구하였는데, 이 곳은 17세기 이래 러시아의 만주 연구의 중심지였다 (Pang, Tatiana 참고). Wilhelm Grube는 중국어, 만주어, 몽고어, 티베트어를 연구하였다. 상페테르부르크에서 시험을 친 후 그는 독일의 라이프치히 대학교로 옮겨서 Hans Georg von der Gabelentz (1878-1880) 밑에서 중국과 만주어를 계속 공부하였다. 1883년 그는 베를린 민족학 박물관의 큐레이터가 되었고 2년 후 베를린 대학교의 강사(Privatdozent)가 되었다. 1892년 그는 베를린 대학교의 교수가 되었고 1908년 사망했다. 그의 주요 저서 중 하나는 길리야크어와 폴디어 그리고 다른 퉁구스계 언어들에 대한 언어 자료에 관한 출판물인데 이것은 1853년 아무르와 우수리 강 지역으로 탐사여행을 했던 Leopold von Schrenck의 탐사대가 채집하여 온 자료에 기인한 것이다. 1896년 그는, 주르첸-독일어 사전이 수록된, 주르첸 어와 문자에 관한 유럽 최초의 과학적 저서를 간행하였다. 강사로서 교수로서 베를린에서 그는 항상 중국어와 만주어를 가르쳤다. 당시 그의 강의를 수강했던 학생들의 명부가 보존되어 있다 (Walravens 2007, p. 27). 그의 “만주어 문법” 시간에는 보통 1명~4명의 학생만 수강했다. 대학교에서 가르치는 작은 규모의 과목들의 미래에 대한 현대적 토론을 생각해 보면 이것은 흥미롭다. 현대 비즈니스 스타일의 대학교들은 단지 20명 또는 그 이상의 수의 학생이 수강하는 코스나 수업을 원한다. 가장 유명한 교수와 학자들은 자주 한 줌 정도의 학생들을 데리고 수업한다. 그 학생들의 대부분은 유명한 교수가 된다.

19세기 중반에 독일의 다른 학자들로서 가벨렌츠의 문법서의 뒤를 이어서 1856년 본에서 라틴어로 만주어 문법서를 쓰고 기독교 성경의 몇 구절을 만주어로 번역한 Franciscus (Franz Philipp) Kaulen이 있다 (Gimm p. 230). 가벨렌츠의 문법서를 따라서 만주어 관련 많은 서적들이 유럽에서 쓰여졌다. 단지 몇 몇 주요 서명들만 여기서 언급할 수 있다. Paul Georg v. Möllendorff로 그는 여러 해를 중국과 한국에서 보냈으며 1892년 간략한 문장 분석을 결들인 영어로 쓴 만주어 문법서를 출간하였다. 그는 1882년에서 1885년까지 조선 조정 외교부에서 참관을 지냈으며 고종의 신뢰를 받아 측근으로 활동하였다.

Erich Haenisch (1880-1966)와 Erich Hauer (1878-1936)는 거의 동년배로서 20세기 초 독일 만주학에 가장 큰 영향을 끼친 학자들이다. 하우어는 1925년 이래 베를린 대학교 교수였고, 세 권으로 된 만주-독일

滿洲語文學 자료의 현황 및 그 연구와 활용

어 사전을 썼는데 현재도 여전히 유럽의 언어로 된 최고의 만주어 사전으로 간주되고 있다. 원고는 전쟁 중 사라졌고 전후 일본에서 인쇄되었다. 2007년에 재판되었다. 그는 중국어와 만주어에 깊은 지식을 소유하고 있었다. 1901년과 1917년 사이에 독일 대사관의 통역인 겸 외교관으로 북경에 머물렀다.

Erich Haenisch는 잠시 Erich Hauer의 스승이었고 1920년부터 베를린에서 교수로 있었다. 그리고 괴팅겐으로 갔다가 후에 라이프치히로 옮겼다. 그는 <몽고비사>의 번역을 하고 그와 관련한 사전을 출간하였다. 만주어 학습을 위한 텍스트북과 문법서를 썼고 이 책은 현재도 사용되고 있으며 재판되고 있다.

Hauer와 Haenisch보다 약간 후세대에 속하는 학자로 Walther Fuchs (1902-1972)가 있다. 그는 Haenisch처럼 수 십년을 중국에서 보냈고 중국과 만주에 대한 가장 깊은 지식을 갖고 있었다. 1926년부터 1947년까지 그는 그의 집과 북경에 아주 큰 개인 도서관 (1938-1947)을 소유하고 있었는데 이전에는 뉘른베르크(1926-1938)에도 있었다. 그는 유명한 몽골학자 Ferdinand Lessing의 후임으로 뉘른베르크에 있는 의과학교 강사를 지냈고 1938년부터 북경의 푸젠 대학교에서 가르쳤다. 가장 큰 비극은 공산주의자들이 북경을 점령했을 때 그의 도서관을 빼앗겨 독일로 추방되었던 것이다. 그는 처음에는 베를린 그 후 쾰른 대학교의 교수를 지냈다. 만주 서적에 관한 그의 서지 목록은 오늘날에도 아주 귀중하다 (Walravens: 2007 참고). 중국과 만주 연구를 연합하는 오랜 전통은 오늘날 독일의 몇몇 대학교들에서 여전히 살아있는데 특히 뮌헨이 그렇다. 그러나 1930년부터 약간의 중국어 지식이나 심지어 전혀 중국어 지식없이 만주어 연구를 하는 학자들의 학파가 생겨났다. 그들은 튀르크, 몽고, 퉁구스계어에서부터 시작하여 알타이어학적 관점에서 접근하는 학자들이다. 이 학파의 대표적 학자들로서 Karl Heinrich Menges (1908-1999)와 그의 제자 Gerhard Doerfer 그리고 후속세대 Michael Weiers가 있다. Menges는 프랑크푸르트에서 태어나 그 곳에서 공부한 후 나치 독일 시절 터키로 건너갔다. 전쟁 후 비인 대학교의 교수가 되었다. 그는 특히 알타이어족과 노스트레이트어족 가설에 관심을 가지고 많은 현대 중앙아시아 제어가 분화하기 전의 공통 언어를 찾는 연구를 했다.

그의 제자 Gerhard Doerfer (1920년 쾰른 출생, 2003년 괴팅겐에서 사망)은 괴팅겐 대학교 알타이어학 교수가 되었는데 만주어에 관한 많은 저서와 논문들을 썼다. 그러나 그는 알타이어족 가설의 실제 가치에 대해서 대단히 신중하고 조심스러워 했다. Michael Weiers는 1937년 생으로 아직 생존해 있다. 그는 본 대학교의 몽고학과 만주학 교수였다.

만주학 분야에서 또 다른 유명한 교수는 Martin Gimm으로 1930년 생이고 현재 생존해 있다. 그는 쾰른 대학교의 중국어와 만주어 교수였다. Erling von Mende (1940년 생)은 베를린 자유대학교의 중국어와 만주어 교수였다. 중국학과 만주를 결합시킨 이러한 전통은 만주를 그 나름의 언어와 문학으로서 간주하려는 젊은 세대 사이에서 점차 사라져 가고 있다. 고유한 만주 문학의 연구 분야에 있어서 Giovanni Stary의 이름을 언급하지 않을 수 없다. Stary는 1946년 메란에서 태어나고 북부 이탈리아에서 독일어를 사용하며 성장하였다. 나폴리에서 공부했으며 독일에서는 Walter Fuchs 교수 (쾰른) 그리고 Heissig 교수 (본) 밑에서 공부하였다. 그는 후에 베니스 대학교의 만주 문학 교수가 되었고 만주와 시베리아의 언어와 문학에 관련한 수 많은 저서와 논문을 발표하였다. 그의 저작물 중에는 4권으로 된 만주학-국제적 서지 목록이 있다.

독일에는 만주 문학 관련 방대한 서적을 소장하고 있는 도서관 두 곳이 있다. 한 곳은 고서들을 많이 소장하고 있는 베를린 국립도서관이고 다른 한 곳은 괴팅겐 국립-대학도서관이다. 李喜雨(1936년생)는 서울대학교에서 이기문에게 공부했으며 독일로 와서는 괴팅겐에서 만주어와 다른 알타이 언어들에 Doerfer 밑에서 공부했으며 조선조 만주학에 대한 논문으로 1962년에 박사 학위를 받았다. 그의 논문은 1972년 독일어로 출판되었다. 괴팅겐 국립-대학도서관 알타이학 컬렉션의 큐레이터가 되었고 괴팅겐 국립-대학도서관을 유럽에서 가장 방대한 알타이학 컬렉션의 하나로 만들었다. 이 도서관의 카탈로그에

Manchu Studies in Germany since the 19th century

는 1,500개의 만주어 제목이 있으며 이 중에는 중국 신강성에서 온 많은 시버 서적과 신문이 포함되어 있다. 괴팅겐 도서관의 우이구르 문학 컬렉션 또한 유럽에서 가장 방대하다. 2003년 이래 Johannes Reckel 이 이 일을 계속하고 있다. 이희우는 괴팅겐 대학교에서 수 년 동안 만주어를 비롯해서 다른 퉁구스계 언어도 가르쳤다. 그는 Johannes Reckel의 스승이며 Reckel도 괴팅겐에서 만주어를 가르치고 있다.

독일에서의 만주학 연구에 대한 짧은 개요를 마치기 전에 이 유명한 학자들 중 누가 “진짜” 독일인가 라고 말하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가를 명확히 해야 한다. 그들의 대다수가 독일, 러시아, 프랑스 그리고 심지어 이태리로 이주했고 수 십년 혹은 수년을 중국, 터키 그리고 그 외 다른 나라에 머물렀다. 독일어를 사용하는 학자들은 그들이 사는 시대의 유행에 따라 라틴어, 프랑스어, 영어로 출판했다. 그럼에도 독일 은 유럽에서 거의 200년 간 만주학의 중심이었다.

滿語文獻研究開發及人才培養

趙阿平（中國黑龍江大學 滿族語言文化研究中心，哈爾濱 150080）

摘要：本文主要對滿語文獻保護調研與整理開發、滿語文獻與歷史文化深層次綜合研究、滿語文獻與相關學科結合研究、學科建設發展與後繼人才培養等深入發展問題進行探討。通過對滿語、文獻等文化遺產的保護與開發為相關學科的深入研究提供科學依據，促進滿—通古斯諸族語言文化起源發展研究，以及阿爾泰諸族語言文化比較研究、漢語言文化與北方諸民族語言文化關係研究、清史、滿族史研究、中國民族史研究、文化人類學研究。通過對滿語、文獻與歷史文化的深層次綜合研究，發掘滿族文化精神中的精髓，研究其治國方略的經驗與教訓，為我國現代社會經濟文化發展提供借鑒，為政府決策機構制定民族政策、外交政策提供參考。

關鍵詞：滿語文獻；保護開發；歷史文化；綜合研究；人才培養

基金項目：國家社會科學基金專案《滿語詞匯語義研究》階段成果，批准號：13BYY129、香港意得集團資助項目《滿族文化搶救開發研究專案之瀕危滿語搶救調查研究》階段成果。

前言

滿族作為中華民族的一員，走過了一條獨具特色的發展道路，不僅在中華民族發展史上做出了突出貢獻，而且為人類文明進程提供了極有價值的經驗與教訓。滿族及其先人在歷史上曾三次崛起並建立政權，即以粟末靺鞨為主體建立的“震國”（渤海國）、女真建立的大金國、滿族建立的清王朝，以其跨越式的發展在中國歷史上留下了輝煌的足跡。滿族以其自強不息、奮發進取、善於學習、吸納先進、揚長避短、開放融合的民族精神，最終以少勝多，以弱勝強，君臨天下，奠定了統一的多民族國家的廣闊疆域，創造出中國封建社會其他王朝所未有過的輝煌業績。無論是百年的康乾盛世，燦爛的文化成就，民族關係的處理，還是遼闊版圖的奠定，都作出了重要貢獻。其傳承創造的物質文明和富有內蘊的精神資源，豐富了中華民族文化寶庫，推進了人類文明發展。因此，豐厚的滿族語言文化遺產是我國乃至世界文化遺產中的珍寶，滿族語言文化保護調研與開發利用成為國際學術熱點。

滿語是滿族文化的載體，承載著深厚豐富的民族文化內涵。在清代滿語文定為“國語”、“清文”，通行全國，為推進社會發展、豐富中華民族文化寶庫起了重要作用。在清代268年

歷史中，彙集了浩如煙海的滿文檔案史料。全國現存滿文檔案史料約三百多萬件（冊），其中黑龍江省檔案館現藏黑龍江將軍衙門滿文檔案約有二萬餘卷，有關邊疆、民族資料數量繁多，內容豐富，涉及面廣。另外，在俄、日、德、英、美、法等國博物館、圖書館也藏有一定數量的滿文文獻史料。其內容涉及政治、歷史、經濟、文化、軍事、外交、宗教、民俗、天文、地理等各個方面。如此浩瀚的珍貴史料，對於古今社會諸學科的研究，都具有極其重要的科學價值。目前滿語作為一種瀕危語言，僅有黑龍江省少數滿族村屯的部分滿族老人（不足百人）能以滿語會話。在經濟全球化大潮快速衝擊下，保護滿族語言文化遺產與歷史文化綜合研究顯得更加緊迫，因此，保護調查現存滿族語言文化珍貴資料，發掘研究大量滿文檔案史料成為近30多年來專業工作人員承擔的緊迫重任。

20世紀百年來，在國際範圍內經過幾代專家學者的不懈努力，辛勤探索，滿語文獻調查研究取得重大發展，人才輩出，大量論著、辭書出版，成果豐碩[1]。尤其是近30多年來在各方的關注重視下取得突破性進展，主要體現於研究方法創新、研究機構建立、研究人才培養、學術國際交流、獨立學科形成等諸方面。大量研究成果主要涉及滿語基礎理論研究、滿語口語調查研究、滿族語言與歷史文化研究、滿文文獻調查研究、滿文翻譯研究、滿文檔案史料與邊疆民族問題研究、滿語口語搶救調查研究與現代化技術處理、滿族語言文化與相關民族語言文化比較研究、滿語文與相關學科結合研究等方面，在理論研究上取得了新的進展，在跨學科綜合研究上拓展了新的空間[2]。將滿族語言文化研究推向新的高度，為滿語文獻保護開發與歷史文化綜合研究的深度發展奠定了雄厚基礎。

21世紀人類走進科學技術高速發展的知識經濟時代，經濟全球化，文化全球化，使人類文明進程充滿了新的生機與希望。隨著人類發展步伐日益加快，經濟全球化也日益加速，強勢語言文化對於周邊國家以及發展中國家的滲透日趨突出，其結果各種各樣、豐富多彩的優秀傳統文化的生存遇到了空前危機，許多民族十分寶貴而有顯著特色的語言文化開始走向瀕危、面對消亡。滿族語言文化也同樣面臨著嚴峻的挑戰與新的機遇，社會發展賦予我們新的重任。需要在前人研究基礎上，進行創新探索與深化拓展，借助於最新的科技方法、手段，將滿族語言文化保護傳承、調查研究、開發利用等諸項工作提高到新層次。對此，本文主要對滿語文獻保護調研與整理開發、滿語文獻與歷史文化深層次綜合研究、滿語文獻與相關學科結合研究、學科建設發展與後繼人才培養等深入發展問題進行探討，以圖通過對滿語、文獻等文化遺產的保護與開發為相關學科的深入研究提供科學依據，促進滿一通古斯諸族語言文化起源發展研究，以及阿勒泰諸族語言文化比較研究、漢語言文化與北方諸民族語言文化關係研究、清史、滿族史研究、中國民族史研究、文化人類學研究。通過對滿語、文獻與歷史文化的深層次綜合研究，發掘滿族文化精神中的精髓，研究其治國方略的經驗與教訓，為我國現代社會經濟文化發展提供借鑒，為政府決策機構制定民族政策、外交政策提供參考。

1、 滿語文獻保護調研與整理開發

1、 滿語口語的保護調研與語料庫建設

2001年，聯合國教科文組織通過的《世界文化多樣性宣言》中，確認了生物多樣性、文化多樣性和語言多樣性的相互關係，將這種聯繫上升為生命多樣性的構成內涵。保護世界語言多樣性一直在聯合國教科文組織眾多工作中保持著重要地位，語言遺產在該組織的文化遺產專案中享受著最高的優先權。由國家文化部主持開展的《中國民族民間傳統文化保護工程》所界定的諸項民族民間傳統文化，第一項即“傳統的口述文學和語言文字”，其他無形文化遺產門類，如傳統文學、戲劇、曲藝、音樂等也多與語言文字載體有關。

滿語口語是研究滿族語言文化的第一手珍貴資料，也是滿學及相關學科研究的活化石，具有極其重要的學術價值。由於各種歷史因素與社會因素的影響，滿語口語日趨消亡。近30年來專業人員對滿語口語進行了全面、系統的調查，成果豐碩。其中尤為突出的是黑龍江省滿語研究所自1983年成立以來，長期堅持對黑龍江省黑河、富裕等7個市縣14個滿族村屯的現存滿語進行了系統跟蹤調查，獲取了大量寶貴的第一手資料，並保持了調查的連續性和資料的完整性。近20年來瀕危語言搶救調查研究得到國家及國際的高度重視，多項重要的瀕危語言搶救調查研究課題獲批立項，得到專項基金資助，同時，高科技的快速發展也為科研提供了先進的現代化設備，滿語搶救調查及研究進入新階段[3]。今後需在原有的調查研究基礎上，繼續進行更為有效的保護與全面深入調查，將以往調查中不足的部分補全，並盡可能使之完善。同時對取得的所有調查資料進行科學、規範和有序化整理研究，如編輯詞典、出版專著、建立資料庫、採用多媒體技術保存聲像資料等，為瀕危滿語保存有科學研究價值的文獻。

語料庫建設是現代語言學研究的一個重要領域和利用電腦資訊技術深化語言應用與研究的新方向。對於保存瀕危的滿語與浩瀚的滿文檔案翻譯工作具有重要的科學價值與開發應用意義。建立滿語語料庫，永久保存滿語語料珍貴文化遺產，為滿語本體深入研究奠定基礎。在滿語語料庫建設中進行滿語詞匯結構分析及語法分析，為編纂大型滿語辭書、分類工具書及多語對照詞典提供基礎條件。還可在滿語語料庫基礎上，建設滿漢雙語平行語料庫，以解決滿文檔案的初步翻譯問題，這將會快速改善目前我國現存的大量滿文檔案缺乏人才翻譯整理的緊迫狀況，提高滿文文獻研究和開發利用的工作效率。

瀕危滿語的保護傳承工作需要有計劃地開展，需要本民族人員和當地從事語言教學、宣傳和管理的人員、語言研究的專家和機構、社會各界、政府和國際社會的共同參與。政府在政策、財政、管理、專案、人才等方面的支持至關重要，需制定有關瀕危語言保護的條例或法規，讓保護工作深入人心並且有法可依；成立保護瀕危語言的專門機構，設立專項資金，保證瀕危語言保護工作持續有效地進行。在對瀕危語言實施保護時，還應充分考慮少數民族生存發展的需要，尊重他們自己的選擇。保護瀕危語言生存和發展區域，如保護少數民族聚居區，建立瀕危語言保護示範區等；運用適當的教育手段，如加強雙語教育，培養能夠記錄和保存瀕危語言的本族人等，增強本族人對母語的感情，以延緩滿語的衰亡。

2、滿語文獻的整理開發與研究應用

在滿文檔案翻譯與研究方面，近30年來取得多項成果。一批珍貴的滿文檔案得以影印出版，如《無圈點老檔》、《舊滿洲檔》、《老滿文原檔》等；一些重要的滿文檔案被譯成漢文出版發行，如《滿文老檔》、《清初內國史院滿文檔案》、《康熙朝滿文朱批奏折全譯》、《雍正朝滿文朱批奏折全譯》等，滿語文獻研究專著有《滿漢異域錄校注》、《滿文清實錄研究》、《滿文清本紀研究》等。為清史、滿族史研究提供了寶貴材料。各級檔案館的專家學者積極撰寫滿文檔案全宗介紹和檔案概覽，編輯出版邊疆檔案目錄，並在清史研究中直接運用館藏滿文檔案；專門從事清史、滿族史研究的專家學者直接或間接地利用滿文檔案從事科研、教學工作。清史研究上的每一次重大突破都離不開滿文檔案。

然而，滿文檔案整理翻譯是一項艱難細緻的工作，需要從業人員不但要精通滿文和漢文，而且還需掌握雙文化乃至多文化的知識，特別是要對兩種語言的民族心理意識、文化形成過程、歷史習俗傳統、宗教文化以及地域風貌特性等一系列互變因素均有一定的瞭解，這是因為語言反映文化，承載著豐厚的文化內涵，並受文化的制約。在全國範圍內，能夠熟練進行滿文檔案整理、翻譯、教學、研究的人員不過三五十人，相對浩如煙海的滿文文獻檔案不成比例，甚為匱乏。因此，該項浩大的工程任重而道遠，牽涉面廣，在再生保護、翻譯整理、編輯出版、專題研究、開發利用等諸方面都有大量工作亟待開展。需要加強領導，協同配合，充分發揮現有專業人才的作用，密切合作，務實見效。

目前國家文化部等各相關部門及省級各相關部門高度重視古籍文獻的保護研究工作，已建立相應工作協調機制，明確工作目標和任務，認真落實保護措施，建立健全古籍文獻保護責任制度和責任追究制度。並充分發揮專家在古籍文獻修復、保護、研究等方面的作用，推進古籍文獻保護工作有效開展。如黑龍江省結合實際，將滿文歷史檔案再生保護和開發利用作為推進歷史文化資源保護挖掘與利用的重點內容，成立了黑龍江省歷史文化資源開發利用領導小組和專家指導組，按照統籌規劃、先易後難、科學嚴謹、務實高效的原則，以加快滿文歷史檔案再生保護和開發利用為目標，進一步細化工作總體規劃和責任分工，採取再生保護與開發利用同步推進的辦法，突出重點，扎實推進滿文檔案再生性搶救保護、翻譯整理、史料編輯出版、專題研究等四項重點工作，為加強地方史學研究、推進邊疆文化大省建設奠定堅實的歷史文化基礎。

古籍文獻的開發與保護是緊密相聯、不可分割的。古籍文獻的再生性保護在一定意義上也是古籍文獻的開發，只是這種開發更注重古籍文獻的方便利用，是一種基礎性的開發。更深層次的開發主要是著眼於古籍文獻的社會效益和經濟效益。今後滿文文獻檔案無論是基礎性的開發還是深層次的開發，都需加大力度投入，充分調動發揮滿文文獻檔案的實用價值和經濟潛能。滿文文獻檔案的再生保護與研究利用為兩個層面的工作，根據工作職權與性能，前者宜由檔案收藏管理單位承擔，後者當由高校、科研機構承擔。兩個層面的工作可相互配合，同時進行，分工協作，各盡所能。

二、滿語文獻與歷史文化綜合研究

在20世紀百年中，中、日、美、俄、德、英、韓等二十多個國家的專家、學者對滿族歷史、語言、文化進行了廣泛的研究，取得大量的研究成果。經國內外專家學者的長期共同努力，到20世紀90年代，滿學已形成一門獨立學科，進一步向高深水準發展。滿族語言與歷史文化研究作為90年代開創的新方向，不僅具有理論性、應用性，而且具有跨學科性和交叉性。將語言學與歷史學、民族學、文化人類學、考古學等相關學科相結合，深入系統地對滿族語言與文化的關係及其特徵進行多方位綜合研究，突破了滿族語言、歷史、文化各自分離研究的狀態，並為相關學科研究提供了科學依據，解決了一些理論問題與應用問題，從而拓展了滿學研究的新路。在研究發展中充分發揮創新能量，把國際滿學研究推向新階段。

語言和文化之間的特殊關係，都在各民族語言的寶庫裏反映出的民族文化特徵，不僅僅是表現在語言、辭彙上，更重要的是對上述這些因素起到制約作用的內在語言系統，即貯存於每個使用該語言成員大腦中充當建立聯想關係的依據的內貯資訊庫。索緒爾與雅可布認為單純分析各民族語言的語音、辭彙和語法，不足以反映該語言的特點，還必須把這些東西放入具體的民族之中，才能真正反映該民族語言的主要特徵，它證明了“內語言”的存在，而且讓我們注意到“內語言”與民族文化的依存關係。特定的文化與特定的語言之間，有著深刻的歷史和現實的內在聯繫。語言作為文化記錄的化石，生動地折射出所有文化成果與資訊。滿族的自然生態環境、物質生活方式、社會關係、宗教信仰、價值觀念、思維習慣、文化交往無不滲透於語言之中，滿族語言尤其是語義系統充分反映了滿族歷史文化的豐富內涵及其特徵。滿族語言與歷史文化具有相互依存、相互影響和同步發展的密切關係。因此，將二者結合起來進行深入、系統的探討研究，進而全面深刻地揭示出滿族語言與歷史文化的豐富內涵及民族特徵，可為相關學科研究提供科學依據、客觀例證，並為人類文明發展進程提供有價值的經驗與教訓[4]。

滿族語言與歷史文化研究主要從滿族語言與自然生態環境、滿族語言與物質經濟文化、滿族語言與社會制度文化、滿族語言與宗教信仰文化、滿族與相關民族語言文化關係等方面對滿族語言與文化的關係及其特徵進行系統的探討研究，揭示出滿語詞匯深蘊的文化內涵，並為全面深入研究滿族文化模式奠定基礎，提供科學依據。

滿族語言與歷史文化綜合研究具有廣闊的應用開發前景，其對於滿一通古斯諸語言文化的起源發展研究，阿勒泰諸語言文化的比較研究、漢語言文化與北方諸民族語言文化關係研究、清史、滿族史研究、中國民族史研究、文化人類學研究等都具有一定的學術價值與應用價值，對於促進當今民族文化經濟的發展亦具有特殊的效用。

三、滿語文獻與相關學科結合研究

少數民族語言是重要的非物質文化遺產，每一種民族語言都承載了所屬民族的文化淵源、

變遷和思想價值體系。以滿語文獻作為研究語言學、文學、社會學、歷史學、民族學、人類學等學科的切入點，會破解諸多疑難問題的密碼，為深入研究提供科學依據。

中國文化語言學的實用價值是雙重的。首先是語言的研究不復“曲高和寡”，開始與其他學科進行接觸交流，為其他學科提供服務。一方面把多種人文學科引進語言學，另一方面也把語言學引進別的人文學科，如哲學、人類學、民族學、文化學、社會學等。其次，現階段的研究主動地向應用領域邁進，試圖使語言學走出“不食人間煙火”的誤區。“文化導入”、“文化揭示”、“文化融入”、“文化語言有機化合”等已成為提高教學品質的重要關鍵之一，其成果也是十分喜人的。諸如羅常培《語言與文化》[5]、邢福義《文化語言學》[6]、戴昭銘《文化語言學導論》[7]、鄧曉華《人類文化語言學》[8]、丁石慶：《達斡爾語言與社會文化》[9]、馬清華《文化語義學》[10]等等。近20年來在滿語研究領域中，文化語言學也開始結出碩果，如趙阿平《試論滿語語義與文化》[11]、《論滿語特有詞語的翻譯》[12]、《滿族語言與歷史文化》等。滿語教學和翻譯中的語言跨文化研究，會使教學取得更好的效果。語言的跨文化研究是把語言與文化的研究引向跨時空，全方位，多視角對比研究的重要課題，而對於影響教學及其研究的知識性文化和交際性文化，開始受到重視。於是，語言學與實際社會生活日益親近，學術研究的社會價值日益提高。

學科交叉研究法，是把多種學科引進語言學，把語言學引進別的學科的指導方法。即立足語言學，與其他學科多向交流，吸取其他學科的研究成果和分析方法。科際交流，尤其表現在方法的借鑒與習得上。這個方法的特點是多種方法的相互滲透和融合，如融會語言學上的共時描寫法、歷時分析法、社會學上的社會調查法、階層分析法，以及其他學科的統計法、歷史研究法等等。這一研究方法的領域十分廣闊。語言學工作者已注意到更廣泛的交流空間，如文化人類學中的文化區、文化層、經濟文化類型理論，生物學中的進化論，甚至地質學中的板塊理論，都會對我們的語言文化分析帶來莫大啟示。

組織大規模、跨學科、應用價值與社會價值較高的科研課題，將滿語文獻與文學、社會學、歷史學、民族學、人類學相結合，在注重基礎理論研究的同時，加強應用領域的研究。特別是結合現實社會政治經濟發展的需要，針對一些具體問題，策劃設立相關課題，取得突破性成果。積極參與課題申報，爭取國際合作專案，國家級和省級課題。對於大型專案，可以組織省內外甚至國內外的有關專家學者，聯合攻關，保證高品質、高水準完成課題任務。

四、學科建設發展與後繼人才培養

加強滿學學科建設，是持續研究與深化研究的重要前提、必備保障。目前，黑龍江大學的中國少數民族語言文學（滿語）學科為國內唯一的專門系統化學科，該學科於2000年設立碩士學位點，

2005年開始招收培養滿族語文與歷史文化本科生，2007年設博士生培養方向招生，2010年設立博士學位點，為系統培養滿族語言文化研究後備人才建立了教學基地。2001年日本北海道大學博士研究生前來留學，2005年美國康乃爾大學博士研究生

前來留學。2001—2015年共培養博士生、碩士生50多名，本科生200多名。該學科在不斷提高教師教學水準的同時，依靠黑龍江大學雄厚的教師資源，優化組合教學力量，採用先進的教學理念，根據本學科的特點制定滿族語言文化教學計畫，研究教學模式，並聘請國內外著名專家學者前來進行專題學術講座，為把本專業學生培養成為精通業務、開拓創新、全面發展的高層次複合型專門人才而開展各項工作。滿語基礎教材參考採用成果如：劉景憲、趙阿平著《滿語研究通論》[13]、季永海、劉景憲、屈六生著《滿語語法》[14]、趙阿平：《論滿語詞的構成》[15]、《論滿語詞匯的特點》[16]、《滿語同義詞的辨析與運用》[17]、《滿語多義詞與同音詞的辨別與運用》[18]、《滿語語義文化內涵探析》[19]、《滿漢諺語語義辨析》[20]、劉景憲、趙阿平等：《關於滿語名詞複數的研究》[21]、趙阿平：《論滿語特有詞語的翻譯》[22]、《顏色詞“白色”的民族文化內涵義》[23]、《滿-通古斯語言與薩滿文化論略》[24]等等。該學科承擔著滿族語言文化研究與後繼人才培養的雙重重任，在黑龍江省教育廳與黑龍江大學的全力支持下，突出學科特色優長，已取得多項成果與快速發展。

滿族語言文化研究工作的發展，至關重要的是科研人才。培養滿族語言與歷史文化的高層次研究人才，無疑將會對搶救保護瀕危滿語、開發利用滿文文獻、促進社會文化經濟建設、深化學術研究提供人力保障。因此，必須把人才培養同科研緊密結合，力爭在短時間內，從各方面加強對後繼人才的培養。堅持正確的科研方向，培養尊師重道的品德，樹立勤奮務實的學風，達到厚基礎、深鑽研、寬視野的培養目標。通過多種途徑培養一批滿族語言文化研究的學科帶頭人和學術骨幹。

1、提高現有學科梯隊成員的研究水準，進行短期或長期、校內或校外培訓，切實提高學歷層次和科研教學水準。

2、積極引進具有高學歷、高水準、高層次中青年人才，在學歷結構、學緣結構、職稱結構、年齡結構上合理化、均衡化，逐步完善學科梯隊建設。同時，對一些高、精、尖課程和某些專題，要聘請國內外著名專家學者前來講學或舉辦學術講座，實行人才流動，人才共用。

3、培養本專業及黑龍江大學在讀本科生、碩士生、博士生，以專業班、培訓班等多種形式培養高層次複合型專門人才，邊學習邊實踐，加快人才培養的週期。

4、在學科建設、調查研究、著書立說等實踐中培養人才，提高水準能力。

5、培養後繼人才具備全球視野，注重多元文化的吸收；具有國際知識和國際意識，瞭解國外的文化背景、思維方式；具有國際交往能力，溝通資訊、傳播能力和善於合作；具有國際競爭能力，終身學習意識與創業意識。

6、完善中外聯合培養人才制度，形式可以靈活多樣。如實施的“中外聯合培養師資博士生項目”等特殊的辦法，利用國外資源為我們培養國際化的教學科研人才。

7、加強國際交流與合作。國際交流與合作的可以採取很多形式，如學術交流有參加國際學術研討會、交流會、參加跨國合作研究，以課題為中心召開國際研討會，開展校際合作交流等。

8、引進來，走出去，以流動促進國內人才的國際化成長。人才國際化，並不僅僅是引進

海外或國外的優秀人才，另一方面，也應該包括本土人才融入國際。在這個問題上要通盤考慮，綜合協調，妥善處理好三個關係。一要處理好引進人才與現有人才的關係。既要有海納百川的胸懷，天下人才為我所用的氣魄，又要對身邊現有的優秀人才一視同仁地予以對待，始終堅持引進與培養相結合。二要處理好吸引人才與留住人才的關係。要改變人才重引進、輕管理的現象，幫助引進人才加快適應新的環境，並在工作和生活等方面給予持續的關心。同時也要改變引進人才只流進不流出的觀念，讓人才在流動中保持穩定，使人才隊伍始終充滿活力。三要處理好領軍人才與創新團隊的關係。學科交叉日益明顯的今天，在對領軍人才給予各方面關心和支援的同時，也要關注領軍人才所帶領的隊伍，加強對創新團隊的投資，真正賦予領軍人才駕馭團隊的相應資源，為領軍人才不斷拓展事業提供保障，從而使團隊起到聚集和培養國際化人才的作用。

在21世紀知識經濟化和經濟全球化新形勢下，滿語文獻研究開發與人才培養將進一步向科學化、規範化、國際化方向發展，在科研上求深度，跨學科，上層次，出精品；在學科上強化建設，高質優化；在人才培養上重品德，厚基礎，寬視野，深鑽研。努力挖掘歷史文化寶藏，弘揚民族文化精髓，深化理論研究，拓展應用研究，完成歷史重任，開創新的未來。

參考文獻

- [1] 閻崇年：《21世紀世界滿學著作提要》，民族出版社，2003。
- [2] 趙阿平：《中國滿一通古斯語言文化研究及發展》，滿語研究2004(2)。
- [3] 趙阿平、郭孟秀、何學娟：《瀕危語言——滿語、赫哲語共時研究》，社科文獻出版社，2013。
- [4] 趙阿平：《滿族語言與歷史文化》，民族出版社，2006。
- [5] 羅常培：《語言與文化》，語文出版社，1989年。
- [6] 邢福義：《文化語言學》，湖北教育出版社，1990年。
- [7] 戴昭銘：《文化語言學導論》，語文出版社，1996年。
- [8] 鄧曉華：《人類文化語言學》，廈門大學出版社，1993年。
- [9] 丁石慶：《達斡爾語言與社會文化》，中央民族大學出版社，1998年。
- [10] 馬清華：《文化語義學》(修訂版), 江西人民出版社2006
- [11] 趙阿平：《試論滿語語義與文化》，《民族語文》，1993(5)。
- [12] 趙阿平：《論滿語特有詞語的翻譯》，《語言與翻譯》，1994(2)。
- [13] 劉景憲、趙阿平著《滿語研究通論》，黑龍江朝鮮民族出版社，1997。
- [14] 季永海、劉景憲、屈六生著《滿語語法》，民族出版社，1986。
- [15] 趙阿平：《論滿語詞的構成》，《滿語研究》，1989(2)。
- [16] 趙阿平：《論滿語詞匯的特點》，《滿語研究》，1990(1)。
- [17] 肖可：《滿語同義詞的辨析與運用》，《滿語研究》，1991(1)。
- [18] 趙阿平：《滿語多義詞與同音詞的辨別與運用》，《滿語研究》，1991(2)。

- [19]趙阿平：《滿語語義文化內涵探析》（一）、（二）、（三）、（四），《滿語研究》1992（2）、1993（1）、1994（1）、1994（2）。
- [20]趙阿平：《滿漢諺語語義辨析》，《滿語研究》，1992（1）。
- [21]劉景憲、趙阿平等：《關於滿語名詞複數的研究》，《民族語文》，1993（4）。
- [22]趙阿平：《論滿語特有詞語的翻譯》，《語言與翻譯》，1994（2）
- [23]趙阿平：《顏色詞“白色”的民族文化內涵義》，《滿語研究》，1995（1）。
- [24]趙阿平：《滿-通古斯語言與薩滿文化論略》，《民族語文》，1996（3）。

趙阿平：黑龍江大學滿族語言文化研究中心主任、教授、博士生導師
主要從事滿語、滿族語言與歷史文化、滿-通古斯語言文化、文化語言學、
民族學人類學研究。

地 址：哈爾濱市南崗區學府路74號227信箱 郵編 150080

中國黑龍江大學滿族語言文化研究中心

電 話：0451—86609002（辦） 13903603962

E-mail：zhaoaping19@126.com

[발표 4 - 번역문]

중국의 만주어 학문연구 성과와 인재 양성

자오이핑(중국 흑룡강대학)

제요: 본문은 주로 만주어 문헌 보호 조사 연구와 정리 발전, 만주어 문헌과 역사 문화의 심층적 종합 연구, 만주어 문헌과 관련 학과 종합 연구, 학과 건설 발전과 후진 인력 양성 등의 과제에 심도있는 토론을 전개하였다. 만주어 문헌 등 문화 유산의 보호와 이용은 관련 학과의 심도 있는 연구에 과학적 근거를 제공하며, 만주-통구스 제 민족 언어 문화 기원 발전 연구를 촉진하고, 알타이어족 언어문화 비교 연구와 중국어 문화와 북방 여러 민족들의 언어 문화 관계 연구 및 청사와 만주사 연구, 중국의 소수 민족 연구, 문화 인류학 등의 연구에도 해당된다. 만주어 문헌과 역사 문화의 심층적 종합 연구를 통해, 만주족 문화 정신의 정수를 발굴하고, 그 국가 경영의 경험과 교훈의 연구를 바탕으로 중국 현대 사회 경제 문화 발전의 거울을 제시하며, 정부의 소수 민족 정책 결정과 외교 정책 방향에 참고를 제시할 수 있다.

핵심어: 만주어문헌, 보호개발, 역사문화, 종합연구, 인재양성

프로젝트 항목 : 중국국가사회과학기금 안전 《만주어 어휘 및 어의 연구》 중간 연구 성과, 비준번호 13BY129 & 홍콩意得그룹 지원 항목 《만주족 문화 구호 개발 연구 안전으로서의 멸종 만주어 구호 조사 연구》 중간 연구 성과

1. 서론

만주족은 중국의 소수 민족의 하나로 편입되면서, 독특한 특색을 지는 발전 과정을 거쳐왔고, 중국 민족 발전사에 뚜렷한 공헌을 남기는 것뿐 아니라, 인류 문명 증진에 있어서도 천금과 같은 가치의 경험과 교훈을 제공했다. 만주족과 그 조상들은 역사상 세번의 굴기와 정권 수립을 이루었는데, 즉 속말말갈(粟末靺鞨, 대조영)을 주체로 하여 세운 “진(震)국”(발해국), 여진이 세운 대금(大金)국, 그리고 만주족이 세운 청(淸) 왕조가 그것으로, 오고 가는 방식의 발전을 통해 중국 역사에 빛나는 발자국을 남겼다. 만주족은 자강불식의 태도와 분발하고 진취적인 기상, 뛰어난 학습력, 진보적 태도, 장점을 살리고 단점을 낮추려는 자세와 개방적이고 융합적인 성격의 민족 정신을 갖추어, 마침내 소수가 다수를 이기고, 약자가 강자를 이겨 천하에 군림하여, 통일된 다민족 국가의 광활한 광역을 다지게 되어, 중국 봉건 사회의 다른 왕조가 이루지 못한 빛나는 업적을 창조해 낼 수 있었다. 백 년간의 강희제와 건륭제의 성세기간은 물론이요, 찬란한 문화적 성취와 민족 관계의 처리, 또한 광활한 강역의 기초를 다진 것은, 모두 중요한 공헌을 해낸 것이다. 그 전승과 창조를 통한 물질 문화와 의미가 가득 담긴 정신자원은, 중국 민족의 문화 창고를 풍부하게 했고, 인류 문명의 발전을 이끌었다. 그러므로, 풍성한 만주족의 언어 문화 유산은 중국과 나아가 세계 문화 유산의 진정한 보배라 할 수 있으며, 만주어 문화 보호 조사 연구와 개발 이용은 국제 학술의 관심거리가 되었다.

만주어는 만주족 문화의 담체이며, 깊고 두터운 풍부한 민족 문화의 의미를 계승하는 수단이다. 청나라 시기 만주어는 “국어(國語)”와 “청문(淸文)”으로 전국에 통행했으며, 사회 발전을 추진하고 중국

민족 문화의 창고를 풍부하게 하도록 이끄는 중요 작용을 했다. 청나라 268년 역사 중, 망망대해와 같이 헤아릴 수 없는 만문(滿文) 당안(檔案) 사료를 모았다. 중국 전국에 현존하는 만문 당안 사료는 대략 300만건(책)이며, 그 중 헤이룽장성 당안관이 현재 소장하는 黑龍江將軍衙門滿文檔案은 약 2만권으로, 변경 및 민족과 연관된 자료의 수가 많으며, 내용이 풍부하고, 연관 범위가 넓다. 그밖에, 러시아와 일본, 독일, 영국, 미국, 프랑스 등의 국가 박물관과 도서관 또한 일정 수량의 만문 문헌 사료를 소장하고 있다. 그 내용은 정치, 역사, 경제, 문화, 군사, 외교, 종교, 민속, 천문 지리 등 각 방면과 관련되어 있다. 이처럼 무수히 많은 진귀한 사료들은, 고급 사회의 여러 학문 연구에 대해, 중요한 과학적 가치를 지니고 있다. 현재 만주어는 멸종 위기의 언어 중 하나가 되었으며, 겨우 헤이룽장성의 적은 수의 만주족 부락에 사는 백 명도 안되는 몇몇 만주족 노인들이 만주어로 대화를 할 수 있을 뿐이다. 경제 지구화의 큰 물결이 빠르게 움직이는 속에서, 만주어 문화 유산을 보호하고 역사 문화를 종합 연구하는 것의 중요성은 더 급박해 보인다. 그러므로, 현존하는 만주어 문화의 진귀한 자료를 보호 조사하고, 대량의 만문 당안 사료를 발굴 연구하는 것은 최근 30년동안의 전문 연구 역력들이 담당할 급박하고 막중한 책임이 되었다.

20세기 백 년 동안, 국제적으로 분포된 여러 세대의 전문가들의 끊임없는 노력과 부지런한 작업을 통해, 만주어 문헌 학문 조사 연구는 중대한 발전을 거두었고, 인재의 배출과 대량의 논저 및 공구서의 출판과 같은 풍부한 성과를 맺게 되었다.¹⁾ 더욱이 최근 30여년간 각 방면으로 기울인 관심을 통해 뚜렷한 진전을 거두었는데, 주로 연구 방법의 혁신과 연구 기구의 건립, 연구 인력의 양성, 학술 교류의 국제화, 단독 학과 구성 등 여러 방면으로 말할 수 있다. 대량의 학술 연구 성과는 주로 만주어 기초 이론 연구, 만주어 구어 조사 연구, 만주족 언어와 역사 문화 연구, 만문 문헌의 조사 연구, 만문 번역 연구, 만문 당안 사료와 변경 민족 문제 연구, 만주어 구어 구호 조사 연구와 현대화 기술 처리, 만주어 언어 문화와 관련 민족 언어 문화 비교 연구, 그리고 만주어문과 관련 학과 합동 연구 등 다양한 분야와 연계되어 있고, 이론 연구에 있어 새로운 진전을 거두었고, 학과 융합 종합 연구 영역에도 새로운 공간을 확장하게 되었다.²⁾ 만주족 언어 문화 연구는 앞으로 새로운 목표를 추구하고, 만주어 문헌 보호의 발전과 역사 문화 종합 연구의 심도있는 발전을 이루는 굳건한 토대를 다져 나갈 것이다.

21세기의 인류는 빠른 속도의 과학 기술 발전을 통한 지식 경제 시대로 나아가고 있으며, 경제와 문화의 지구화는 인류 문명의 진행 과정에 새로운 생기와 희망을 가득하게 한다. 인류 발전의 보폭이 더욱 빨라지는 것에 따라, 경제 지구화 역시 나날이 속도를 더해가고 있으며, 영향력이 강한 언어 문화가 주변 국가 및 개발도상국에 침투하는 정도 역시 뚜렷하게 나타나, 그 결과는 각종 각양의 풍부하고 다채로운 우수 전통 문화가 생존하는데 공전의 위기를 마주하게 하고 있으며 허다한 민족의 매우 귀중하고 특색이 뚜렷한 언어 문화 유산이 쇠락 또는 멸종의 위기에 놓이기 시작했거나 이미 당하는 형편이다. 만주족 언어 문화 역시 같은 모양의 엄준한 도전과 새로운 기회를 맞고 있으며, 사회의 발전은 우리들에게 새로운 책임을 부여하고 있다. 앞 세대의 연구를 바탕으로 하여, 새로운 탐색과 깊이 있는 확장을 진행하고, 새로운 과학적 방법과 수단을 통해, 만주족 언어와 문화의 보호 전승, 조사 연구, 발전 이용 등 여러 항목의 일들이 새로운 단계를 맞도록 해야한다. 이와 관련하여, 본문에서는 주로 만주어 문헌의 보호 조사 연구와 정리, 만주어 문헌과 역사 문화에 대한 심층 종합 연구, 만주어 문헌과 관련 학과 종합 연구, 학과 설립 발전과 후진 인력 양성 등 발전 문제에 대한 심도있는 토론을 전개하여, 만주어와 문헌 등의 문화 유산을 보호 유지 발전하는 것을 그리는 것을 통해 관련 학과의 깊이 있는 연구에 과학적 근거를 제공하고, 만주-통구스 계 민족 언어와 문화 기원에 대한 연구와 아울러 알타이 어족 문화 비교 연구와 중국어 문화와 북방 여러 민족 언어 문화 관련 연구, 청사(淸史)와 만주 역사 연구, 중국 소수 민족 역사 연구, 문화 인류학 연구 등을 촉진하는 기회로 삼고자 한다. 만주어와 문헌, 역사 문화의 심층적 종합 연구를 통해, 만주족 문화 정신의 정수를 발굴하고, 국가 경영의 경험과 교훈에 대한 연구를 통해 중국 현대 사회 경제 문화 발전의 거울을 제시하여, 정부 기구의 소수 민족 정책

1) 閻崇年：《21世紀世界滿學著作提要》，民族出版社，2003。

2) 趙阿平：《中國滿一通古斯語言文化研究及發展》，滿語研究2004(2)。

및 외교 정책 결정에 참고로 삼고자 한다.

2. 만주어 문헌 보호 조사 연구와 정리 성과

2.1. 만주어 구어의 보호 조사 연구와 말뭉치 구축

2001년, 유네스코가 채택한 ‘세계 문화 다양성 선언’에는, 생물의 다양성, 문화의 다양성과 언어의 다양성의 상호 관계를 확인하고 있으며, 이러한 연계는 생명의 다양성 구성을 상승하는 의미가 된다. 세계 언어 다양성을 보호하는 것은 줄곧 유네스코의 여러 사업 중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으며, 언어 유산은 유네스코의 문화 유산 관련 안전 중에서 최우선적인 권위를 누리고 있다. 중국 문화부가 주도하여 전개한 ‘중국 소수민족 민간 전통 문화 보호 프로젝트’에서 소수 민족 민간 전통 문화의 제 항목을 규정할 바, 첫째 항목이 바로 ‘전통 구술 문학과 언어 문자’이며, 다른 무형 문화 유산들 예컨대 전통 문학, 희곡, 곡예, 음악 등 역시 언어 문자와 연관된 부분이 많다.

만주어 구어는 만주족 언어 문화를 연구의 진귀한 일차 자료이며, 만학(滿學)과 관련 학과 연구에 있어 살아있는 화석으로, 극히 중요한 학술적 가치를 가지고 있다. 각종 역사 요소와 사회 요소의 영향을 통해, 만주어 구어는 나날이 사라지고 있다. 최근 30년간 만주어 구어에 대해 전문 인력들이 전면적, 체계적 조사를 진행하여, 성과가 크다. 그 중 뚜렷히 보이는 것이 헤이룽장성 만주어 연구소가 1983년 설립된 이래, 장기간 지속해온 헤이룽장성 헤이하(黑河)와 푸위(富裕) 등 7개 시와 현의 14개 만주족 마을에 현존하는 만주어에 대한 계통 추적 조사로, 대량의 진귀한 일차 자료를 확보하고, 조사의 연속성과 자료의 안정성을 유지할 수 있었다. 최근 20년간 소멸 위기의 언어 구호 조사 연구는 국가와 국제 사회의 높은 관심을 받게 되면서, 여러 항목의 중요한 사멸 위기의 언어를 보호 조사 연구하는 과제가 입안되어, 전문 기금의 협력을 얻게 되었고, 동시에 고등 과학 기술의 빠른 발전을 통해 또한 학술 연구에 선진적인 현대화 설비를 제공하게 되면서, 만주어 구호 조사와 연구는 새로운 단계를 맞이하게 되었다.³⁾ 앞으로는 이미 확보한 조사 연구의 바탕 위에, 효과적인 보호와 전면적인 심화 연구를 계속적으로 진행하여, 기존의 연구에 미흡한 부분을 보완하여, 완벽을 기해 나가야 할 것이다. 동시에 언어진 모든 조사 자료에 대해 과학적, 규범적, 그리고 질서화된 정리 연구를 진행하여, 예컨대 사전 편집, 전문 서적 출판, DB구축, 다매체 기술을 활용한 음성 자료 보존 등 멸종 위기에 처한 만주어를 과학적 가치가 있는 문헌으로 보존해야 할 것이다.

말뭉치(코퍼스) 구축은 현대 언어학 연구의 중요한 영역이며 컴퓨터를 이용한 자료 정보 기술을 통해 언어 응용과 연구를 심화하는 새로운 방향이다. 사멸 위기에 있는 만주어 보존과 무수히 많은 만문 당안 번역 업무에 대해 중요한 과학적 가치와 응용 발전의 의미를 갖고 있다. 만주어 말뭉치의 구축은, 만주어 언어 자료의 진귀한 문화 유산을 영구히 보존하고, 만주어 본체 심화 연구의 기초를 다지는 것이다. 만주어 말뭉치 구축을 통해 만주어 어휘 구조와 문법 분석을 진행하고, 대형 만주어 사전 편찬, 공구서 분류와 타 언어 대조 사전 등의 작업에 기초적 조건을 제공하는 것이다. 또한 만주어 말뭉치를 바탕으로 만주어-중국어 병렬 말뭉치를 건설하여, 만문 당안의 초보적 번역 문제를 해결할 수 있으며, 이는 목전의 인력 부족으로 인한 중국에 현존하는 대량 만문 당안의 번역 적체 문제를 빠르게 개선하게 하고, 만문 문헌 연구와 개발 이용 업무의 효율을 제고하게 될 것이다.

사멸 위기에 놓인 만주어의 보호 전승 업무는 계획적인 전개가 필요하며, 해당 민족 인원과 현지 언어 교육, 홍보, 관리에 종사자, 언어 연구 전문가와 기구, 사회 각계와 정부, 국제 사회의 공동 참여가 필요하다. 정부는 정책과 제정, 관리, 전문 안전, 인재 등 방면의 지지가 매우 중요하며, 사멸 위기 언어 보호와 관련된 조례 및 법규를 제정해야 하며, 보호 업무가 보다 깊은 여론과 법규에 의지하도록 사멸 위기 보호와 관련한 전문 기구를 성립하고, 연구 기금 설립하여 사멸 위기 보호 업무가 효과적인 진행을

3) 趙阿平、郭孟秀、何學娟：《瀕危語言——滿語、赫哲語共時研究》，社科文獻出版社，2013。

유지할 수 있도록 보증해야 한다. 사멸 위기 언어에 해한 보호를 실시할 때는, 또한 소수 민족 생존 발전의 필요를 충분히 고려해야 하며, 그들 스스로의 선택을 존중해야 한다. 사멸 위기 언어의 생존 보호와 지역 발전을 위해, 소수 민족 거주지 보호와 같은 사멸 위기 언어 보호 시범 구역 등을 운영하고, 이중 언어 교육 확대와 같은 적합한 교육 수단을 운용하여, 사멸 위기 언어를 보존가호 기록할 수 있는 해당 민족 인력을 육성하는 등 모국어에 대한 현지인의 감정을 증가하여 만주어의 쇠망을 지연 완화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2.2. 만주어 문헌의 정리 성과와 연구 응용

만문 당안 번역과 연구 방면에 있어서, 최근 30년 동안 많은 성과를 거두었다. 한 더미의 진귀한 만문 당안이 영인되었는데, 《無圈點老檔》, 《舊滿洲檔》, 《老滿文原檔》 등과 같은 것들이다. 여러 중요한 만문 당안이 중국어로 번역되어 출판되기도 하였는데, 《滿文老檔》, 《清初內國史院滿文檔案》, 《康熙朝滿文朱批奏折全譯》, 《雍正朝滿文朱批奏折全譯》 등과 같은 것들이다. 만주어 문헌 연구 전문서로는 《滿漢異域錄校注》, 《滿文清實錄研究》, 《滿文清本紀研究》 등이 있다. 이들은 청사와 만주족 역사 연구에 귀중한 자료가 되었다. 각급 당안관의 전문 학자들의 만문 당안의 소개와 개황 편찬 작업에 적극 참여하고, 변경 당안 목록의 편집 출판과 청사 연구 과정에서 소장 자료를 직접 운용하는 등 청사와 만주족 역사 연구 전문가들은 직간접적으로 만문 당안을 이용한 학술 교육 사업에 종사하고 있다. 청사 연구에 있어 매년 중대한 전진은 만문 당안과 떨어질 수 없는 것이다.

하지만, 만문 당안의 정리 번역은 난해하면서도 세심한 작업의 하나여서, 만문과 중국어에 정통할 뿐 아니라 만주 한족 나아가 다양한 문화의 지식을 아우를 수 있는 전문 인력이 필요하다. 특히 두 언어의 민족 심리의식과 문화 형성 과정, 역사 풍속 전통과 종교 문화, 지역적 특성 등 일련의 상호 요인에 대해 균형 있는 일정한 이해가 필요하다. 이는 언어가 문화를 반영하며, 풍부한 문화 의미를 지탱하면서 문화적 제약을 받기 때문이다. 전체 중국에서 만문 당안의 정리와 번역, 교육 연구에 종사할 수 있는 숙련된 인력은 30에서 50명 남짓한 정도이고, 무수히 많은 만문 당안의 수에 비할 바가 못되며, 오히려 모자란 형편이다. 그래서, 이 거대한 프로젝트의 임무는 막중하나 갈길은 멀고, 그 파급효과는 매우 크기에, 재생과 보호, 번역 정리, 편집 출판, 테마 연구, 개발 이용 등 여러 방면에서 모두 대량의 활동이 시급히 전개되어야 하는 것이다. 이에 대한 지도를 강화할 필요가 있으며, 협력과 현재의 전문 인력 활용을 충분 발휘하여 밀접하게 합작해 나간다면 효과를 보게 될 것이다.

목전의 중국 문화부 등 관계 기관과 성급 기관이 고전 문헌의 보호 연구 사업에 높은 관심을 기울여 온 덕분에, 이미 상응한 사업과 협조 기제가 이루어졌고, 사업의 목표와 임무가 명확해져, 보호 실시 업무실 착실하게 시행하여, 고적 문헌 보호 책임 제도와 책임 규명제도를 완전히 구비하게 되었다 또한 전문 인력을 고적 문헌 복원, 보호, 연구 등 다방면에 충분히 활용하여 고적 문헌 보호 사업에 효과 있는 전개를 추진하게 되었다. 헤이룽장성의 실제 사례와 같은 경우, 만문 역사 당안 재생 보호와 개발 이용을 역사 문화 자원 보호 추진 발굴과 활용의 주요 중점으로 삼아, 헤이룽장성 역사문화자원 개발 이용 영도소조와 전문 인력 지휘조를 구성하고, 기획총괄(統籌規劃), 쉬운 일을 먼저하고 복잡한 일은 천천히(先易後難), 과학적 정밀성(科學嚴謹), 실용성과 효율성 중시(務實高效)를 원칙으로, 만문 역사 당안 재생 보호와 개발 이용의 빠른 해결을 목표로, 기획 총괄과 책임 분담을 세분화하고, 재생 보호와 개발 이용의 동시 추진 방법을 찾고, 중점 사항을 부각하여, 만문 당안의 재생 가능한 구조와 보호, 번역 정리, 사료 편집 출판, 전문 연구 등 네 개 항의 사업을 추진하여, 지역 사학 연구를 강화하는 동시에 변경 문화 대성(大省) 건설의 견실한 역사 문화 기초를 다져 나가게 되었다.

고적문헌의 개발과 보호는 서로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어, 나눌 수 없는 것이다. 고적 문헌의 재생 가능한 보호는 어느 면에서는 또한 고적 문헌의 개발이며, 다만 이러한 개발은 고적 문헌의 편리한 이용이 더 중요하여, 일종의 기초적인 개발인 것이다. 보다 심층적인 개발은 주로 고적 문헌의 사회적 효용과 경제적 가치가 분명한 관건이다. 앞으로 만문 문헌 당안은 기초적 개발이나 심층적 개발을 막론하고, 모두가 더 큰 노력의 투입을 필요로 하며, 만문 문헌 당안의 실용적 가치와 경제적 잠재력이

충분히 발휘되어야 한다. 만문 문헌 당안의 재산 보호와 연구 이용은 두 측면의 사업으로, 사업의 직권과 성능에 따라 전자는 당안의 주장 관리 단위가 담당하고, 후자는 마땅히 대학과 연구 기구가 담당해야 한다. 두 측면의 사업은 상호 협력이 가능하여 동시 진행을 통한 분업 협력을 통해 각자의 능력을 다해 종사해 나아가야 한다.

3. 만주어 문헌과 역사 문화 종합 연구

20세기 백 년 동안, 중국, 일본, 미국, 러시아, 독일, 영국, 한국 등 20여 개 국가의 전문가, 학자들이 만주족의 역사, 언어, 문화 부문에 진행한 폭넓은 연구들 통해, 대량의 연구 성과를 거두게 되었다. 중국과 국제 사회 전문가들의 장기간에 걸친 공동 노력들 통해, 1990년대에 이르러, 만주학은 하나의 독립적인 학과를 형성하게 되었고, 높은 수준으로 진일보하게 되었다. 만주족 언어와 역사 문화 연구는 1990년대에 새로운 방향을 개창하게 되었는데, 이론과 응용뿐이 아닌 학제를 초월한 융합 연구의 성격까지를 포함하게 되었다. 언어학과 역사학, 민족학, 문화인류학, 고고학 등 관련 학과와의 협력을 통해, 깊은 계통의 만주족 언어 문화 관계와 그 특징에 대한 연구는 다양한 범위의 종합 연구로 진행하게 되어, 만주족 언어, 역사, 문화의 각각 분리된 연구 특성을 돌파하여, 관련 학과 연구에 과학적 근거를 제공하고 여러 이론적 문제와 응용 문제를 해결하면서 만주학 연구의 새로운 길을 개척해 나가게 되었다. 연구 발전 중에 나타난 새로운 역량은, 국제 만주학 연구를 새로운 단계로 나아가게 했다.

언어와 문화는 특수한 관계를 가지고 있다. 모든 민족의 언어는 민족 문화의 특징을 반영해서 나타내는데, 이는 단순히 언어와 어휘의 표현이 아니라, 상술한 여러 요소가 제약 작용으로 기능하는 언어의 내재화된 체계임이 더욱 중요하다. 즉 해당 언어를 사용하는 언중의 대뇌 중에 축적되어 구성된 연상 관계에 의거한 내면화된 데이터베이스인 것이다. 소쉬르와 제이콥스는 각 민족 언어의 음가와 어휘, 어법을 단순 분석하는 것은, 각 언어의 특징을 반영하는데 부족하다고 여기고, 반드시 이러한 요소가 구체적으로 민족 가운데 들어갈 때 비로소 해당 민족 언어의 주요 특징이 반영된 것이라고 보면서, 그는 ‘內語言’의 존재를 증명하고, 우리들이 ‘內語言’과 민족 문화의 관련성을 주목하도록 했다. 특정한 문화와 언어 사이에는, 깊은 역사와 현실의 내적 관련성이 드러난다. 언어는 문화 기록의 화석이며, 모든 문화 성과와 정보를 생동감있게 반영한다. 만주족의 자연 생태 환경과 물질 생활 방식, 사회 관계, 종교 신앙, 가치 관념, 사유관습, 문화 교류 등 언어에 침투하지 않은 것이 없어, 만주족 언어는 특히 어의 체계에 만주족 역사 문화에 풍부히 담긴 그 특징을 충분하게 반영하고 있다. 만주족 언어와 역사 문화는 상호 의존과 영향 및 동시 발전의 밀접한 연계에 놓여 있다. 그러므로, 양자 결합에서 철저하고 체계적인 심층 연구 진행을 시작하여, 전면화된 깊이 있는 만주족 언어와 역사 문화의 풍부한 의미와 민족 특징을 밝히는데로 나아가는 것은, 관련 학과의 연구에 과학적 근거를 제공하고, 객관적 증거를 제시하며, 인류 문명 발전의 과정에 가치 있는 경험과 교훈을 제공하게 될 것이다.⁴⁾

만주족 언어와 역사 문화 연구는 주로 만주족 언어와 자연 생태 환경, 만주족 언어와 물질 경제 문화, 만주족 언어와 사회 제도 문화, 만주족 언어와 종교 신앙 문화, 만주족과 관련 민족 언어 문화 관계 등의 방면에서 만주족 언어와 문화의 관련성 및 그 특징에 대한 계통적인 심층 연구로 하고 있으며, 만주어휘의 깊은 문화적 의미를 밝히고, 만주족 문화 모식의 기초를 전면적으로 규명하여 기초를 다져 과학적 근거를 제공하는 것으로 삼고 있다.

만주족 언어와 역사 문화의 종합 연구는 광활한 응용 개발을 배경으로, 만주-퉁구스 제 언어 문화의 기원과 발전 연구, 알타이어문화 비교 연구, 중국어 문화와 북방 제 민족 언어 문화 관계 연구, 청사와 만주사 연구, 중국 소수민족사 연구, 문화 인류학 연구 등 일정한 학술적, 활용 가치를 갖고 있어, 지금의 소수민족 문화 경제의 발전 촉진하는데 특수한 효용성을 갖추고 있다고 하겠다.

4) 趙阿平：《滿族語言與歷史文化》，民族出版社，2006。

4. 만주어 문헌과 관련 학과 종합 연구

소수민족의 언어는 귀중한 비물질 문화 유산이다. 모든 민족의 언어는 소속 민족 문화의 연원과 변천, 사상 가치 체계의 전달 체계이다. 만주어 문헌은 언어학, 문학, 사회학, 역사학, 민족학, 인류학 등의 학과연구의 출발점이며, 연구의 여러 난제를 해결하는 실마리이며, 심화 연구에 대해 과학적 근거를 제공하는 기능을 한다.

중국 문화 언어학의 실용적 가치는 두 가지 중요한 특징이 있다. 하나는 언어의 연구는 ‘현학적 태도.(曲高和寡, 곡조가 너무 높아 따라할 수 없다.)’를 반복해서는 안된다는 것이다. 다른 학과와의 교류를 시작하면서, 타 학과의 연구에 봉사하는 태도를 지녀야 한다. 어느 면에서는 인문학의 다른 학과가 언어학의 요소를 받아들이고, 또 다른 면에서는 언어학이 다른 인문학과, 예컨대 철학, 인류학, 민족학, 문화학, 사회학 등의 요소를 받아들이는 것이다. 다음으로, 현 단계의 연구가 주도적으로 응용 영역을 이끌거나 추진하여, 언어학은 ‘속세와 분리된 학문이다’라는 오해에서 벗어나도록 한다. ‘문화도입’, ‘문화제시’, ‘문화융합’, ‘문화와 언어의 유기적 결합’ 등은 이미 고등 학문에서 알려진 키워드 중 하나이다. 그 성과 역시 충분히 만족할 만 하다. 일부 예를 들면 다음과 같다.

羅常培 《語言與文化》 5), 邢福義 《文化語言學》 6), 戴昭銘 《文化語言學導論》 7), 鄧曉華 《人類文化語言學》 8) 丁石慶 《達斡爾語言與社會文化》 9), 馬清華 《文化語義學》 10) 등

최근 20년간 만주어 연구 영역에서, 문화 언어학 역시 성과를 거두기 시작했다. 예컨대, 趙阿平 《試論滿語語義與文化》 11), 《論滿語特有詞語的翻譯》 12), 《滿族語言與歷史文化》 등이다. 만주어 교육과 번역의 언어와 다문화 연구는, 교육에 더욱 높은 효과를 거두게 했다. 언어와 다문화연구는 언어와 문화 연구의 시공을 초월한 전방위 연구와 다양한 시각의 대비연구를 가능하게 하는 중요한 과제이며, 교육과 그 연구의 지식 문화와 교류에도 영향을 주기에, 새로운 관심을 받고 있다. 그리하여, 언어학과 실제 사회 생활의 거리가 나날이 좁혀지며, 학술 연구의 사회 가치 또한 갈수록 높아지고 있다.

학제간의 교차 연구는 다양한 학과가 언어학을, 언어학이 다른 학과의 요소를 흡수하는 주도적 방법이다. 즉 언어학에 근거하여, 다른 학과와의 교류를 지향하면, 다른 학과의 연구 성과와 분석 방법을 흡수할 수 있다. 학제 교류는 표현 방법의 차용과 습득이서 시도된다. 이러한 방법의 특징은 다양한 교류의 상호 흡수와 융합이 가능하며, 언어학의 공시적, 통시적 연구와, 사회학의 사회조사법, 계층조사법, 또 다른 학과의 통계법, 역사 연구법 등등을 융합하는 것을 실례로 들 수 있다. 이러한 연구 방법의 영역은 매우 넓다. 언어학 종사자는 이미 보다 확대된 교류 영역을 주목해 왔다. 예컨대 문화인류학의 문화구역, 문화계층, 경제 문화의 유형 이론, 생물학의 진화론, 심지어 지질학의 판 구조론 같은 것들이며, 모두 우리 언어 문화 분석에 큰 계시를 주고 있는 것이다.

방대한 지식과 학과를 넘나드는 응용 가치와 사회 가치가 높은 연구 과제들은, 만주어 문헌과 문학, 사회학, 역사학, 민족학, 인류학의 상호 결합을 통해 기초이론 연구를 중시하는 동시에, 응용 영역의 연구를 확대하도록 한다. 특별히 현실 사회 정치 경제 발전의 수요에 맞추어, 여러 구체적 문제에 초점을

5) 羅常培：《語言與文化》，語文出版社，1989年。
 6) 邢福義：《文化語言學》，湖北教育出版社，1990年。
 7) 戴昭銘：《文化語言學導論》，語文出版社，1996年。
 8) 鄧曉華：《人類文化語言學》，廈門大學出版社，1993年。
 9) 丁石慶：《達斡爾語言與社會文化》，中央民族大學出版社，1998年。
 10) 馬清華：《文化語義學》(修訂版)，江西人民出版社2006
 11) 趙阿平：《試論滿語語義與文化》，《民族語文》，1993(5)。
 12) 趙阿平：《論滿語特有詞語的翻譯》，《語言與翻譯》，1994(2)。

두어 관련된 문제를 해결하는 데에 뚜렷한 성과를 거두었다. 국제적 합작 안건 및 국가급, 성급 과제 연구에 적극 참여해 왔다. 대형 안건에 대해서는, 성 내외의 중국 내외의 유관 학자를 포괄한 기구를 조직하고, 공동 노력을 통해, 높은 품질과 수준을 가진 연구 성과를 제시해 왔다.

5. 학과 건설 성과와 후진 인력 양성

만주어 학과 설립을 강화하는 것은, 연구의 지속과 심화를 담보하는 중요한 전제이며, 반드시 필요한 보장이다. 최근, 헤이룽장 대학의 중국 소신족 언어 대학(만주어) 학과는 중국 유일의 전문 계통 학과로, 2000년부터 석사 학위를 배출할 수 있게 되었고, 2005년 부터 만주 언어와 역사 문화 학부생을 모집하기 시작했으며, 2007년에 박사생 모집을 시작하고, 2010년에 박사학위생을 배출하여, 만주 언어 문화 연구의 후비 인력 양성의 기지가 되었다. 2001년 일본 홋카이도 대학 박사 과정생이 유학하였고, 2005년에는 미국 코넬 대학 출신의 박사 과정생이 유학하였다. 2001년에서 2005년 동안 박사, 석사 과정 대학원생 50여 명, 학부생 200여 명을 양성하였다. 해당 학과는 교수와 교수 수준을 끊임없이 제고하는 동시에, 헤이룽장성 대학의 우수한 교육 자원을 바탕으로, 교육 역량을 결집하여, 선진적 교육 이념을 바탕으로, 본 학과의 특징을 바탕으로 한 만주족 언어 문화 교육 계획을 수립하여, 교육 모식을 연구하고, 중국 내외의 전문 학자들의 초빙 학술 강좌를 통해, 학생들을 업무에 정통하고, 개척과 창의성을 지닌, 전면 발전의 고도화된 복합형 전문 인재로 양성하려는 여러 사업을 전개하고 있다. 만주어 기초 교재와 참고서 서술 결과는 다음과 같다.

- (1) 劉景憲、趙阿平等著《滿語研究通論》¹³⁾
- (2) 季永海、劉景憲、屈六生著《滿語語法》¹⁴⁾
- (3) 趙阿平：《論滿語詞的構成》¹⁵⁾，《論滿語詞匯的特點》¹⁶⁾，《滿語同義詞的辨析與運用》¹⁷⁾，《滿語多義詞與同音詞的辨別與運用》¹⁸⁾，《滿語語義文化內涵探析》¹⁹⁾，《滿漢諺語語義辨析》²⁰⁾
- (4) 劉景憲、趙阿平等：《關於滿語名詞複數的研究》²¹⁾
- (5) 趙阿平：《論滿語特有詞語的翻譯》²²⁾，《顏色詞“白色”的民族文化內涵義》²³⁾，《滿-通古斯語言與薩滿文化論略》²⁴⁾

본 학과는 만주어 문화 연구와 후진 인력 양성의 두 중요한 책임을 담당하고 있다. 헤이룽장성 교육청과 헤이룽장 대학의 전폭적인 지지를 바탕으로, 학과의 장점을 부각하여, 여러 성과와 빠른 발전을 거두어 왔다.

만주족 언어 문화 연구 사업의 발전에서, 중요한 것은 학술 연구와 인재 양성이다. 만주어와 역사 문화의 고차원적 연구 인재 배양은, 의심할 바 없이 사멸 위기의 만주어를 구호하고, 만문 문헌의 개발 이용과 사회 문화 경제 건설 촉진 및 학술 연구 심화에 필요한 인력 제공을 보장한다. 따라서, 인재

13) 劉景憲、趙阿平等著《滿語研究通論》，黑龍江朝鮮民族出版社，1997。

14) 季永海、劉景憲、屈六生著《滿語語法》，民族出版社，1986。

15) 趙阿平：《論滿語詞的構成》，《滿語研究》，1989（2）。

16) 趙阿平：《論滿語詞匯的特點》，《滿語研究》，1990（1）。

17) 肖可：《滿語同義詞的辨析與運用》，《滿語研究》，1991（1）。

18) 趙阿平：《滿語多義詞與同音詞的辨別與運用》，《滿語研究》，1991（2）。

19) 趙阿平：《滿語語義文化內涵探析》（一）、（二）、（三）、（四），《滿語研究》1992（2）、1993（1）、1994（1）、1994（2）。

20) 趙阿平：《滿漢諺語語義辨析》，《滿語研究》，1992（1）。

21) 劉景憲、趙阿平等：《關於滿語名詞複數的研究》，《民族語文》，1993（4）。

22) 趙阿平：《論滿語特有詞語的翻譯》，《語言與翻譯》，1994（2）。

23) 趙阿平：《顏色詞“白色”的民族文化內涵義》，《滿語研究》，1995（1）。

24) 趙阿平：《滿-通古斯語言與薩滿文化論略》，《民族語文》，1996（3）。

배양과 학술연구에 함께 힘을 모아, 짧은 시간 안에 힘을 내서, 각 방면으로부터 후진 인력을 양성하는 것을 강화해야 한다. 정확한 학술 연구 방향을 견지하고, 尊師와 重道의 덕목을 기르며, 근면하고 성실한 학풍을 수립하여 기초가 튼튼하고 깊이가 있으며 시야가 트인 인재를 기르는 목표에 도달해야 한다. 다양한 경로를 통해 만주 언어 문화 연구의 학과 지도자와 학술 연구의 근간을 배양해야 한다.

- (1) 현재의 학과 단위 성원의 연구 수준을 제고하고, 단기간 혹은 장기간, 교내 혹은 교외 양성을 진행하여, 학력의 층차와 연구 교육 수준의 제고를 실행한다.
- (2) 학력 수준과 층차가 높은 청년 인재를 적극 유치하여, 학력과 네트워크, 취업, 연령 구조의 합리화, 균형을 통한 완전한 학과 단위를 건설한다. 동시에, 높은 수준의 정밀한 학과 과정과 여러 테마에 대해, 중국 내외의 저명 전문 학술 인사의 초빙 강연과 강좌를 진행하고, 인재의 순환과 공동 활용을 추진한다.
- (3) 본 전공과 헤이룽장성 대학의 학부생, 석박사 대학원생을 전공과정과 교양과정 등 다양한 형식의 고차원적 복합형 인재로 양성하여, 학술과 실무를 갖추게 하고, 인재 배양의 적기를 재촉한다.
- (4) 학과 건설, 조사 연구, 저서 서술 등의 실천을 통해 인재 양성과 수준 향상을 제고한다.
- (5) 후진 인력 양성은 전 지구적 시야를 겸비하게 하고, 다문화 수용에 중점을 둔다. 국제 지식과 의식을 갖추고, 국외의 문화 배경, 사유 방식을 이해하여, 국제 교류 능력을 갖추고, 정보 소통과 전파 능력 및 합작 능력을 갖추게 하여, 국제 경쟁 능력을 확보하고 평생 학습 의식과 창업 의식을 갖추게 한다.
- (6) 중국과 해외의 인재 배양 제도를 완비하고, 유연하고 다양한 제도를 운영한다. 예를 들어 ‘중국-외국 공동 박사 학위제’와 같은 특수한 방법을 통해, 중국 내외의 자원 이용하여 국제화된 교육 연구 인재를 양성한다.
- (7) 국제 교류와 합작을 강화한다. 국제 교류와 합작은 다양한 형식으로 운용할 수 있다. 예컨대 학술 교류는 학회 참가, 교류, 국가 공동 연구 참가 등이 있으며, 학술 과제를 중심으로 한 국제 학회 개최 및 대학 협력 교류 등이 있다.
- (8) 적극적으로 수용하고, 적극적으로 진출한다. 교류 활동으로 중국 인재의 국제화 성장을 촉진한다. 인재의 국제화는, 중국 밖의 우수 인재를 유치하는 것 뿐 아니라, 다른 방면으로 중국 인재를 국제 환경으로 투입하는 것을 포괄한다. 이 문제는 전반적인 고려가 필요하고, 종합적인 협조로 세 가지 부분을 잘 처리해야 한다. 하나는 영입 인재와 기존 인력간의 관계 문제이다. 바다 같이 넓은 포용력으로, 천하의 인재를 활용하겠다는 자세를 갖고, 기존의 우수 인재 역시 같은 시야를 가지고 대하여, 영입 인재와 양성 인력간의 결합을 견지해야 한다. 두 번째는 인재 유치와 정착간의 관계이다. 인재 유치에 치중하고, 관리에 소홀한 현상에 변화가 필요하다. 데려 온 인재들이 새로운 환경에 조기 적응할 수 있도록 도와서, 생활과 업무 등의 환경에 지속적인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 동시에 인재 유치가 단지 흘러들어 오는 것일 뿐 나가서는 안된다는 고정관념에서도 탈피해야 하며, 인재가 유동적으로 오가는 것을 인정해야, 인재 그룹들이 계속해서 활력을 유지하게 될 것이다. 세번째로 처리해 나가야 할 것은 리더급 인재와 혁신그룹의 관계이다. 학과 교차가 나날이 빈번해 지는 오늘날, 리더급 인재들에게 다방면의 관심과 지원을 기울이는 것과 함께, 리더급 인재가 연구 단체의 혁신 그룹에 대한 투자를 강화하는 것에 초점을 두고 평가하는 것이, 진정으로 리더급 인재가 단체를 통솔하는데 상응하는 자원을 부여하는 것으로, 이는 리더급 인재가 끊임없이 사업을 전개하는 것을 보장하는 것이며, 연구 단체가 국제적 인재를 유치하고 양성하도록 하는 작용이 되는 것이다.

21세기 지식경제화와 경제적 지구화의 새로운 형세 속에서, 만주어 문헌 연구와 인재 양성은 과학화, 규범화, 국제화를 향한 새로운 발전으로 나아가고 있다. 더욱 심도있는 연구와 학과를 초월한 종합 연구, 보다 높은 수준의 정밀한 연구로의 발전을 통해, 학과의 성격을 강화하고, 수준을 높여 나가며,

품성과 기초를 갖추고 넓은 시야를 가지며 깊이 있는 연구를 해 나가는 인재를 양성해야 한다. 숨겨진 역사 문화 유산을 발굴하고, 민족 문화의 정수를 널리 알리고, 이론 연구를 심화하며, 응용 연구를 전개하는 것을 통해, 역사적 책임을 완성해 나가며, 새로운 미래를 개척해 나갈 책임이 달려있다.

<참고문헌>

- [1] 閻崇年：《21世紀世界滿學著作提要》，民族出版社，2003。
- [2] 趙阿平：《中國滿—通古斯語言文化研究及發展》，滿語研究2004(2)。
- [3] 趙阿平、郭孟秀、何學娟：《瀕危語言——滿語、赫哲語共時研究》，社科文獻出版社，2013。
- [4] 趙阿平：《滿族語言與歷史文化》，民族出版社，2006。
- [5] 羅常培：《語言與文化》，語文出版社，1989年。
- [6] 邢福義：《文化語言學》，湖北教育出版社，1990年。
- [7] 戴昭銘：《文化語言學導論》，語文出版社，1996年。
- [8] 鄧曉華：《人類文化語言學》，廈門大學出版社，1993年。
- [9] 丁石慶：《達斡爾語言與社會文化》，中央民族大學出版社，1998年。
- [10] 馬清華：《文化語義學》(修訂版),江西人民出版社2006
- [11] 趙阿平：《試論滿語語義與文化》，《民族語文》，1993（5）。
- [12] 趙阿平：《論滿語特有詞語的翻譯》，《語言與翻譯》，1994（2）。
- [13] 劉景憲、趙阿平等著《滿語研究通論》，黑龍江朝鮮民族出版社，1997。
- [14] 季永海、劉景憲、屈六生著《滿語語法》，民族出版社，1986。
- [15] 趙阿平：《論滿語詞的構成》，《滿語研究》，1989（2）。
- [16] 趙阿平：《論滿語詞匯的特點》，《滿語研究》，1990（1）。
- [17] 肖可：《滿語同義詞的辨析與運用》，《滿語研究》，1991（1）。
- [18] 趙阿平：《滿語多義詞與同音詞的辨別與運用》，《滿語研究》，1991（2）。
- [19] 趙阿平：《滿語語義文化內涵探析》（一）、（二）、（三）、（四），《滿語研究》1992（2）、1993（1）、1994（1）、1994（2）。
- [20] 趙阿平：《滿漢諺語語義辨析》，《滿語研究》，1992（1）。
- [21] 劉景憲、趙阿平等：《關於滿語名詞複數的研究》，《民族語文》，1993（4）。
- [22] 趙阿平：《論滿語特有詞語的翻譯》，《語言與翻譯》，1994（2）
- [23] 趙阿平：《顏色詞“白色”的民族文化內涵義》，《滿語研究》，1995（1）。
- [24] 趙阿平：《滿-通古斯語言與薩滿文化論略》，《民族語文》，1996（3）。

자오아평 : 중국 헤이룽장대학 민주어문화연구센터 주임(소장), 교수, 박사과정 지도교수
 주요 연구 분야 : 민주어, 민주어와 역사문화, 만주-통구스 언어문화, 문화언어학, 민족학, 인류학 연구

趙阿平 : 黑龍江大學滿族語言文化研究中心主任、教授、博士生導師
 主要從事滿語、滿族語言與歷史文化、滿-通古斯語言文化、文化語言學、民族學人類學研究。
 地 址 : 哈爾濱市南崗區學府路74號227信箱 郵編 150080
 中國黑龍江大學滿族語言文化研究中心
 電 話 : 0451—86609002 (辦) 13903603962
 E-mail: zhaoping19@126.com

2 부

사회: 이선애(고려대)

13:20-13:50 발표5: 기시다 후미다카(일본 오사카대학):
일본의 만주어 학습을 위한 공구서
현황

13:50-14:20 발표6: 최형원(고려대): 18세기 만주어 河魚
類 魚名 考察

14:30-15:00 발표7: 신상현(고려대): 『니산사만전』의 제
판본과 그 내용 비교

15:00-15:30 발표8: 오트콩톨(몽골국립대): 몽골국립도서
관의 만주어 자료

15:30-16:00 발표9: 김양진(경희대): 만주어 학습을 위한
『御製清文鑑』 어휘의 형태론적 연
구-권1을 중심으로

「日本の満洲語学習のための工具書について」

岸田文隆（日本 大阪大学）

0. はじめに

近代以降、日本の学界が歴史学の分野を中心として満洲語および満洲語の文献に多大の関心を示すようになり、幾多の研究成果をもたらしたことは周知の事実であるが、満洲語を学ぶための工具書、すなわち、教科書や辞書の編纂・刊行は意外に遅く、明治年間にはとくに見るべきものがなく、大正から昭和の初期にかけて活躍した渡部薫太郎の業績を嚆矢とするようである。爾来、日本の満洲学は研究者のたゆまぬ努力によって発展を遂げ、昨年6月には遂に河内良弘氏により前人未到の規模を誇る『満洲語辞典』の完成を見るに至った。本発表においては、この偉業に敬意を表しつつ、渡部薫太郎以降、河内良弘氏に至るまでの、日本の満洲語学習のための工具書を振り返ることとする。

日本における満洲語関係の研究成果は、以下の諸目録にほぼ網羅されているが、ここには、その中からとくに顕著な業績を取り上げることとしたい。

・河内良弘(1972) 『日本における東北アジア研究論文目録 1895-1968』 (『天理大学おやきと研究所研究報告』1; 2合冊).

・MATSUURA, Shigeru(1980) "A Bibliography of Works on the Manchu and Sibe Languages", *Memoirs of the Reserch Department of the Toyo Bunko*, 38.

・STARY, G.(1990) *Manchu Studies: An International Bibliography*, Vol. 1-3, Harrassowitz: WIESBADEN

・STARY, G.(2003) *Manchu Studies: An International Bibliography*, Vol. 4, Harrassowitz: WIESBADEN

1. 教科書

教科書としては、以下のものがある。

[1] 渡部薫太郎(1918) 『満語文典』 満語学叢書発行会

まず、著者渡部薫太郎は、特異な経歴を持つので、簡単に触れておきたい。渡部の経歴については、石濱純太郎(1936)・上原久(1965; 1966)に記述があるが、ここには石濱純太郎(1936)の記述を引用することとしよう。

「渡部薫太郎先生は本当はワタナベ・シゲタラウと読むのであるが、クンタラウと人の言ひ習はすまゝに著書の羅馬字題簽に為つてゐるのもある。よく世に有る例なので、先生も関はられなかつたの

満洲語文學 資料の 현황 및 그 연구와 활용

かも知れない。大和国郡山の人で、文久元年¹⁾九月二十日の誕生である。明治十三年²⁾に大阪へ出で、英語を学習し、十六年³⁾には川口なる三一神学校に入り神学等を修められた。信仰上から宣教師になるつもりであつたらしいが、何か事情あつて俗務に従事せられる事となり、二十二年⁴⁾東京郵便局に勤務せられた。然し日露戦役に際し起つて陸軍通訳となり、戦後功を以て勲八等に叙し瑞宝章を授けられた。この戦役が縁を為してか、先生は四十一年⁵⁾に間島に入り写真業を開かれた。こゝで先生は満洲人成蔚氏と相知り満洲語に沈潜せらるゝに至つた。間島龍井村十数年在住の間には、居留民会の書記長、鮮人指導の爲めの朝鮮総督府囑託として多年日鮮両国人の爲めに尽力し、傍ら北鮮日報社、大阪朝日新聞社、京城日報社等の通信囑託を受けてゐられた。又此間に来往した学界名士に漸く満洲語を修めてゐる先生の名も知らるゝに至つた。大正十一年⁶⁾には私立永新中学の日本語教授を囑託され、こゝに教育界に漸く向はれた。十三年⁷⁾に中目覚氏に聘せられて大阪外国語学校に赴任して満洲語学を講ぜられる事となり、又天理外国語学校の開かるゝに及んで兼てそこでも朝鮮語学を講じこれにより育英の傍ら學術研究に熱心された。既に老年の先生であつたが、心身共に盛んで一向學問に従事してゐられたが、昨年頃から時々身体の違調を訴へられ、自身にも或は起つ能はざるに至らんを覚悟されたか、熱烈なる信仰は初めより絶えて変わらなかつたが、協会堂へは嘗て出掛けられなかつたのを、遂に宣教師を招いて特に聖餐を受けたり後事を依頼されたりなどして、今昭和十一年⁸⁾七月二十二日には寓居にて七十六年の清き生涯を終へられたのであつた。」石濱純太郎(1936)p.92

すなわち、渡部が満洲語学に従事することになった契機は、1908年48才のとき間島、すなわち現在の中国吉林省延辺に入り満洲人成蔚に出会ったことであつた。このことは、本書『満語文典』の冒頭の「満語学叢書発刊之辞」にも述べている。

「日露戦役の血痕未だ乾かず腥風北鮮の山野に吹く時 射利の目的を以て女真の故地即清の發祥地と称する間島に來り 偶支那文學に精通せる満人成蔚氏と相知り 日満語学の交換教授をなせり これ余か満語を研究する第一歩とす」序2a-2b

上掲の石濱純太郎(1936)の記述のように、記録で確認される限り、間島において渡部は写真業等を営んでいたとされる。その後、間島永新中学で日本語の教育に携わっていたが、1924年に大阪外国語学校長校中目覚に請われ同校蒙古語部の講師になり、満洲語の教育と研究に本格的に携わることとなった⁹⁾。当時蒙古語部の学生は

1) 1861年。

2) 1880年。

3) 1883年。

4) 1889年。

5) 1908年。

6) 1922年。

7) 1924年。

8) 1936年。

9) 渡部は、大阪外国語学校蒙古語部の同窓会誌の性格を帯びた学術誌である『朔風』に寄稿した文章の渡部薫太郎(1934)において、中目覚との縁、および、大阪外国語学校で満洲語の授業が行われるようになった経緯につき、次のように述べている。

「倍て中目校長先生先年柯太のオロツコ又ニリままブン人の言語を調査し、各文典の著をなさいました關係で満洲語の智識を得られました 不斗したる事で、語学上の事で私と交際を初めました 同校長は蒙古語と満洲語の關係の深きを觀ぜられし結果満洲語を学校に加へられましたにつき世界に於て三校の一に加へられる様になりました。これは、学界の爲に大いに慶す可き事でありまして西洋の學者に対しても大に面目を保つ次第であり、又日本外国語学史上に光彩を与へたものと信じます、」pp.7-8.

満洲語の授業は必須であったといい、蒙日辞典の編纂で名高い故精松源一大阪外国語大学名誉教授も、直接渡部薫太郎の講義を聞いた一人であった。なお、渡部が収集した膨大な満洲語書籍は、大阪外国語学校に寄贈されたが、現在もその後身である大阪大学外国語学図書館に所蔵されており、研究者の閲覧を待っている。

本書『満語文典』の目次は、以下のとおりである。

満語学叢書発刊之辞

緒言

第一 音韻篇

一 文字及其形体

二 母音の調和

三 重母音

四 言葉の変化と外国語

第二 品詞篇

一 名詞と形容詞

二 代名詞

三 数詞

四 動詞

五 副詞

六 テニヲハ

七 接続詞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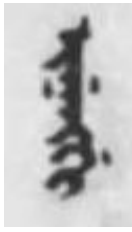
八 間投詞

第三 文章篇

その緒言に、

「本書はムルレンドルフ氏の満文典を基礎とし傍ら支那刊行の書并に仏人の著を参酌して編纂せりム氏の書悉くロマ字を以て満語を記せりと雖とも 学者の為め之を満字に改めたり」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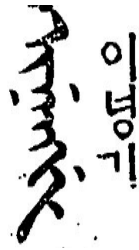
と明記する如く、本書は、主としてP. G. von Möllendorff(1892) *A Manchu Grammar, with Analysed Text. Shanghai*に基づいて編纂されたものである。なるほど、満洲文字の説明も、伝統的な十二字頭の音節単位ではなく、西洋式の母音字・子音字別の音素単位の解説をおこなっている。これは単に教育上の便法に止まらず、渡部自身、満洲字の構造をそのように理解していたようで、本書にあらわれる満洲字の表記までも、清代の一般的な満洲字表記とは異なり、点を付す位置が音節単位ではなく、音素単位になっている。例えば、単語 *ineggi*(日)について、清代の本国資料の「清文鑑」の満洲字表記では、第2音節 *ne*のかたまり全体の左右に点を付すのに対し、本書の満洲字表記では、子音字 *n*の左と母音字 *e*の右にそれぞれ点を付している。ちなみに、外国資料であっても、朝鮮司訳院の清学書「三訳総解」は、本国資料の「清文鑑」と同様の表記になっている。



五体清文鑑[2:21b]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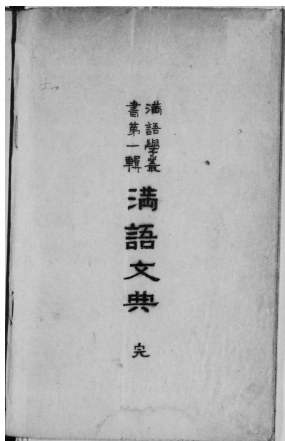
本書[10b]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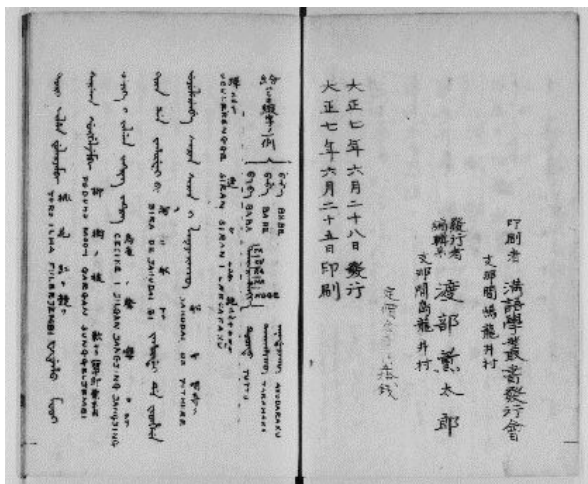
三訳総解[5:1a]

したがって、本書の滿洲字表記は、現代のワープロの滿洲字表記に通じるものがあるが、明らかに清代の滿洲人の理解とは異なったものである。直接滿洲人成蔚より滿洲語を習った経歴を有した渡部であれば、伝統的な十二字頭の音節単位の解説を施すこともできたはずであるが、西洋の既存の業績に依拠したのである。これが、その後の日本の滿洲語教育の流れを決定づけたようで、現在に至るまで、日本の滿洲語教科書は、母音字・子音字別の音素単位のまわりくどい解説をおこなっている。

とび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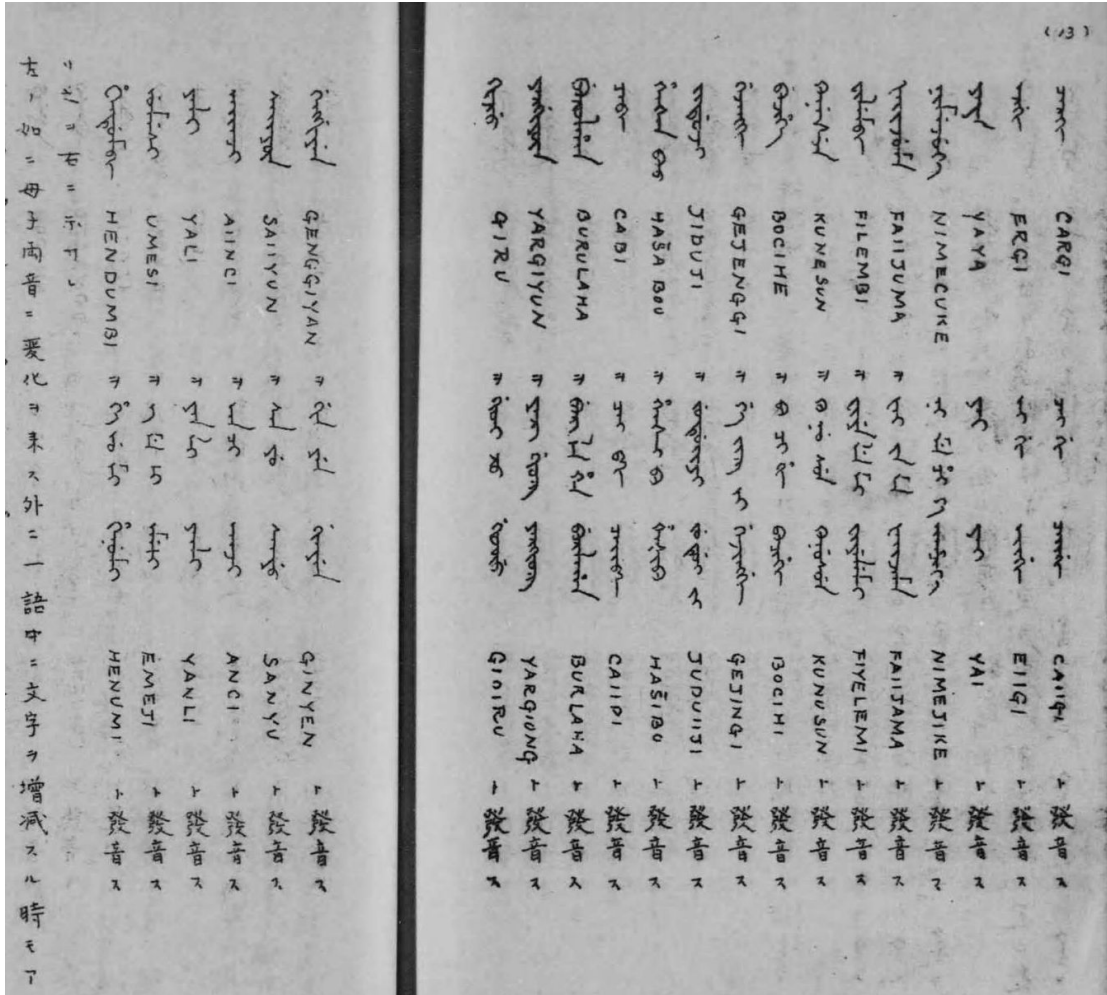


刊記



[2] 渡部薫太郎(1926)『訂正 満洲語文典』 大阪東洋学会

本書は、上掲の『満語文典』を訂正増補したものである。前書ととくに変わらないところが多いが、上原久(1966)p.2の指摘するごとく、発音法において満洲字の綴りと発音が異なる例42例を示している点が大きな違いである。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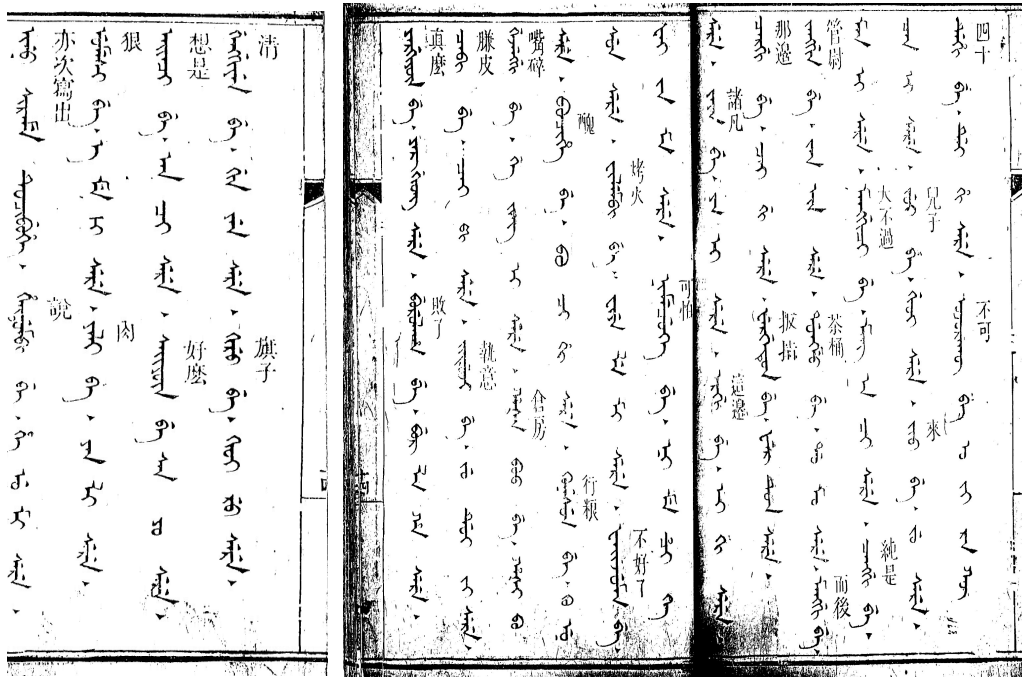


この部分につき、上原久(1966)p.2は、

「これはこの著の前著と異なる最も大きい特色の一つである。それと共に彼が学んだ頃——清朝末期の満洲語の満洲語の実際の発音を知る上に極めて重要なものがある。これだけ多くの例を挙げたものは他に類がない。その点において特に貴重である。」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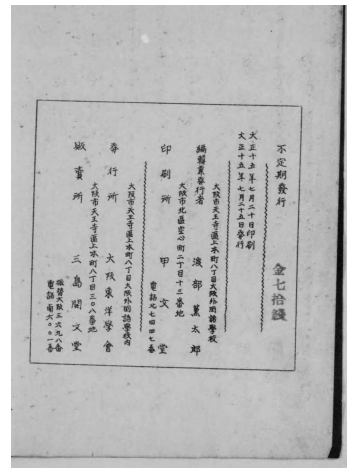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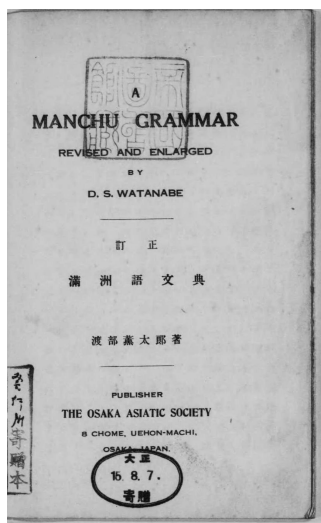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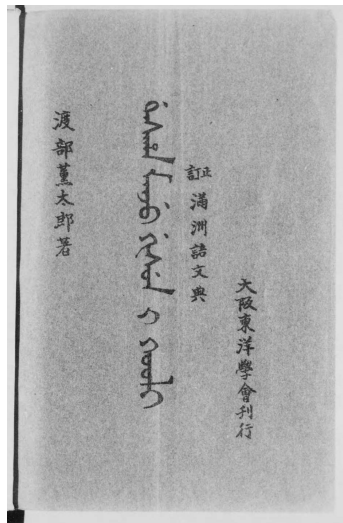
と述べ、渡部自身が実地に採集したものと見做しているが、事実はそのようではなく、博赫著『清語易言 manju gisun be ja i gisurere bithe』(乾隆31年(1766)序)に基づいたものである。

『清語易言 manju gisun be ja i gisurere bithe』 [14a-15a]



とびら

刊記



[3] 渡部薫太郎(1929)『滿洲語會話讀本』大阪東洋学会
その序文に、

「本書収むる所の記事は、彼の有名なる清文啓蒙中の會話教程より、之を採り、且初学者の爲め、之に和訳を附せり。其滿文たるや、筆法輕妙を極め、滿文練習上無二の軌範にして、尚且其の口語法の如何を伺ひ知るを得。」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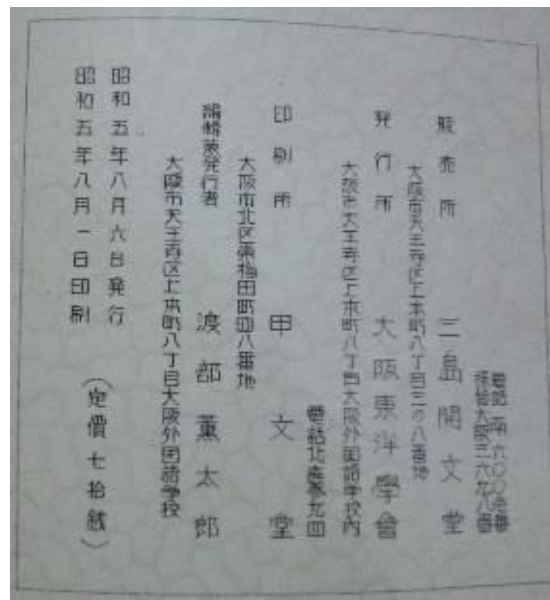
とあるごとく、伝統的な滿洲語教材である清・舞格著『滿漢字清文啓蒙』の卷2に収められる滿漢合璧形式の會話篇「兼漢滿洲套話」より抜粋した滿洲文を原文とし、和訳を附したテキストである。

[4] 渡部薫太郎(1930)『満洲語俗語読本』 大阪東洋学会

上掲の『満洲語会話読本』の改訂増補版とも言うべきもので、『満漢字清文啓蒙』の「兼漢満洲套話」より抜粋した満洲文をもとにしたものである。

とびら

刊記



[5] 渡部薫太郎(1930)『満洲語綴字全書』(亜細亜研究 第9号) 大阪東洋学会

本書の目次は、以下のとおりである。

口絵

凡例

満洲語と其の綴字に就て

文字

母音字

子音字

特定文字

綴字篇

第一字頭

第二字頭

第三字頭

第四字頭

第五字頭

第六字頭

第七字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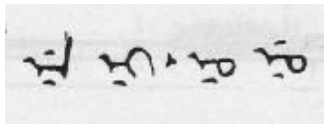
第八字頭

第九字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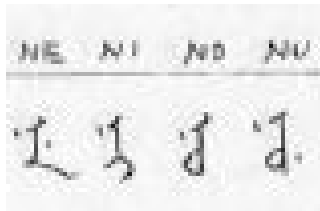
滿洲語文學 資料の 현황 및 그 연구와 활용

- 第十字頭
- 第十一字頭
- 第十二字頭
- 拗音
- 外来語の單綴なるもの
- 外来語の複綴なるもの
- 滿洲語に於ける不規則なる綴字
- 語尾に於けるngと其下に来るG gを以て始る綴との関係
- 習慣による變則的發音
- 滿洲語に於ける發音の訛

この目次からわかるように、本書は、前2書の音韻篇の解説に、「清文啓蒙」などの伝統的な滿洲語教科書に見られる音節表の十二字頭を加えたものである。すなわち、西洋式の音素単位の説明と清代の伝統的な音節単位の説明が混在していると言えるであろう。しかし、渡部自身は清代の滿洲人が音節単位で文字を捉えていたことに気付かなかったようで、その十二字頭の滿洲文字の点の付し方は、前2書に同じく、音節のかたまり全体にではなく、子音字や母音字の各音素に付されている。例えば、第一字頭のne, ni, no, nuのneやnuの点の付し方について、「清書指南」の表記と本書の表記を比べてみると、明らかに異なっている。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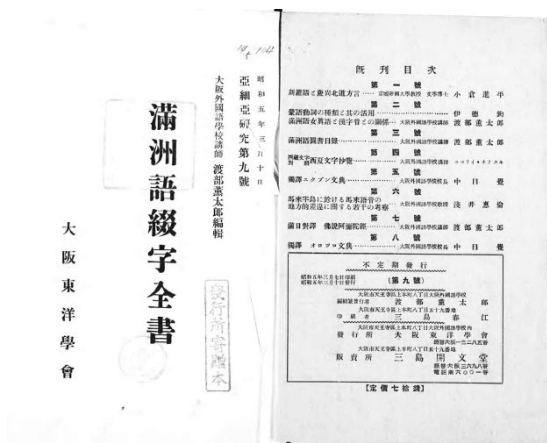
清書指南[卷首:5a]



本書[3a]

これでは何のために十二字頭を示しているのかわからず、本書の限界を露呈したものである。

なお、本書出版のもととなった自筆の原稿が天理図書館に所蔵されている。とびらと刊記



[6] 河内良弘(1996) 『満洲語文語文典』 京都大学学術出版会

日本における初めての本格的な満洲語テキストである。歴史学が専門の河内良弘がテキスト本体を執筆し、言語学の立場から清瀬義三郎則府氏と愛新覚羅・烏拉熙春氏が随所に注記を書き加えたものである。早田輝洋(1997)p.79は、この執筆体制について、

「助編者をいれて事実上複数の著者が関与していることは、当然良い面と若干の矛盾した面が出てくるが、これも一つの行き方であろう。」

と評するが、確かに助編者2人の注記はあたかも紙上討論をおこなっているがごとく見解が異なっている部分がある。満洲語の概要について述べたあと、文字・発音、文法について解説し、読本(満洲実録、ニシャン・サマン伝、宮中档雍正朝満漢合璧奏摺を収める)、満洲語小辞典、索引を付して、満洲語の読解力を養成することができるように構成されている。とくに、満洲文字の解説が丁寧で、満洲文字を習得し、生の満洲語資料を読んでいく実践力を養成するのに最適のテキストである。

[7] 河内良弘・清瀬義三郎則府(2002)『満洲語文語入門』 京都大学学術出版会

本書は、上掲の『満洲語文語文典』の改訂版である。旧版では、言語学の立場から清瀬義三郎則府氏と愛新覚羅・烏拉熙春氏が随所に注記を加えていたが、両氏の見解が一致しない場合があり、いささか読者を困惑させるところがあったが、新版では整理され読みやすくなっている。

[8] 津曲敏郎(2002)『満洲語入門20講』 大学書林

本書は、満洲・ツングース諸語の専門家の手に成るもので、言語学の立場から極めて体系的に記述がなされている。1)満洲語とは、2)音の種類と組み合わせ、3)文字、4)文法のあらまし、5)名詞、6)代名詞と他の指示詞・疑問詞、7)数詞、8)動詞(1):希求法と終止法、9)動詞(2):連体法と連用法、10)不変化詞、11)語幹形成接尾辞、12)否定、疑問、可能、13)複文の主語、14)引用文、15)読解(1):会話文と手紙、16)読解(2):翻訳文学、17)読解(3):歴史記録、18)読解(4):伝承とことば遊び、19)満洲語の過去と現在、20)満洲語とツングース語、補)主要参考文献、の全21講から成り、満洲語の音韻、文字、文法の概要を理解するとともに、『百条tanggū meyen』、内モンゴルのダグール族のエンフバト氏が著者に送った私信、『満文金瓶梅』、『満洲実録』、ニシャン・シャーマンの書nišan saman i bithe、子弟書 蟹を食うkaturi jetere、『満謎』等の満洲語資料を読みながら、読解力を養成することができるように構成されている。

[9] 久保智之・児倉徳和・庄声(2011)『シベ語の基礎』, 東京外国語大学アジア・ア

フリカ言語文化研究所 (2011年度言語研修シベ語研修テキスト 1)

このテキストは、東京外国語大学アジア・アフリカ言語文化研究所が2011年8月15日～9月16日に実施した言語研修用のテキストとして出版されたものである。この言語研修はおそらく世界で初めての系統的なシベ語研修であると思われるが、このテキストは著者らの積年のフィールドワークと分析の成果が存分に盛り込まれた本格的な著作で、シベ語概説、発音篇、会話篇、文型篇、文字篇、テキスト篇、歌篇から成り、シベ語の教材であると同時にレファレンスグラマーである。なお、文字篇に示されている満洲文字表記は、ウェブサイト anakv のローマ字満洲文字変換サイトを利用して作成されたもので、日本の満洲語(シベ語)教科書で初めてワープロ作成の満洲文字表記が用いられたものである。

以上の日本の満洲語教科書を概観して気付くことは、満洲文字の筆順について解説したものがないことである。これは、日本の満洲語学が、専ら満洲語の歴史文献を解説するためのもので、満洲語で書くことを想定していないという事情によるものであるが、中国や韓国では筆順を解説した動画まで作成されていることを考えると、物足りない気がする。最も清代の満洲語文献を見ると、子音字 f, j, t, d など、必ずしも筆順が一定していなかったと見られるものもあるので、さほど筆順にはこだわらなければならないのかも知れない。

2. 辞書

辞書については、上記渡部薫太郎に『日満語類集語彙』(1929年)の著作があるが、わずか36丁の片々たる分類語彙集に過ぎない。本格的な辞書は、羽田亨の『満和辞典』を嚆矢とすると見えよう。

[10]羽田亨(1937)『満和辞典』京都帝国大学満蒙調査会

京都帝国大学文学部教授・京都帝国大学総長・西域学の泰斗羽田亨の編纂にかかるもので、編纂実務はその門下生の山本守、藤枝晃、今西春秋、三田村泰助が担当した。清刊の『御製増訂清文鑑』と『清文彙書』をもとにし、和訳を付したものであるが、あまりこなれた和訳ではなく、『御製増訂清文鑑』『清文彙書』の漢語訳そのままのものも多い。しかし、これが档案類などの歴史文書を読む人にはかえって便利であったようで、東洋史の研究者にはその後永らくバイブルのごとく使い続けられた。海外でも海賊版が多く出版され、シベ語を研究するために新疆の伊犁に留学した日本人研究者が現地で「いい辞典があるから」と言ってわたされたのがなんと本書の海賊版であったという逸話もある。後掲の河内良弘(2014)『満洲語辞典』の刊行によって、本書もようやくその歴史的使命を終えた。

[11]福田昆之(1987初版; 2008改訂版)『満洲語文語辞典』, FLL

本書の著者福田昆之は、ポケットの中からエビフライを取り出したという逸話があるほど奇人であったというが、その独自の才能と努力を遺憾なく発揮して編纂された大部の本格的な辞典である。上掲の『満和辞典』を質量共に凌駕し、ハウアーの満独辞典やザハロフの満露辞典を参照しながら、「満文金瓶梅」「合璧西廂記」「満洲実録」などからの実例を加えて編纂されたものである。初版発行の翌年1988年には、第7回新村出賞を受賞している。上掲の『満和辞典』では『御製増訂清文鑑』『清文彙書』の漢語訳そのままよくわからない和訳であったものもこなれた和訳に改められており、発表者などは重宝していたが、満文档案等の歴史文書を読むための訳語には不足があったようで¹⁰⁾、東洋史の専門家にはあまり利用されず、上掲の『満和辞典』が依然として使われ続けた。

発行所のFLLというのは、著者福田昆之自身が自宅の隣に設立した研究所で、Fukuda Laboratory of Linguisticsの頭文字である。福田昆之はこの研究所から以下のごとく数多くの著書を発行している。

- (1975) 『日本語の系統論的研究』
- (1977) 『日本語系統論上の諸問題』
- (1982) 『日本アルタイ比較文法序説』
- (1988) 『日本語とツングース語』
- (1989) 『日本語とツングース語(改版)』

これらの書名にあらわれているように福田昆之の最も大きな関心事は日本語系統の解明であり、満洲語辞典の編纂は必ずしも本意ではなく、研究の行きがかり上、止むを得ず手掛けたもののごとくである¹¹⁾。しかしながら、本人の意図とは正反対に、学界では日本語系統論関係の業績のほうは相手にされず、仕方なく編纂した満洲語辞典だけが高い評価を得たのは、全く皮肉なことであった。 *Corean*

10) 例えば、河内良弘(1989)p.138は、

「ただ満文档案の読解のさいには、やや不便な点がなくもない。たとえば afaha tušan 責任、aliha amban 尚書、baicame tuwara hafan 監察御史などの語がなく、jurganの語はあるけれども、部院、衙門の訳語が見当らないというように、官衙の文書を読むさいには、この一加では充分とは言えない部分もある。」と指摘している。

11) 福田昆之は、『言語と言語学』20(1985, FLL)の編集後記で、辞典の編纂に対する自身の感情を、以下のごとく吐露している。

「いよいよ満洲語文語辞典完成へ向けてラスト・スパートをかけることにしました。何があんでも向こう三ヶ年以内にこれを出版したいのです。これは私のライフ・ワークである『日本アルタイ比較文法要説』を準備する時間を得るため必須の仕事です。一番よいのは辞典を放棄することですが、私はよくても人さまが許さないでしょう。さて、こうして時間を作り、ライフ・ワークへ向かいたいのです。(中略)ほんとうのところは辞典を作る仕事など私にはどうでもよいのです。これは他の人がやいのやいの申しているわけでして、全くかないません。しかしここまでできたのですから日の目を見せたい、というのが私の気持ちです。それ以上のものでもそれ以下のものでもありません。とはいっても、でき上がった時の喜びを思い出すと、男子やるべしの思いなきにしもあらずです。かなりアンビバレンスな気持と申せましょう。これも天命の内なのでしょう。ただやり遂げるだけです。」

Primer(1877)の著者John Rossが、自身の志した宣教師としての実績よりも、19世紀の平安道方言を記録に留めた者として、永く後世の評価を受けているのと同様の現象である。学問とは、所詮錬金術であって、学者本人の目的の如何よりも、その過程で生み出されるもののほうが後世にとって価値があることを示している。

著者福田昆之の経歴については、本人がFLLから発行した小冊子『言語と言語学』に「忘れざるの記」と題して詳細に記述しているので、それを主たる参考資料としつつ、略歴を記しておこう。本籍は日光のおころがわ小来川、生家は千葉県姉ヶ崎。1926年1月26日、杉の植林業を営む父・福田孫多、母シヅの五男として生まれる。長兄は第1回農業祭(1962)天皇賞(林業)を受賞した孫光。木更津中学在学中成績優秀なるも、4年生の受験勉強の時期に父から家業の肉体労働を強要されたり、配属将校の鈴木少尉に嫌われ教練の内申が悪かったため旧制第四高等学校を受験するも失敗。1944年横浜高等工業学校の工業教員養成所へ進学。横浜高工在学中は、専門の勉強よりも、言語学や哲学の勉強に耽る。1947年同校機械科を卒業。1948年より1985年まで神奈川県立横須賀高等学校勤務(数学担当)。2008年逝去。

[12] 久保智之・児倉徳和・庄声(2011)『シベ語彙集』, 東京外国語大学アジア・アフリカ言語文化研究所 (2011年度言語研修シベ語研修テキスト 2)

この辞書は、先に述べた『シベ語の基礎』と同様、東京外国語大学アジア・アフリカ言語文化研究所が2011年8月15日~9月16日に実施した言語研修用のテキストとして出版されたものである。『シベ語の基礎』に現れる単語を全て網羅し、見出し語は約1200語に達する。発音の揺れなどについて、詳細な注記が施されており、言語学的に有益な情報を提供している。

[13] 河内良弘(2014)『満洲語辞典』松香堂

明清史の大家である著者が二十数年の歳月をかけて編纂した、収録語約5万語の世界最大規模の辞典である。「清文鑑」はもとより、「大清全書」「清文備考」「同文彙集」「摺奏成語」「清文総彙」の辞典類、「満文老档」「満文太宗実録」「礼科史書」「宗人府史書」「宮中档雍正朝奏摺」等の歴史記録類から広く語句・用例を採取したもので、すこぶる有用である。本書の刊行は世界の満学の発展に裨益するところ誠に大なるものがあるが、本書の刊行後世界の満学界は直ちに呼応して、中国黒竜江大学は2014年9月にこの業績をたたえ著者に「黒竜江大学名誉教授」の称号を授与した。

なお、満洲語の見出し語は、ローマ字および満洲文字で示されているが、その満洲文字は技術協力者本田道夫により作成されたWindows用「満洲文字入力・編集・印刷システム」により作成されたものである。

3. おわりに

以上、本発表においては、近代以降に日本で編纂された満洲語学習の工具書、教

科書および辞書を紹介した。中国や韓国、欧米の満洲語工具書も日進月歩の進展を続けているが、それら世界の満学界と切磋琢磨し、今後ますます発展していくことを願う次第である。

参考文献

- 石濱純太郎(1936) 「故渡部薫太郎先生 附渡部先生論著目録」 『東洋史研究』 2(1).
石濱純太郎(1938) 「<批評・紹介>満和辞典 羽田亨編」 『東洋史研究』 3(3).
上原久(1965; 1966) 「渡部薫太郎の満洲語学(1); (2)」 『埼玉大学紀要 人文科学篇』 14; 15.
河内良弘(1989) 「<学界展望>清初満語文献史料の現状」 『東洋史研究』 48(3).
清瀬義三郎則府(2003) 「自著を語る：『満洲語文語入門』」 『満族史研究』 2.
久保智之(2002) 「(書評)津曲敏郎著『満洲語入門20講』」 『満族史研究』 1.
早田輝洋(1997) 「(書評)河内良弘著『満洲語文語文典』を読んで」 『満族史研究通信』 6.
福田昆之(1983-1985) 「忘れざるの記(第一回～第回)」 『言語と言語学』 1; 11; 13; 15; 17; 19; 20; 22; 23; 24; 27; 29. FLL
福田昆之(1983) 「FLLとその名の由来」 『言語と言語学』 8. FLL
渡部薫太郎(1934) 「満洲語漫談」 『朔風』 4. 満蒙研究会

[발표 5 - 번역문]

일본의 만주어학습을 위한 공구서에 관하여

기시다 후미다카(일본 오사카대학)

0. 머리말

근대 이후 일본 학계가 역사학 분야를 중심으로 만주어 및 만주어 문헌에 다대한 관심을 보이게 되고 많은 연구 성과를 냈다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지만, 만주어를 학습하기 위한 공구서, 즉 교과서와 사전의 편찬·간행은 의외로 늦어, 메이지(明治) 연간(1868~1912년)에는 특별히 볼 만한 것이 없고, 다이쇼(大正) 시대(1912~1926년)부터 쇼와(昭和) 시대(1926~1989년) 초기에 걸쳐 활약한 와타나베 시게타로(渡部薫太郎)의 업적을 효시로 삼는 듯하다. 그 이후 일본의 만주학은 연구자의 끊임없는 노력에 의해 발전을 이루어, 작년 6월에는 마침내 가와치 요시히로(河内良弘) 씨에 의해 전인미답의 규모를 자랑하는 『滿洲語辭典』의 완성을 보기에 이르렀다. 본 발표에서는 이 위업에 경의를 표하면서, 와타나베 시게타로 이후 가와치 요시히로 씨에 이르기까지의 일본의 만주어 학습을 위한 공구서를 돌이켜 보기로 한다.

일본에서의 만주어 관련 연구 성과는 아래의 여러 목록에 거의 망라되어 있지만, 여기에서는 그 중에서 특별히 현저한 업적을 취사선택하여 다루고자 한다.

·가와치 요시히로[河内良弘](1972) 『일본에서의 동북아시아 연구논문 목록 1895-1968』 (『텐리(天理) 대학 오야사토 연구소 연구보고』 1; 2합책).

·MATSUURA, Shigeru(1980) “A Bibliography of Works on the Manchu and Sibe Languages”, *Memoirs of the Reserch Department of the Toyo Bunko*, 38.

·3TARY, G.(1990) *Manchu Studies: An International Bibliography*, Vol. 1-3, Harrassowitz: WIESBADEN

·STARY, G.(2003) *Manchu Studies: An International Bibliography*, Vol. 4, Harrassowitz: WIESBADEN

1. 교과서

교과서로서는 아래의 것들이 있다.

[1] 와타나베 시게타로[渡部薫太郎](1918) 『滿語文典』 滿語學叢書發行會

우선 저자 와타나베 시게타로는 특이한 경력을 가진 분이므로 간단히 언급해 두고자 한다. 와타나베의 경력에 대해서는 이시하마 준타로[石濱純太郎](1936)·우에하라 히사시[上原久](1965; 1966)에 기술되어 있는데, 여기에서는 이시하마 준타로(1936)의 기술을 인용하고자 한다.

「와타나베 선생은 사실은 와타나베·시게타로라고 불러야 하지만, 사람들이 습관적으로 쿤타로라고 불러 저서의 로마자 제명(題名)이 쿤타로라고 되어 있는 경우도 있다. 자주 있는 일이라서 선생도 꽤넘치

않았는지 모른다. 야마토국(大和國) 고리야마(郡山) 출신으로, 분큐(文久) 원년¹⁾ 9월 20일에 태어났다. 메이지 13년²⁾에 오사카(大阪)에 가서 영어를 배우고 메이지 16년³⁾에는 가와구치(川口)에 있는 산이치(三一) 신학교(神學校)에 들어가 신학 등을 배우셨다. 신앙 상의 이유로 선교사가 될 작정이셨던 듯하지만, 어떤 사정이 있어 속무(俗務)에 종사하게 되어, 메이지 22년⁴⁾ 도쿄 우편국에 근무하셨다. 그러나 러일전쟁 시기에 육군 통역이 되어 전후 공(功)으로 훈팔등(勳八等)에 서훈되어 서보장(瑞宝章)을 받으셨다. 이 전쟁이 연이 되었는지 선생은 메이지 41년⁵⁾에 간도(間島)에 들어가 사진업을 시작하셨다. 여기에서 선생은 만주인 청위(成蔚) 씨를 알게 되어 만주어에 침잠하시기에 이르렀다. 간도 용정촌(龍井村)에서 십수년 있을 동안 거류민회(居留民會)의 서기장, 조선인 지도를 위한 조선총독부 촉탁으로서 다년간 조선과 일본 양국인을 위해 진력하는 한편, 북선일보사(北鮮日報社), 오사카아사히신문사(大板朝日新聞社), 경성일보사(京城日報社) 등의 통신 촉탁을 받고 있으셨다. 또 이 사이에 왕래했던 학계 명사에게 점차 만주어를 배우고 있는 선생의 이름도 알려지기에 이르렀다. 다이쇼 11년⁶⁾에는 사립 영신(永新) 중학교의 일본어 교수를 촉탁 받아, 이곳에서 교육계에 몸을 담그게 되셨다. 다이쇼 13년⁷⁾에 나카노메 아키라(中目覺) 씨에게 초빙을 받아 오사카외국어학교에 부임하여 만주어학을 강의하게 되었으며, 또 덴리(天理) 외국어학교가 개교하게 되어 이곳에서도 조선어학을 강의하며 인재 육성 및 학술 연구에 몰두하셨다. 이미 노년이 된 선생이었지만, 몸과 마음 모두 열심히 오로지 학문에 종사하고 있으셨는데, 작년 경부터 때때로 신체의 이상 징후를 호소하시며, 스스로도 어쩌면 일어날 수 없게 되는 것을 각오하셨는지, 열렬한 신앙은 처음에 비해 전혀 바뀌지 않으셨는데, 협회당(協會堂)에는 일찍이 나가시지 못하신 것을, 특별히 선교사를 초대해 특히 성찬(聖餐)을 받거나 뒷일을 의뢰하시거나 하시다가, 올해 쇼와 41년⁸⁾ 7월 22일에는 자택에서 76년의 고결한 생애를 마치셨다.」 이시하마 준타로(1936)p.92

즉 와타나베가 만주어학에 종사하게 된 계기는, 1908년 48세에 간도, 즉 현재의 중국 길림성 연변에 가서 만주인 청위(成蔚)와 만난 일이다. 이것은 본서 『만어문전』의 모두에 있는 「만어학 총서 발간의 말」에도 기술되어 있다.

「러일전쟁의 혈흔이 아직 마르지 않아 피비린내가 북조선의 산야에 진동하던 때, 일확천금을 목적으로 여진의 옛 땅, 즉 청나라의 발상지라고 칭하는 간도에 와서, 우연히 중국 문학에 정통한 만주인 청위(成蔚) 씨와 서로 알게 되어, 일본어와 만주어를 서로 가르쳐 주었다. 이것이 내가 만주어를 연구하게 되는 첫걸음이 되었다.」 序2a-2b

위에서 제시한 이시하마 준타로(1936)의 기술과 같이 기록으로 확인되는 한, 간도에서 와타나베는 사진업 등을 운영하고 있었다고 판단된다. 그 후 간도의 영신 중학에서 일본어 교육에 종사하였는데, 1924년에 오사카외국어학교 교장 나카노메 아키라에게 초빙을 받아 몽골어부의 강사가 되어, 만주어의 교육과 연구에 본격적으로 종사하게 되었다.⁹⁾ 당시 몽골어부의 학생은 만주어의 수업이 필수였다고

1) 1861년.

2) 1880년.

3) 1883년.

4) 1889년.

5) 1908년.

6) 1922년.

7) 1924년.

8) 1936년.

9) 와타나베는 오사카외국어학교 몽골어부의 동창회지 성격을 띤 학술지인 『삭풍(朔風)』에 기고한 글인 와타나베 시게타로(1934)에서 나카노메 아키라와의 인연 및 오사카외국어학교에서 만주어 수업이 이루어지게 된 경위에 대해 다음과 같이 기술하고 있다.

「나카노메 교장 선생님은 몇 해 전 가태(柯太)의 오코즈코(オロツコ), 니리분(ニリブン) 사람의 언어를 조사하고, 각 문전(文典)의 저술을 하였던 까닭에 만주어의 지식을 얻으셨습니다. 생각지도 못하게 어학 상의 일로 저와 교제를 시작하였습니다. 나카노메 교장 선생님은 몽골어와 만주어의 관계가 깊음을 보시고 만주어를 학교에 추가하심에 따라,

하며, 몽일사전(蒙日辭典)의 편찬으로 이름 높은 故 아베마즈 겐이치(精松源一) 오사카외국어대학 명예 교수도, 직접 와타나베 시게타로의 강의를 들은 한 사람이었다. 또한 와타나베가 수집한 방대한 만주어 서적은 오사카외국어학교에 기증되었는데, 현재도 그 후신인 오사카대학 외국학 도서관에 소장되어 있으며 연구자의 열람을 기다리고 있다.

본서 『만어문전』의 목차는 아래와 같다.

만어학 총서 발간의 말

서언(緒言)

제일 음운편

일. 문자 및 그 형태

이. 모음의 조화

삼. 중모음

사. 말의 변화와 외국어

제이 품사편

일. 명사와 형용사

이. 대명사

삼. 수사

사. 동사

오. 부사

육. 며, 예, 을, 은(テニヲハ)

칠. 접속사

팔. 간투사

제삼 문장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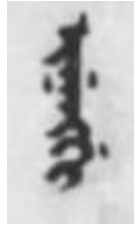
그 서언(緒言)에,

「본서는 뮐렌도르프 씨의 만문전(滿文典)을 기초로 하는 한편 중국 간행의 책 및 프랑스 인의 저술들을 참작하여 편찬되었다. 뮐렌도르프 씨의 책은 모두 로마자로 만주어를 기록하였지만 학습자를 위해 이를 만주 글자로 바꿨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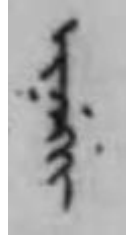
라고 명기되어 있는 바와 같이, 본서는 주로 **P. G. von Mölendorff(1892) *A Manchu Grammar, with Analysed Text. Shanghai***에 기초해 편찬된 것이다. 만주문자의 설명도 또한 전통적인 12자두의 음절단위가 아니라, 서양식의 모음자·자음자 별로 음소 단위의 해설을 취하고 있다. 이는 단순히 교육상의 편법에 그치지 않고, 와타나베 자신이 만주 글자의 구조를 그와 같이 이해하고 있었던 듯하며, 본서에 나타나는 만주 글자의 표기마저도, 청나라 시대의 일반적인 만주 글자 표기법과는 달리, 점을 찍은 위치가 음절 단위가 아니라 음소 단위로 되어 있다. 가령 단어 *inenggi*(日)에 대해, 청나라 시대의 본국 자료인 「청문감(淸文鑑)」의 만주 글자 표기는, 제2음절 *ne*의 덩어리 전체에 좌우로 점을 찍은 반면, 본서의 만주 글자 표기법에서는, 자음자 *n*의 왼쪽과 모음자 *e*의 오른쪽에 각각 점을 찍고 있다. 참고로 외국 자료라 하더라도 조선 사역원의 청학서 「삼역총해」는 본국 자료인 「청문감」과 동일한 표기로 되어 있다.

세계에 존재하는 세 학교 중 하나에 속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학계를 위해서도 대단히 기뻐할 만한 일이며 서양의 학자에 대해서도 크게 면목을 세울 만한 일입니다. 또한 일본 외국어학사상(外國語學史上)에 광채를 부여한 일이라고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pp.7-8.

滿洲語文學 자료의 현황 및 그 연구와 활용



五体清文鑑[2:21b]



本書[10b]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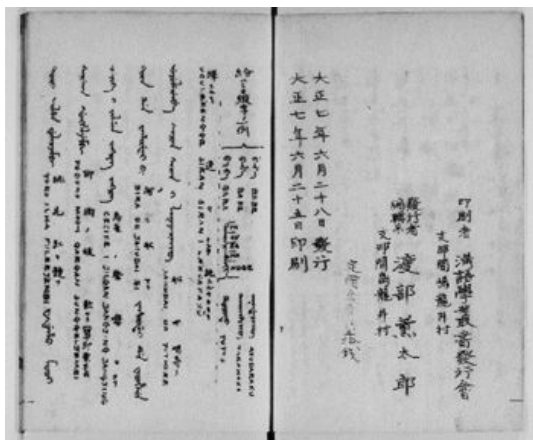
三訳総解[5:1a]

따라서 본서의 만주 글자 표기는, 현대의 워드프로세서에서 쓰는 만주 글자 표기와 통하는 것인데, 이는 명백히 청나라 시대의 만주인의 이해와는 다른 것이다. 직접 만주인 청위(成蔚)로부터 만주어를 배운 경력을 보유한 와타나베라면 전통적인 12자두의 음절 단위의 해설을 취하는 것도 가능했었음에 틀림없지만, 서양에서 이루어진 기존의 업적에 의거한 것이다. 이것이 그 후의 일본의 만주어 교육의 흐름을 결정지었던 듯하며, 현재에 이르기까지 일본의 만주어 교과서는 모음자·자음자 별로 이루어진 음소 단위의 완곡한 해설을 행하고 있다.

속표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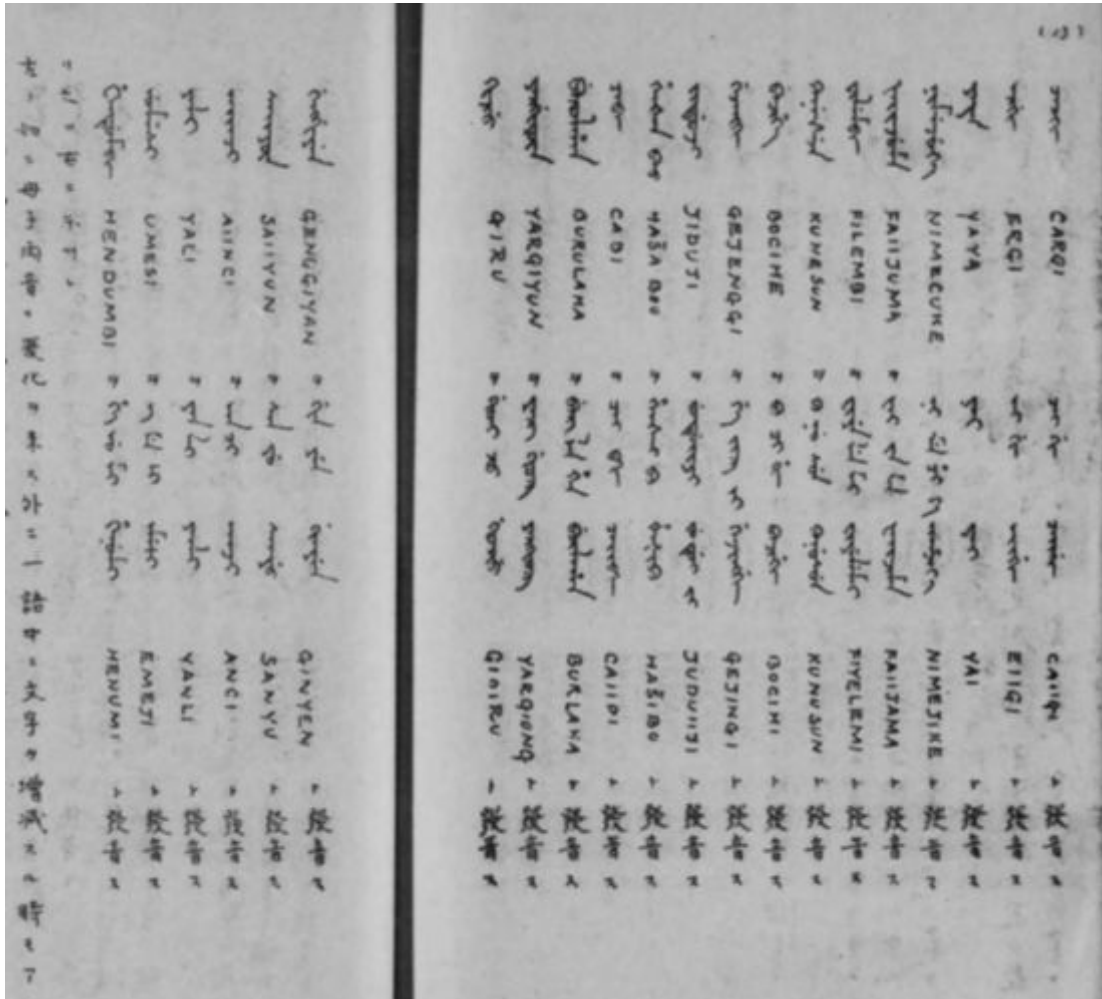


간기



[2] 와타나베 시게타로[渡部薰太郎](1926) 『訂正滿洲語文典』 오사카동양학회

본서는 위에서 제시한 『만어문전』을 수정·증보한 것이다. 앞선 책과 특별히 바뀌지 않은 부분이 많지만, 우에하라 히사시(1966)p.2의 지적과 같이, 발음법과 관련하여 만주 글자의 철자법과 발음이 다른 예를 42개 제시하고 있다는 점이 가장 큰 차이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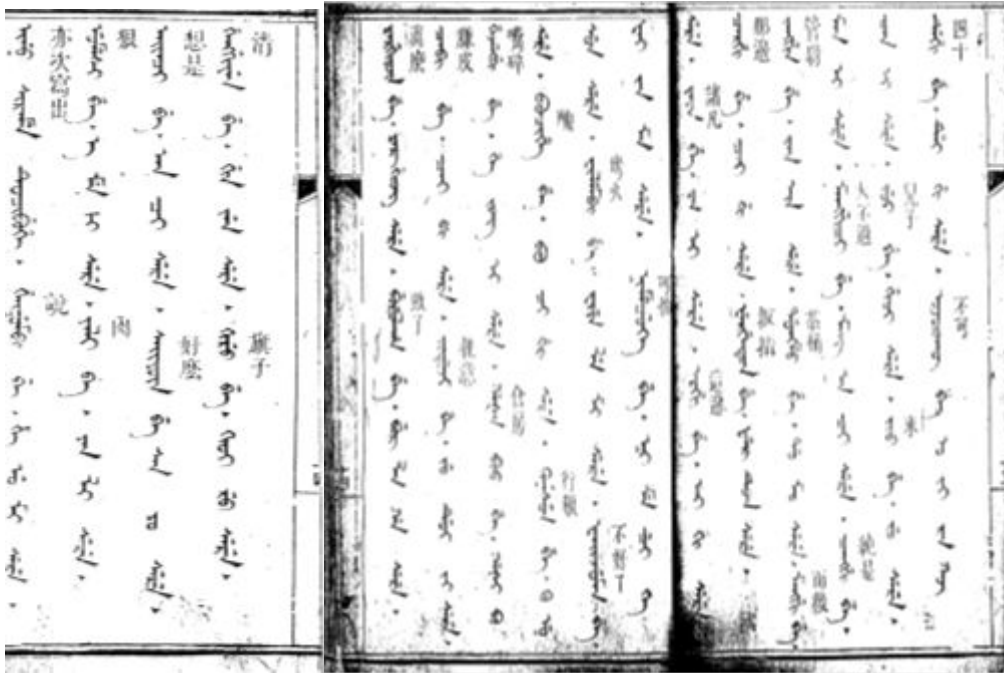
이 부분에 대해, 우에하라 히사시(1966)p.2는,

「이것은 이 저술의 전저(前著)와 다른 가장 큰 특색 중의 하나이다. 이와 더불어 그가 학습한 시기, 즉 청나라 말기의 실제 만주어 발음을 아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예가 담겨 있다. 이만큼의 많은 예를 든 것은 전례가 없다. 이 점에 있어서 특히 귀중하다.」

라고 서술하며, 와타나베 자신이 실제로 채집한 것이라고 간주하고 있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고 박혁(博赫)의 저술인 『청어이언(淸語易言)manju gisun be ja igisurere bithe』(건륭(乾隆) 31년(1766)序)에 기초한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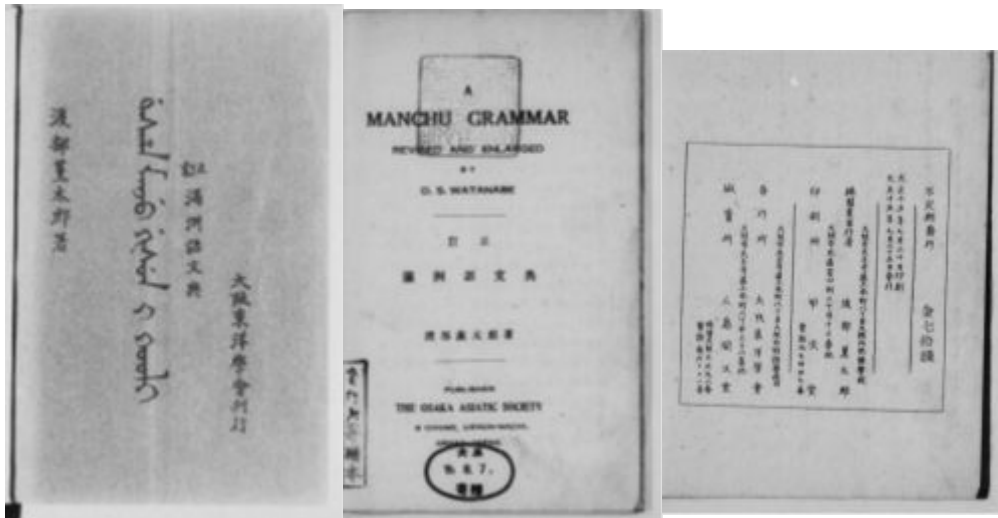
滿洲語文學 자료의 현황 및 그 연구와 활용

『清語易言 manju gisun be ja i gisurere bithe』 [14a-15a]



속표지

간기



[3] 와타나베 시게타로[渡部薰太郎](1929) 『滿洲語會話讀本』 오사카동양학회

그 서문에,

「본서가 수록하고 있는 기사(記事)는, 그 유명한 청문계몽(淸文啓蒙) 중의 회화 교과 과정으로부터 그것을 채집하고, 또 초학자를 위해 그것에 일본어 번역을 붙인 것이다. 그 만문다움과 필법의 경쾌함 및 아름다움을 높여, 만문 연습에 있어서 들도 없는 규범으로 삼을 만하며, 또한 그 구어법의 양상도 살펴 알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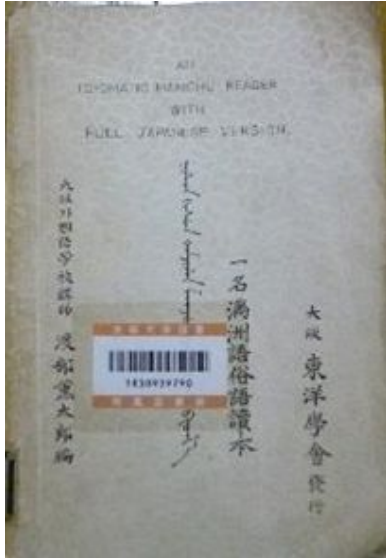
라고 되어 있는 것과 같이, 전통적인 만주어 교재인 청나라 무격(舞格)의 저술인 『滿漢字淸文啓蒙』

의 권2에 수록된 만한합벽(滿漢合璧) 형식의 회화편인 「兼漢滿洲套話」로부터 발췌한 만주문을 원문으로 삼아 일본어 번역을 붙인 텍스트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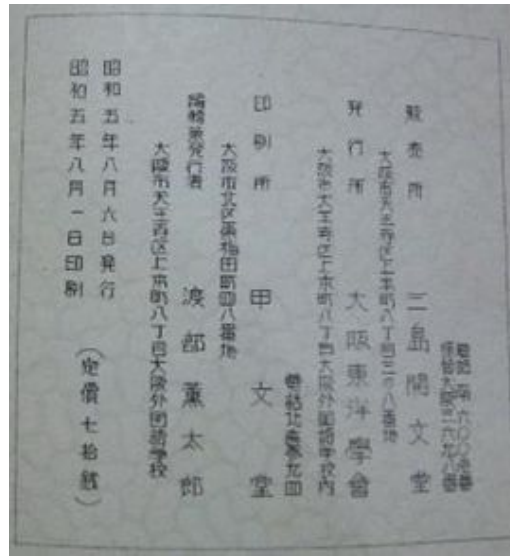
[4] 와타나베 시게타로[渡部薫太郎](1930) 『滿洲語俗語讀本』 오사카동양학회

위에서 제시한 『滿洲語會話讀本』의 개정증보판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으로, 『만한자청문계몽』의 「겸한만주투화」로부터 발췌한 만주문을 바탕으로 만든 것이다.

속표지



간기



[5] 와타나베 시게타로[渡部薫太郎](1930) 『滿洲語綴字全書』 (아세아연구 제9호) 오사카동양학회

본서의 목차는, 다음과 같다.

도입 그림(口絵)

범례

만주어와 그 철자에 대하여

문자

모음자

자음자

특정문자

철자편

제일자두(第一字頭)

제이자두(第二字頭)

제삼자두(第三字頭)

제사자두(第四字頭)

제오자두(第五字頭)

제육자두(第六字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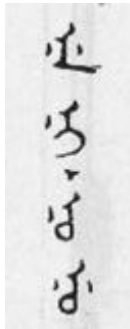
제칠자두(第七字頭)

제팔자두(第八字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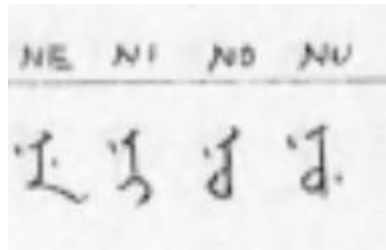
滿洲語文學 자료의 현황 및 그 연구와 활용

- 제구자두(第九字頭)
- 제십자두(第十字頭)
- 제십일자두(第十一字頭)
- 제십이자두(第十二字頭)
- 요음(拗音)
- 단철(單綴)하는 외래어
- 복철(複綴)하는 외래어
- 만주어의 불규칙한 철자
- 어미의 ng와 그 아래에 오는 G g로 시작하는 철자와의 관계
- 습관에 의한 변칙적 발음
- 만주어에서의 발음 오류(訛)

이 목차에서 알 수 있듯이, 본서는 앞선 두 책의 음운편의 해설에, 「청문계몽」 등의 전통적인 만주어 교과서에 보이는 음절표인 십이자두를 더한 것이다. 즉, 서양식의 음소단위의 설명과 청나라 시대의 전통적인 음절 단위의 설명이 혼재되어 있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와타나베 자신은 청나라 시대의 만주인이 음절 단위로 문자를 파악하고 있었다는 것을 깨닫지 못했던 듯하며, 이 십이자두 만주문자의 점을 찍는 방법은, 앞선 두 책과 마찬가지로 음절 덩어리 전체가 아니라 자음자와 모음자의 각 음소에 찍혀져 있다. 가령 제1자두인 ne, ni, no, nu의 ne와 nu의 점을 찍는 방법에 대해, 「淸書指南」의 표기와 본서의 표기를 비교해 보면, 명백히 차이가 난다.



청서지남[卷首:5a]



본서[3a]

이래서야 어떤 목적으로 십이자두를 제시하고 있는지를 알 수 없어, 본서의 한계를 드러낸 것이라고 볼 수 있다.

또한 본서 출판의 바탕이 되었던 자필 원고가 덴리(天理) 도서관에 소장되어 있다.

속표지와 간기



[6] 가와치 요시히로[河内良弘](1996) 『滿洲語文語文典』 교토대학 학술출판회

일본에서 본격적인 만주어 텍스트로는 최초로 발간된 책이다. 역사학이 전문인 가와치 요시히로가 텍스트 본체(本體)를 집필하고, 언어학의 입장에서 키요세 기사부로 노리쿠라(清瀬義三郎則府) 씨와 아이신교로·울희춘(愛新覺羅·烏拉熙春) 씨가 군데군데 주기를 달아 놓은 것이다. 하야타 데루히로[早田輝洋](1997)p.79는 이 집필 체제에 대해,

「조편자(助編者)를 넣어서 사실상 복수의 저자가 관여하고 있는 것은, 당연히 좋은 면과 약간의 모순적인 면이 발생하지만, 이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평하는데, 확실히 조편자(助編者) 2인의 주기는, 흡사 지상 토론을 벌이고 있는 것처럼 견해가 다른 부분이 있다. 만주어의 개요에 대해 서술한 후, 문자·발음, 문법에 대해 해설하고, 독본[만주실록(滿洲實錄), 니산샤먼전(ニサン・サマン傳), 궁중당옹정조만한합벽주첩(宮中檔雍正朝滿漢合璧奏摺)을 수록하였음], 만주어 소사전, 색인을 붙여, 만주어의 독해력을 양성하는 것이 가능하도록 구성되어 있다. 특히, 만주 문자의 해설이 정성스럽게 이루어져, 만주 문자를 습득하여, 만주어 원전 자료를 읽어 나가는 실천력을 양성하는 데에 최적의 텍스트이다.

[7] 가와치 요시히로[河内良弘]·키요세 기사부로 노리쿠라[清瀬義三郎則府](2002) 『滿洲語文語入門』 교토대학 학술출판회

본서는 위에서 제시한 『만주어문어문전』의 개정판이다. 구판에서는 언어학의 입장에서 키요세 기사부로 노리쿠라 씨와 아이신교로·울희춘 씨가 군데군데 주기를 기입했지만, 두 사람의 견해가 일치하지 않는 경우가 있어, 다소 독자를 곤혹하게 만드는 점이 있었지만, 신판에서는 정리되어 읽기 쉬워졌다.

[8]쯔마가리 토시로[津曲敏郎](2002) 『滿洲語入門20講』 大學書林

본서는, 만주·퉁구스 제어의 전문가의 손에서 작성된 것으로, 언어학의 입장에서 극히 체계적으로

기술이 되어 있다. 1)만주어란, 2)음의 종류와 조합, 3)문자, 4)문법의 대강, 5)명사, 6)대명사와 그외의 지시사·의문사, 7)수사, 8)동사(1)희망법과 종지법, 9)동사(2): 연체법과 연용법, 10)불변화사, 11)어간 형성 접미사, 12)부정·의문·가능, 13)복문의 주어, 14)인용문, 15)독해(1): 회화문과 편지, 16)독해(2) 번역 문학, 17)독해(3): 역사기록, 18) 독해(4): 전승과 언어유희 19)만주어의 과거와 현재, 20)만주어와 통구스어, 補)주요 참고문헌, 총 21장으로 구성되어, 만주어의 음운, 문자, 문법의 개요를 이해하는 것과 더불어, 『百條 tanggūnmeyen』, 내몽고의 다구르족 엔후마트 씨가 저자에게 보낸 개인적인 편지, 『滿文金瓶梅』, 『만주실록』, 니산·사먼의 책 nišan saman i bithe, 子弟書 계를 먹다 katuri jetere, 『滿謎』 등의 만주어 자료를 읽으면서, 독해력을 양성하는 것이 가능하도록 구성되어 있다.

[9] 쿠보 토모유키[久保智之]·코구라 노리카즈[舊倉徳和]·왕성[莊聲](2011) 『시버어의 기초(シベ語の基礎)』, 도쿄외국어대학 아시아·아프리카 언어문화연구소(東京外國語大學アジア・アフリカ言語文化研究所) (2011년도 언어 연수 시버어 연수 텍스트1)

이 텍스트는 도쿄외국어대학 아시아·아프리카 언어문화연구소가 2011년 8월 15일~9월 16일에 실시한 언어 연수용 텍스트로서 출판된 것이다. 이 언어 연수는 아마 세계에서 처음으로 계통적인 시버어 연수였다고 생각되는데, 이 텍스트는 저자들의 여러 해에 걸친 현지조사(field work)와 분석의 결과가 충분히 담겨 있는 본격적인 저작으로, 시버어 개설, 발음편, 회화편, 문형편, 문자편, 텍스트편, 노래편으로 구성되어, 시버어의 교재임과 동시에 참조문법서(reference grammar)이다. 또한 문자편에 제시되어 있는 만주 문자 표기는, 웹사이트 anakv의 로마자 만주문자 변환 사이트를 이용하여 작성된 것으로, 일본의 만주어(시버어) 교과서에서는 처음으로 워드프로세서 작성의 만주문자 표기가 이용되었다.

이상의 일본의 만주어 교과서를 개관하며 깨달은 것은, 만주문자의 필순에 대해 해설한 것이 없다는 점이다. 이는 일본의 만주어학이 오로지 만주어의 역사문헌을 해독하기 위해 존재하며, 따라서 만주어로 쓰는 것은 상정하고 있지 않다는 사정에 의한 것인데, 중국과 한국에서는 필순을 해설한 동영상이나 만들어지고 있는 것을 고려하면, 어딘가 아쉬운 느낌이 든다. 다만 청나라 시대의 만주어 문헌을 보면, 자음자 f, j, t, d 등, 반드시 필순이 일정하지는 않았다고 생각되는 것들도 있기 때문에, 그다지 필순에는 구애될 필요가 없을지도 모른다.

2. 사전

사전에 대해서는 위에서 언급한 와타나베 시게타로의 『日滿語類集語彙』(1929年)라는 저작이 있지만, 겨우 36장의 단편적인 분류어휘집에 지나지 않는다. 본격적인 사전은 하네다 토오루(羽田亨)의 『滿和辭典』을 효시로 삼을 수 있을 것이다.

[10]하네다 토오루[羽田亨](1937) 『滿和辭典』 교토제국대학 만몽조사회

교토제국대학 문학부 교수·교토제국대학 총장·서역학(西域學)의 권위자 하네다 토오루가 편찬에 참여한 것으로, 편찬 실무는 그 문하생인 야마모토 마모루(山本守), 후지에다 아키라(藤枝晃), 이마니시 슌주(今西春秋), 미타무라 다이스케(三田村泰助)가 담당했다. 청나라 간행의 『御製增訂清文鑑』과 『清文彙書』를 바탕으로 하여, 일본어 번역을 붙인 것이지만, 그다지 세련된 일본어 번역이 아니라, 『어제증정 청문감』, 『청문휘서』의 한어(漢語) 번역 그대로인 것도 많다. 그러나 이것이 당안류(檔案類) 등의 역사 문헌을 읽는 사람에게는 도리어 편리하였던 듯하며, 동양사의 연구자에게는 그 후 오랫동안 바이블처럼

사용되었다. 해외에서도 해적판이 많이 출판되어, 시버어를 연구하기 위하여 신강의 이리(伊犁)에 유학했던 일본인 연구자가 현지에서 「좋은 사전이 있으니(사세요)」라고 말하면서 건네받았던 것이 바로 본서의 해적판이었다는 일화도 있다. 뒤에서 언급할 가와치 요시히로(2014) 『만주어사전』의 간행에 의해 본서도 이제 그 역사적 사명을 마쳤다.

[11] 후쿠다 곤시[福田昆之] (1987초판 2008개정판) 『滿洲語文語辭典』, FLL

본서의 저자 후쿠다 곤시는 주머니 속에서 새우튀김을 꺼냈다는 일화가 있을 정도로 기인이었다고 하는데, 그 독자적인 재능과 노력을 유감없이 발휘하여 편찬된 본격적인 대사전이다. 앞서 언급한 『만화사전』을 질적으로나 양적으로 능가하며, 하우어의 만독사전(滿獨辭典)과 자하로프의 만로사전(滿露辭典)을 참조하면서, 「만문금병매(滿文金瓶梅)」, 「합벽서상기(合璧西廂記)」, 「만주실록(滿洲實錄)」 등에서의 실례를 더해 편찬된 것이다. 초판 발행의 다음해인 1988년에는, 제7회 신무라 이즈루(新村出) 상(賞)을 수상하였다. 앞서 제시한 『만화사전』에서는 『어제증정정문감』 『청문회서』의 한어(漢語)번역을 그대로 실어 쉽게 이해하기 어려운 일본어 번역이었던 것을 수려한 일본어 번역으로 바꾸고 있으며, 발표자 등은 소중히 여기고 있지만, 만문 당안(檔案) 등의 역사적 문서를 읽기 위한 번역어에는 부족한 점이 있었던 듯하여¹⁰⁾, 동양사의 전문가에게는 그다지 이용되지 않고, 위에서 제시한 『만화사전』이 여전히 이용되고 있다.

발행소인 FLL은 저자인 후쿠다 곤시 자신이 자택 근처에 설립한 연구소로, Fukuda Laboratory of Linguistics의 이니셜이다. 후쿠다 곤시는 이 연구소에서 아래와 같이 다수의 저서를 발행하고 있다.

- (1975) 『일본어의 계통론적 연구』
- (1977) 『일본어 계통론상의 제문제』
- (1982) 『일본알타이 비교문법서설』
- (1988) 『일본어와 통구스어』
- (1989) 『일본어와 통구스어(改版)』

이들 서명이 나타내고 있는 바와 같이 후쿠다 곤시의 가장 큰 관심사는 일본어 계통의 해명이며, 만주어 사전의 편찬은 반드시 본의는 아니고, 연구의 진행 과정상 어쩔 수 없이 다뤘던 것 같다¹¹⁾. 그러나 본인의 의도와는 정반대로, 학계에서는 일본어 계통론 관계의 업적이라는 측면은 상대해 주지 않고, 어쩔 수 없이 편찬한 만주어사전만이 높은 평가를 얻은 것은, 매우 앞글은 일이었다. *Corean*

10) 가령, 가와치 요시히로(1989)p.138는,

「다만 만문 당안(檔案)의 독해 시에는 다소 불편한 점이 없지 않다. 가령 afaha tušan 책임(責任), aliha amban 상서(尙書), baicame tuwara hafan 감찰어사(監察御使) 등의 단어가 없고, jurgan이라는 단어는 있지만, 부원(部院), 아문(衙門)이라는 번역어가 제시되어 있지 않다는 점에서 보듯이, 관아의 문서를 읽을 때에는 이 한 책만으로는(一加では) 충분하다고 말하기 힘든 부분도 있다. 고 지적하고 있다.

11) 후쿠다 곤시는 『언어와 언어학』 20(1985, FLL)의 편집 후기에서, 사전의 편찬에 대한 자신의 감정을 아래와 같이 토로하고 있다.

「드디어 만주어문어사전의 완성을 향해 라스트 스퍼트를 하기로 결심했습니다. 누가 뭐래도 앞으로 3년 이내에 이것을 출판하고 싶습니다. 이것은 저의 인생의 역작인 『일본 알타이 비교문법 요설』을 준비하는 시간을 얻기 위해 필수적인 일입니다. 가장 좋은 것은 사전을 방기하는 것이지만, 저는 좋아도 사람들이 용서하지 않을 테지요. 각설하고 이렇게 시간을 내어, 인생의 역작을 향해 달려가고 싶습니다. (중략) 사실은 사전을 만드는 일 등은 저에게 어찌되어도 좋습니다. 이것은 다른 사람이 재촉한다고 해서 절대로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그러나 여기까지 왔으니 햇빛을 보게 해주고 싶다는 것이 저의 생각입니다. 그 이상의 것도 그 이하의 것도 아닙니다. 그렇다고 해도 완성되었을 때의 기쁨을 생각하면, 남자가 해야 할 일이라는 생각이 없는 것도 아닙니다. 꽤 모순되는 기분이라고 말할 수 있겠지요. 이것도 천명의 하나겠지요. 그저 완수해 낼 뿐입니다.」

滿洲語文學 자료의 현황 및 그 연구와 활용

Primer(1877)의 저자 John Ross가 자신이 목표로한 선교사로서의 실적보다도, 19세기의 평안도(平安道) 방언을 기록에 남긴 사람으로서, 오래토록 후세의 평가를 받고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의 현상이다. 학문이란, 아무래도 연금술과 같아서, 학자 본인의 목적 여하보다도, 그 과정에서 생겨난 것이 후세에 있어 가치가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저자 후쿠다 곤시의 경력에 관해서는, 본인이 FLL에서 발생한 소책자 『언어와 언어학』에 「잊을 수 없는 기록」이라고 이름을 붙여 상세히 기술하고 있으므로, 그것을 주요 참고자료로 삼아 약력을 소개해 두고자 한다. 본적은 닛코(日光)의 오코로가와(小来川), 생가는 치바현(千葉縣) 아네가사키(姉ヶ崎). 큰형은 제1회 농업제(1962) 천황상(임업)을 수상한 손코(孫光). 키사라즈(木更津) 중학교에 재학 중 성적인 우수했어도, 4학년 수험 공부 시기에 아버지로부터 가업인 육체노동을 강요받거나, 배속(配屬) 장교인 스즈키(鈴木) 소위에게 미움을 받아 교련의 내신 점수가 나빴기 때문에 큐세이다이시(舊制第四) 고등학교를 수험하는 것도 실패. 1944년 요코하마 고등 공업학교의 공업 교원 양성소에 진학. 요코하마 공고 재학 중에는, 전문 공부보다도 언어학과 철학 공부에 심취. 1947년 같은 학교 기계과를 졸업. 1948년부터 1985년까지 카나가와켄리쯔요코스카(神奈川県立横須賀) 고등학교 근무(수학 담당). 2008년 서거.

[12] 쿠보 토모유키[久保智之]·코구라 노리카즈[舊倉徳和]·장성[莊聲](2011) 『시버어어휘집』, 도쿄외국어대학 아시아·아프리카 언어문화연구소((2011년도 언어 연수 시버어 연수 텍스트2)

이 사전은 앞서 기술한 『시버어의 기초』와 마찬가지로, 도쿄외국어대학 아시아·아프리카 언어문화연구소가 2011년 8월 15일~9월16일에 실시한 언어연수용 텍스트로서 출판된 것이다. 『시버어의 기초』에 나타난 단어를 전부 망라하여, 표제어는 약 1200어에 달한다. 발음의 요동 등에 대해서, 상세한 주기가 제시되어 있으며, 언어학적으로 유익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13] 가와치 요시히로[河内良弘](2014) 『만주어사전』 송향당(松香堂)

명청사(明清史)의 대가인 저자가 20여년의 세월을 거려 편찬한, 수록어 약 5만어의 세계 최대 규모의 사전이다. 「청문감」은 물론, 「대청전서(大清全書)」 「청문비고(淸文備考)」 「동문휘집(同文集)」 「접주성어(摺奏成語)」 「청문총회(淸文總彙)」의 사전류, 「만문로당(滿文老檔)」 「만문태종실록(滿文太宗實錄)」 「예과사서(禮科史書)」 「종인부사서(宗人府史書)」 「궁중당옹정조주첩(宮中當翁正朝奏摺)」 등의 역사기록류에서 널리 어구·용례를 채취한 것으로, 대단히 유용하다. 본서의 간행은 세계의 만학(滿學)의 발전에 이바지하는 바가 실로 크다고 할 수 있는데, 본서의 간행 후 세계의 만학계(滿學界)는 즉시 호응하여, 중국 후퉁강대학은 2014년 9월에 이 업적을 기려 저자에게 「후퉁강대학 명예교수」의 칭호를 수여했다.

또한, 만주어의 표제어는, 로마자 및 만주문자로 제시되어 있는데, 이 만주문자는 기술 협력자인 혼다 미치오(本田道夫)에 의해 작성된 Windows用 「만주문자입력·편집·인쇄 시스템」에 의해 작성된 것이다.

3. 맺음말

이상 본 발표에서는, 근대 이후에 일본에서 편찬된 만주어학습의 공구서, 교과서 및 사전을 소개했다.

중국과 한국, 유럽과 미국의 만주어 공구서도 일취월장으로 진전을 계속하고 있는데, 세계의 만학계(滿學界)와 절차탁마하여 앞으로 더욱 발전해 나갈 수 있기를 바라 마지않는다.

참고문헌

- 石濱純太郎(1936), 「故 와타나베 시게타로 선생-와타나베 선생 논저 목록 부기」, 『동양사연구』 2(1).
石濱純太郎(1938), 「<비평·소개>만화사전 하네다 토오루 編」, 『동양사연구』 3(3).
上原久(1965; 1966), 「와타나베 시게타로의 만주어학(1); (2)」, 『埼玉大學紀要 인문과학편』 14; 15.
河内良弘(1989), 「<학계전망>청초만어문헌사료의 현상」, 『동양사연구』 48(3).
清瀬義三郎則府(2003), 「자신이 저술한 책을 말하다: 『만주어문어입문』」, 『만족사연구』 2.
久保智之(2002), 「(서평)쓰마가리 토시로 저 『만주어입문20강』」, 『만족사연구』 1.
早田輝洋(1997), 「(서평)가와치 요시히로 저 『만주어문어문전』 을 읽고」, 『만족사연구통신』 6.
福田昆之(1983-1985), 「잊지 못할 기록(第一回~第回)」, 『언어와 언어학』 1; 11; 13; 15; 17; 19; 20; 22; 23; 24; 27; 29, FLL.
福田昆之(1983), 「FLL과 그 명칭의 유래」, 『언어와 언어학』 8, FLL.
渡部薫太郎(1934), 「만주어만담」, 『작풍』 4, 만몽연구회.

18세기 만주어 河魚類 魚名 考察

최형원 (고려대)

들어가며

본 발표문은 만주어와 몽골어의 魚名을 음운론적·의미론적으로 대비·고찰하여 魚名에 있어서 두 언어 간에 차용적 관련성을 알아보는데 그 목적이 있다. 그러나 아직 몽골어와 만주-통구스어의 전반적 기술이 완전하지 않기 때문에 차용의 방향에 대해서는 판단을 유보하기로 한다. 다양한 만주어와 몽골어의 魚名을 접할 수 있는 자료로서 《五體清文鑑》이 있다. 清文鑑類의 완성이라 할 수 있는 이 책은 18세기 청나라에서 사용되는 五種의 언어를 만주어를 표제어로 삼아 의미적으로 그에 대응하는 나머지 四種의 언어 즉, 티베트, 몽고, 우이구르, 한어 순으로 기록한 일종의 다언어 비교사전이다.

《五體清文鑑》에서 魚名은 鱗甲部四類八則(Esihengge hurungge i šošohon. duin hacin. jakūn meyen)에 올라와 있다. 鱗甲部는 河魚類(Birai nimahai hacin)와 海魚類(Mederi nimaha i hacin)로 나누어져 있고 이는 다시 河魚類第一, 二, 三, 四와 海魚類第一, 二로 세분된다. 전자는 86개, 후자는 62개로 도합 148개의 魚名이 등재되어 있다. 몽골어 및 만주어의 魚名을 확인할 수 있는 국내 자료로는 《蒙語類解》⁵⁾와 《漢韓清文鑑》(이하 《漢清文鑑》)⁶⁾이 있다. 《蒙語類解》는 河魚類와 海魚類항목 대신에 水族 항목을 두고 魚名뿐만 아니라 魚類관련 어휘를 두루 포괄시키고 있으나 그 숫자가 30여 개에 불과하다. 그리고 몽골어 魚名에 대응하는 한어 魚名이 《五體清文鑑》과 일치하는 않는 예들이 있다.⁷⁾ 이와 반면에, 《漢清文鑑》은 《五體清文鑑》의 체재를 충실히 따라 河魚類와 海魚類항목을 두고 총 70여 개의 魚名을 포함하고 있다. 그러나 본고에서는 河魚類第一, 二, 三, 四에 올라 있는 魚名 86개 중 70개의 魚名 만을 고찰하였다.

선행연구

만주어와 몽골어학에서 魚名에 대한 연구는 가장 소외된 분야 중 하나이다. 국내에서 이들 언어의 魚名을 다룬 연구는 필자가 알기에는 아직 없다. 해외의 관련 논문도 거의 알려진 바가 없다. 1985년 Doerfer¹⁾가 한 학술대회에서 발표한 ‘Terms for aquatic animals in the *Wu T'i Ch'ing Wên Chien*’이 눈에 띈다. 그러나 유감스럽게도 입수 불가능하여 정확한 내용을 알 수 없으나 魚名에 대한 연구가 주된 것으로 생각된다. 다만 제목이 fish names (魚名) 대신 aquatic animals (水生動物)인 것은 《五體清文鑑》의 河魚類와 海魚類에는 魚類 외에도 개구리, 뱀, 조개 등의 非魚類의 항목들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으로 생각된다. Doerfer²⁾는 魚名에 초점을 두고 쓴 저작은 아니고, 몽골어와 만주-통구스어 간의 차용 관계를 규명하려는 시도이다. 몽골어와 만주, 통구스 어파를 남-북으로 분류하는 기존의 방식 대신에 L 라무트어, Z 중앙통구스어(우데허, 오로치, 나나이, 울차, 오로크, 네기달), M 만주어, S 솔론어, E 동부 어윅키어,

1) Doerfer, G. 1985. Terms for aquatic animals in the *Wu t'i ch'ing wen chien*. In Asakura Toshimitsu et al. (eds.), *Proceedings of the international symposium on B. Pitšudski's phonographic records and the Ainu culture*, 90-202. Sapporo: Hokkaido University.
Rybatzki(1996)에서 재인용.
2) 그는 몽골어의 u와 어윅키어의 i가 대응관계가 있다고 보고 몽골어의 만주-통구스어의 차용을 논하고 있다(Doerfer 1985: 248-251).

W 서부 어휘키어 순으로 동·서를 기준으로 배열하였고 年代的관점에서 A(오래된 낱말), N(새로운 낱말), P(오래된 것으로 짐작되는 낱말), U(미결정된 낱말) 등 4개의 범주를 설정하고 이에 따라 어휘를 분류하였다. 이 책의 8.3

Tungusische Lehnwörter im Mongolischen(몽골어에 있어서 만주-통구스어 차용어) 節에서 魚類명칭을 통하여 양 언어의 차용 관계의 증명을 시도했다. 또한 튀르크어, 중국어, 몽골어의 영향에 대해서 논하고 있다. 魚名과 관련해서는 《五體清文鑑》의 河魚와 海魚의 어휘를 예로 들며 이들은 의미론·음운론적 이유로 본래 통구스어로부터의 차용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통구스어의 祖語를 再構하기 전에, 어윙키, 나나이, 우데허 그리고

만주어의 祖語들부터 먼저 再構되어야 한다는 점과 양 언어 사이에서 보이는 공통성은 차용보다는 오히려 계통적 관련성을 나타내는 것이라고 볼 수도 있다는 시각도 있다. 그리고 그가 설정한 중앙통구스어는 그에 대한 적절한 비교분석이 이루어져야 최종 판단을 내릴 수 있을 것이다.³⁾ Rybatzki(1996)는 《몽골비사》에 보이는 魚名에 관해 논한 글이다. *tulu,*

layar, kileme, jebuge, qadara, soγosu, čurabai 등 7개의 魚名을 해독하고 만주-통구스어와의 대비를 통하여 다양한 차용의 방향을 규명하려고 시도하였다.

연구방법

70종의 魚名을 각 항목별로 原語는 로마자로 전사하고 解讀을 하였다, 몽골어 또는 만주어 어휘가 관련 방언에서 대응하는 단어가 있을 때는 병기하였다. 그리고 《蒙語類解》와 《漢清文鑑》과 같은 관련 도서에서 일치하는 몽골어 내지 만주어가 올라있는 경우 항목의 마지막 줄에 적어 통시적 對比를 하였다. 각 언어의 로마자 표기는 몽골문어의 경우 Poppe⁴⁾의 전사법을, 만주어는 Möllendorff⁵⁾의 전사법을 따랐다. 할하몽골어는 몽골

표준화위원회에서 2003년 12월 25일에 제정하고 다음해 1월 1일부터 시행한 “몽골어 키릴 문자의 로마자 표기법”(МОНГОЛ КОНТЕНТ ХХК 2012), 그 외의 몽골 제어와 통구스 제어의 단어들은 원문의 표기를 그대로 인용했으나 일부는 수정하였다.

어명

1. *nimaha jiyasu* 魚

Ma. *nimaha* 물고기, 생선. (HM: 700)

Mo. *jiyasu(n)*. 물고기, Bur. *zagaha(n)* 물고기(BOS: 243a). Klm. *zaγsnj.*, Ord. *džagasu* 물고기(DO: 179a).

Mong. *dziäcse* 물고기(DMF: 78). Ma. *nimaha* 물고기. Evenk. *lēm̄ba* 연어. Ulč. *n'mo~n'imu* 연어.

Na. *imaxa~imxa~n'imo* 연어(TMYa: 496). 魚— *jiyasu(MY)*. 魚위 물고기 *nimaha(HH)*.

2. *ajin aburyu~qorbo* 鱈鯉魚

Ma. *ajin* 철갑상어, 황어(鯉魚아무르강에 사는 민물고기)(HM: 26).

Mo. *aburyu~qorbo*

aburyu 큰, 거대한, 대형의. *aburyu jiyasu* 큰 물고기, 상어(MED: 6b).

3) 몽골어에 있는 통구스어를 차용에 의한 것이라고 보는 Doerfer의 주장에 대해 그는 오히려 계통적 친근 관계로 보고 있다. Kortlandt (1998: 235, 237) 참고.

4) I. J. Schmidt의 전사를 토대로 한 그의 전사법(Poppe 1954: 17)은 몽골문어에서 가장 일반적으로 사용된다.

5) 만주문자는 모음 6, 자음 18, 그리고 중국어음 표기를 위한 특별 문자 10 등 총 34개의 글자로 구성되어 있다. Möllendorff (1892: 1) 참고.

qorbo 돌고래, 철갑상어(MED: 965a). Kh. xorov 몸이 큰 물고기의 한 종류로 주둥이가 깔때기처럼 길고 비늘이 없다(MXDTT: 2570a).

Ma. ajin 칼루가(*Huso dauricus*). Evenk. ajin~aje 칼루가. Neg. ajin 칼루가.

Oroč./Ud./Ulč./Orok./Na. aji(n). 칼루가(TMYa: 16b).

鱈鯨魚 물범 aburyu~qorbo(MY). 鱈鯨魚 친황위 물범 ajin(HH).

3. kirfu kilime 鱧魚

Ma. kirfu 철갑상어(*Asipenser stellatus*)(HM: 588).

Mo. kilime 철갑상어(MED). Kh. xilem 등은 백황색. 입은 작고 깔때기 모양이다. 크고 단단한 비늘을 가지며 깨끗한 물이나 바다에 산다(MXDTT: 2513a). Bur. xime 철갑상어(BOS: 571a).

Ma. kirfu 철갑상어. Na. kirpu~kirfu~kirefučen imaxa 철갑상어(TMYa: 496a).

4. jelu tulu 白肚鱧魚

Ma. jelu 바다송어, 돌잉어속(屬)(*squaliobarbus*)(HM: 528).

Mo. tulu 시베리아 연어(*salmo taimen*)(MED: 841b). Kh. tul(<tulu). 등은 검붉고, 배는 하얗고, 비늘이 작고 이빨이 있는 담수에 사는 물고기의 일종(MXDTT: 2063b). Ma. jelu 타이멘. Evenk./Na. jeli 타이멘, Neg./Oroč./Ud./Ulč. jeli 타이멘(TMYa: 284a).

5. jelbe tulbaya 鱧魚牛宰子

Ma. jelbe 바다송어의 치어(HM: 528).

Mo. tulbay-a(n). 시베리아 연어의 치어(MED: 840b). Kh. tulbaa/tulbaga 연어의 치어(MXDTT: 2065b).

Ma. jelben (작은) 타이멘. Evenk. jelben~jelbetkēn~julbutkēn 타이멘, 모개.

Neg. jovlatkān (작은) 타이멘. Ud. jauna 연어(TMYa: 283b).

6. niomošon jibege 細鱗白

Ma. niomoson 구굴무치. 몸이 흰색인 민물고기이며 맛이 좋다(HM: 707).

구울무지(細鱗白)(HH: 443v).

Mo. jibege~jebege 시베리아 연어(*Salmo lenoc*)(MED: 1048a). Kh. zeveg/ zeev(< jibege). 연어과의 물고기로 등에 검은 반점이 있다(MXDTT: 1069a).

Ma. niomošon 시베리아 연어. Ulč. n'imo~nimu 연어(TMYa: 638b).

細鱗白시린버 구울무지 niomoson(HH)

7. hodori qoi 漁匕魚牛宰子

Ma. hodori 구굴무치의 치어(HM: 448).

Kh. xoi zebeg(<jibege)의 치어(MXDTT: 2529a).

8. fuseli qar-a amur 鱈魚

Ma. fuseli 고등어. fuseli 5피트까지 크다. 푸른 광택이 있고 식용으로 부적합한 민물고기로 5피트까지 자란다. 쓸개가 눈병을 치료하는 데 쓰인다(HM: 324).

Mo. qar-a amur. Kh. amar (jagas). 잉어과의 검은 빛을 띤 물고기의 이름~xar amar, amar (jagas)와 비슷하나 푸른빛을 띤다. 맛이 없고 식용으로 적합하지 않다. 담낭은 눈병 치료의 약으로 사용한다(MXDTT: 2450b).

qar-a 검은+amur(>Kh. amar). 잉어와 유사하고 거무스레한 빛을 띤 물고기의 일종(MXDTT: 89a).

滿洲語文學 자료의 현황 및 그 연구와 활용

Ma. fuseli 물고기의 이름. Na. fusuli 물고기 이름(TMYa: 304a).

鯖魚 -- qara amur(MY). 鯖魚 칭위 fuseli(HH).

9. secu altan qačar 干鱈魚

Ma. secu 중국철갑상어. 주둥이가 길고 뾰족하다. 몸이 크고 힘이 세다(HM: 774, WTb: #16756).

Mo. altan qačar. altan 황금. qačar 뺨, 둘러쌈(MXDTT: 2494a).

Ma. secu nimaha 물고기의 이름. Na. seči(<Ma. secu). 물고기 이름(TMYa: 147b).

10. takū taqu 鱈頭

Ma. takū 연어의 일종. 잉엇과의 민물고기(HM: 882).

Mo. taqu 물고기의 일종(MED: 789a). Kh. tax(<taqu). 원통형의 큰 머리와 작고 촘촘한 비늘을 가진 민물고기(MXDTT: 1947a).

Ma. takū nimaha 물고기의 이름. Na. tako~taku 은빛 잉어, 백연어(TMYa: 154a).

鱈魚 -- taqu(MY).

11. jajigi doydor 翹頭白

Ma. jajigi 넙치의 일종(HM: 513).

Mo. doydor 강꼬치고기(MED: 256b). Kh. dogdor 담수나 바다에 사는 물고기의 일종(MXDTT: 963b).

Ma. jajigi~jajihi 민물에 사는 농어류. Na. jājixi 약탈 잉어(TMYa: 242b).

12. mujuhu mörgü 鯉魚

Ma. mujuhu 잉어(HM: 674).

Mo. mörgü 잉어. Kh. mo'rog(<mörgü). 몸이 길쭉하고 등이 푸른 검은색에 배가 누르스름한 민물고기로서 입술 양쪽에 수염이 나 있다(MXDTT: 1257b).

Klm. börgö zaγsɯ ~ mörgö zaγsɯ 잉어(KW: 56a).

鯉魚 -- mörgü(MY). 鯉魚 레위 mujuhu(HH).

13. hardakū salbarsu 鯉魚

Ma. hardakū 잉어(HM: 419).

Mo. salbarsu 잉어. Kh. salbars (잉어) 강, 바다, 하천, 호수 등에 사는 뾰족한 주둥이에 등이 굽고 측선 비늘이 36개인 물고기의 일종(MXDTT: 1684a).

14. siri mököčce 鯉魚拐子

Ma. siri 잉어의 치어(HM: 806). 구릿빛 황어, 잉어(TMYa: 95a).

Kh. mo'xoc(<mököčce). mo'rog의 치어(MXDTT: 1261b).

15. sargaji nimaha okin γubai 鯨魚

Ma. sargaji 잉엇과의 일종. 연어의 일종(HM: 768).

sargaji(sargan 여자, 아내+jirha 박새과의 새) = sargaji cecike 스원호 오목눈이(TMYa: 65b).

Mo. okin γubai 아름다운 소녀. okin 소녀/딸, γubai 아름다운(MED: 363b).

16. fu nimaha amur 草根魚

Ma. fu nimaha 잉어와 비슷한 검은 물고기(HM: 307).

Kh. amar(<amur). 잉어와 비슷하며 거무스레한 빛깔의 물고기(MXDTT: 89a).

草根魚좌근위 fu nimaha(HH).

17. kure küre 鱧魚

Ma. kure 잉어와 유사한 민물고기(HM: 603).

Mo. küre. Kh. xu'ree(<küre). 머리에서 코까지 두꺼운 비늘로 덮인 물고기의 한 종류(MXDTT: 2773b).

Klm. kür zaγsqj~küru zaγsqj 잉엇과의 일종(KW: 247a).

18. mukšan fu ulayan nidü 厚魚

Ma. mukšan fu 도미. 잉어와 유사하며 몸이 둥근 작고 민첩한 민물고기(HM: 676).

mukšan 단단한 막대기, 몽둥이(HM: 676).

Mo. ulayan nidü 붉은 눈(目). ulayan 붉은 nidü 눈. 厚魚도미 mukšan fu(HH).

19. ooha ooq-a 花鱔魚

Ma. 농어류(HM). 입부리는 날카롭고 비늘이 작은 물고기(WTb: #16766).

Mo. ooq-a. Kh. oox(<ooq-a). 몸은 거무스레하고 주둥이는 크고 비늘은 작고 둥근 물고기의 일종(MXDTT: 1510ab).

Ma. ooha 농어류. Sol. oxso 물고기. Neg. oksuxun'a 잉엇과의 민물고기.

Orok. oyoto~ōto 잉엇과의 민물고기. Na. oko 잉엇과의 민물고기,

okočo (작은) 물고기의 이름(TMYa: 11a).

20. tubehe dabqurul 重唇魚

Ma. tubehe 누치. 몸이 붉고 큰 비늘을 가진 잉어와 유사한 입술이 두꺼운 민물고기(HM: 919).

Mo. dabqurul 잉어를 닮은 물고기의 일종(MED: 215a). Kh. davxral 머리는 잉어와 유사하고 입술이 두껍고 원통형의 등과 크고 불그스름한 비늘을 지닌 민물고기(MXDTT: 622b).

Ma. tubehe 어류의 이름. Evenk. top 황어/설치어. Even. top 곤들매기(TMYa: 198b).

重唇魚충춘위 누치 tubehe(HH).

21. haihūwa qaiγ-a 鰻花魚

Ma. haihūwa 방어. 꼬리가 선홍색인 잉어 돌잉어속(HM: 410).

haihūwa 돌잉어속(Mo. qaiγ-a)(HM: 410).

Mo. qaiγa 잉엇과의 민물고기. 도미류(MED: 912a). Kh. xaiga 넓고 편평한 몸에 위로 올라간 입술, 작은 비늘을 가진 물고기의 한 종류(MXDTT: 2392a).

만주어의 h가 몽골어의 q/γ/g와 대응한다는 사실은 다음의 예들에서 확인할 수 있다, cf. ooha:ooqa, laha:laqa, nuhere:nüere, keltehe:keltege, curhūčraya. haihūa와 qaiγ-a는 음상과 의미가 일치하므로 차용으로 믿어진다.

魴魚방어 qaiγ-a(MY). 鰻花魚반취위 방어 haihuwa(HH).

22. falu qara qaiγ-a 黑鰻花魚

Ma. falu 잉어의 일종으로 검은 색을 띤다(HM: 273).

Mo. qara qaiγ-a, qara 검은+qaiγa (21항 qaiγa 참고).

23. sunggada ulayan segül 赤稍

Ma. sunggada 붉은 꼬리와 붉은 지느러미를 가진 물고기(HM: 830).

jajigi와 흡사한 민물고기로 꼬리와 지느러미가 붉은색을 띤다(WTb: #16770).

滿洲語文學 자료의 현황 및 그 연구와 활용

Mo. ulayan segül 붉은 꼬리, ulayan 붉은 segül 꼬리.

24. fongsonggi qarbal 松花魚

Ma. fongsonggi 송가리 강에 서식하는 jajigi와 비슷한 물고기(HM: 303).

Mo. qarbal 민물고기의 일종(MED: 935b). Kh. xarval 잉엇과 물고기의 일종(MXDTT: 2460b).

Ma. fongson 그을음. 검댕. 얼룩(HM). Na. pongsongko 먼지, fongsonggi- 먼지가 았다(TMYa: 301b).

25. laha laq-a 淮子

Ma. 큰메기(Parasilurus asota)(HM: 611).

Mo. laq-a 큰메기. Kh. lax(<laq-a) 머리와 입이 크고, 꼬리가 깔때기 모양인 비늘이 없는 물고기의 일종(MXDTT: 1163a). Klm. lax^p 큰 메기(KW 251a). 語頭가 l-인 사실은 만주-통구스어로부터의 차용임을 나타낸다. Ulč./Na./Ma. laha (TMYa: 487b).

26. duwara čulburtu 鮎魚

Ma. duwara 메기. 청어속의 물고기(Silurus asotus). 큰 메기(Parasilurus)(HM: 226).

Mo. čulbuγurtu. Kh. culbuurt(<čulbuγurtu) laq-a와 비슷하게 생겼으나 그보다 작다. 길이는 두 팔꿈치 정도이다(MXDTT: 2937b). Klm. tsulwürt^p 큰 메기(‘고삐가 달린 물고기’)(KW: 434a).

鮎魚메육이 čulburtu(MY) 鮎魚난위 메유기 duwara(HH).

27. can nimaha qotar jiyasu 龍肝魚

Ma. can nimaha 용간어. 특히 간에 좋은 보약으로 알려져 있고 šangkan nimaha와 같다(HM: 137).

Mo. qotar 등가시치과의 물고기(MED: 972b). Kh. xotor 고타르 (*gutaar)-물고기 (MXDTT: 2581a). (*gutaar(<Mo. γutari) 몸이 길고 가늘며 반점 또는 줄무늬가 있는 식용 물고기, MXDTT: 556a).

28. šangkan nimaha šangqan jiyasu 龍肝魚

Ma. šangkan nimaha 용간어(HM: 846).

šangkan (불에) 구운 것, 그슬린 것. can nimaha와 같다(HM: 846).

šangka(<*čingya) 1) 마르다, 건조시키다. 2) 건조시킨 (물고기)(TMYa: 423a).

Mo. šangqan < Ma. šangkan.

29. ihan uncehen üker segül 牛尾魚

Ma. ihan uncehen 자가사리. 넙치속의 물고기. 가오리(HM: 487).

ihan 소 + uncehen 꼬리(HM: 486, 962).

Mo. üker segül, Kh. uxer su'ul 민물농어보다 조금 크고 꼬리가 뾰족한 비늘이 없는 민물고기(MXDTT: 2344b). üker 소 + segül 꼬리

30. kiyakū akiyad 昂刺

Ma. kiyakū 자가사리. 민물농어. akiya와 같다(HM: 590).

Mo. akiyad 모캐(MED: 25b). Kh. axiad(<akiyad), 아히아(axia) 물고기(MXDTT: 166a).

昂刺양츠 자가사리 kiyaku(HH).

31. akiya akiya 昂刺

Ma. akiya 민물농어. kiyakū의 다른 이름(HM: 28).

Mo. akiy-a. Kh. axia 출보르트(čulburtu)와 닮은 물고기로 노란색의 얼룩무늬가 있다(MXDTT: 165b).

32. yabsa nilʸur-a 白駿魚

Ma. yabsa 시베리아 연어(HM: 1002). 몸이 하얀 민물고기(WTb: #16779).

Mo. nilʸura 메기(?)(DMRF: 661b).

33. ongošoŋ keltege 鯽魚

Ma. ongošoŋ 붕어. 북경 잉어 종류(HM). Ma. keltehe(<Mo. keltege) 붕어 (HM: 738).

Mo. keltege 붕어(MED: 449b). Kh. xelteg 잉어(mo'rog<mögü)와 비슷하고 작은 몸에 배가 큰 물고기의 일종(MXDTT: 2811b). 鯽魚부어 keltege(MY). 鯽魚지위 부어 ongošoŋ(HH).

34. yaru čaʸalʸi 駿魚

Ma. yaru 곤들메기(HM: 1014).

Mo. čaʸalʸi 연어의 일종(Salmo lavaretus)(MED: 158a). Kh. cagaalj 민물에 사는 물고기의 일종으로 큰 것은 팔뚝 길이를 넘는다(MXDTT: 2873b).

35. sarga nimaha jirʸa jiyasu 大駿魚

Ma. sarga nimaha 시베리아 연어(HM: 768).

sarga<sargan 여인(HM: 768).

Mo. jirʸa jiyasu 시베리아 연어(MED: 1059a). Kh. jarga(<jirʸa) 몸이 가늘고 길며 큰 비늘과 작은 머리, 넓은 등은 검푸르고 배는 흰 물고기 (MXDTT: 876a). Klm. džirʸp(zayʸsn) 시베리아 연어의 일종(KW: 112a).

36. geošoŋ ulayan dalba 狗魚

Ma. geošoŋ 곤들메기속의 민물고기로 날카로운 이빨을 가졌고 탐식성이 강하다(HM: 345). 하급의 물고기이고 주둥이가 뾰족하고 이빨이 개의 이빨과 닮았다(WTb: #16783).

Mo. ulayan dalba 붉은 꼬리.

ulayan 붉은+dalba(<dalbaʸ-a). 旗. 돛, 꼬리(MED: 225a). 狗魚꾸위 geošoŋ(HH).

37. curhū čoraʸ-a 狗魚牛宰子

Ma. curhū geošoŋ의 치어. 등이 진한 올리브색이고 배 쪽이 하얀, 날카로운 이빨을 가진 민물고기의 치어(HM: 162).

Mo. čoraʸ-a. Kh. corga(<čoraʸ-a) 붉은 꼬리를 가진 물고기의 치어(MXDTT: 2940b). Bur. surxai 치어 (BOS: 396b)

Ma. curhu 치어. Evenk. čirukaj(<Mo. čiruqai~čiruqai 곤들메기속 민물고기, 강꼬치고기). Sol. sōraldt 치어. Yak. jorokoi~čoroʸoi~čorokoi 치어(TMYa: 400a).

38. horo ūker jiyasu 黑魚

Ma. horo 가물치. 몸이 검고 반점이 있으며 이빨을 가진 하급의 물고기(Ophiocephalus argus, 鰻魚)(HM: 456). Mo. ūker jiyasu. Klm. ūkur zayʸsn 잉엇과의 민물고기(KW: 456b).

ūker 소+jiyasu 물고기 黑魚허위 가물치 horo(HH).

39. hūwara qara jiyasu 黑魚

Ma. hūwara 베도라치(HM: 479). fu nimaha와 유사한 민물고기(WTb: #16786).

hūwara 줄(칼). 베도라치. horo와 동일한 물고기(HM: 479).

滿洲語文學 자료의 현황 및 그 연구와 활용

Mo. qara jiyasu 검은 물고기.

40. meihetu moyai jiyasu 鱈魚

Ma. meihetu 드렁허리. meihe 뱀+tu(집미사)(HM: 647).

Mo. moyai jiyasu 뱀장어.

moyai 뱀+jiyasu 물고기

鱈魚드렁허리 moyai jiyasu(MY). 鱈魚산위 드렁허리 meihetu(HH).

41. šanyan meihetu čayan moyai jiyasu 白鱈

Ma. šanyan meihetu 하얀 드렁허리(HM: 848).

Mo. čayan moyai jiyasu 흰뱀장어.

čayan흰+moyai뱀+jiyasu물고기

42. suwayan meihetu sira moyai jiyasu 黃鱈

Ma. suwayan meihetu 노란 뱀장어(HM: 837) suwayan 노란

Mo. sira moyai jiyasu 노란 뱀장어

sira 노란+moyai 뱀+jiyasu 물고기

黃鱈황산 누른드렁허리 suwayan meihetu(HH).

43. hadara qadara 鱖鱖

Ma. hadara 맑고 찬물에 사는 작은 물고기의 이름(HM: 405). heihule와 비슷하다 (WTb: #16790).

Mo. qadara 사루기(MED: 903a). Bur. kadara(n) 연어(BOS: 530b).

Ma. hadara 연어. Evenk. kadara(< Mo. qadara 연어)(TMYa: 360b).

44. ooca čordo 鰍口

Ma. ooca 눈이 붉고 큰 입을 가진 작은 민물고기(HM: 738).

Mo. čordo 모샘치(Gobio fluviatilis)(MED: 198b). Kh. cord(<čordo). 눈이 붉고 입을 가진 민물고기의 일종(MXDTT: 2921b).

45. duthe čoqor čürke 花點魚

Ma. duthe 비늘에 붉은 점이 있는 대구의 일종(HM: 226).

Mo. č(o)qor čürke. Kh. cooxor cu'rxee(<čooqor čürke). 제벡 (zeveg < jebege)과 비슷하며 반점이 있는 비늘을 가진 물고기의 일종(MXDTT: 2919a). čooqor 반점이 있는(MED: 199b).

46. dafaha dabqa 方口鱖頭

Ma. dafaha 연어. 동중국해로부터 강물을 따라 들어오는 네모난 모양의 입을 가진 도미류(HM: 169). 가족으로 의복이나 신발을 만드는 재료로 쓰인다(WTb: #16793).

Mo. dabq-a 메기류의 물고기(MED: 214a). Kh. davxaa(<dabqa). 잉엇과의 물고기로 등이 녹색을 띠며 배는 은백색, 꼬리는 불그스레한 색이다. 길이는 1미터에 달한다(MXDTT: 618b).

Ma. dafaha 연어. Neg. dawā 연어. Oroč./Ud./Ulč./Orok./Na. dawa 연어(TMYa: 185a).

47. atuha dafaha atuq-a dabq-a 公方口鱖頭

Ma. atuha dafaha의 수컷(HM: 62). atuha 물고기의 수컷+dafaha 연어

Mo. atuqa 물고기의 수컷. Kh. atuux(<atuq-a) 물고기의 수컷(MXDTT: 164a).

48. nuhere dafaha nüger-e dabq-a 母方口鯿頭

Ma. nuhere dafaha dafaha의 암컷(HM: 722). nuhere 7-8개월 된 암캉아지+dafaha 연어
 Mo. nüger-e dabq-a 모캐(DMRF: 699b). *이 魚名은 현대 몽골어 사전에는 등록되어 있지 않다.
 Ma. nuhere (네발짐승의) 새끼. 강아지. 늦잠 자는 아이. Even. nökuken 깜빡 잠들다. Orok. nokpidatta
 선잠을 자다(TMYa: 185a).

49. kiyata dabqoro 擺過子鯿頭

Ma. kiyata 도미의 치어(HM: 591). 산란을 마친 연어(WTb: #16796).
 Mo. dabqoro (jīyasu) 물고기 이름(DMRF: 1606b).
 Ma. kiata 시베리아 연어. Evenk./Neg./Orok. kēta. Even./Na. kēta. Ulč.
 kēta ~kata(TMYa: 389a).

50. ukuri üküri 細鱗稜魚

Ma. ukuri 작은 비늘을 가진 yabsa를 닮은 바닷물고기(!)(HM: 953).
 Mo. üküri 몸이 길고 가는 물고기. Kh. u'xuor 같음(MXDTT: 2343a).
 秀魚 -- üküri(MY).

51. cime čim-a 鯿鮭魚

Ma. cime 붉은 연어. 동중국해에 서식하는 물고기로 강으로도 들어온다(HM: 148).
 Mo. čim-a 물고기의 이름(DMFR). Kh. cham(<čim-a) 몸이 은백색인 물고기의 일종(MXDTT: 2981b).
 Ma. cima ~cime 물고기 이름. Oroč. čume ~čuma 물고기 이름. Ulč. čimada
 물고기 이름(TMYa: 414b).

52. niyekje niyekje 公鯿鮭魚

Ma. niyekje cime의 수컷 niyekje(<niyekeje). cime의 수컷(HM: 717).
 Mo. niyekje 海魚(!)의 이름(DMRF: 666b).
 Ma. niyekje 물고기의 수컷. Evenk. n'ek (단체동물의) 수컷. 종마(TMYa: 651a).

53. muhuru mökörü 母鯿鮭魚

Ma. muhuru cime의 암컷(HM: 672).
 Mo. mökörü (~mükürü). 물고기 이름(DMFR). Kh. mo'xruu 감 물고기(gam zagas)의 암컷(MXDTT:
 1261b). (*gam은 cham의 誤字이다.)

54. nisiha ĵarma jīyasu 小魚

Ma. nisiha 작은 물고기(HM: 710).
 Mo. ĵarma jīyasu 작은 물고기 ĵarma 곡식알. 곱게 빻은 곡물가루(MED: 1038b).
 Kh. zarma(n) 콩(WMD 118b). zaram zagas 1) 길이 60 cm, 무게 5kg 가량의 잉엇과의 고기. 2) 치어
 (MXDTT: 985a). jaraaxai ~jaramgai 치어(MoED: 154b). 아주 작은 물고기. 알에서 나와 처음으로 물고기
 형태를 갖춘 고기(MXDTT: 985a). ~zaraaxai zagas 물 밑바닥에 무리지어 사는 (모든 종류의) 물고기.
 jaraaxai (zagas) 잉엇과의 작은 물고기, 작은 물고기(WMD: 109b).
 Ma. nisikai ~nisiha 작은 물고기. 치어. Evenk. nisi- ~nihi- ~niši- 작은 바늘로 꿰매다. 글씨를 작게 쓰다.
 nišimkūn ~nihimkūn 작은, 얇은(TMYa: 600b).
 小魚 쇼천어 ĵarma jīyasu(MY). 小魚 쇼천어 nisiha(HH).

55. šanyan nisiha čayān jīyasu 黃鯰魚

Ma. šanyan nisiha 뱀어. 배쪽이 흰 민물고기. 배의 기름으로 등불을 지필 때 쓴다 (HM: 848).

Mo. čayān jīyasu 흰 물고기 麵條魚비어 čayān jīyasu(MY).

56. menggun nisiha mōnggūn jīyasu 銀魚

Ma. menggun nisiha 한 뺨 길이의 은백색 물고기. 맛이 좋으며 겨울철에 묵뎌, 천진, 산둥 지방에서 강과 호수가 동결한 후 얼음낚시로 잡는다(HM: 651). menggun(< Mo. mōnggūn) 은(銀).

Mo. mōnggūn jīyasu. mōnggūn 은. jīyasu 물고기

銀魚 -- mōnggūn jīyasu(MY). 銀魚연위 menggun nisiha(HH).

57. heihule čayān jārīm 白鰮魚

Ma. heihule 한 뺨 정도의 크기에 작은 주둥이를 가진 은백색 물고기. 낚시하기 쉬우며 도처에서 볼 수 있다(HM: 427).

Mo. čayān jārīm. Kh. cagaan zaram(<čayān jārīm) 원통형의 몸의 길이는 한 뺨 정도이고 낚시하기 쉬운 물고기의 일종(MXDTT: 2875b). Kh. zaram(<jārīm). 곡식의 낱알. 잘게 빻은 곡식.

Ma. heihule 물고기 이름. Neg. kēje 흰 아무르(물고기). Orok. xojo 타이멘.

Ulč./Na. kuere 흰 아무르(물고기)(TMYa: 445a).

58. ulume montoqai 柳根池

Ma. ulume 황어속(屬)의 일종(HM: 959). 길이가 4-5촌 정도이고 몸이 둥근 작은 민물고기로 송어와 비슷하다(WTb: #16805).

Mo. montoqai. Kh. montooxoi(<montoqai). 연어와 비슷하며 비늘이 작은 민물고기의 일종 (MXDTT: 1237a).

59. erin nimaha čayči jīyasu 鱒魚

Ma. erin nimaha 청어속(屬)의 물고기(culpea alosa)(HM: 259).

Mo. čayči jīyasu. Kh. cagch zagas(<čayči jīyasu) 살이 많고 맛있는 물고기로 xaiga(<qaiya)와 닮았다 (MXDTT: 2879b).

60. farsa qarba-a 葫蘆

Ma. farsa 작고 넓적하게 생긴 혼한 하급의 물고기(HM: 277).

Mo. qarba 담수어의 일종(MED: 935b). Kh. xarva(<qarba) 민물에 사는 작고 넓적한 물고기의 일종 (MXDTT: 2460a). Klm. xarw^p 어류의 일종(잉어속의 치어?) (KW: 171a).

61. kurcin čayān imay-a 觶斗魚

Ma. kurcin 2.3-3cm 가량 되는 비늘이 없고 청흑색 반점이 있는 작은 바닷 물고기의 한 종류(HM: 603).

Mo. čayān imaya. Kh. cagaan yamuu(!)(<čayči jīyasu) 흰색의 몸에 반점이 있고 비늘이 없는 민물고기의 일종(MXDTT: 2876a). (*yamuu는 yamaa의 誤刻이다.)

觶斗魚긴두위 kurcin(HH).

62. yonggan feteku moyai erelji 穿沙魚

Ma. yonggan feteku 모래무지. 모래 속에 몸을 감추는 작은 물고기(HM: 1024).

yonggan모래+feteku무덤

Mo. moyai erelji(=erilji). Kh. mogoi erelj(=moyai erilji). cagaan yamaa (<čavan imaγ-a)와 닮았고, 편평한 머리와 작고 길쭉한 몸을 가졌다. 주둥이 양쪽에 짧은 수염이 달려있다(MXDTT: 1228b).

穿沙魚찬샤위 모래무지 yonggan feteku(HH).

63. hadahan nisiha qadasun jiyasun 船釘魚

Ma. hadahan nisiha 게르치. 나무못처럼 생긴 작은 민물고기(HM: 404).

hadahan 나무로 만든 못+nisiha 작은 물고기.

hadahan은 몽골어로 분석이 가능하여 Mo. qadasun의 차용으로 믿어진다(아래 참고). 접미사 -han은 다음의 만주어 낱말에서도 확인된다: gosihon 불행. giyahūn 사냥매. etuhun 강한. ijishun 순종하는.

Mo. qadasun jiyasun. qadasun 못+jiyasun 물고기. qadasu(n) < qada- 못질하다+su(n) > Ma. hadahan. -han과 마찬가지로 -hūn도 다음의 예와 같이 몽골어 접미사 -sun에 대응한다: Mo. qabtasun 널/판자 = Ma. kapahūn ~ kabcihūn 평평한, 납작한 (HM: 573, 566).

船釘魚찬딩위 상필이 handahan nisiha(HH).

64. fulata nisiha ulanggir nidü 紅睛魚

Ma. fulata nisiha 붉은 눈(目).을 가진 작은 하천어(HM: 313). fulata 눈가가 붉은

Mo. ulanggir nidü. ulanggir 불그스럼한+nidü 눈

65. lakacan nisiha möngke soγosu 大頭釘

Ma. lakacan nisiha 모캐(몸통이 검고 머리가 큰 민물고기)(HM: 612). laka 농어류+can. Evenk. laka 농어류, Neg. laxana 물고기 이름, Oroč. laka 바다농어류, Ud. l'asā(<lakačan) 농어류, Ulč. laka, Na. lāka, Yak. lāka 물고기 이름(TMYa: 487b).

Mo. möngke soγosu. Kh. mo'nx sugas 몸이 검고 머리는 크고 비늘이 있는 담수어의 일종(MXDTT: 1250b).

möngke 영원한. soγosu ~ soγoču 바다에 사는 물고기의 일종(MED: 724a).

66. buduhu qobqo 大船釘魚

Ma. buduhu (aimaha) 미꾸라지과의 담수어(HM: 118). 머리가 크고 꼬리가 뽀족한 5-6촌 길이의 작은 물고기(HH).

Mo. qobqo. Kh. xovx(<qobqo) 몸이 은백색이고 짧은 수염이 입가 양쪽에 나 있는 물고기의 일종 (MXDTT: 2522b).

大船釘魚다찬딩위 buduhu(HH).

67. ulgiyada nisiha saqaltu iralji 癡魚

Ma. ulgiyada nisiha 얼룩무늬가 있는 작은 물고기(HM: 955). ulgiyada(ulgiyan 돼지+da).

Mo. saqaltu iralji. Kh. saxalt yaralj(<saqaltu iralji) 몸에 얼룩무늬가 있고 수염이 달린 민물고기의 일종 (MXDTT: 1721a). saqal 수염+tu 수염이 있는. iralji 잔물결

癡魚반위 어룽고기 ulgiyada nisiha(HH).

68. malanggu nisiha alayan-a soγosu 石鯪魚

Ma. malanggu nisiha 하천의 돌 틈에 서식하는 물고기(HM: 636). malanggu는 malanggū '참깨'의 誤字이다(WTa: 4477 참고).

滿洲語文學 자료의 현황 및 그 연구와 활용

Mo. alayan-a soγosu. Kh. algana(<alayana) 농어의 일종. 녹색색을 띄는 몸은 납작하고 작은 비늘, 등 위에 지느러미 두 개가 있다. 몸통에 수평으로 검은 줄이 있고 민물에 산다(MXDTT: 67a). soγosu~soy oču 바다에 사는 물고기의 일종(MED: 724a).

69. boconggo nisiha altan ĵirasu 金魚

Ma. boconggo nisiha 알록달록한 빛깔의 작은 물고기(HM: 103).

boco 안색. 색+nggo(접미사).

Mo. altan ĵirasu(!) 금붕어. altan 황금 ĵirasu(ĵiyasu의 誤刻) 물고기

金魚긴위 금부어 boconggo nisiha(HH).

70. uyašan moyai ĵiyasu 泥鰱

Ma. uyašan 미꾸라지(HM: 977).

Mo. moyai ĵiyasu. Kh. mogoi zagas(<moyai ĵiyasu) 생김새는 뱀을 닮았고

비늘이 없는 담수어. 황색과 백색 두 종류가 있다(MXDTT: 1228b).

moyai ĵiyasu는 《蒙語類解》에서 鱖魚를 가리키나, 《五體清文鑑》에 서는 泥鰱를 지칭한다(40. moyai ĵiyasu 항 참고).

鱖魚드렁허리 moyai ĵiyasu(MY). 泥鰱니취 밧그리 uyašan(HH).

마치며

이상으로 河魚類70 항목의 만주어와 몽골어 魚名을 살펴보았다. 魚名들을 항목별로 해독하고 만주어 및 몽골어·통구스어 사전들에 등록되어 있는 魚名의 어형들도 비교하여 고찰하였다. 그 결과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1) 47 항목은 음운적으로나 의미론적으로 만주-통구스계 어와 무관한 불일치를 보인다. 즉 몽골어 魚名은 만주-통구스어들에 영향을 받지 않고 독자적으로 만들어진 것으로 판단된다.

1. ĵiyasu, 2 aburyu~qorbo, 3 kilime, 4 tulu, 5 tulbaγa, 6 ĵibege, 7 qoi, 8 qar-a amur, 9 altan qačar, 11 doγdor, 12 mörgü, 13 salbarsu, 14 mököče, 15 okin γubai, 16 amur, 18 ulayan nidü, 20 dabqurul, 22 qara qaiγ-a, 23 ulayan segül, 24 qarbal, 26 čulburtu, 27 qotar ĵiyasu, 30 akiyad, 32 nilγur-a, 33 keltege, 34 čaγalĵi, 35 ĵirya ĵiyasu, 36 ulayan dalba, 37 čoray-a, 38 üker ĵiyasu, 39 qara ĵiyasu, 44 čordo, 45 čoqor čürke, 49 dabqoro, 57 čayan ĵarim, 58 montoqai, 59 čaγči ĵiyasu, 60 qarb-a, 61 čayan imay-a, 62 moyai erelĵi, 65 möngke soγosu, 66 qobqo, 67 saqaltu iralĵi, 68 alayan-a soγosu, 69 altan ĵirasu, 70 moyai ĵiyasu

(2) 7 항목에서는 번역차용이 관찰된다.

40 moyai ĵiyasu, 41 čayan moyai ĵiyasu, 42 sira moyai ĵiyasu, 54 ĵarma ĵiyasu, 55 čayan ĵiyasu, 64 ulanggir nidü, 29 üker segül.

(3) 3 항목은 부분차용의 예로 보인다.

28 šangqan ĵiyasu, 63 qadasun ĵiyasu, 56 mönggün ĵiyasu

(4) 13 항목은 두 언어의 어휘가 음운적·의미적 일치를 보이고 있다.

10 taqu, 17 küre, 19 ooq-a, 21 qaiγ-a, 25 laq-a, 31 akiya, 43 qadara, 46 dabqa, 47 atuq-a dabq-a, 48 nüger-e dabq-a, 50 üküri, 51 čim-a, 52 niyekje, 53 mökörü

(5) Mo. V+b+C : Ma. V+ft+C

기존의 Mo. V+b+V : Ma. V+ft+V 외에 Mo. V+b+C : Ma. V+ft+C가 관찰되었다. 기존에는 모음 사이 또는 말음 위치에서 일어나는 현상이었으나(VGAS: 42 참고), 본 연구는 모음과 자음 간의 위치에서도 발생할 수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었다.

Mo. dabqa : Ma. dafaha(3회 등록)

(6) Mo. -sun : Ma. -han ~ -hun

몽골어 접미사 -sun은 만주어 접미사 -han ~ -hun과 대응한다.

Mo. qadasun (jīyasun) : Ma. hadahan (nisiha)

약어 풀이

Bur.	부랴트몽골어	BOS	Cheremisov(1973)
Even.	어원어	DMF	Smedt et Mostaert(1933)
Evenk.	어윙키어	DMRF	Kowalewski (1964)
Kh.	할하몽골어	DO	Mostaert(1968)
Klm.	칼릭몽골어	HH	延禧大學校出版部(1956)
Ma.	만주어	HM	Hauer (1952)
Mo.	몽골문어	KW	Ramstedt (1976)
Mong.	몽구오르몽골어	MED	Lessing(1982)
Na.	나나이어	MoED	Bawden(1997)
Neg.	네기달어	MXDTT	Bold(2008)
Oroč.	오로치어	MY	서울大學校出版部(1971)
Ord.	오르도스몽골어	TMYa	Cincius(1977)
Orok.	오로크어	VGAS	Poppe(1960)
Sol.	솔론어	WDM	Vietze(1988)
Ud.	우데허어	WTa	五體清文鑑(1957)
Ulč.	울차어	WTb	田村實造외(1966)
Yak.	야쿠트어		

참고문헌

蒙語類解(影印)(서울大學校古典叢書). 1971. 서울: 서울大學校出版部.
 五體清文鑑(影印)(故宮博物院藏). 1957. 北京: 民族出版社.
 金洪錫. 2001. 牛海異魚譜에 나타난 借字表記法研究—魚名을 중심으로—. 語文研究 29-1. 100-134. 韓國語文教育研究會.
 延禧大學校出版部. 1956. 韓漢清文鑑(國故叢刊第十). 서울: 延禧大學校東方學研究所.
 최형원. 2012a. 御製五體清文鑑에 나타난 馬名考察—만주어와 몽골어를 중심으로—. 中央아시아研究 17-1. 89-122. (사)중앙아시아학회.

- 최형원. 2012b. 蒙語類解에 나타난 동물관련 어휘 검토—가축 이름을 중심으로—. 몽골학 32. 299-325. 한국몽골학회.
- 田村實造, 今西春秋, 佐藤長. 1966. 五體清文鑑譯解. 京都: 京都大學文學部內陸アジア研究所.
- Bawden, C. 1997. *Mongolian-English dictionary*. London: Kegan Paul International.
- Bold, L. 2008. *Mongol xelnii delgerengui tailbar toli* (tavan boti). Ulaanbaatar: Bembi San.
- Cheremisov, K. M. 1973. *Buryad-Orod slovari*. Moskva: Sovietskaya enciklopediya.
- Cincius, V. I. 1977. *Sravnitel'nyj slovar' tunguso-man'čjurskikh jazykov I-II*. Leningrad: Nauka.
- Doerfer, G. 1985. *Mongolo-Tungusica* (Tungusica Bd. 3). Wiesbaden: Otto Harrassowitz.
- Haenisch, E. 1962. *Wörterbuch zu Mangol un Niuca Tobca'an* (Yüan Ch'ao Pishi) *Geheime Geschichte der Mongolen* (Unveränderter Nachdruck der 1939 im Verlag Otto Harrassowitz Leipzig erscheinenden Ausgabe). Wiesbaden: Franz Steiner.
- Hauer, E. 1952. *Handwörterbuch der Mandschusprache*. Wiesbaden: Otto Harrassowitz.
- Kortlandt, F. 1998. Are Mongolian and Tungus genetically related?. *Acta Orientalia Academiae Scientiarum Hungaricae* 51. 235-237. Akadémiai Kiadó.
- Kowalewski, J. É. 1964. *Dictionnaire mongol-russe-français tome I-III* (Reprint of 1844-1849 edn.). New York: Paragon book Reprint.
- Lessing, F. (ed.). 1982. *Mongolian-English dictionary* (corrected re-printing of 1960 edn.). Bloomington, Indiana: The Mongolia Society.
- Mostaert, A., C. I. C. M. 1968. *Dictionnaire Ordos*. seconde édition. (first edn 1941). New York & London: Johnson reprint corporation.
- Möllendorff, P. G. von. 1892. *A Manchu grammar with analysed texts*. Shanghai: American Presbyterian Mission Press.
- Poppe, N. 1954. *Grammar of written Mongolian*. Wiesbaden: Otto Harrassowitz.
- Poppe, N. 1960. *Vergleichende Grammatik der altaischen Sprachen Teil I Vergleichende Lautlehre*. Wiesbaden: Otto Harrassowitz.
- Ramstedt, G. J. 1976. *Kalmückisches Wörterbuch* (Zweite, unveränderte Auflage, *Lexica Societas Fenno-Ugricae* III) (first edn. = 1935). Helsinki: Suomalais-Ugrilainen Seura.
- Rybatzki, V. 1996. Fish in The secret history of the Mongols. *International journal of Central Asian studies* 1. 1-19. Seoul: Institute of Asian Culture and Development.
- Smedt, A. de, C. I. C. M. et Mostaert, A., C. I. C. I. M. 1933. *Le dialecte monguor: parlé par les mongols du kansou occidental. IIIe partie. dictionnaire monguorfrançais*. Pei-p'ing: Imprimerie de l'université Catholique.
- The Academy of Science MPR (ed.). 1990. *Information Mongolia*. Oxford: Pergamon Press.
- Vietze, H.-P. 1988. *Wörterbuch Mongolisch-Deutsch*. Leipzig: VEB Verlag Enzyklopädie.
- Монгол Контент ХХК. 2012. Монгол кирил үсгийн латин хөрвүүлгийн шинэ стандарт батлагдлаа. <http://news.gogo.mn/r/101115>. (3 October, 2012.)

『니산사만전』의 제판본과 그 내용 비교

신상현(고려대)

1. 서론

『尼山薩滿傳』은 동북아시아에 거주하는 만주족을 비롯한 어원키족[鄂溫克, Tungus Evenki 혹은 Solon으로도 부름], 오로촌족[鄂倫春, Orochon], 나나이족[赫哲族, Hezhe로도 부름], 다구르[達斡爾族, Daur로도 부름] 등 동북아시아에 거주하는 여러 민족 사이에서 전해지던, ‘니시하이강(nisihai bira)’ 기슭에 살았다는 한 여자 사만인 ‘니산(nišan)’에 대한 이야기이다. 그렇기 때문에 ‘니산’이라는 단어는 각 민족에 따라 조금씩 다르게 불렸는데, 만주족은 nišan[尼山]·yin-jiang[音姜]·ningsan[寧三] 등으로, 어원키족에서는 nishang[尼桑], 오로촌족에서는 nishun[尼順] 또는 nihai[尼海], 나나이족에서는 yixin[一新]으로 불리며 전승되었다.¹⁾ 그러던 것이 만주족에 의해 만주 문자로 기록되어 여러 이본을 생성하면서 오늘에 전해지고 있는데, 만주문자로는 ‘nišan saman i bithe’로 표기하였다.

그 내용은 크게 서두, 니산의 返魂 곳, 곳이 끝난 다음의 이야기의 세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다. 서두에서는 로로(lolo)라는 마을에 사는 발두 바얀(baldu bayan)이라는 부자와 그의 아들 서르구다이 피양고(sergudai fiyanggo)의 죽음, 그리고 죽은 아들 피양고를 소생시키기 위해 니산을 찾는 것으로 구성되어 있다. 두 번째 부분은 니산의 반혼 곳으로, 피양고의 혼을 되찾기 위해 니산의 영혼은 저승으로 여행을 가게 되고, 염라왕의 차사와 흥정하여 반혼에 성공하는 대신, 지옥에서 만난 죽은 남편을 영원한 죽음과 천벌을 받는 풍투성에 가두고 돌아오게 된다. 세 번째 부분은 곳이 끝난 다음의 이야기로, 남편을 풍투성에 가두고 왔다는 말을 시어머니가 듣고 관가에 고발하게 되고, 太宗 황제가 신모, 요령, 북 등의 무구와 함께 니산을 우물에 매장하게 하는 벌을 내린다.

이와 같은 『尼山薩滿傳』은 20세기 초로 접어들면서 러시아 학자 그레벤쉬치코프(A. V. Grebenščikov, 1880-1941)에 의해 발굴되어 1908년, 1909년, 1913년의 3차례에 걸쳐 3종류의 手稿本²⁾이 소개되면서 세상에 알려지게 되었다. 1908년에 소개한 것을 ‘제1 手稿本=치치하얼[齊齊哈爾]본’, 1909년에 소개한 것을 ‘제2 手稿本=아이훈[璦琿]본’, 1913년에 소개한 것을 ‘제3 手稿本=블디보스톡[海參威]본’이라 부르며, 이 가운데

1) 최준, 「니산 샤먼의 저승 여행」, 『동아시아고대학』 21집, 동아시아고대학회, 2010, 348쪽 참조.

2) ‘手稿本’이라는 명칭이 어디서부터 나왔는지는 명확하지 않으나, 그레벤쉬치코프가 발견한 것을 구별하기 위해 사용한 것으로 추정된다. 그러나 1990년대 이후부터는 특히 중국을 중심으로 이 명칭을 거의 사용되지 않고 있다. 이 글에서는 혼동을 피하기 위하여 ‘手稿本’이라는 명칭도 함께 사용한다.

제3 수고본의 내용이 가장 완전성을 지니고 일관된 문체로 기술하고 있어 일찍부터 세계적인 주목을 받아 여러 나라의 언어로 번역되었을 뿐만 아니라 연구가 진행되었다.³⁾ 그 뒤에 기존에 소개된 것과 차이가 나는 판본이 중국 사회과학원 민족연구소 소장본이 공개되었으며, 러시아 학자 스타리코프(V. S. Starikov, 1917-1987)의 수집본이 그의 사후에 스탈린도서관에 기증되었는데, 그 가운데에서 『尼山薩滿傳』이 발견되어 야크혼토프(Yakhontov)가 러시아어로 전사하고 번역하여 『<尼山薩滿>研究』로 간행하였다.

이 글은 이와 같이 다양한 판본을 가지는 『尼山薩滿傳』의 판본을 체계적으로 정리하기 위한 기초적 조사 작업의 일환으로 작성하였다. 먼저 현재까지 발견된 제 판본에 대해서 개략적으로 서술하고, 이를 바탕으로 각 판본의 특징에 대해서 살펴보았다. 그리고 제 판본 사이의 내용이 어떠한 양상으로 구성되어 있는지 개략적으로 비교해 보았다.

2. 諸板本の 양상

1) 제1 手稿本 = 치치하얼(齊齊哈爾)본

치치하얼[齊齊哈爾]본은 1908년 만주 문학을 전공 교수 그레벤쉬치코프(A. V. Grebenščikov)가 치치하얼 동북쪽에 있는 머이서르(meiser) 마을의 넨데산 친커리(néndéšan čžinkeri)라는 만주인으로부터 입수하였다. 그는 만주 지역에 ‘nišan saman i bithe’라는 책이 있다는 소식을 듣고 만주 각 지역을 다니면서 구하였으나, 쉽게 구하지 못하고 있다가 다행히 2개의 필사본을 구할 수 있었는데, 이것은 그 중의 하나이다. 치치하얼본은 모두 23면으로 되어 있는데, 크기는 17cm×8.3cm이고, 각 면은 5행으로 되어 있으며, 한지에 먹으로 쓰여 있다. 치치하얼 지역에서 발견되었기 때문에 ‘치치하얼본’으로 부른다.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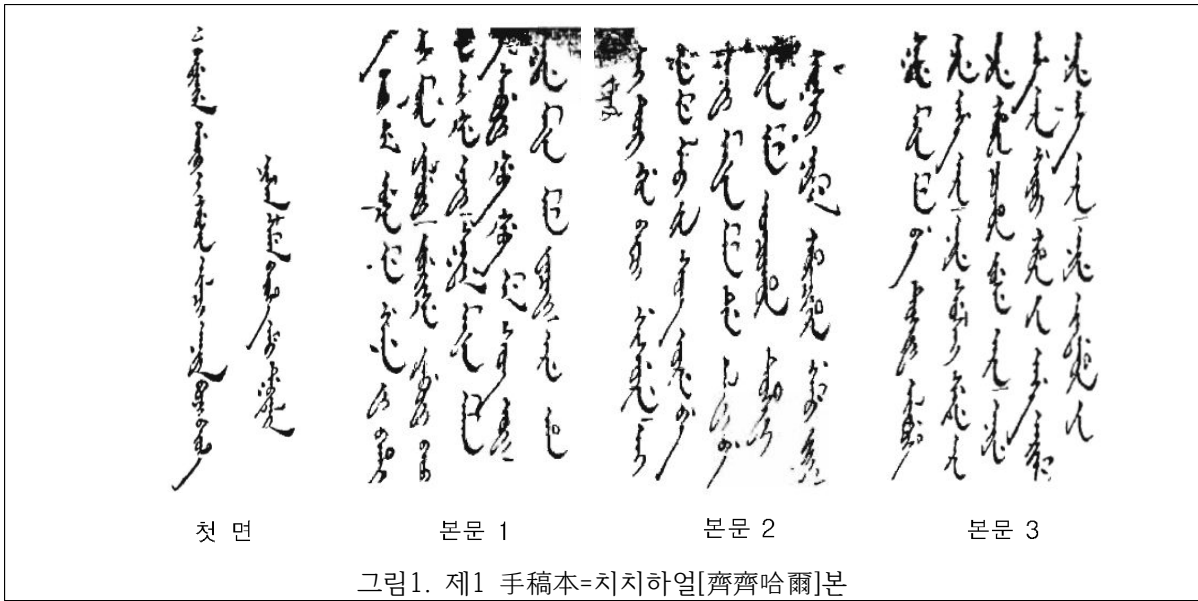
3) 『尼山薩滿傳』에 대한 국내의 연구는 1974년에 成百仁이 불디보스톡[海蔘威]본을 한국어로 번역하면서 널리 알려지기 시작하였다. 그러나 그 뒤에 이 텍스트를 바탕으로 활발한 연구가 진행되지는 못하였고, 약간의 전문 연구논문이 있을 뿐이다.

成百仁, 『滿州 샤만 神歌 : Nišan saman i bithe』, 서울: 明知大學出版部, 1974. ; 재관, 서울: 제이앤씨, 2008.

김영일, 「<니산>샤만巫歌의 비교연구 : ‘바리데기’의 원형재구를 위한」, 『한국문학이론과 비평』 8집, 한국문학이론과 비평학회, 2000, 144-170쪽.

최준, 「니산 샤만의 저승 여행」, 『동아시아고대학』 21집, 동아시아고대학회, 2010, 343-370쪽.

4) 성백인, 상계서, 2쪽 참조.



치치하얼본의 첫 면에는 “badarangga doro i gosin ilaci aniya boji bithe nitsan tsamen bithe emu debtelin(光緒 33년(1907) 문서, 니산 사만 글 1권)”로 되어 있어 광서 33년에 기록된 것임을 알 수가 있다. 그 구성에 있어서는 노복들이 yuwan wai(員外)의 아들이 죽었다는 소식을 전하는 부분에서부터 시작하여 사만이 저승에 가서 원외의 아들을 구해 나오는 데에서 끝나고 있다. 그런데 이것은 ‘제3 手稿本=블디보스톡[海參威]본’과 비교했을 때, 전체 내용 가운데 앞부분과 뒷부분이 생략된 것일 뿐만 아니라 그 내용을 간략하게 줄거리만을 기록하여 세밀한 묘사를 생략하고 있어 대조적이다.⁵⁾ 또한 치치하얼 지역의 방언으로 생각되는 만주어 어휘가 상당수 포함되어 있고, 어휘를 표기할 때에 음절을 나누어 기록한 부분이 발견되고 있어 흥미롭다.

- (1) be bao (boo) de usa me (usame) gene fi (genefi), bahr ji (bahalji) morin yalufi,
 을 집 에 탄식하며 가서 bahalji 말 타고
 juriše (julesi) yabufi, boo de i še nafi (isinafi), sakda mafa mama be sabufi
 앞으로 가서 집 에 이르러서 늙은 조부 조모 를 보고
 šeb šeb me (seb sab) song ofi (songgofi), sakda mafa mama fancafi, ere aha
 딱 딱 울고 늙은 조부 조모 화내며 이 노복
- (2) ai jergi tur gun (turgun) bici gisure, ai ne me (ainame) lao jin song ore (songgore)
 어떤 종류 이유 있으면 말하라 대체로 lao jin 울기
 be nafi (nakafi) mafa mama de elfi (alafi) be mafa mama oncohün (oncohon) tuhefi,
 를 그치고 조부 조모 에 이야기하기를 조부 조모 크게 쓰러지고
 tokso niyame (niyaman) hūncihün (hūncihin) gemu jifi
 마을 친척 동족 모두 와서

2) 제2 手稿本=아이훈[瑯璪]본

5) 본문의 맨 첫 부분이 ‘be ……’ 로 시작하고 있고, 마지막 부분도 이야기가 중간에 끊어져 있기 때문에 이와 같이 추정하고 있다.

아이훈[璦琿]본도 그레벤쉬치코프에 의해 수집되었는데, 1909년에 아이훈[璦琿] 지역에 살던 만주인 desinge에게서 입수하였다. 그레벤쉬치코프 교수가 처음 소개한 것은 1권이었는데, 뒤에 누군가에 의해 1권이 더 추가로 소개되어졌으며, 이 2권의 책은 동일한 것으로 알려졌으나, 1985년 이탈리아에서 영인본이 공개되면서 전혀 다른 별개의 판본임이 밝혀졌다.⁶⁾ 이것은 2종류의 책 첫 면에 소장자로 추정되는 ‘里圖善’이라는 인장이 찍혀 있었기 때문에, 그 내용도 같은 것으로 추정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이후 중국을 중심으로 하여 연구가 진행되어 ‘아이훈[璦琿]1본’과 ‘아이훈[璦琿]2본’으로 구별하여 부르고 있다.⁷⁾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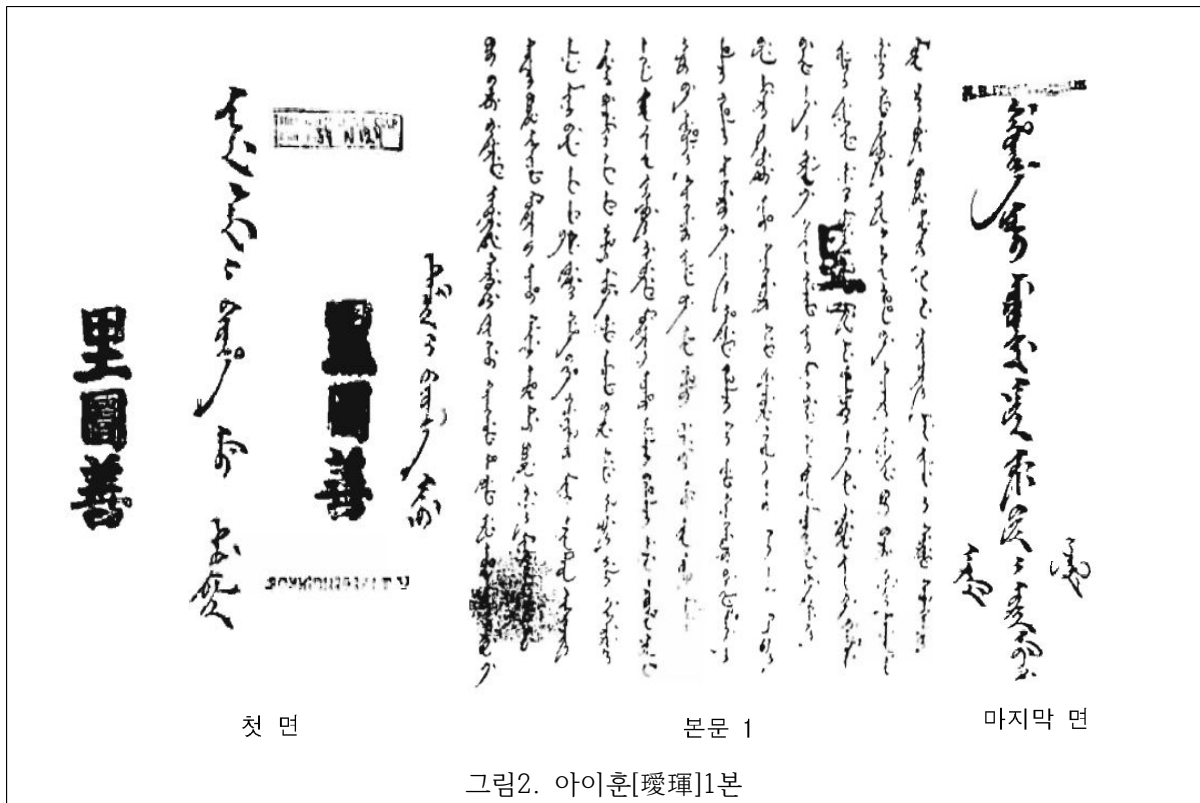
① 아이훈[璦琿]1본

아이훈[璦琿]1본은 모두 33면으로 되어 있고, 크기는 24cm×21.5cm이며, 각 면은 12행으로 되어 있다.⁸⁾ 첫 페이지에 소장자로 추정되는 ‘里圖善’이라는 인장이 찍혀 있으나, 그가 누구인지는 확실하지 않다. 또 만주어로 서명인 “yasen saman i bithe emu debtelin(yasen 사만의 글 1권)”과 글을 쓴 사람으로 추정되는 “decin i bithe inu(decin의 글이다)”라고 쓰여 있으며, 마지막 면에는 “gehungge yoso sucungga aniya juwe biya i orin emu de arame wajiha(宣統 元年(1909) 2월 21일에 짓기를 마쳤다)”라고 쓰여 있어 지은 연대를 알 수가 있다. 이것 역시 ‘제3 手稿本=블디보스톡[海參威]본’과 비교했을 때, 치치하얼본과 마찬가지로 전체 내용 가운데 앞부분과 뒷부분이 생략되어 있다. 그러나 내용의 묘사에 있어서는 치치하얼본보다 훨씬 세련된 문체로 세밀하게 묘사하고 있으며, 비록 이 지역의 방언이 상당 수 포함되어 있기는 하지만 표준적인 만주어 표기법을 따르고 있다.

6) 성백인 선생에 의해 한국어로 번역된 『滿文 니산 巫人傳』에서도 동일한 판본으로 소개하고 있는데, 1974년에 처음 번역할 때에는 이탈리아에서 영인된 아이훈[璦琿]2본이 아직 소개되지 않았기 때문이었던 것 같다.(성백인, 상계서, 3쪽 참조.)

7) 趙志忠, 『薩滿的世界-尼山薩滿論-』, 沈陽: 遼寧民族出版社, 2001, 16-30쪽 참조.

8) 성백인, 상계서, 3쪽 참조.



boo baru bedereme jiderede sergudi fiyanggo(sergudai fiyanggū) songgome hendume juwe
 집 쪽으로 돌아 올 적에 sergudi fiyanggo 울며 말하되 두
 ahūn mini arbun be
 형 나의 모습 을
 tuwci boode isiname muterakū oho. suweni ahūn deo boode genefi mini ama eme de
 보면 집에 이르지 못하게 된다 너희 형 제 집에 가서 나의 父 母 에게
 alana. mini beye ama eme be fudeki sehe bihe gūnihako(gūnihakū). mini erin ton isinjifi
 알리라 내 몸 父 母 를 보내자 하였었다 생각하지 않았다 나의 時 運數 다다라서
adasi(aldasi) bucembi. ama eme bono mimbe ume amcame baire seme hendufi geli gisureci
 도중에 죽는다 父 母 우박 나를 推問하며 찾지 말라 하고 말하고서 다시 말하면
 angga jain(juwa) jafabufi gisureme muterakū oho. ahalji bahalji geren cooha niyalma
 입 들 잡혀서 말하지 못하게 된다 ahalji bahalji 여러 군대 사람
 kiyoo be uhulefi songgoro jilgan be alin holo urembi. emu erin oho manggi
 轎 를 둘러싸서 우는 소리 를 산 골짜기 슬퍼한다 한 때 된 후에
 ahalji bahalji songgoro be nakafi hendume, bahalji si ume songgoro. beile age i
 ahalji bahalji 우는 것 을 멈추고 말하되, bahalji 너 울지 말라 貝勒 형 의
 beye emgeri udu oho, songgoro seme weijure kooli akū. si amala tutafi
 몸 한번 비록 되었고, 우는 것 해도 사는 경우 없다 너 뒤로 남겨져서
 beile age i giran be saikan gajime jio. mini beye te juwan moringgabe gaifi
 貝勒 형 의 주검 을 좋게 가지고 오는가 나의 몸 이제 열 말탄 이를 구해서

② 아이훈[瓊瑋]2본

아이훈[瓊瑋]2본은 모두 21면으로 되어 있고, 크기는 미상이며, 각 면은 11행으로 되어 있다.9) 첫 면에 제목이 “nitsan saman i bithe jai debtelin(nitsan 사만의 글 두 번째

권)” 쓰여 있고, 그 왼쪽에 소장자로 추정되는 ‘里圖善’이라는 인장이 찍혀 있어 아이훈 1본과 소장자가 같음을 알 수가 있으며, 그 오른쪽에 ‘里圖善’을 만주어로 음차하여 ‘li tu šn’이라고 적고 있다. 두 번째 면에는 왼손에 북채와 오른손에 작은 북을 들고 있는 nišan의 모습이 그려져 있고, 그 옆의 좌우에는 ‘nitsan sama’라고 만주어로 적혀 있다. 마지막 면에는 “gehungge yoso sucungga aniya ninggun biya i orin nadan inenggi de arame wajihe bithe(宣統 元年(1909) 6월 27일에 짓기를 마친 글)”이라고 쓰여 있어 아이훈1본과 비슷한 시기에 지은 것임을 알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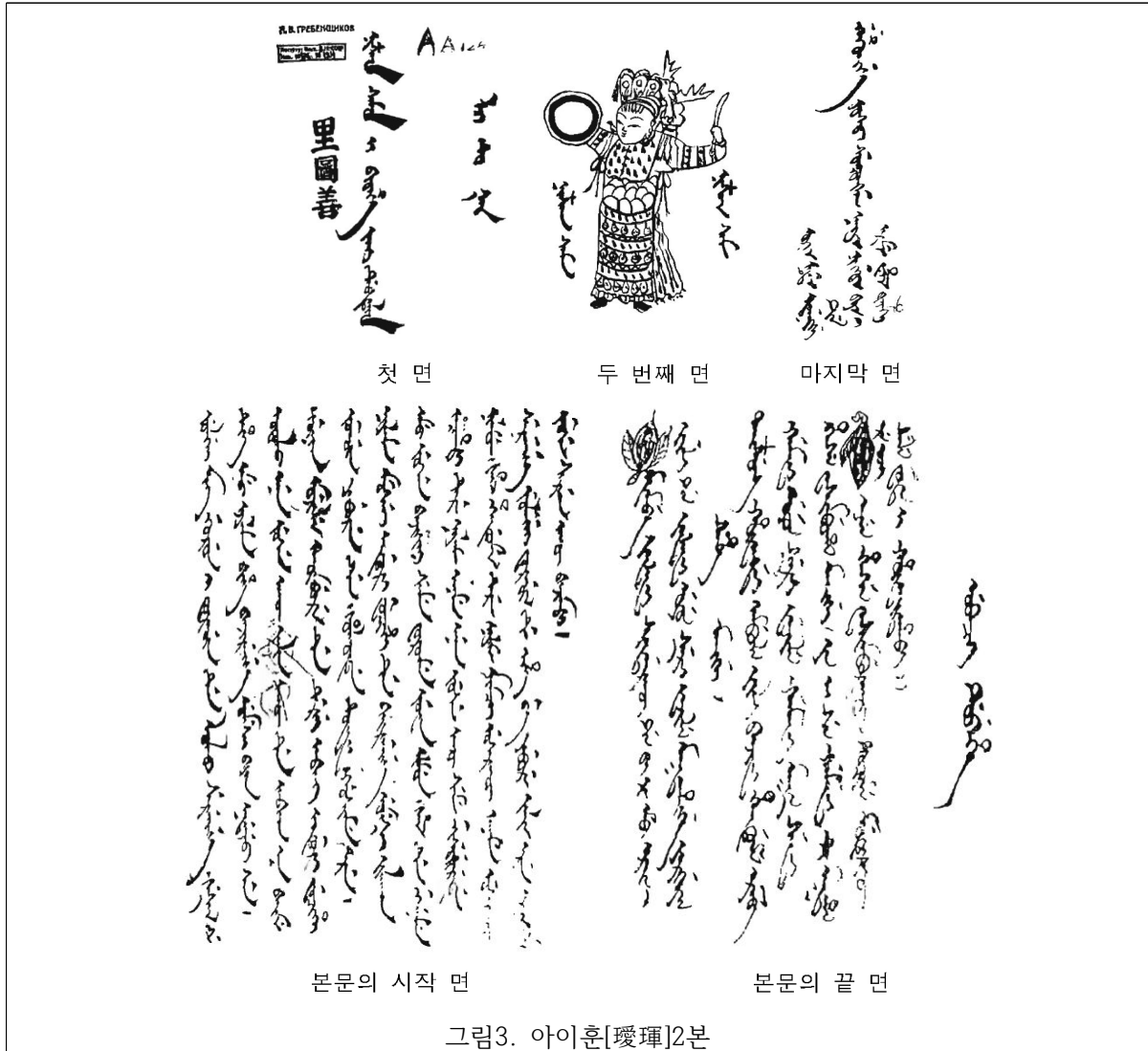


그림3. 아이훈[瓊瑋]2본

julgei ming gurun i forgün de lolo serengge gašan de
 옛 明 나라 의 시기 에 lolo 하는 것의 마을 에
 tehe emu niyalma bihe. banjirengge umesi bayan nandanju se
 산 한 사람 있었다 사는 것 매우 부유 70 세
 otolo enen juse akū [jalin akū] de abka na baime
 되도록 자손 아들 없음 [이유 없음] 에 하를 땅 구하고
 gūnin mujilen akūmbure de dergi abkai enduri fucihi

9) 성백인, 상계서, 3쪽 참조.

생각 마음 다함 에 위 하늘의 신 부처
 jugūn yabure de holkode(holkonde) tuwafi gosime ere
 길 감 에 홀연히 보고서 불쌍히 여기고 ‘이
 niyalma musei enduri fucihi de bairengge umeši(umesi) jilaka
 사람 우리의 신 부처 에 바라는 것 매우 가엾다
 emu juse banjikini seme forome juwan ilmun han de geneme
 한 아들 낳게 하자 하고 향하여 10 염라 왕 에 가서
 acahabi. tere niyalma aname enen juse akū seme gisurede
 만났다 저 사람 마저 자손 아들 없다 하고 말함에
nilmun han(ilmun han) hendume tere niyalma mimci(minci) usarakū aname usarakū
 염라 왕 말하기를 저 사람 나부터 미워않는다 두루 미워않는다
 serengge julergi forgūn(forgon) de ehe be yabure jalin ere erin de
 하는 것 앞의 시기 에 악 을 행하는 까닭 이 때 에
juse sargan(sargan jui) akū banjimbi.
 아들 딸 없이 산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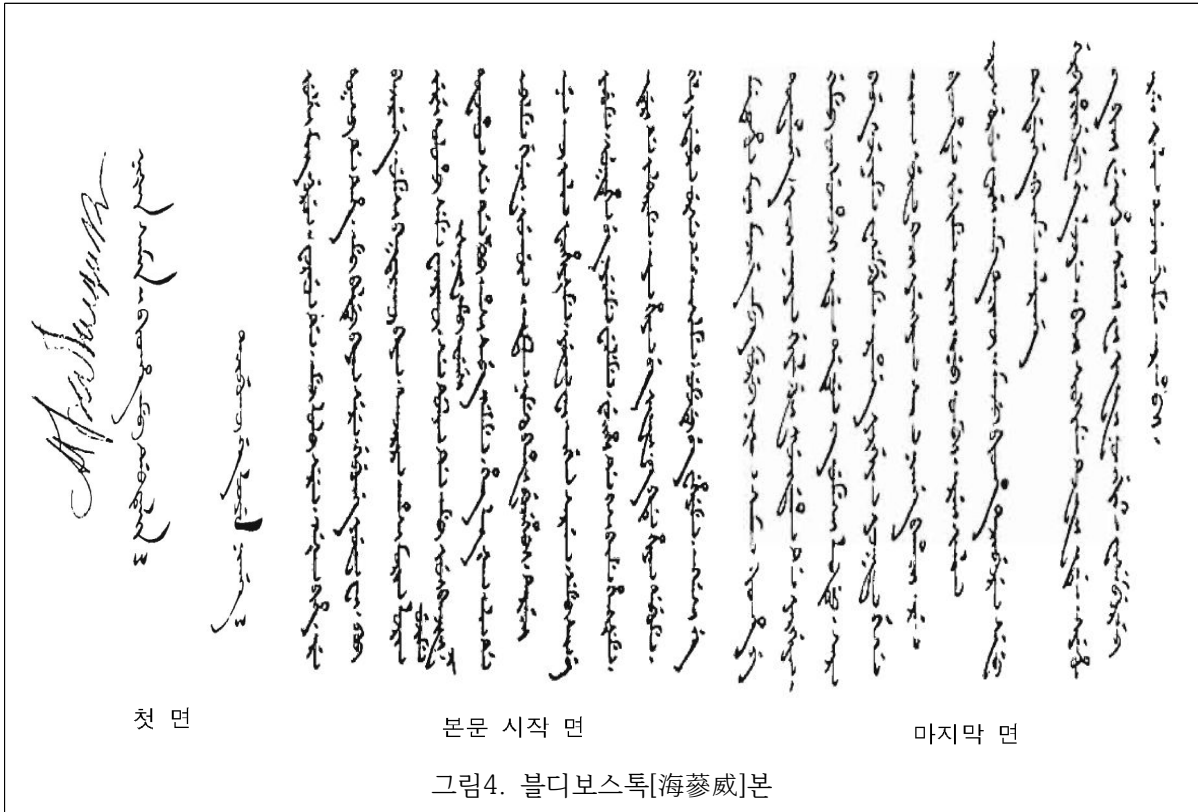
3) 제3 手稿本 = 블디보스톡[海蔘威]본

블디보스톡[海蔘威]본도 그레벤쉬치코프에 의해 1913년에 처음 소개되었는데, 모두 93면으로 되어 있고, 크기는 21.8cm×7cm이며, 앞부분의 59면은 10행으로 되어 있으나 뒷부분의 23면 11행으로 되어 있다. 첫 면에 제목이 “nišan saman i bithe emu debtelin(nišan 사만의 글 1권)”이라 되어 있고, 그 옆에 ‘tacibuū ge looye ningge(교수 ge 老爺의 것)’이라고 되어 있다. 그레벤쉬치코프는 블디보스톡본을 소개하면서 그 서문에서 1913년 dekdengge가 블라디보스톡에서 필사하여 그에게 보냈다고 밝히고 있으며¹⁰⁾, 이를 뒷받침하듯이 본문의 맨 끝 면에 dekdengge가 그레벤쉬치코프에게 올리는 글이 적혀 있다.

mentuhun mini majige amba muru nišan saman bithe be tuwahangge, jaci aniya giyalabufi
 어리석은 나의 조금 큰 도리 nišan 사만 글 을 본 것 매우 해 떨어져
 goidaha de yargiyan i gemu onggohobi, eden dadun ba umesi labdu, sara babe gūnime
 오래됨 에 정말로 모두 잊었다 부족 갖추지 못한 바 매우 많다 아는 바를 생각하고
 fisembume arahangge yargiyan, yokta(o?) gese aika gūwa baci yu(o)ngkiyan sain ningge
 떠올려 쓴 것 사실 yokta(?) 같이 만약 다른 곳에서 완비한 좋은 것
 bahaci ere bithede jukime araci inu ombi, erei jalin oros gurun wargi amba tacikū
 얻으면 이 글에 메꾸어 쓰면 또한 된다 이를 위하여 러시아 나라 서쪽 큰 학교[대학]
 manju bithe tacibure sefu dekdengge i baima alarangge gerbincig‘ufu ge looye i baci
 만주 글 가르치는 師傅 dekdengge의 구해서 알리는 것 gerbincig‘ufu ge 老爺 의 곳에서
 sibkime tuwafi eden ekiyehun ba bici wesihun galai fi jafafi nonggime fisembureo
 상고하여 보고 부족 빠진 곳 있으면 귀한 손으로 筆 잡고 더하고 부연해 쓰세요
 erei jalin donjibume arahabi.
 이를 위하여 들어보도록 지었다

10) 그레벤쉬치코프의 이 기록으로 인하여 이후로 이 제3 手稿本을 ‘블디보스톡[海蔘威]본’으로 부르고 있다.(성백인, 상계서, 3-4쪽 참조.)

이와 같은 본문 내용으로 볼 때, 블디보스톡 지역에서 전해져 오던 ‘nišan saman bithe’를 dekdengge가 예전에 보았는데, 그레벤쉬치코프가 ‘nišan saman bithe’를 구한다는 소식을 접하고 나서 예전에 보았던 책의 내용을 되살려 다시 기록하여 그레벤쉬치코프에게 보냈다는 것이다. 그러나 한 가지 의문은 그 과정에서 dekdengge의 첨삭이 없었을까 하는 것인데, 이것은 앞서 살펴본 다른 판본들과의 내용의 세밀한 묘사에 있어서 차이가 너무 많이 발생하고 있기 때문이다.¹¹⁾ 또 성백인 선생이 제기한 것처럼 블라디보스톡본에서 사용된 필체들을 대조해 볼 때, 필사자가 dekdengge가 아닌 그레벤쉬치코프일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는 일이다.¹²⁾



이와 같이 그레벤쉬치코프가 소개한 블디보스톡본은 세계 각국의 언어로 번역이 되어 출판되기에 이르렀고, “尼山學”이라는 별도의 학문 영역을 만들 정도로 그 파급력이 막강하였다. 각국의 언어로 번역된 것들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1) Волкова, М. П. Нишань самани ытхэ: предание о нишанской шаманке, Москва, 1961.
- (2) 成百仁, 『滿州 샤만 神歌 : Nišan saman i bithe』, 서울: 明知大學出版部, 1974. ; 재판, 서울: 제이앤씨, 2008.
- (3) Margaret Nowak and Stephen Durrant. The tale of the Nišan Shamaness : A Manchu Folk Epic, Seattle, 1977.

11) 그 반대의 경우도 배제할 수는 없으나, 현재로서는 dekdengge가 처음 보았다는 ‘nišan saman bithe’의 내용을 알 수 없기 때문에, 이러한 의문 제기는 당연하다 하겠다.

12) 성백인, 상계서, 3-5쪽 참조.

- (4) 莊吉發, 『尼山薩滿傳: Nišan saman i bithe』, 台北: 文史哲出版社, 1977.
- (5) Giovanni Stary. Viaggio nell' Oltretomba di una sciamana mancese, Florence, 1977.
- (6) Wolfgang Seuberlich, "Die mandschurische Sage von der Nisan-Schamanin", Fernöstliche Kultur: Wolf Haenish zugeeignet von seinem Marburger Studienkreis, hrsg. u. bearb. von Helga Wormit, Marburg, 1975.
- (7) 賀靈, 「《尼山薩滿》一扮研究薩滿教的重要文獻-附譯文」, 『新疆師範大學學報』, 1985年2期, 141-142.
- (8) 齊車山, 「尼山薩滿-根據一九六一年莫斯科版本譯」, 『新疆師範大學學報』, 1985年2期, 143-160.
- (9) Melles, Kornélia Nisan sámánnõ: mandzsu vajákos szövegek, Prométheusz könyvek, Budapest: Helikon, 1987.
- (10) 愛新覺羅 烏拉希春, 「nišan saman(尼山薩滿)」, 『滿族古神話』, 內蒙古人民出版社, 1987.
- (11) 河內良弘, 「ニシャン・サマン傳譯註」, 『京都大學文學部研究紀要』, 1987, 141-230.
- (12) 德克登額·張華克, 『尼山薩滿全傳』, 映玉文化出版, 2007.
- (13) 荊文禮·富育光編, 『尼山薩滿傳(上, 下冊)』, 吉林人民出版社, 2007年12月.

4) 민족연구소본

민족연구소본은 1950년대 중국에 분포한 다양한 민족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동북 지역에서 발견된 것으로, 중국 사회과학원 민족연구소 도서관에 소장되어 있다. 모두 26면으로 각 면은 12행 혹은 14행의 만주문자로 기록되어 있고 제목은 쓰여져 있지 않다. 1988년에 季永海와 趙志忠이 『滿語研究』(第2期)에서 로마자로 전사를 하고 번역하여 소개하였다.¹³⁾

민족연구소본은 블라디보스톡본과 비교했을 때, 내용이 생략된 부분이 많고 간략하게 구성되어 있으나, 내용면에서 블라디보스톡본과 많은 유사성을 띠고 있어 이본간의 상관관계를 일정 정도 가지는 것으로 추정해 볼 수 있다. 또 주요 장면은 다음에 예를 든 것처럼 매우 상세하고 구체적으로 묘사되어 있는 것이 특징이며, 서두 부분에서 시대적 배경을 제시하지 않았다. 언어적인 측면에서는 아직 만주어 원본을 확인하지 못한 상태라 단정할 수는 없으나, 기존에 전사 번역된 자료를 바탕으로 볼 때, 완성된 만주어 어휘와 문장 표현을 구사하고 있음을 알 수가 있겠다.

julgei forgon de lolo gašan de tehe baldu bayan sere niyalma bihebi.
 옛 시기에 lolo 마을에 산 baldu bayan 하는 사람 있었다
 boo banjirengge tumen yan salire boigon bi. baldu bayan eigen sargan
 집 사는 것 萬 兩 값하는 가산 있다 baldu bayan 남편 아내
 ajigen forgon de emu jui ujihebi, gebungge fiyanggū seme gebulehebi,
 젊은 시절에 한 아이 길렀다 이름한 것 fiyanggū 하고 이름하였다
 banitai sure mergen. tofohon sede emu inenggi, ama eniye i emgi
 본성 총명한 지혜로운 15 세에 한 날 父 母의 함께
 hebšefi, hoton i gubci urse be isabufi, julergi de bisire heliyang
 협의해서 성의 모든 무리를 모이게 해서 남쪽에 있는 heliyang
 šan alin de abalame geneki seme gisureme toktofi, booi aha ahalji
 산 산에 사냥하러 가자 하고 말하여 정하고 집의 노복 ahalji

13) 季永海·趙志忠, 「尼山薩滿 訳註」, 『滿語研究』, 1988年2期, 107-144.

bahalji be dahabufi, ini beye kuri indahun be kutulefi, aculan
bahalji 를 따르게 하고 그 자신 반점 개 를 끌고서 aculan
giyahun be alifi sunja tanggu cooha simnefi abalame genehe.
매 를 잡고 5 100 군사 시험보아 사냥하러 갔다

5) 스타리코프(Starikov)본

스타리코프(Starikov)본은 러시아 학자 스타리코프(V. S. Starikov, 1917-1987)가 1920년부터 1955년까지 중국 동북 지역에서 생활하면서 이 지역의 민속을 연구하면서 수집한 도서 가운데에서 발견된 것이다. 그의 사후에 아내에 의해 수집된 서적들이 스탈린 도서관에 기증되었는데, 그 가운데에서 『尼山薩滿傳』이 발견되었고, 이를 야크혼토프(Yakhontov)가 러시아어로 전사하고 번역하여 『<尼山薩滿>研究』로 간행하였다. 모두 29면으로 되어 있으며, 매 면은 11행의 만주문자로 기록되어 있다. 첫 면에 “nisan saman i bithe damu emu debtelin(nisan 사만의 글 오직 1권)”이라는 제목이 쓰여 있으며, 그 내용은 대체로 완성되어 있다.¹⁴⁾

3. 내용 구조의 비교 분석

『尼山薩滿傳』의 내용은 크게 서두 부분, 니산 사만이 죽은 자의 영혼을 찾기 위해 저승으로 가는 返魂 곳 부분, 곳이 끝난 다음의 이야기 세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다.¹⁵⁾ 먼저 서두 부분에서는 이야기의 시대와 로로(lolo)라는 마을에 사는 발두 바얀(baldu bayan)이라는 富者, 그의 아들 서르구다이 피양고(sergudai fiyanggo)의 죽음이 중심이 되며, 마지막 부분에 발두 바얀이 죽은 아들 피양고를 소생시키기 위해 니시하이(nisihai) 강가에 사는 여자 사만(saman)을 찾는 것으로 구성되어 있다. 두 번째 부분은 사만의 返魂 곳이다. 여자 사만은 곳이라는 의식을 통해 서르구다이 피양고의 혼을 되찾기 위해 그녀의 영혼이 저승으로 여행을 가게 되고, 염라왕의 친척인 몽골다이 낙추(monggoldai nakcu)와 흥정하여 피양고의 혼을 데려오는 데에 성공한다. 그러나 도중에 죽은 남편을 지옥에서 만나게 되는데, 그녀는 남편을 영원히 죽음의 천벌을 받는 풍투성에 던져버리고 돌아오고, 피양고는 다시 살아난다. 발두 바얀은 다시 살아난 아들을 보고는 기뻐하며 사만에게 많은 재물을 준다. 세 번째 부분은 곳이 끝난 다음의 이야기로, 남편을 풍투성에 가두고 왔다는 말을 시어머니에게 이야기 하게 되는데, 시어머니가 그것을 듣고는 관가에 고발하게 된다. 관에서는 사만을 불러다가 취조하고, 太宗 황제가 神帽, 요령, 북 등의 무구와 함께 사만을 우물에 매장하게 하는 벌을 내린다. 그리고 다시 살아난 피양고는 그의 아버지를 본받아 가난한 사람들을 도우며 대대로 부유하게 살았다.

14) 스타리코프(Starikov)본은 현재 입수하지 못한 상황이어서 季永海의 「《尼山薩滿》의 板本及其價値」에서 그 개략만 인용하여 소개하기로 한다.(季永海, 「《尼山薩滿》의 板本及其價値」, 『民族文學研究』, 1994년2期, 61쪽 참조.)

15) 이 구분은 가장 완정본이라 알려진 제3 手稿本인 블디보스톡[海參威]본을 기준으로 한 것이다.

그런데 『尼山薩滿傳』의 제 판본 사이에는 앞에서 약간씩 언급한 것처럼 기록된 언어의 차이가 존재할 뿐만 아니라 그 내용의 구성과 표현에 있어서도 차이를 보이고 있다. 이러한 차이점을 표로 정리해 보면 다음과 같다.

구분	번호	블디보스톡본	치치하얼본	아이훈 1본	아이훈 2본	민족연구소본
서두 부분	01	시대배경: 명나라 시절	×	×	○	×
	02	발두 바얀(baldu bayan) 부부가 로로(lolo) 마을에 삶	×	×	①이름이 없이 어떤 사람이 로로(lolo) 마을에 살고, 70세 되도록 아들이 없음	○
	03	중년에 낳은 큰 아들이 15세에 헝량산에서 죽음	×	×	×	○
	04	×	×	×	②아들을 구하는 기도를 부처에게 하고, 아들이 없는 이유가 나옴	×
	05	plex을 쌓아 아들을 구하여 서르구다이 피양고(sergudai fiyanggo)가 태어나고, 총명하게 자라남	×	×	×	○
	06	×	×	×	③東嶽大帝가 아들을 낳게 해 주자고 十王을 설득함	×
	07	피양고가 15세에 헝량산에 사냥을 가서 병으로 죽음	피양고의 죽음을 보고하는 부분부터 시작	피양고의 죽음을 보고하는 부분부터 시작. 피양고를 baile로 통칭	×	군사 500명을 데리고 사냥을 감
	08	발두 바얀(baldu bayan)은 매우 슬피하면서 장례를 치를 준비를 함	간략하게 묘사	○	×	○
	09	어떤 노인으로부터 니시하이(nishai) 강가의 사만이 죽은 자를 살린다는 말을 들음	노인대신 도사가 나옴	○	×	○
	10	발두 바얀(baldu bayan)이 사만을 찾아가 아들을 살려 줄 것을 부탁함	노복 아할지와 바할지를 시킴	○	×	○
	11	진짜 니시하이 사만을 찾는 시험을 함	간략묘사	○	×	○
	12	니시하이 사만이 온 이유를 묻지도 않고 말함	간략묘사	○	×	○
返魂 곳 부분	13	사만이 神唱人 나리 피양고(nari fiyanggo) 등과 返魂 곳을 위한 여러 제물을 준비함	간략묘사	○	×	○
	14	곳을 시작하고, 사만의 영혼이 지승 여행을 떠남	바로 떠남	○	×	○
	15	어느 강가의 나루터에 도착하여 절름발이 라이히(laihi)를 만남	×	절름발이 랑기(langgi)가 나옴	×	×
	16	절름발이 라이히(laihi)가 몽골다이 낙추(monggoldai nakcu)가 피양고를 데려갔음을 가르쳐 줌	×	절름발이 랑기(langgi)가 가르쳐 줌	×	×
	17	×	×	×	⑥몽골다이 낙추가 사만이 머무르는 니시하이 강가로 배를 저어 찾아옴	×
	18	사만이 자신의 손북을 타고 강을 건넌	붉은 강을 바로 건넌	○	⑦사만을 배에 앉히고 강을 건네주고, 3꾸러미 금은과 3덩이 장을 줌	×
	19	염라대왕의 명으로 첫 關	×	○	⑤섀러두(seledu)와 성기	○

滿洲語文學 자료의 현황 및 그 연구와 활용

	門을 지키는 설러두 (seledu)와 성기두 (senggidu) 두 귀신을 만나고, 3덩이 장과 3몽치 종이를 주고 지나감			두(senggidu) 두 귀신이 으르자, 3덩이 장, 3꾸러미 금은, 3몽치 종이를 줌		
20	몽골다이 낙추에게 피양고를 데려가도록 부탁하나, 피양고를 關羅大王이 아들로 삼았으므로 거절함	몽골다이 낙추에게 바로 흥정하고, 거절당함	○	×	○	
21	사만이 큰 새에게 놀고 있는 피양고를 움켜잡아 오게 함	매가 움켜잡아옴	○	×	○	
22	화가 난 엄라대왕이 몽골다이 낙추에게 뒤쫓게 함	엄라대왕은 나오지 않고, 몽골다이 낙추가 따라옴	○	×	○	
23	몽골다이 낙추와 흥정을 하고, 피양고의 목숨을 90세로 늘임	×	○	④수명을 95세로 늘려 줌	○	
24	개와 닭을 주고서 피양고의 손을 잡고 돌아옴	개와 닭을 주고 피양고를 구함	○		○	
25	도중에 죽은 남편을 만나는데, 끓는 기름 속에 선 남편이 자기를 구해 줄 것을 요구하자 풍투성에 던져 버림	×	○	⑨끓는 기름 속에 선 죽은 남편을 만나고, 자기를 구해 줄 것을 요구하자 九泉에 던져 버림	○	
26	도중에 福神 오모시 마마(omosi mama)의 누각에 들러 알현하고, 수하 여인들이 하는 여러 가지 일들을 봄	×		수하 여인들이 하는 여러 가지 일들의 일부만 기록됨	○	
27	오모시 마마(omosi mama)의 허락으로 안내를 받아 죄의 경중에 따라 갖가지 형벌을 받는 모습들을 보게 됨	×	×	⑧판관들이 죄의 경중에 따라 귀신들을 판단하여 그에 맞는 벌을 주는 것을 봄	×	
28	절름발이 라이히(laihi)의 나루터에 도착함	×	×	⑩서르구다이 피양고를 데리고 룡후(lung hu) 강에 도착하고 절름발이 라기(lagi)를 부르고, 몽골다이 낙추가 와서 건네줌	절름발이 (lagi)의 나루터에 도착함	
29	발두 바얀(baldu bayan)의 집에 도착하여 서르구다이 피양고(sergudai fiyanggo)를 다시 살림	×	×	⑪서르구다이 피양고를 다시 살림	○	
30	×	×	×	⑫오모시 마마에게 수명을 95세까지 늘린 것, 룡후강에서 절름발이 lagi를 만난 것, 엄라대왕에게 닭과 개를 주고 온 것 등 저승에서의 일을 사람들에게 말함	×	
31	발두 바얀(baldu bayan)이 사만에게 많은 재물을 줌	×	×	⑬로(lo) 員外가 기뻐하고 재물을 줌	사만에게 많은 재물을 주고 잔치를 벌임	
뒷 이야기	32	사만은 부자가 되어 정직하고 공평하며, 마음이 평정되고 맑아지게 됨	×	×	⑭사만은 부자가 됨	×
	33	시어머니에게 남편을 풍투성에 던져버린 일을 알림	×	×	⑮시어머니에게 남편을 九泉에 던져버린 일을 알림	×
	34	시어머니가 京城에 가서 御史 관원에게 고소함	×	×	⑯시어머니가 京城에 가서 太宗 황제에게 호소함	×
	35	×	×	×	⑰남편을 九泉에 던진 일을 자세하게 아뢰	×
	36	太宗 황제가 神帽, 요령,	×	×	⑱사만을 九泉에 버리게 하	×

		복 등의 무구와 함께 사만을 우물에 매장하게 하는 벌을 내림			고 최줄에 묶음	
37		서르구다이 피양고 (sergudai fiyanggo)는 가난한 사람들을 도우며 대대로 부유하게 삶	×	×	×	서르구다이 피양고 (sergudai fiyanggo)가 90세까지 삶

이상의 내용으로 볼 때, 블디보스톡본이 가장 완성된 본임을 알 수가 있고, 치치하얼본은 전체 내용을 요약한 것이라 할 수 있다. 아이훈 1본은 앞부분과 뒷부분이 생략된 본임과 동시에 내용이 약간 바뀐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민족연구소본도 대체로 블디보스톡본과 같은 계열의 판본이면서 전승 과정에서 세부적인 부분이 추가된 것으로 보이며, 뒷이야기 부분의 대부분이 생략되어 있음을 알 수가 있다.

그런데 아이훈 2본은 다른 판본들과는 전혀 다른 계열로 볼 수가 있는데, 무엇보다도 이야기 전개 구조가 다르다. 즉 다른 판본들은 스토리 전개에 있어서 앞 뒤 맥락이 대체로 분명한 데 비해, 아이훈 2본은 스토리 전개와 그 순서가 맞지 않는 부분이 많다. 또 다른 판본들은 저승에서의 여러 모습들을 니산 사만이 직접 겪는 형식을 취한 데 비해, 아이훈 2본은 갔다 온 다음에 회상하면서 이야기해주는 형식을 취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보다 세밀한 분석을 요하는 부분이라 하겠다.

4. 결론

滿洲語文學 자료의 현황 및 그 연구와 활용

[참고문헌]

- 김영일, 「<니산>샤만巫歌의 비교연구 : ‘바리데기’의 원형재구를 위한」, 『한국문학이론과 비평』 8집, 한국문학이론과 비평학회, 2000, 144-170쪽.
- 최준, 「니산 샤먼의 저승 여행」, 『동아시아고대학』 21집, 동아시아고대학회, 2010, 343-370쪽.
- 成百仁, 『滿州 샤만 神歌 : Nišan saman i bithe』, 서울: 明知大學出版部, 1974. ; 재판, 서울: 제이앤씨, 2008.
- 賀靈, 「《尼山薩滿》—扮研究薩滿教的重要文獻-附譯文」, 『新疆師範大學學報』, 1985年2期, 141-142쪽.
- 齊車山, 「尼山薩滿-根拠一九六一年莫斯科版本記」, 『新疆師範大學學報』, 1985年2期, 143-160쪽.
- 季永海·趙志忠, 「尼山薩滿 訳注」, 『滿語研究』, 1988年2期, 107-144쪽.
- 莊吉發, 『尼山薩滿傳 : Nišan saman i bithe』, 台北: 文史哲出版社, 1977.
- 愛新覺羅 烏拉希春, 「nišan saman(尼山薩滿)」, 『滿族古神話』, 內蒙古人民出版社, 1987.
- 趙志忠, 『薩滿的世界-尼山薩滿論-』, 沈陽: 遼寧民族出版社, 2001.
- 德克登額·張華克, 『尼山薩滿全傳』, 映玉文化出版, 2007.
- 荆文禮·富育光編, 『尼山薩滿傳(上下册)』, 吉林人民出版社, 2007年12月.
- 河内良弘, 「ニシャン・サマン傳譯註」, 『京都大學文學部研究紀要』, 1987, 141-230쪽.
- Волкова, М. П. Нишань самани ьитхэ: предание о нишанской шаманке, Москва, 1961.
- Wolfgang Seuberlich, “Die mandshurische Sage von der Nisan-Schamanin”, Fernöstliche Kultur: Wolf Haenish zugeeignet von seinem Marburger Studienkreis, hrsg. u. bearb. von Helga Wormit, Marburg, 1975.
- Giovanni Stary. Viaggio nell’ Oltretomba di una sciamana mancese, Florence, 1977.
- Margaret Nowak and Stephen Durrant. The tale of the Nišan Shamaness : A Manchu Folk Epic, Seattle, 1977.
- Melles, Kornélia Nisan sámánnõ: mandzsu vajákos szövegek, Prométheusz könyvek, Budapest: Helikon, 1987.

МҮТНС¹⁾-д хадгалагдан буй манж ном зохиол

Т.Отгонтуул²⁾

[1] Оршил

Аливаа төр улсын хөгжил мандлыг бичгийн соёлгүйгээр төсөөлөх аргагүй нь мэдэж. Манж нар Чин улсыг байгуулахдаа түүхийн богино хугацаанд бичгийн өндөр соёлд хүрч чадсан юм. Тэд Нангиадын эрт үеийн сурвалж хийгээд гүн ухаан, уран зохиолыг бараг бүрэн орчуулж, Ганжуураас аваад эртний энэтхэг, төвдийн³⁾ бусад олон судар шастирын манж орчуулгыг бий болгосны гадна хууль цааз, уран зохиол, шашин түүхийн бусад олон төрлийн үлэмжхэн бичгийн дурсгалыг эх хэлээрээ туурвин үлдээжээ. Манжийн төрөөс хэл судлалын ажлыг идэвхтэй өрнүүлж нэвтэрхий толь, тайлбар толь, хоёроос зургаан хэлний орчуулгын толь, унших бичгийн чанартай олон тооны хадмал орчуулга, сурах бичиг тэргүүтнийг зохиож, үүндээ нэр томьёог нэг мөр болгох, албан бичгийн найруулгыг жигдлэх, хэл зүйг журамлах, ормол үгсийг оновчтой авиачлан тэмдэглэх зэргээр манж хэл бичгээ⁴⁾ нэлээд боловсруулан

1) Монгол Улсын Үндэсний Номын Сан нь 3 сая гаруй ном хэвлэлтэй Монгол улсын хамгийн том номын сан бөгөөд одоогоор 5 хэлтэс, 90 ажилтантай. Дорно дахины ном хэвлэлийн фондод Хятад, Япон, Солонгос, Вьетнам, Манж хэлээр бичсэн 100.000 гаруй ном хадгалагдаж байна. Тус фонд нь элэктрон каталогийн үйлчилгээнд харахан шилжээгүй. [./www.nationallibrary.mn/](http://www.nationallibrary.mn/)

2) Lecturer /Ph.D/, Department of Mongolian language and Linguistics, Faculty of the Humanities, School of Art and Sciences, National University of Mongolia.

3) Энх-Амгалан хааны(1662-1723) үеэс эхлэн ялангуяа Найралт төв(1723-1736), Тэнгэрийн тэтгэсэн хад(1763-1796)-ын үед манж нар бурханы шашны ном зохиолыг монгол төдийгүй манж хэлээр орчуулж, хэвлэх ажлыг нэлээн эрчимтэй өрнүүлж байжээ. Тухайлбал; Манж Данжуур, манж хэлээрх “Очи роор огтлогч”, “Цагаан шүхэрт” зэрэг зохиолуудыг дурдаж болно. Энэ ажилд манжийн өөрсдийн хүмүүсээс гадна монгол бичгийн хүмүүс зохих хувь нэмэр оруулсан байх нь гарцаагүй юм. Ер нь манж хэлээрх бурханы шашны ном зохиолыг аль хэлнээс хэн хэн орчуулж байсан, манж бурхан шашны утга зохиолд тохиолдох үг хэллэг, нэр томьёо хэрхэн бүрэлдэн тогтсон талаар тоймтой судалгаа хараахан гараагүй бололтой.

4) Монголчуудын олон зуун жилийн уламжлалт бичгийн соёл, бичгийн хэл нь манж нарын бичиг үүсгэгч үүсэн хөгжихөд үржил шимт хөрс суурь нь болсон бөгөөд “Дай чин улсын тулгар төр нээсэн бодлогын бичиг”-ийн Зр дэвтэрт: “... шаргачин гахай жилийн 2 сард манж бичгийг тулгар зохион бичив. Тэр үед улсын дотор хойш урагш явуулах бүх бичгийг монгол хэлээр орчуулан бичиж, монгол бичигт сургаж байсан тул Тайзү хуанди, Эрдэнэ багш, Гагай гарт монгол үсгийг хувирган манж үсэг болгон бичтүгэй хэмээн тушаав...” гэж дурдсан байдаг. Ингээд Эрдэнэ багш, Дахай оточ нар монгол цагаан толгойг тэмдэг нэмэх, зурлагыг өөрчлөх зэргээр хэлэндээ тохируулан тодотгож манж бичгийг боловсруулсан нь 1932 он бөгөөд явандаа хятад, төвд, самгарди үг, тарнийн үг зэргийг оновчтой тэмдэглэх галиг үсэгтэй болгож чадсан юм.

хөгжүүлж байжээ⁵⁾. Түүнээс багагүй бичгийн дурсгал Монголын Үндэсний төв номын сан, Үндэсний архивын газарт өнөөг хүртэл хадгалагдаж байна. Монголын Үндэсний төв номын санд хадгалагдан буй манж ном зохиолын баялаг эх хэрэглэгдэхүүн нь зуугаад жилийн өмнө буюу тэртээ 1921 онд байгуулагдсан “Судар бичгийн хүрээлэн”⁶⁾-гээс эх үүсэлтэй юм. Судар бичгийн хүрээлэн байгуулагдсан цагаасаа л хуучны бичиг хар, судар номыг сурвалжлан цуглуулах, эмхлэн хадгалахад анхаарлаа хандуулж байсан тул “судар бичгийн хүрээлэнд тэр үед ажилладаг байсан нийт ажилтан дээр дооргүй цөм ном судар сурвалжлан олох, цуглуулах ажилд санаа хүчээ тавин ажиллацгааж”⁷⁾ баялаг хөмрөг бүрдүүлсэн юм. Энэхүү арвин эрдэнэсийг судалж цэгцлэх манж хэлээрхи эх сурвалжийг судалгааны хүрээнд оруулах, орчуулан нийтлэхэд манай эрдэмтэд чамлахааргүй зүйл хийсэн байдаг.

Монгол улсад хадгалагдан буй манж номын бүртгэлийг анх 1930 онд “Судар бичгийн хүрээлэнгийн номын сангийн бүх манж бичгүүдийн данс” нэртэйгээр бүртгэж байсан ба энэхүү эх Үндэсний төв архивын сан хөмрөгт өдгөө хадгалагдаж байна.⁸⁾ 1929 оны анхны энэ бүртгэлд давхардсан тоогоор нийтдээ 343 манж ном зохиолыг бүртгэсэн бөгөөд манж номыг оноор нь ялгаж, агуулгаар нь төрөлжүүлээгүй зөвхөндэс дараалуулан жагсаажээ. Үүнээс 30 жилийн дараа 1959 онд манжич Л.Мишиг “Улаанбаатар хот дахь улсын номын сангийн манж номын хөмрөгт байгаа манж номын гарчиг” нэртэйгээр манж номын бүртгэлийг хэвлэн гаргажээ. 1993 онд Г.Буянтогтох, М.Баярсайхан нар “УТНС-ийн манж хөмрөгийн ном зүйн бүртгэл”-ийг хэвлүүлжээ. ⁹⁾ Бидний гарт буй хоёр бүртгэл өөр хоорондоо ялгагдах онцлогтой бөгөөд Л.Мишиг манж номын гарчгийг түүх, ван гүнгийн өргөмжлөл, цааз хууль, цэргийн холбогдол бүхий ном, толь бичиг, сурах бичиг, уран зохиол, гүн ухааны зан суртахуу

5) М.Баярсай хан, Т.Отгонтуул, Монгол-Манж толь бичиг, Улаанбаатар, 1997.

6) Монгол оронд 1921 онд ардын хувьсгал ялснаар эрх чөлөөтэй тусгаар тогтносон улсаа байгуулж, үндэсний соёлоо хөгжүүлэх боломжтой болсон. Ардын хувьсгал ялснаас хойш 4 сарын дараа нийт ард түмэнд үйлчлэх анхны номын сангийн үндэс суурь тавигдаж, 1921 оны 11-р сарын 9-нд Ардын засгийн газрын 24-р хурлын тогтоолын 3-р зүйлд Судар бичгийн хүрээлэн байгуулахаар зааж улмаар уг хүрээлэнгийн үүрэг зорилго, зохион байгуулалтыг тодорхойлж засгийн газарт оруулснаар 1921 оны 11-р сарын 19-нд хүрээлэнгийн дүрмийг баталж судар бичгийн хүрээлэнг албан ёсоор байгуулжээ. Энэхүү хүрээлэнгийн /одоогийн Шинжлэх ухааны Академи/ дэргэд гүн О.Жамъян, бичээч Ч.Бат-Очир, Д.Дашням, эрдэмтэн Ж.Цэвээн нар хувийнхаа номыг нийлүүлэн 2000 номоор анхны номын санг байгуулсан байна./www.nationallibrary.mn/ 1924 он гэхэд монгол хэлээр 600, төвд хэлээр 250, хятад, манж, япон хэлээр 1400, европын болон бусад хэлээр 2100 орчим номтой болоод байжээ. БНМ АУ-ын соёлын түүх, УБ, 1981, х179.

7) Я.Цэвэл, Нэхэн дурсах дуртгал, шинжлэх ухаан амьдрал, №3, х12.

8) Энэхүү данс нь 27,5x28,5 хэмжээтэй, нийт 32 хуудастай. /1. хавсралт зургийг харна уу./

9) Дашрамд дурдахад, МҮТНС-ийн монгол номын хөмрөгийн бүртгэл хэд хэдэн удаа хэвлэгдсэн бөгөөд энэхүү хөмрөгт бас бус манж монгол хадмал орчуулгатай ном зохиол байдаг бид нэгэн хэсэг болгон энэхүү өгүүлэлд оруулсан болно. Монгол номын бүртгэлийг хэд хэдэн удаа хийсэн бөгөөд Ж.Адамбын “Наймдугаар Жавзандамбын монгол бичмэл номын бүртгэл”, “УННС-ийн бичмэл уран зохиолын номын гарчиг”, “УННС-д буй түүх ба түүхэнд холбогдох бичмэл монгол номын гарчиг”, Ч.Нарантуяа, Д.Энхтунгалаг “Монгол дахь монгол гар бичмэл судрын гарчиг” хэвлэгдэн гарчээ.

ун бусад зүйл хэмээсэн 9 бүлэг хувааж хэвлэсэн оноор нь дэс дугаарлажээ. Тус номд нийт 186 ном данс бичиг бүртгэснээс илтгэл шастир, өргөмжлөлийн бичгийг нэлээд нарийвчлан өгүүлж, зохиол нэг бүрийн агуулгыг монгол бичгээр тайлбарлан бичээд, уг зохиолын хэмжээ, мөрийн урт, тоо ширхэг, хуудасны тоо зэргийг нэг бүрчлэн тэмдэглэсэн байна.

Харин Г.Буянтогтох, М.Баярсайхан нар ном зүйн бүртгэлдээ манж эх зохиолын доторх сонин мэдээ баримтыг түүвэрлэн, хэвлэсэн он сар өдрийг манжаар бичиж, монголчлон орчуулснаа кирил бичгээр хадаж тухайн номны товъёог заасан нь урьд бүтээлээс ялгаатай юм. Тэрээр 180 орчим ном багтаасан бөгөөд тэдгээрийг хаадын оноор ангилж, дотор нь мөн он дарааллаар жагсаасан байдаг.

Манж номын дээрх гурван бүртгэлийг харьцуулахад өөр хооронд нэлээд зөрүүтэй тал байна. Л.Мишигийн 1929 оны бүртгэлд нийтдээ 343 ном бүртгэснээс хожмын хоёр бүртгэлд байхгүй 81 ном зохиол байна.¹⁰⁾ Г.Буянтогтох, М.Баярсайхан нар энэхүү бүртгэлээ хийхдээ өмнөх бүртгэлийг бас харгуулан үзэж хийсэн бөгөөд энэ бүртгэл хийх үед өөрөөр хэлбэл Л. Мишиг багшийн бүртгэлээс хойш 34 жилийн дараа нэлээд их ном зохиол үрэгдэж алга болсон байна. Тухайлбал, Чингис хааны гэрийн үеийн бичмэл (*činggis han i duruγan*), Манж хэлний сул үгийн тэмдэг заавар (*manju gisun i untuhun i hergen i temgetu jorin bidhe*), Өтгөс мэргэдийн гэрийн сургаалы н бичигт зүүсэн үг тавьсан бичиг¹¹⁾ (*sengge saisai booi tačihyan I bidhede asabuha gisun sindaha bidhe*) зэрэг зохиол болно. Эдгээр манж сурвалжууд өнгөрсөн хугацаанд ямар нэг шалтгаанаар устаж үрэгдсэн буюу бусдын гар дамжин алга болсон бололт ой¹²⁾. Мөн номын нэр тохировч дэвтэр дугтуйн тоо зөрөх тохиолдол ч олон байна.

Одоогийн байдлаар Монголын Үндэсний төв номын сангийн Дорнодахины хөмрөг ийн манж ном давхардсан тоогоор нийтдээ 6000 гаруй байгаа бөгөөд МУИС Эх бичиг судлалын ангийн оюутнууд 2011, 2012, 2013 онуудад манж номын цахим бүртгэлийг дадлагын хугацаандаа хийж гүйцэтгэсэн юм. 2011, 2013 оны дадлагаар оюутнууд нийт манж номыг товъёоглож цаасан каталог хийж өгсөн бөгөөд үүнээс 561

10) Э.Мөнхцэцэг, Монгол улс дахь манж номын бүртгэл, Түүхийн судлал, Уб, боть XXIV, х173.

11) Элдэв сургаалын зохиолын цоморлиг болох энэ бичигт Хөлөн буйрын Шинэ баргийн хүн Гүбэри (1831-1890) авгай тайлбар үг зүүж оршил бичин 1869 онд төгсгөжээ. Хожим уг бичгийг 1907 онд хуулсан хэмээн Л.Мишиг(1959:247)-д дурдсан байна. [1/20,8x20,7/16/43/гар бичмэл]

12) 1930-аад оны үед Монгол ирж байсан гадаадын судлаачид (төвдөч Тубянский) төв номын сангаас судлах шинжлэх зорилгоор хуучны ном судрыг үзье, харья гэхэд нь шуудайгаар нь өгдөг байсан бөгөөд эргээд түүнийг гээ буцааж авахдаа бүрэн бүтэн, хичнээн тоо ширхэгтэй байгаа эсэхийг нь нягтлан үзэх нь төдий лэн үгүй байсан хэмээн тэр үеийн номын хүмүүс ярилцдаг байсан буюу хожим нэгэн сонинд энэ тухай дурдсан байсан хэмээн СУИС-ийн профессор Цогт хүүрнэснийг энд дурдахад илүүдэхгүй буй за. Мөн олон ном судар Буриад руу гарсан гэх яриа ч буй. Номын санг хариуцан дагалж байсан зарим удирдлагын хариуцлагагүй хайнга байдал болж энэ мэтчилэн хичнээн ном судар хаашаа үрэгдэж алга болсныг хэлэхэд бэрх юм. Үүнээс гадна МУИС-ийн номын санд 1976 онд галд алдсанаас болж хадгалагдаж байсан манж монгол ихээнхэн тооны ном судар шатаж түлэгдсэн гэдэг.

номыг цахим товъёогт оруулж өгсөнөөс дийлэнх нь данс хар, толь бичгийн зүйл байв. Харин 2013 оны дадлагаар үлдсэн номыг дэлхийн номын сангийн нэгдсэн мэдэ элэлийн сан буюу хайлт мэдээллэлийн нэгдсэн каталоги OCLC/Online computer library center/-д оруулахаар цахим эхийг бэлтгэж өгсөн.¹³⁾

Бид энэ удаагийн илтгэлдээ Монголын Үндэсний төв номын сангийн Дорнодахин ы хөмрөгийн манж ном сурвалжийг дараах хэдэн байдлаар ангилж одоо хадгалагдан буй зүйлсээс товч танилцуулж байна. Мөн Энх-Амгалангийн үеэс Бадаргуулт төр хааны үеийг хамаарах нийт 36 өргөмжлөл байгаа бөгөөд одоо монгол номын сан хөмрөгт хадгалагдаж буй тул бид тусгайлан авч үзсэнгүй.¹⁴⁾ Эдгээр нь Халх, Дөрвө д, Торгуудын ван гүн ноёдод цол өргөмжилсөн, зэрэг хэргэм залгамжлуулсан явдлыг торгон дээр утсаар шаглан оёсон ба цаасан дээр бийрээр бичсэн бичгүүд юм. Эвхмэл хуйлмал зэрэг хэдэн янз байдаг.

Үүнээс гадна манж албан захидал, нугалбар болон зохиосон он цаг тодорхой бус, орчуулсан зохиосон эзэн нь тодорхойгүй гэх зэрэг 60 гаран сурвалж ном байна. Одоо бүртгэлтэй буй 180 гаран манж ном сурвалжаас Энх-Амгалан(1662-1723)-гийн үед хамаарах нь 27, Тэнгэрийг тэтгэсэн(1736-1796)-ий үед хамаарах нь 36, Төр гэрэл т(1821-1851)-ийн үед хамаарах нь 13 гэх мэтээр бусад хаадын үед хамаарах нь цөөн тоотой байна.

I. ТҮҮХ

1. *aisin gurun i suduri*¹⁵⁾, Алтан улсын судар [9 дэвтэр, хэмжээ 36,4x22, мөрийн урт 25,5, нийт хуудасны тоо 384¹⁶⁾, модон бар, 1636-1639]¹⁷⁾
2. *dailyoo gurun i suduri*, Их ляо улсын судар [8/ 34x20.6/ 25/ 255/ модон бар/1636-1639]
3. *hafu buleku bidhe*, Нэвтэрхий толь [80/ 36x21,5/ 27/ 4836/ модон

13) Монголын Үндэсний төв номын сан нь 2013 оноос тус байгууллагатай холбоо тогтоож 2014 оноос эхлэн Төвд номын хөмрөгийн 1000 гаруй номыг тус каталогид бүртгүүлжээ.

14) Ч.Нарантуяа, Д.Энхтунгалаг(2011:35) “Монгол дах монгол гар бичмэл судрын гарчиг”-аас лавлан үзн э үү.

15) Манж хэлний үгийг галиглахдаа МУИС галигийг баримтлан хийсэн болно. Энэхүү галигийг тогтолцооны тухай д.М.Баярсайхан (2007:94)-д “Манж бичгийг монгол бичигт тулгуурлан зохиосон тул дуудлагын галиг нь мөн монгол бичгийн дуудлагын галигтай нэг тогтолцоотой байх ёстой. Манжийн судлалыг анх хятад судлалын хавсрага байдлаар хөгжүүлж эхэлсэн цаг үед монгол бичиггүй судлаач манж үсгийн зарим латин галигийг боловсруулсан тул, манж монгол бичигт аль алинд нь ижил дүрс, дуудлага бүхий үсгийг зөрүүтэй галиглаж байна...” гээд тэдгээр зөрүүтэй галиглаж буй үсгийн тухай д.Нарийнвчлан авч үзээд хэрхэн галиглах саналаа дурджээ.

16) Манж номын бүртгэлийн өмнөх бүтээлүүдэд дэвтэр тус бүрийн хуудасны тоог тусгасан байдаг бол энд бид бүх дэвтэрийн нийт тоог хамтатган харууллаа.

17) [дэвтэр 9, хэмжээ 36x22, мөрийн урт 25,5, нийт хуудасны тоо 384, модон бар, хэвлэсэн он] цаашид [9/36x22/25.5/384/1636-1639] хэмээн товчлон бичих болно.

бар/1664]¹⁸⁾

4. *han i araha zi ji tung giyan g'ang mu ciyan biyan bidhe*, Хааны бичсэн жи түн жиян ган мү чийан бийан бичиг, [25/34,2x20;31,1x19,3; 25,7x17,6/21,1/655/ модон бар/1692]
5. *zi ji tung giyan g'ang mu bidhe*, Зи жи түн жиан ган мү бичиг [59/34,4x20,1; 30,1x19,2; 26,2x17,7/ 20,1; 20,3; 19,7/ 5095/ модон бар/1691]
6. *sioi zi ji tung giyan g'ang mu bidhe*, Сиүи жи жи түн жиан ган мү бичиг [27/34,4x20,3; 30,2x19,3; 25,7x17,5/ 20; 21,3; 21,2/ 2623/ модон бар/1691]
7. *han i araha wargi amargi ba be necihiyeme toytobuha bodoyon i bidhe*, Хааны бичсэн баруун хойд газрыг төвшитгөн тогтоосон бодлогын бичиг [48/32,5x18,8/21,3x23,5/ 3170/ модон бар/1699-1809]
8. *daičing gurun i taizu dergi huwangdi i enduringge tačihyan*, Их Чин улсын Тайзү дээд хуандийн Богд сургаал [4/29,4x19,7/ 22; 23,2/117/ модон бар/1686;1739]
9. *daičing gurun i taizung genggiyen šu huwangdi i enduringge tačihyan*, Их Чин улсын Тайзүн гэгээн соёлт хуандийн Богд сургаал [6/29,5x19,8/19,5-23/195/модон бар/1687;1739]
10. *daičing gurun i šizu eldembuhe huwangdi i enduringge tačihyan*, Их Чин улсын Шизү гэрэлт хуандийн Богд сургаал [6/29,5x19,8/21,5-23/175/ модон бар/1687;1739]
11. *daičing gurun i šengzu yosin huwangdi i enduringge tačihyan*, Их Чин улсын Шэнзү өршөөлт хуандийн Богд сургаал [60/29,9x20/21,5-22,5/2668 / модон бар/1731;1741]
12. *daičing gurun i šizung temgetulehe huwangdi i enduringge tačihyan*, Их Чин улсын Шизүнг тэмдэглэлт хуандийн Богд сургаал [36/30x20/20-22,4/2668/1256/ модон бар/1746]
13. *jun yar i ba be nečihiyeme toytobuha bodoyon i bidhe*, Зүүн гарыг төвшитгэн тогтоосон бодлогын бичиг [1-8*19),9-45/ 34,8x21,5/22,5/8383/ модон бар/1770]²⁰⁾
14. *daičing gurun i fuyjin doro be neihe bodoyon i bidhe*, Их Чин улсын тулгар төр нээсэн бодлогын бичиг [32/36,5x23,5/24-26/1644/ модон бар/1774]
15. *abqai hesei foryon be aliha hūwangdi hese*, Тэнгэрийн бошигоор цагийг

18) Эл бичгийг г Манжич Л.Дэндэвийн удирдлагаар монгол улсын архивын ажилтан Норовсүрэн, Бадмах анд нар манж хэлнээс монгол хэлнээ орчуулан 1958 оны үес төгсгөсөн хэмээн Л.Мишиг[1959:13] дур дсан бай даг. Энэхүү орчуулга өдгөө Үндэсний архивын газарт хадгалагдаж бай на.

19) Дэвтэр дутуу буюу 1-8 хүртэл бай хгүй .

20) Энх-Амгалан хааны үед зохиосон “Баруун хойд газрыг төвшитгэн тогтоосон бодлогын бичиг”-ийн үргэлжлэл болгож энэхүү “Зүүн гарын газрыг төвшитгэн тогтоосон бодлогын бичиг”-ийг зохиожээ. Үүнд Энх-Амгалангийн 39-р (1700) оноос Тэнгэрийг тэтгэсний 32-р он (1767) он хүртэл бараг 70-аад жилийн турш Зүүн гарын ай магуудтай удаа дараа аян дай н явуулж, Манж улс захиргаандаа ор уулан авсан тухай үйл явдлыг жил, сар хуваан нарийн тодорхой өгүүлэн бичсэн зохиол юм.

- эзэлсэн хуандийн зарлиг (Тэнгэрийг тэтгэсэн-1776)
[...²¹⁾/93,3x88/66/4/модон бар/1776]
16. *hesei toγtobuha tulergi mongγo hoise aiman i wang gung sai iletun ulabun*, Зарлигаар тогтоосон гадаад монгол хотон аймгийн ван гүн нарын илтгэл шаштир [120/35x22,5/25,1-24/2727/ модон бар/1779]
17. *hesei toγtobuha sirame banjibuha (ačabuha) tulergi γoloi mongγo hoise aiman i wang gung sai iletu ulabun*, Зарлигаар тогтоосон залгаж зохиосон гадаад монгол, хотон аймгийн ван гүн нарын илтгэл шаштир [24/34,7x22/20-22,5/1814]
18. *abqai hesei forγon be aliha hūwangdi hese*, Тэнгэрийн бошигоор цагийг эзэлсэн хуандийн зарлиг [.../ 94x76,5/82/3/модон бар/1799]
19. *daičing gurun i g'aozung yonggkiyangγa huwangdi i enduringge tačihyan*, Их Чин улсын Гаозүн төгс бүрдмэл хуандийн Богд сургаал [300/32x21/20-22/модон бар/1807]
20. *abqai hesei forγon be aliha hūwangdi hese*, Тэнгэрийн бошигоор цагийг эзэлсэн хуандийн зарлиг(Сайшаалт ерөөлт) [.../ 91x73,5/74/5/модон бар/1820]
21. *abqai hesei forγon be aliha hūwangdi hese*, Тэнгэрийн бошигоор цагийг эзэлсэн хуандийн зарлиг(Төр гэрэлт-) [.../ 85x68/67,5/3/модон бар/1822]
22. *daičing gurun i žingjung sunggiyen huwangdi i enduringge tačihyan*, Их Чин улсын Жинзүн сөд хуандийн Богд сургаал [110/33x21/20,5-21,5/11446/модон бар/1824]
23. *abqai hesei forγon be aliha hūwangdi hese*, Тэнгэрийн бошигоор цагийг эзэлсэн хуандийн зарлиг(Төр гэрэлт- 1829) [.../87,5x61/70/4/модон бар/1829]
24. *hūlaha suduri šošohon be leulehe bidhe*, Уншсан сударын хураангуйг шүүмжилсэн бичиг [2/28,5x 17,5/20,1/104/ модон бар/1849]
25. *gubči elgiyengge i jai aniya i wesimbure baitai dangse*, Түгээмэл элбэгтийн хоёрдугаар онд айлтгасан бичгийн данс [1/25x16,8/19/78/гар бичмэл/1852]
26. *gubči elgiyengge i ilači aniya i wesimbure baitai dangse*, Түгээмэл элбэгтийн гуравдугаар онд айлтгасан бичгийн данс [1/25x16,5/19/78/гар бичмэл/1853]
27. *gubči elgiyengge i nadači aniya i wesimbure buγdari dangse*, Түгээмэл элбэгтийн долдугаар онд айлтгасан нугалбарын данс [1/25x23,5/19/116/гар бичмэл/1857]
28. *sižung(temgetulehe) huwangdi i dergi hese*, Шизүн(тэмдэглэлт) хуандийн дээд зарлиг, [10/24,6x17,2/19,1/916/модон бар/?22)]
29. *wargi geren ba i arbun muru be ejeme araha bidhe*, Баруун зүгийн олон

21) Дэвтэр үгүй г (...) ий н тэмдэглэв.

22) Хэвлэсэн он тодорхой гүй гэсэн тэмдэг.

газрын байдал төлөвийг тэмдэглэн бичсэн бичиг [.../26x26/22/60/гар бичмэл/?]²³⁾

30. *aisin gurun dai yuwan gurun i suduri i gisun be suhe bidhe*, Алтан улс, Их Юань улсын судрын үгийг тайлсан бичиг [8²⁴⁾/26,4x 17,4/12/558/модон бар/?]

II. ЦЭРГИЙН ХОЛБОГДОЛ БҮХИЙ НОМ

1. *čoo hai ging ni yooni bidhe*, Цэргийн номын бүрэн бичиг [4/29,2x18,7/20,9/303/гар бичмэл/1661]
2. *čoo hai ging ni yooni bidhe*, Цэргийн номын бүрэн бичиг [8/23,6x14,3/17,4/509/гар бичмэл/1662]
3. *sun ži i juwan ilan fiyelen, u ži i niggun fiyelen I bidhe*, Сүнзи-гийн арван гурван бүлэг, Ү зи-гийн зургаан бүлэг хэмээх бичиг [4/30,5x30,5/93/ гар бичмэл/1710]
4. *šanyan suburγan i temgetu poo i qooli hačin*, Цагаан суварганы тэмдэг буугийн хууль зүйл [.../ 24,4x13,1/20,7/56/гар бичмэл/1725]
5. *γabtan i jorin i gisurem*, Харвалгын заавар бичиг [1/26,8x17,4/18,3/49/ модон бар/1757]
6. *ubaliyambuha sun ži čoo hai dorо bidhe*, Орчуулсан Сүнзи-гийн цэргийн ёсны бичиг [4/27,4x16/28,8x17,9/92/модон бар/1846]
7. *čoo hai bidhei muturi too*, Цэргийн бичгийн луугийн харьяалал [1/28x16/22/42/гар бичмэл/?]

III. ТОЛЬ БИЧИГ

1. *man han tung wen fun lei čiyau šeu*, Манж хятад хадмал зүйл хуваасан бүрэн бичиг [8/24,5x15,6/18/312/модон бар/1700]
2. *han i araha manju gisun i buleku bidhe*, Хааны бичсэн манж хэлний толь бичиг [25/29,9x19/31,4x19,1/21,3/1231/модон бар/1708]
3. *niqan hergen i ubaliyambuha manju gisun i buleku bidhe*, Хятад үсгээр орчуулсан манж үгийн толь бичиг [4/24,7x15,6/20,4/250/модон бар/1735]
4. *manju niqan i buleku bidhe*, Манж Хятад үгийн толь бичиг [4/21,6x13,8/13,5/344/м

23) Баруун зүгийг н газар орныг хэрхэн төвшитгэсэн, хошуу сум байгуулсан байдал, тэндэхийг н Монгол Хотон аймгийн олны аж амьдрал, зан заншил, цаг уур, уул газар сэргийлээр буюу хэрэг шийтгүүлэхээр суулгасан манжийн цэрэг, сайд, түшмэдийг орон тоо сэлтийг товч дурдсан.

24) Ер нь нийт 10 дэвтэр байхаас эхний хоёр нь байхгүй тул хэн хэзээ зохиосныг мэдэх боломжгүй.

- одон бар/1738]
5. *manju isabuha bidhe*, Манж хураасан бичиг [12/27x16,3; 23,4x15,8../19,6;18,8/443/ модон бар/1751]
 6. *han i araha nonggime toγtobuha manju gisun i buleku bidhe*, Хааны бичсэн нэмж тогтоосон манж үгийн толь бичиг [45/27,2x19,2;30,8x19,9../20,8;19,9../2411/модон бар/1771]²⁵⁾
 7. *manju gisun i niyečeme isabuha bidhe*, Манж үгийг нөхөн хураасан бичиг [8/26,6x16,4; 28,3x17,7;../18,2;18,7;19/345/модон бар/1786]
 8. *manju niqan i buleku*, Манж Хятад үгийн толь [20/26,4x15,7/12,5/1237/модон бар /1821]
 9. *manju niqan hergen i ninggun jurγan i toγtoho gisun*, Манж хятад үсгийн зургаан явдлын яамны тогтсон үг [6/24,8x15,4;22,3x14,7;23,2x15,1../17;17,3;23,5../149/модон бар/1842]
 10. *tuwara de ja obuha bidhei tašaraha babe tuwančihiyaha bidhe*, Үзэхэд хялбар болгон бичгийн алдааг залруулсан бичиг [1/29,3x17,8/19/81/модон бар/1848]
 11. *mongγo hergen i jurγan be faγsilaha bidhe*, Монгол үсгийн журмыг салгасан бичиг [.../29x17,7/19/209/модон бар/1848]
 12. *γarγata manju gisun i buleku*, Дан манж үгийн толь [8/20,3x12/16/160/модон бар/1879]
 13. *manju gisun i sonjofi sarkiyaha bidhe*, Манж үгийн сонгож сийрүүлсэн бичиг [4/24,5x15,5; 24,2x15,6/ 17,2;17,8;17,5/125/модон бар/1889]
 14. *ilan hačin I gisun qamčibuha tuwara de ja obuha bidhe*, Гурван зүйлийн үг хадмал үзэхүйд хялбар болгосон бичиг [5/28x18/.../418/гар бичмэл/?]²⁶⁾
 15. *niqan manju gisun i buleku bidhe*, Хятад манж үгийн толь бичиг [20/13,8x8,9/ 12,3/683/гар бичмэл/1852]
 16. *niqan manju gisun i buleku bidhe*, Хятад манж үгийн толь бичиг [18/17,4 x12,5/14,5/654/гар бичмэл/?]
 17. *niqan manju gisun i buleku bidhe*, Хятад манж үгийн толь бичиг [21/19,6x8,9/ 11,9/388/гар бичмэл/?]
 18. *mongγo manju gisun i bileku*, Монгол манж үгийн толь [12/16,8x14,4/9,7/гар бичмэл/?]
 19. *buleku bidhe či araha niyalmai beyei hačin*, Толь бичгээс хуулбарласан хүний биеийн зүйл [1/ 22,5x11,5/16,5/4/гар бичмэл/?]

25) 1708 онд хэвлэсэн Хорин нэгт толь бичгийг г дахин хянан засаж дээр нь хуучин ном судраас оруулаагүй орхисон чухал үгс болон шинээр тогтоосон нэр томъёог тусгай дэвтэр болгон нэмж хийсэн.

26) 1780 онд хэвлүүлсэн дармал толиос хуулжээ.

IV. СУРАХ БИЧИГ

1. *čing wen ki meng bidhe*, Чин вэн чи мэн бичиг [4/23,2x14,9/23,7x15,3/19,7;20/ 234/модон бар/1730]
2. *tongki fuqa aqū hergen i bidhe*, дусал бинтгүй үсгийн бичиг [4/31,8x21/22,5/228/модон бар/1741]
3. *emu be tačifi ilan be hafukiyara manju gisun i bileku bidhe*, Нэгийг сурч гурвыг сэхээрэх манж хэлний толь бичиг [4/25,2x18,4;25,7x18,8;24,6x18,2/20,5;21,4/290/модон бар/1746]
4. *manju gisun i oyongyo jorin i bidhe*, Манж үгийн чухал зорилгын бичиг [5/24,5x15,6/16,5/138/модон бар/1809]
5. *manju mongyo hergen i qamčime suhe san zi ging ni bidhe*, Манж монгол үсэг хавсарган тайлсан гурван үсгийн ном [4/25,3x16,6/21,2/302/модон бар/1832]
6. *manju ubaliyambuha ajiyan tačin i bidhe*, Манжаар орчуулсан бага суртахуй бичиг [6/24,5x15,9;25,5x15,2/...,18;18,7/374/ модон бар/1851]
7. *čin wen jiye zi bidhe*, Чин вэн жийэз бичиг [1/24,3x15/17/49/ модон бар/1864]
8. *manju gisun i untuhun i hergen i temgetu jorin bidhe*, Манж хэлний сул үгийн тэмдэг заавар [2/31,4x19,5/23,8/109/модон бар/1884]
9. *tuytan tačire urse urunaqū hūlači ačara bidhe*, Анхан сурах ард эрхбиш уншваас зохих бичиг [6/23,4x14,7/14,8/180/модон бар/1890]
10. *manju juwan juwe ujui bidhe*, Манж арван хоёр толгой үсгийн бичиг [1/25,8x15,1/ 15,6/61/модон бар/1890]
11. *dasame foloho manju gisun i untuhun hergen i temgetu jorin i bidhe*, Дахин сийлсэн манж хэлний сул үгийн тэмдэгт заавар бичиг [2/27,5x16,9;27,7x16,8/18,5;18,8/99/модон бар/1894]
12. *manju mongyo tačire bidhei buleku*, Манж монгол сурах бичгийн толь [11/7,8x12,9/7/ 321/гар бичмэл/?]
13. *manju niqan i fe gisun be jofoho ačabuha bidhe*, Манж хятад хуучин үгийг дүйлгэн онолдуулсан бичиг [4/24,5x15,3/18,5/219/модон бар/?]
14. *booi tačiqūi oyongyo jorin*, Гэрийн сургуулийн чухал заавар [4/25,2x15,8/20/104/?]
15. *hergen holboro urebure yangju*, Үсэг холбон боловсруулах байдал [1/26,5x14/19/28/гар бичмэл/?]
16. *suwampin i bidhe*, Сампины бичиг [1/23x23/20/23/гар бичмэл/?]

V. УРАН ЗОХИОЛ

1. *ilan gurun i bidhe*, Гурван улсын бичиг [24/34,4x23,4/26,2/2328/модон бар/1650]
2. *ilan gurun i bidhe*, Гурван улсын бичиг [24/24,5x12,5/20,5/2607/гар бичмэл/1650]²⁷⁾
3. *ju zi jiyei yoo bidhe*, Жүзийн хураангуйлсан чухал зохиол [11/21,2x17,3/18/243/модон бар/1675]
4. *han i araha gu wen yuwan giyan bidhe*, Хааны бичсэн эртний утга зохиолын үндсэн толь бичиг [40/30x19;30,4x19,5;29,1x18,8;29,1x18,8/20,9;23,1/4955/модон бар/1685]
5. *han i araha cing liyang san alin i ice zi bidhe*, Хааны бичсэн Чинлянган шан уулын шинэ жи бичиг [10/29,2x18,4;24,4x15,5/16,2;17,4/707/модон бар/1701]
6. *jing ping mei bidhe*, Жин пин мэй бичиг [48/25,1x16,4;23,1x15,6.;19;18,8/2743/модон бар/1708]²⁸⁾
7. *jing ping mei bidhe*, Жин пин мэй бичиг [48/24,5x16,3/18,7/1517/гар бичмэл/1708]
8. *ts'ai g'an tan bidhe*, Зай гэн тан бичиг(эрдмийн үндэс тэнхимийн бичиг) [2/25,5x16,7/ 19/94/гар бичмэл/1709]
9. *manju niqan hergen I qatcime araha si siyang gi ucun I bidhe*, Манж хятад үсэг хавсарган бичсэн Си сянган ки-гийн дууны тэмдэглэл [4/21,8x14,1/13,7/170/модон бар/1710]
10. *han i araha alin i toγso de halhūn be jailaha ji bidhe*, Хааны бичсэн, уулын тосгонд халуунаас зайлсан тэмдэглэл бичиг [1/27x17,5/13,5;17,5/88/модон бар/1711]
11. *han i araha sing li jing i bidhe*, Хааны бичсэн, чанар зүйн нарийн журмыг өгүүлсэн бичиг [12/26,4x18,3;27,5x18,5/906/модон бар/1717]²⁹⁾
12. *han i araha muyden i fujurun bidhe*, Хааны бичсэн Мүгдэний магтаалын бичиг [1/35x20/20,5;23/1027/модон бар/1743]³⁰⁾
13. *emu tangyū orin sayda i gisun i sarkiyan bidhe*, Нэгэн зуун хорин өтгөсийн үгийн сийрүүлэл бичиг [8/29,2x19,2/19,1/688/модон бар/1791]

27) Дэвтэрийн тоо болон утга агуулгаар дурдан буй хоёр эх хоорондоо адил бөгөөд гагцхүү хуудасны тоо өөр буюу гар бичмэл эх болно.

28) Мин улсын үеийн эрх баригч түшмэл ноёдын бурангуй буруу явдлыг буруушаан бичжээ.

29) Энх-Амгалангийн 56 дугаар он (1717) –ы энэхүү зохиолоос гадна үүнтэй дэвтэрийн тоо, хуудасны тоогоор ижил боловч Энх-Амгалангийн 54 дүгээр онд барласан “han banjibuha sing li jing i bidhe/хаан зохиосон Син ли жин-гийн бичиг” хэмээсэн өөр нэртэй бас нэгэн хувь буй.

30) Манж хэлний эвхмэл үсэг угтаа 32 янз байдаг бөгөөд тус номд 14 янз эвхмэл үсгээр бичиж 14 дэвтэр болгоод дэвтэр тус бүрийн эцэст эвхмэл үсэг тус бүрийн гарал учрыг товч тайлжээ. Энэ нь Га озун хуанди 1743 оны намар Мүгдэн хотод одох дашрамдаа Дай чин улсын анхны тулгар төр нийлэл байсан Мүгдэн хот түүний ойрхи уул ус, байгаль дэлхийн үзэсгэлэнг магтан шүлэглэсэн шүлгийн эвхмэл үсгээр хэвлэн гаргажээ.

14. *emu tangyū orin sayda i gisun i sarkiyān bidhe*, Нэгэн зуун хорин өтгөсийн үгийн сийрүүлэл бичиг [8/31x16/25,6/250/гар бичмэл/1791]³¹⁾
15. *sonjofi ubaliyambuha liyoo jai ži i bidhe*, Сонгож орчуулсан Лийоо жай жи и бичиг [24³²⁾/25,1x17,1/18,2/1009/модон бар/1848]
16. *ubaliyambuha julgei šu fiyelen*, Орчуулсан эртний утга уянга [16/26,6x15,6/18,4/ 796/модон бар/1851]
17. *jeu gurun i bidhe*, Жэү улсын бичиг [100/25,1x15,5/19/2515/гар бичмэл/?]³³⁾
18. *wargi han gurun i bidhe*, Баруун хан улсын бичиг [15/30x21/19/1234/гар бичмэл/?]
19. *giye žin i bidhe*, Гийэ жин и бичиг [12/24x19/23/811/гар бичмэл/?]³⁴⁾
20. *inenggidari sahangge be ačamjifi gisurehe bidhe*, Өдөр бүр мэдсэнийгээ нэхэж өгүүлсэн бичиг [4/27,5x16,8/22/363/гар бичмэл/?]
21. *cung fung miyen bidhe*, Чүн фүн мийан бичиг [8/27x22/23/337/гар бичмэл/?]³⁵⁾
22. *erdemungge sarγan jui hung iui i bidhe*, Эрдэмт охин Хун иүй-гийн бичиг [5/21x14,5/ 19/445/ гар бичмэл/?]
23. *šeng siyan juwan i bidhe*, Шэн сийан жүваны бичиг [32/26x21/19/1315/гар бичмэл/?]

VI. ГҮН УХААН ЗАН СУРТАХУУН, СУРГААЛЫН ЗҮЙЛ

1. *han i araha sain be huwekiyebure oyongγo gisun*, Хааны бичсэн сайныг хөхиүлэх чухал үгс [1/37x22,2/21/68/модон бар/1655]
2. *han i araha sain be huwekiyebure oyongγo gisun*, Хааны бичсэн сайныг хөхиүлэх чухал үгс [1/27x13,5/22,5/10/гар бичмэл/1655]
3. *dai hiyoo i jurγan be badarambuha bidhe*, Их суртахуйн журмыг бадруулсан бичиг [43/37,5x23,5/23/1406/модон бар/1672]
4. *inenggidari giyangnaha se šu i jurγan be suhe bidhe*, Өдөр бүр тайлбарласан

31) Гар бичмэл болон модон бараар буй энэхүү хоёр эх өөр хоорондоо утга агуулгаар яг адил буй. Улс мандаж, эрхэм сургал соёл дэлгэрсэн учир их бага сай д түшмэдий н хэрэг явдал, гавьяа зүтгэлийн тухай өвгөд хөгшидийн жараад үг яриаг эхний 4 дэвтэрт багтааж, багш шавийн сургах, сурах үй лс ийн тухай 50 үг яриа, эртний хэрэг явдлын 10 зүйлийн г сүүлийн 4 дэвтэрт багтаан бичсэн байдаг.

Үүнээс 15,17,18 дугаар дэвтэр дутуу буй.

33) Мин улсын үеийн ардын аман ярианаас авч бичсэн домог үлгэр бололтой. Үлгэрийн доторх явдал нь Шан улсын сүүлчийн хаан Жэү ванг Ү ван цэрэг авч дай лсан тухай нэгэн хэсэг үлгэр ажээ.

34) Эртний шүлэгчидийн шүлэг дуулалаас эмхэтгэн хураамжилсан зохиол.

35) Гурван эрэгтэй, эмэгтэй гэр бүл болсон тухай явдлыг өгүүлжээ.

- дөрвөн бичгийн журмыг тайлсан бичиг [26/33,8x23;34x22/22,8/2275/модон бар/1677]
5. *han i araha inenggidari giyangnaha šu ging ni jurγan be suhe bidhe*, Хааны бичсэн өдөр бүр тайлбарласан засагт номын журмыг тайлсан бичиг [19/36x22/ 23/1240/модон бар/1860]
 6. *han i araha inenggidari giyangnaha čun čiu i jurγan be suhe bidhe*, Өдөр бүр тайлбарласан шажинт номын журмыг тайлсан бичиг [65/34x21,6/23,4/3284/модон бар/1737]
 7. *inenggidari giyangnaha i ging ni jurγan be suhe bidhe*, Хааны бичсэн өдөр бүр тайлбарласан зурхайт номын журмыг тайлсан бичиг [18/34x21,5/23/2026/модон бар]
 8. *jalan de ulhibure oyongγo gisun i bidhe*, Ертөнцөд ухуулах чухал үгийн бичиг [1/22x14,2/16/41/модон бар/1704]
 9. *jalan de ulhibure oyongγo gisun i bidhe*, Ертөнцөд ухуулах чухал үгийн бичиг [1/25,5x16,5/20/гар бичмэл/1704]
 10. *duin fulehe oyongγo šošohon I bidhe*, Дөрвөн үндэсний чухал хураангуй бичиг [4/23,1x15,4/17,2/168/модон бар/1746]³⁶⁾
 11. *han i araha ubaliyambuha duin bidhe*, Хааны бичсэн, орчуулгын дөрвөн бичиг [7/23,6x15,5;26,9x16/18/412/модон бар]
 12. *han i araha ubaliyambuha duin bidhe*, Хааны бичсэн, орчуулгын дөрвөн бичиг [7/25,2x16,6/22/434/гар бичмэл/1755]
 13. *han i araha ubaliyambuha dasan i nomun*, Хааны бичсэн, орчуулгын, засагт ном [6/23,3x15,4/17/186/модон бар/1760]
 14. *han i araha ubaliyambuha jijungge nomun*, Хааны бичсэн, орчуулгын, зурхайт ном [6/23,3x15,4/17/186/модон бар/1765]
 15. *han i araha ubaliyambuha irgebun i nomun*, Хааны бичсэн, орчуулгын, шүлэглэлт ном [8/26,3x16,2;24x16/18/404/модон бар/1768]³⁷⁾
 16. *han i araha ubaliyambuha dorolon i nomun*, Хааны бичсэн, орчуулгын, ёслолт ном [30/26,7x15,7/17/879/модон бар/1783]³⁸⁾
 17. *han i araha ubaliyambuha šajingγa nomun*, Хааны бичсэн, орчуулгын, шажинт ном [64/25x16,7/15/2656/модон бар/1784]³⁹⁾

36) Энэхүү зохиолд гэрээ дээшлүүлэх, засах, тэгшитгэх, хамгаалах дөрвөн үндсийн тухай өгүүлжээ. Өөр өөр хэлбэл дөрвөн үндэс гэгч нь бичиг сурах нь гэрийг дэгжээх үндэс, хичээнгүй арвич нь гэрийг засах үндэс, элэгсэг найртай нь гэрийг тэгшлэх үндэс, ёс зүйг дагах нь гэрийг хамгаалах үндэс хэмээн буй.

37) Хойч үеийн хүмүүст сургаал болгохын тулд эртний Жэу улс болон тэр үеийн олон улсын төр, засаг засаглалын талаар онож алдсан алиныг тоочин гаргажээ. 1654 оны үес манж хэлнээ орчуулсаныг 1768 онд манж хятад хэлээр хавсарган гаргажээ.

38) Энэхүү номд эрт үеэс манж Дайчин улсын үе хүртэлх алив тахилга, ураг бололцох, хувцас малгай өмсөх зэрэг үндсэн заншил ёслолыг хураан өгүүлжээ.

39) 1784 онд манж хятад хэлээр хавсран гаргасан бөгөөд Ло улсын Ен гүнгийн тэргүүн оноос Ло улсын гүнгийн 27 он хүртэл бүгд 242 жилийн хоорондох хятадын хөгжил буурал, түшмэдийн сайн муут

18. *nadan tačihyan be urunaqū hūlabure bidhe*, Долоон сургаалыг эрхбиш уншуулах бичиг [1/23x15,5/19/28/бийрийн бичмэл/1764]⁴⁰⁾
19. *tondo nomun*, Шударга ном [1/24,5x15,8/19/30/модон бар/1851]
20. *ninggun baitai tarγabun gisun bidhe*, Зургаан хэргийн цээрлэл үгсийн бичиг [4/24,5x16/18/142/модон бар/1851]⁴¹⁾
21. *hiyoošungγa nomun*, Ачлалт ном [1/28x16/18/28/модон бар/1856]
22. *ilan hačin i gisun qamčibuha hafan i dasan i oyongγo be isabuha bidhe*, Гурван зүйлийн үг хадмал түшмэлийн засгийн чухлыг хураасан бичиг [2/27,8x17/19/98/модон бар/1822]
23. *ubaliyambuha jalan de ulhibure oyongγo gisun i bidhe*, Орчуулсан, ертөнцөд ухуулах чухал бичиг [4/25x16,5/17,8/91/модон бар/1867]⁴²⁾
24. *enduringge tačihyan be neileme badarambuha bidhe*, Богдын сургаалыг сэнхрүүлэн бадруулсан бичиг [1/27x16,5/18,5/85/модон бар/1890]
25. *kungz i bidhe*, Күнзийн бичиг [4/24,5x20,5/20,4/129/бийрийн бичиг/?]⁴³⁾
26. *mengz i bidhe*, Мэнзийн бичиг [7/24,3x17/19/420/модон бар/?]⁴⁴⁾
27. *huwang ši gung ni su šu bidhe*, Хуан Ши гүнгийн сү шү/цагаан/ бичиг [1/21,9x14,2/ 16,5/35/модон бар/?]⁴⁵⁾
28. *s'e šu gi ju bidhe*, Сэ шү жи жү бичиг/тайлбарт дөрвөн бичиг/ [13/24,3x18,8/ 20,8/794/модон бар/?]
29. *pan ši i šošohon leulen i bidhe*, Пан ши-гийн хураангуй шүүмжлэлийн бичиг [1/22x14,2/16/54/модон бар/?]⁴⁶⁾
30. *mujilen be dasara oyongγo hačin I bidhe*, Сэтгэлийг засах чухал зүйлийн бичиг [1/23,5x12, 17,5/30/гар бичмэл/?]
31. *orin duin hiyoošun i bidhe*, Хорин дөрвөн ачлалын бичиг [1/23,3x13,2/19/13/гар бичмэл/?]⁴⁷⁾

тоочин тэмдэглэсэн судар ажээ.

- 40) Күнзийн сургаалын номоос түүвэрлэн авч зарим хэсгийг дэлгэрүүлэн тайлах зэргээр манж хятад хадмал нэгэн дэвтэр болгосныг хожим зөвхөн манжаар хуулсан нь энэ ажээ. Эцэг эх, ураг саднаа элбэрэн ачлах, хөгшин залуу, хүүхэд багачуудыг хүндэтгэн энэрэх, эрдэм номд шамдан сурах, ажилч хичээнгүй болохын тухай зэрэг 7 зүйлийн гарчигтай сургаал юм.
- 41) Биеэ залах, гэрээ засах, түшмэл суух, гацаанд сууж хэрэг шийтгэх, хүнийг нарийн үзэх зэргийг зургаан зүйл явдлаар болгоомжлон явахыг өгүүлжээ.
- 42) Биеэ залж явдлаа засахыг чухал болгон өгүүлсэн энэ номыг Мэн боо хэмээгч хүн манж хэлнээ орчуулж 1867 онд хэвлэжээ.
- 43) Күнзийн сургаалын 152 бүлгийг манж хэлнээ орчуулсан орчуулгын эх ноорог. Хэн хэзээ орчуулсан нь тодорхойгүй.
- 44) Манж хятад хадмал орчуулгатай.
- 45) Хуан ши гүнгийн сургаал. Дайчин улсын Дахай багш манж хэлнээ орчуулжээ.
- 46) Биеэ залах, улс гэрээ засах тухай өгүүлжээ.
- 47) Ачлан элбэрэхүйтэй холбогдсон чухал сургаалын зүйлийг эртний элдэв ном судраас түүвэрлэн хурааж бичжээ.

VII. ЦААЗ ХУУЛЬ

1. daičing guruni i fafun i bidhe qooli, Их Чин улсын цаазын бичиг хууль
 - a. [1/37x22.5/26-31/77/модон бар/1672]⁴⁸⁾
 - b. [30/36,5x22/28/814/модон бар/?]
 - c. [30/37,5x22,5/30/1882/модон бар/1726]⁴⁹⁾
 - d. [47/36x23,3/25/2120/модон бар/1741]⁵⁰⁾
 - e. [47/36,4x23,2/24,5;30/2932/1803]⁵¹⁾
2. hesei toytobuha hafan i jurγan i qooli, Зарлигаар тогтоосон түшмэлийн явдлын яамны хууль [3/30x20/19/144/модон бар/1742]
3. uqanju be qadalame jafara qooli, Босгуулыг захиран барих хууль [2/36x22/24/168/модон бар/1740]
4. hesei toytobuha daičing gurun i uheri qooli i qooli hačin i bidhe, Зарлигаар тогтоосон Их Чин улсын бүгд хуулийн хууль зүйлийн бичиг [180/29,5x19/20,5;23,8/12016/модон бар/1731]
5. hesei toytobuha manjusai wečere medere qooli bidhe, Зарлигаар тогтоосон манж нарын тайх тавиглах хуулийн бичиг [6/30x20/20/413/модон бар/1747]⁵²⁾
6. hesei toytobuha čoochai jurγan i baitai qooli i bidhe /jaqūn yūsai čoochai qooli/, Зарлигаар тогтоосон цэргийн явдлын яамны хэргийн хуулийн бичиг /найман хошууны цэргийн хууль/ [32/27,6x17,5/16/2438/модон бар/1802]
7. hesei toytobuha čoochai jurγan i baitai qooli bidhe /niowanggiyan durun i qūwaran /, Зарлигаар тогтоосон цэргийн явдлын яамны хэргийн хуулийн бичиг /ногоон тугийн хороо/ [32/26,17,1/18,5/2411/модон бар/1802]⁵³⁾

48) Эеэр засагчий н Зр онд /1647/зохион бичсэн 30 дэвтэрий г цаг үед ний цүүлэн засаж 47 дэвтэр болго н Энх-Амгалангий н 10 дугаар /1672/онд дахин хэвлэсэн бай на.

49) Энх-Амгалангий н үед Дай чин улсын цаазын бичгий г хэд хэдэн удаа хянан засах, нэмэх зэргээр б оловсруулж бай сан боловч хэвлэн гаргаагүй бололтой . Үүний г Най ралт төв хаан хянан нягтлаад о ршил бичиж 1726 онд хэвлэн гаргажээ. Урьд цаазын бичиг 458 зүй лтэй бай саньг 446 болгон дээр нь хууль зүй л 824-ий г хавсарган, “Тай лсан үг тавьж үй лдсэн Дай чин улсын цаазын бичиг хуул ь” хэмээн нэрлэжээ.

50) Тэнгэр тэтгэсэн хааны үед нэмэх хасах зэргээр дахин боловсруулж 47 дэвтэр болгон 1741 онд хэвлэ жээ.

51) Өмнөх 47 дэвтэрий н цаазын зүй лд өөрчлөлт оруулалгүй хэвээр үлдээж зөвхөн хавсаргасан хуульд нэлээд зүй л нэмээд зарим хятад үг үсгий г манж болгон Сай шаалт ерөөлтий н үед/1803/ гаргажээ. Тэргүүн дэвтрий н хураангуй хуулий н 6р хуудсанд “Сай шаалт ерөөлтий н 6-р/1802/ оны 3 сараас хо й ших хуулий г Тэнгэрий н тэтгэсний 11-р/1747/ онд ай лтгаж тогтсон ёсоор үүнээс урагш дараа дар аагаар нэмж зохиох газар буй аваас 5 жил болсон хой но зохион бичиж цаазын бичиг хуулий н хой но хавсарган ... явуулахыг үүрд хууль болгов ” хэмээн бичжээ.

52) Манж нарын тай х тавиглах ёс, залбиран шивших үгс болон сав хэрэглэлий н хэмжээ, зураг сэлтий г багтаасан хууль бөгөөд 1747 онд хэвлэжээ.

Зарлигаар тогтоосон ногоон тугийн хорооны хууль дүрмийн хураамж ажээ.

8. hesei toytobuha ёооһаi jurγan i baitai qooli bidhe /niowanggiyan durun i qūwaran i qooli/, Зарлигаар тогтоосон фэргийн явдлын яамны хэргийн хуулийн бичиг /ногоон тугийн хорооны хууль/ [40/30x19,7/23/3518/модон бар/?] 54)
9. hafan sindara dasan i durun, Түшмэл тавих засгийн дүрэм [1/23x12/15,5/16/гар бичмэл/?]

VIII. МОНГОЛ НОМЫН ФОНДОД БУЙ МАНЖ НОМ⁵⁵⁾

1. Манж монгол үсгийн Богдын сургаалыг сэнхрүүлэн бадруулсан бичиг [1969/96]
2. Монгол хятад манж үгийн тулгар бичсэн өчүүхэн тэмдэглэл [1275/96]
3. Монгол улс анх манж улсаас тусгаарлах тухай харилцаж байсан хэргүүдийн түүвэр [1553/96, 9094-95]
4. Манж Монголын холбогдсон түүхт байдал [39-42/96]
5. Манжийн тэгүбүри [8791/96]
6. Манжийн хаадын он дараалал, арга он ба 12 жилийн өнгийг үзүүлсэн бичиг [1175/96]
7. Манж үсгээс монголоор орчуулсан хойд газрын аймгийн ойллого бичиг[1100/96]
8. Манжийн хаанаас Жавзандамба хутагтад буулгасан зарлиг, шагнасан зүйлийг сийрүүлэн бичсэн дэвтэр, Төр гэрэлтийн 21р он. [1278/96]
9. Манжийн хааны зарлигаар төвдийн хэрэг шийтгэгч сайд Жан амбан бээр Бадаргуулт төрийн 33р онд Төвд нарт сургамжилсан захиа дүрмийн бичиг
10. Манжийн хааны зарлигаар Жавзандамба ламд удаа дараа буулгасан зарлиг ба шагналын тухай [1177/96]
11. Манж номын товчоо данс [4014/96]
12. Гурван зүйлийн үг хадмал түшмэлийн засгийн чухлыг хураасан бичиг[2547/96]
13. Гурван зүйлийн үгээр хавсарсан нэрт эрдэмтэний хураасан бичиг [2540-45/96, 2548-49/96, 2551-59/96]
14. Богдын сургаалыг сэнхрүүлэн бадруулсан бичгийн оршил [2503/96]
15. Богдын сургаалыг сэнхрүүлэн бадруулсан бичиг [1361-62/96]

54) Хэвлэсэн он сар үгүй . Олон мужид сууж байсан ногоон тугийн цэргийн тухай хууль юм.

55) Монгол номын бүртгэлд буй тэр хэвээр орууллаа.

16. Хааны бичсэн манж үгийн толь бичиг [3430/96]
17. Хааны бичсэн манж үгийн толь бичиг.Тайлбар толь. [1925-26/96]
18. Хааны бичсэн нэмж тогтоосон манж үгний толь бичиг 1-32 дэвтэр. [1879-89/96,1894-1903/96, 1904-13/96]
19. Хоёр зүйлийн үг хадмал сургаалын бичиг болой. [3482/96]
20. Манж монгол дөрвөн үсгийн толийн түүвэр бичиг [3433/96]
21. Манж монгол үсгийн сурах бичиг ба чин ван ги мин-гийн бичиг [3559/96]
22. Манж монгол үсгийн бичмэл. Эрдэмтний хэлэлцсэн үгийн тэмдэглэсэн сурах бичиг [3358/96]
23. Манж монгол хятад гурван зүйлийн үсэг хавсарсан толь бичиг [3367/96]

Монгол дахь манж хэл судлал, сурвалж бичгийн түүх өнө удаан хэдэн зууны түүх тэй билээ.⁵⁶⁾ Монгол улсад хадгалагдан буй манж сурвалжууд он цагийн эрхээр үрэгдэх, алга болох зэрэг нөхцөл байдалд байсан ч одоо байгаа эдгээр ном сударыг шаардлага хангасан нөхцөлд хадгалах хамгаалах, цахим данс бүртгэлд хамруулах, судалгаа шинжилгээний эргэлтэд бүрэн оруулах гэх зэрэг чухал асуудлууд тулгарч хийж буй юм. Мөн ганц хувьтай эхүүдийг гэрэл зургаар хадгалах, олшруулах, урагд аж навтарсан эхийг сэргээж тордох, судлаач шинжээчдэд төвөг чирэгдэл багатайгаар үзэж судлах боломжийг хангах нь нэн даруй хийх ажил билээ.

56) 1382 оны Нангиад зөрчид хадмал “Ий Йи Йүи” бичгийг зохиосон Хо Юаньцзе нь эрдэмтэдийн ното лдоогоор монгол хүн байсан гэвэл энэ одоогоор бидэнд мэдэгдээд байгаа зөрчид манж хэлээрх монголчуудын туурвилын хамгийн эртний х болно.

Ашигласан ном:

М.Баярсайхан Т.Отгонтуул(1997), “Монгол -Манж толь бичиг” УБ, МУИС хэвлэх үйлдвэр.

Г.Буянтогтох М.Баярсайхан(1992), “УТНС-ийн манж хөмрөгийн ном зүйн бүртгэл” УБ, МУИС хэвлэх үйлдвэр.

А.Лувсандэндэв(1962), “Гучин зургаат тайлбар толь” ОУМЭ-ний анхдугаар их хурал, 1-р дэвтэр УБ.

Чой.Лувсанжав Ц.Шархүү(1968), “Манж Монгол толь бичиг” УБ.

Го.Мижиддорж(1992), “Нэгэн зуун хорин өтгөсийн үгийн буулгал” хэмээх номын тухай МУИС МСХ, МС, УБ.

Л.Мишиг(1995), “Манж Нишан удганы бичиг” УБ.

Л.Мишиг(1959), “Улаанбаатар хот дахь улсын номын сангийн манж номын хөмрөгт байгаа манж номын гарчиг” УБ.

Б.Ринчен(1959), “Тонгки фүка аку хэргэн и бидхэ” УБ.

Я.Шаарийбуу(1999), “Манжийн утга зохиолын дээж” УБ.

Т.Отгонтуул(2009), “*Нишан удганы бичиг*” (Nišan saman-i bidhe)УБ,Соёмбо хэвлэлийн газар.

Э.Мөнхцэцэг(2003), Монгол улс дахь манж номын бүртгэл, Түүхийн судлал, Уб,боть XXIV, х 172-178.

Т.Отгонтуул(2001), “Mongyul daki manju sudulul-un toyimu” Journal of Inner Mongolia Iniversity, Philisorhy&Social Sciences in Mongolian, Hohhot, China, 2001.1.(97), pp83-89.

Я.Цэвэл(1978), Нэхэн дурсах дуртгал, Шинжлэх ухаан амьдрал, №3. х12.

Т.Отгонтуул:

Lecturer/Ph.D/, Department of Mongolian language and Linguistics, Faculty of the Humanities, School of Art and Sciences, National University of Mongolia.

[Tel:+\(976\)-9907 9819](tel:+976-9907-9819)

E-mail: totgontuul@yahoo.com

몽골국립중앙도서관¹⁾에 소장 중인 만주어 문헌

오트콩틀(몽골국립대)²⁾

[1] 서론

어떤 나라든지 발전은 문자문화 없이 상상하는 것은 불가능한 것이다. 만주민족이 청나라를 세웠을 때 비록 짧은 기간이지만 문자생활은 아주 높은 수준에 도달할 수 있었다. 그들은 중국의 옛문헌을 기초를 하여 철학, 문학 등을 거의 모두 번역하고, 간조르에서 옛 인도와 티베트³⁾ 기타 많은 경전을 만주어로 번역했을 뿐만 아니라 법률, 문학, 종교, 역사 외에 다양한 귀중한 문헌자료를 모국어로 써서 남겼다. 만주 정부에서는 언어연구를 적극적으로 하여 백과사전, 해설사전, 2-6개국어 번역 사전, 강독을 위한 많은 대역 번역, 교과서 등을 만들고, 여기에 전문용어와 공문서식을 정리하고, 문법을 재정립하고, 외래어를 적절하게 기록하기 위해 만주 문자를⁴⁾ 많이 수정 보완하여 발전 시켰다⁵⁾. 그것 중에서 적지 않은 문자 문헌은 몽골국립중앙도서관과 국립문헌보관소에 지금도 보관 되고 있다. 몽골국립중앙도서관에 보관되고 있는 만주어 문헌의 풍부한 자료는 약 100년 전인 1921년에 설립한 “경서연구소”⁶⁾에서 시작되었다. 경서연구소가 설립된 후부터 옛 문헌이나 경전을 수집하고 정리하여 보관에 주의를 했기 때문에 “경서연구소에 그 때 일을 했던 모든 연구원들은 경전과 문헌을 수집을 위해 열심히 노력한 끝에”⁷⁾ 풍부한 도서관을 갖추게 되었다. 이런 풍부한 문헌을 연구하고 정리하여 만주어로 된 문헌을 연구 대상으로 삼아, 번역 출간하는데 우리 학자들은 많은 공헌을 했다.

- 1) 몽골국립중앙도서관은 소장 장서가 300만권에 이르는 몽골에서 제일 큰 도서관이다. 지금 5 부서에 90명의 직원이 있다. 동양문고에는 중국어, 일본어, 한국어, 베트남어, 만주어의 책들이 10만권이 보관되어 있다. 본 문고는 전자전산 작업이 이루어 지지 못했다. [./www.nationallibrary.mn/](http://www.nationallibrary.mn/)
- 2) 전임교수/Ph.D/, 몽골국립대학교, 예술과학대학, 인문학부, 몽골어-언어학과
- 3) 강희황제(1662-1723)에서 시작하여 특히 옹정(1723-1736), 건륭황제(1736-1796)의 시대에 만주인들은 불교서적을 몽골어 뿐만 아니라 만주어로 번역하여 출판하는 것이 유행했다. 예를 들면; 만주어 단조르, 만주어로 “Очироор ог тлогч(금강사로 절단자)”, “Цагаан шүхэрт(하얀 우산)” 등을 들 수 있다. 이 일에 만주인뿐만 아니라 몽골학자들이 참여했을 것은 당연할 것이다. 일반적으로 만주어의 불교서적을 어떤 언어에서 누가 번역을 했고, 만주 불교문학의 경우에 어휘, 전문용어가 어떻게 생겨났는지에 관한 연구는 지금까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 4) 몽골인들은 몇 백년 전에 전해져 오는 문자문화와 문어는 만주인들에게 문자가 생겨날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 그리고 “대청 정부 건립 정책 문서” 제3권에: “... 기해년 2월에 만주 글자를 처음 만들었다. 그 때에 국내외로 보내는 모든 글은 몽골어로 번역하여, 몽골문자에서 배웠다는 것을 태조황제, 에르덴 선생, 가개 가르에게 몽골문자를 바꾸어 만주문자로 사용하게 령을 내렸다.....”라고 기록되어 있다. 이렇게 에르덴 선생과 다해 의사 등에게 몽골 자모를 첨가하고, 획순을 바꾸는 방법으로 만주어에 맞게 만든 것은 1632년이고 앞으로 중국어, 티베트, 산스크리트어, 다라니 문자 등을 자세히 기록하는 전사문자를 만들 수 있었다.
- 5) 엠.바이르사이항, 테.오트콩틀, 몽골어-만주어사전, 울란바타르, 1997.
- 6) 몽골은 1921년 인민혁명후 자주권이 있는 독립국가가 설립되면서 민족 문화가 발전할 수 있었다. 인민혁명이 성공한 후 4개월 뒤 모든 국민을 위한 첫 도서관의 초석이 되어 1921년 11월 9일에 인민정부의 제24회 회의의 결의 제 3항에 경서연구소 설립을 지시한 것에 근거하여 본 연구소의 업무 목적, 조직을 명확하게 하여 정부가 참여함으로써 1921년 11월 19일에 연구소 규칙을 결정하여 경서연구소가 공식적으로 설립하게 되었다. 이 연구소/지금의 과학원/소장 오.자밍, 비서 체.바트-오치르, 테.다쉬남, 연구원 제.체벤 등이 개인 장서를 모아서 2,000권의 책으로 처음으로 도서관을 설립했다.[./www.nationallibrary.mn/](http://www.nationallibrary.mn/) 1924년에는 몽골어로 60권, 티베트어로 250권, 일본어로 1,400권, 유럽 및 기타 언어로 2100권 정도의 장서를 갖추게 되었다., 몽골인민공화국의 문화사, 울란바타르, 1981년, pp179.
- 7) 야.체벨, 회상기념, 과학생활, No3, pp.12

몽골에 보관되고 있는 만주어 서적 등록은 처음 1930년대 “경서연구소 도서관의 모든 만주어 서적 장부”에 기록했으며 이에 기록된 문헌은 국립중앙문헌보관소에 보관되고 있다.⁸⁾ 1929년에 처음으로 이 등록에 만주어 서적이 중복된 숫자는 모두 343 서적으로 등록했으며, 만주어 서적을 년도별로 구별하고, 내용면으로는 구별하지 않고 단지 순서대로 나열했다. 이후 30년이 지난 1959년에 만주학자 엘.미식은 “울란바타르시에 있는 국립도서관 만주문고에 있는 만주어 서적 목차”라는 이름으로 만주어 서적 목록을 출간했다. 1993년 게.보잉톡토흐, 엠.바이르사이항 등 “국립중앙도서관 만주문고 문헌 등록”을 출간했다⁹⁾.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두개의 등록은 서로 다른 특징이 있으며, 엘.미식은 만주어 서적 목차를 뽑고 황제 표창, 법률, 군사관련 서적, 사전, 교과서, 문학, 철학, 도덕률 비롯한 9개 항목으로 나누어 출판년도별로 순서를 매겼다. 본 도서관에는 모두 186권으로 기록된 책장부에서역사서, 표창문을 아주 상세히 서술하고, 서적별로 내용을 몽골문어로 설명을 했으며, 또한 본 서적의 크기, 행의 길이, 서적 숫자, 페이지 숫자 등을 일일이 기록했었다.

그런데 게.보잉톡토흐, 엠.바이르사이항 등의 문헌등록에 만주어 원서 중에서 흥미로운 사실을 뽑고, 출판년월일을 만주어로 쓰고, 몽골어로 번역하여 키릴문자로 그 서적의 목차를 제시한 것이 기존의 것과 차이가 있다. 또한 약180 권의 서적이 포함되었으며, 그것들을 왕조별로 구별하고, 또 년도별로 목록을 만들었었다.

만주 서적은 위의 세 등록을 비교하여 보면 서로 많은 차이점이 있다. 엘.미식의 1929년에 작성된 등록에는 모두 343권이 등록되어 있는데 뒤에 제작된 두 등록에는 81권이 등록되어 있지 않다¹⁰⁾. 게.보잉톡토흐, 엠.바이르사이항 등이 이 등록을 만들 때 기존의 등록을 참고하여 만들었으며, 이 등록을 만들 때는 즉 엘.미식 선생이 조사 등록한지 34년후라서 많은 서적이 분실되었다. 예를 들면, 칭기스칸 시대 필사본(*činggis han i duruyan*), 만주어 허사 표기법(*manju gisun i untuhun i hergen i temgetu jorin bidhe*), 늑은이의 지혜로운 교훈서를 주석한 책¹¹⁾ (*sengge saisai booi tačihyan I bidhede asabuha gisun sindaha bidhe*) 등의 서적이다. 이렇게 만주어 문헌들이 과거에 무슨 이유로 사라졌지는 모르지만 아마 다른 사람들의 손을 거쳐서 없어졌을 것이다¹²⁾. 또한 책의 이름은 맞으나 실제로 완벽하지 않고 결실본이 아주 많다. 지금의 현황으로 몽골국립중앙도서관 동양문고에 만주어 책은 중복 책자를 포함하여 총 6000권 정도가 있으며, 몽골국립대학교 문헌학연구실 학생들이 2011, 2012, 2013년도에 걸쳐 만주어 책 전자전산작업을 실습기간에 하여 완료했다. 2011, 2013년도 과제로 학생들에게 모든 만주어 책의 목록을 작성하여 카탈로그를 만들어 주었다. 그리고 561권의 전산 목록을 입력해 준 것은 대부분 서류와 사전 종류 였다. 그리고 2013년 과제로 남은 책자를 국제도서관과 통합 정보 혹은 정보찾기 종합 카탈로그/*Online computer library center*/에 입력함으로써 전자전산 원본을 준비해 주었다¹³⁾.

우리는 이번 발표에 몽골국립중앙도서관 동양문고 만주어 문헌을 다음과 같이 몇 부분으로 나누어 오늘 보존되고 있는 것에서 간략하게 소개를 한다. 또한 강희 시대에서 광서 시대까지 총 36 표창이

8) 이 장부는 27,5x28,5 크기이고, 총 32페이지이다./부록1 참조/

9) 이 기회에 부연하면, 몽골국립중앙도서관의 몽골문고의 등록 목록은 몇 번 출판되었으며, 이 문고에 또 만주어와 몽골어 대역 번역본이 있다는 것을 정리하여 논문에 게재했다. 몽골 서적의 등록을 몇 번 실시했으며, 자담브 “제8대 잠잔담브의 몽골어 필사본 목록”, “국가도서관의 필사본 문학 목록”, “국가도서관에 있는 역사 및 역사 관련 필사본 몽골어 목록”, 체.나란토야, 데.엔흐통가락 “몽골에 있는 몽골어 필사본 경서 목록”을 출간했다.

10) 에.멍흐체첵, 몽골에 있는 만주어 서적 등록, 역사연구, 울란바타르, 권XXIV, pp.173.

11) 다양한 교훈작품집이 될 이 글에 혈령 보이르 신바르그의 사람 구베리(1831-1890) 선생의 설명에 근거하여 서론을 1869년에 맞췄다. 이후 이 글을 1907년에 베껴서 엘.미식(1959:247)에게 남겼다. [1/20,8x20,7/16/43/필사본]

12) 1930년대 몽골에 와 있었던 외국학자들(티베트학자 토바양스키)은 중앙도서관에서 연구목적으로 옛 문헌을 보고자 했을 때는 우편으로 빌려 주었으며 돌려 받을 때는 문헌을 잘 확인하지 않고 받았다고 그 당시에 학자들은 이야기를 했을 뿐만 아니라 후에 한 신문에 이에 관한 것을 실었다고 예술대학교 교수 축트가 말한 것을 여기에 다 말할 수 없다. 또한 많은 경전들이 부리아트로 바쳐 나갔고 말들이 있다. 도서관 관장을 지낸 몇 지휘관의 책임없는 행동으로 위와 같이 얼마나 경전이 어디로 바쳐 나갔는지 말하기 어렵다.이 외에 몽골국립대학교 도서관의 1976년 화재로 보관 중이던 만주어 몽골어 많은 숫자의 경전이 소실 되었다.

13) 몽골국립중앙도서관은 2013년부터 본 도서관과 협력 체결을 하여 2014년부터 시작한 티베트문고의 1,000권 정도의 책을 등록카드에 등록했다.

있으며 현재 몽골국립중앙도서관에 보관되어 있음으로 우리는 따로 빌려서 보지 못했다¹⁴⁾. 이것들은 할라흐, 더르브드, 토르골드의 왕궁 귀족이라는 칭호를 수여함과 더불어 신분을 임계하는 것을 비단에 실로 수를 놓았으며 또한 종이에 붓으로 쓴 문자들이다. 접고 마는 방법들은 몇 방법이 있었다.

이외에 만주정부의 공문, 접는 법 및 작성년도는 명확하지 않았고, 번역한 작품의 원자는 명확하지 않는 등 60권 정도의 문헌이 있다. 지금 등록되어 있는 180권 정도의 만주어 문헌에서 강희(1662-1723)시대에 포함되는 것이 27권, 건륭(1736-1796)시대에 포함되는 것이 36권, 도광(1821-1851)시대에 포함되는 것이 13권 등 기타 왕조시대에 포함되는 것은 아주 적은 숫자였다.

I. 역사

1. *aisin gurun i suduri*¹⁵⁾, Алтан улсын судар [9 дэвтэр, хэмжээ 36,4x22, мөрийн урт 25,5, нийт хуудасны тоо 384¹⁶⁾, модон бар, 1636-1639]¹⁷⁾
2. *dailyoo gurun i suduri*, Их ляо улсын судар [8/ 34x20,6/ 25/ 255/ модон бар/1636-1639]
3. *hafu buleku bidhe*, Нэвтэрхий толь [80/ 36x21,5/ 27/ 4836/ модон бар/1664]¹⁸⁾
4. *han i araha zi ji tung giyan g'ang mu ciyan biyan bidhe*, Хааны бичсэн зи жи түн жиян ган мү чийан бийан бичиг, [25/34,2x20;31,1x19,3; 25,7x17,6/21,1/655/ модон бар/1692]
5. *zi ji tung giyan g'ang mu bidhe*, Зи жи түн жиян ган мү бичиг [59/34,4x20,1; 30,1x19,2; 26,2x17,7/ 20,1; 20,3; 19,7/ 5095/ модон бар/1691]
6. *sioi zi ji tung giyan g'ang mu bidhe*, Сиүи зи жи түн жиян ган мү бичиг [27/34,4x20,3; 30,2x19,3; 25,7x17,5/ 20; 21,3; 21,2/ 2623/ модон бар/1691]
7. *han i araha wargi amargi ba be necihiyeme toytobuha bodoyon i bidhe*, Хааны бичсэн баруун хойд газрыг төвшитгөн тогтоосон бодлогын бичиг [48/32,5x18,8/21,3x23,5/ 3170/ модон бар/1699-1809]
8. *daičing gurun i taizu dergi huwangdi i enduringge tačihyan*, Их Чин улсын Тайзү дээд хуандийн Богд сургаал [4/29,4x19,7/ 22; 23,2/117/ модон бар/1686;1739]
9. *daičing gurun i taizung genggiyen šu huwangdi i enduringge tačihyan*, Их Чин улсын Тайзүн гэгээн соёлт хуандийн Богд сургаал [6/29,5x19,8/19,5-23/195/модон бар/1687;1739]
10. *daičing gurun i šizu eldembuhe huwangdi i enduringge tačihyan*, Их Чин улсын Шизү гэрэлт хуандийн Богд сургаал [6/29,5x19,8/21,5-23/175/ модон бар/1687;1739]
11. *daičing gurun i šengzu yosin huwangdi i enduringge tačihyan*, Их Чин улсын Шэнзү өршөөлт хуандийн Богд сургаал [60/29,9x20/21,5-22,5/2668 / модон бар/1731;1741]

14) 체.나라토야, 데.엥흐통가락(2011:35) “몽골에 있는 몽골어 필사본 연구 목록”을 참고하기 바람.

15) 만주어를 전사할 때 몽골국립대학교 전사법에 따라서 했다. 이 전사법은 엠.바이르사이항(2007:94)에 “만주 문자는 몽골문자를 기초로 하여 만들었기 때문에 음성 전사는 몽골문자 음성 전사와 같아야 한다. 만주 연구는 처음 중국 연구의 한 부분으로 연구가 시작 했을 때 몽골문어를 모르는 연구자는 만주문자의 어떤 로마자 전사를 만들었기 때문에 만주문자와 몽골문자는 서로 모양이 같았나 소리는 서로 다르게 전사한다...”라고 그것들의 다르게 전사하는 글자에 대하여 자세하게 의견을 제시했다.

16) 만주어 서적 등록 전의 작품들 마다 페이지 숫자를 반영했으며 여기에 우리는 모든 책의 전체 숫자를 포함해서 제시했다.

17) [책자9, 크기 36x22, 행의 길이 25,5, 총페이지 숫자 384, 목판본, 출판년도] 이후 [9/36x22/25,5/384/1636-1639] 라고 간략하게 쓴다.

18) 이 글을 만주학자 엘.텐텡의 서론으로 몽골문서보관소 직원 노롭수렌, 바드마한드 등은 만주어에서 몽골어로 번역하여 1958년에 번역 완료한 것을 엘.미식[1959:13] 회고하고 있다. 이 번역본은 지금 국가문서보관소에 보관되어 있다.

12. *daičing gurun i šizung temgetulehe huwangdi i enduringge tačihyan*, Их Чин улсын Шизүнг тэмдэглэлт хуандийн Богд сургаал [36/30x20/20-22,4/2668/1256/ модон бар/1746]
13. *jun yar i ba be nečihyeme toytobuha bodoyon i bidhe*, Зүүн гарыг төвшитгэн тогтоосон бодлогын бичиг [1-8*19),9-45/ 34,8x21,5/22,5/8383/ модон бар/1770]²⁰⁾
14. *daičing gurun i fuyjin dorо be neihe bodoyon i bidhe*, Их Чин улсын тулгар төр нээсэн бодлогын бичиг [32/36,5x23,5/24-26/1644/ модон бар/1774]
15. *abqai hesei foryon be aliha hūwangdi hese*, Тэнгэрийн бошигоор цагийг эзэлсэн хуандийн зарлиг (Тэнгэрийг тэтгэсэн-1776) [...²¹⁾93,3x88/66/4/модон бар/1776]
16. *hesei toytobuha tulergi mongyo hoise aiman i wang gung sai iletun ulabun*, Зарлигаар тогтоосон гадаад монгол хотон аймгийн ван гүн нарын илтгэл шастир [120/35x22,5/25,1-24/2727/ модон бар/1779]
17. *hesei toytobuha sirame banjibuha (ačabuha) tulergi yoloji mongyo hoise aiman i wang gung sai iletu ulabun*, Зарлигаар тогтоосон залгаж зохиосон гадаад монгол, хотон аймгийн ван гүн нарын илтгэл шастир [24/34,7x22/20-22,5/1814]
18. *abqai hesei foryon be aliha hūwangdi hese*, Тэнгэрийн бошигоор цагийг эзэлсэн хуандийн зарлиг [.../ 94x76,5/82/3/модон бар/1799]
19. *daičing gurun i g'aozung yonggkiyangya huwangdi i enduringge tačihyan*, Их Чин улсын Гаозун төгс бүрдмэл хуандийн Богд сургаал [300/32x21/20-22/модон бар/1807]
20. *abqai hesei foryon be aliha hūwangdi hese*, Тэнгэрийн бошигоор цагийг эзэлсэн хуандийн зарлиг(Сайшаалт ерөөлт) [.../ 91x73,5/74/5/модон бар/1820]
21. *abqai hesei foryon be aliha hūwangdi hese*, Тэнгэрийн бошигоор цагийг эзэлсэн хуандийн зарлиг(Төр гэрэлт-) [.../ 85x68/67,5/3/модон бар/1822]
22. *daičing gurun i žingjung sunggiyen huwangdi i enduringge tačihyan*, Их Чин улсын Жинзүн сөд хуандийн Богд сургаал [110/33x21/20,5-21,5/11446/модон бар/1824]
23. *abqai hesei foryon be aliha hūwangdi hese*, Тэнгэрийн бошигоор цагийг эзэлсэн хуандийн зарлиг(Төр гэрэлт- 1829) [.../87,5x61/70/4/модон бар/1829]
24. *hūlaha suduri šošohon be leulehe bidhe*, Уншсан сударын хураангуйг шүүмжилсэн бичиг [2/28,5x 17,5/20,1/104/ модон бар/1849]
25. *gubči elgiyengge i jai aniya i wesimbure baitai dangse*,Түгээмэл элбэгтийн хоёрдугаар онд айлтгасан бичгийн данс [1/25x16,8/19/78/гар бичмэл/1852]
26. *gubči elgiyengge i ilači aniya i wesimbure baitai dangse*, Түгээмэл элбэгтийн гуравдугаар онд айлтгасан бичгийн данс [1/25x16,5/19/78/гар бичмэл/1853]
27. *gubči elgiyengge i nadači aniya i wesimbure buydari dangse*, Түгээмэл элбэгтийн долдугаар онд айлтгасан нугалбарын данс [1/25x23,5/19/116/гар бичмэл/1857]
28. *sižung(temgetulehe) huwangdi i dergi hese*, Шизүнг(тэмдэглэлт) хуандийн дээд зарлиг, [10/24,6x17,2/19,1/916/модон бар/?²²⁾]
29. *wargi geren ba i arbun muru be ejeme araha bidhe*, Баруун зүгийн олон газрын байдал төлөвийг тэмдэглэн бичсэн бичиг [.../26x26/22/60/гар бичмэл/?]²³⁾

19) 미완본, 1-8책 손실.

20) 강희황제 때 저술된 “서북지역 평정 설립 정책서”의 연속으로 이 “준가르지역 평정 설립 정책서”를 저술했다. 여기에 강희 재위 39년(1700)년부터 건륭 재위 32년(1767)까지 거의 70여년 간 준가르와 긴 전쟁을 하여 만주 정부가 확보한 것에 대해 년월로 나누어 명확하게 저술한 서적이다.

21) 소실책은 (...)으로 표시함.

22) 출판년도가 명확하지 않다는 표시임.

23) 서쪽 영토를 얼마나 평정했는지, 행정구역 설립 현황, 부근의 몽골 호통부족 생활, 풍습, 날씨, 산천 혹은 면적한 군

30. *aisin gurun dai yuwan gurun i suduri i gisun be suhe bidhe*, Алтан улс, Их Юань улсын судрын үгийг тайлсан бичиг [8²⁴/26,4x 17,4/12/558/модон бар/?]

II. 군사와 관련된 서적

1. *čoo hai ging ni yooni bidhe*, Цэргийн номын бүрэн бичиг [4/29,2x18,7/20,9/303/гар бичмэл/1661]
2. *čoo hai ging ni yooni bidhe*, Цэргийн номын бүрэн бичиг [8/23,6x14,3/17,4/509/гар бичмэл/1662]
3. *sun ži i juwan ilan fiyelen, u ži i niggun fiyelen I bidhe*, Сүнзи-гийн арван гурван бүлэг, Ү зи-гийн зургаан бүлэг хэмээх бичиг [4/30,5x30,5/93/ гар бичмэл/1710]
4. *šanyan suburγan i temgetu poo i qooli hačin*, Цагаан суварганы тэмдэг буугийн хууль зүйл [.../ 24,4x13,1/20,7/56/гар бичмэл/1725]
5. *γabtan i jorin i gisure*, Харвалгын заавар бичиг [1/26,8x17,4/18,3/49/ модон бар/1757]
6. *ubaliyambuha sun ži čoo hai dorо bidhe*, Орчуулсан Сүнзи-гийн цэргийн ёсны бичиг [4/27,4x16/28,8x17,9/92/модон бар/1846]
7. *čoo hai bidhei muturi too*, Цэргийн бичгийн луугийн харьяалал [1/28x16/22/42/гар бичмэл/?]

III. 사전

1. *man han tung wen fun lei čiyān šeu*, Манж хятад хадмал зүйл хуваасан бүрэн бичиг [8/24,5x15,6/18/312/модон бар/1700]
2. *han i araha manju gisun i buleku bidhe*, Хааны бичсэн манж хэлний толь бичиг [25/29,9x19/31,4x19,1/21,3/1231/модон бар/1708]
3. *niqan hergen i ubaliyambuha manju gisun i buleku bidhe*, Хятад үсгээр орчуулсан манж үгийн толь бичиг [4/24,7x15,6/20,4/250/модон бар/1735]
4. *manju niqan i buleku bidhe*, Манж Хятад үгийн толь бичиг [4/21,6x13,8/13,5/344/модон бар/1738]
5. *manju isabuha bidhe*, Манж хураасан бичиг [12/27x16,3; 23,4x15,8../19,6;18,8/443/модон бар/1751]
6. *han i araha nonggime toγtobuha manju gisun i buleku bidhe*, Хааны бичсэн нэмж тогтоосон манж үгийн толь бичиг [45/27,2x19,2;30,8x19,9../20,8;19,9../2411/модон бар/1771]²⁵⁾
7. *manju gisun i niyečeme isabuha bidhe*, Манж үгийг нөхөн хураасан бичиг [8/26,6x16,4; 28,3x17,7;../18,2;18,7;19/345/модон бар/1786]
8. *manju niqan i buleku*, Манж Хятад үгийн толь [20/26,4x15,7/12,5/1237/модон бар/1821]
9. *manju niqan hergen i ninggun jurγan i toγtoho gisun*, Манж хятад үсгийн зургаан явдлын яамны тогтсон үг [6/24,8x15,4;22,3x14,7;23,2x15,1../17;17,3;23,5../149/модон бар/1842]

인, 대신, 신하의 숫자 등을 같이 간략하게 서술했다.

24) 전10권에서 첫 2권이 소실되어 언제 누가 저술했는지 알 수 없음.

25) 1709년에 출판된 전21권 사전을 재 수정했을 뿐만 아니라 기존의 서적들을 연구하여 누락된 중요 어휘 및 새로 확정한 전문용어를 별책으로 추가했다.

10. *tuwara de ja obuha bidhei tašaraha babe tuwančihyaha bidhe*, Үзэхэд хялбар болгосон бичгийн алдаг залруулсан бичиг [1/29,3x17,8/19/81/модон бар/1848]
11. *mongγo hergen i jurγan be faγsilaha bidhe*, Монгол үсгийн журмыг салгасан бичиг [.../29x17,7/19/209/модон бар/1848]
12. *γarγata manju gisun i buleku*, Дан манж үгийн толь [8/20,3x12/16/160/модон бар/1879]
13. *manju gisun i sonjofi sarkiyaha bidhe*, Манж үгийн сонгож сийрүүлсэн бичиг [4/24,5x15,5; 24,2x15,6/ 17,2;17,8;17,5/125/модон бар/1889]
14. *ilan hačin I gisun qamčibuha tuwara de ja obuha bidhe*, Гурван зүйлийн үг хадмал үзэхүйд хялбар болгосон бичиг [5/28x18/.../418/гар бичмэл/?]²⁶⁾
15. *niqan manju gisun i buleku bidhe*, Хятад манж үгийн толь бичиг [20/13,8x8,9/ 12,3/683/гар бичмэл /1852]
16. *niqan manju gisun i buleku bidhe*, Хятад манж үгийн толь бичиг [18/17,4 x12,5/14,5/654/гар бичмэл/?]
17. *niqan manju gisun i buleku bidhe*, Хятад манж үгийн толь бичиг [21/19,6x8,9/ 11,9/388/гар бичмэл /?]
18. *mongγo manju gisun i bileku*, Монгол манж үгийн толь [12/16,8x14,4/9,7/гар бичмэл/?]
19. *buleku bidhe či araha niyalmai beyei hačin*, Толь бичгээс хуулбарласан хүний биеийн зүйл [1/ 22,5x11,5/16,5/4/гар бичмэл/?]

IV. 교과서

1. *čing wen ki meng bidhe*, Чин вэн чи мэн бичиг [4/23,2x14,9/23,7x15,3/19,7;20/ 234/модон бар/1730]
2. *tongki fuqa aqū hergen i bidhe*, дусал бинтгүй үсгийн бичиг [4/31,8x21/22,5/228/модон бар/1741]
3. *etu be tačifi ilan be hafukiyara manju gisun i bileku bidhe*, Нэгийг сурч гурвыг сэхээрэх манж хэлний толь бичиг [4/25,2x18,4;25,7x18,8;24,6x18,2/20,5;21,4/290/модон бар/1746]
4. *manju gisun i oyongγo jorin i bidhe*, Манж үгийн чухал зорилгын бичиг [5/24,5x15,6/16,5/138/модон бар/1809]
5. *manju mongγo hergen i qamčime suhe san zi ging ni bidhe*, Манж монгол үсэг хавсарган тайлсан гурван үсгийн ном [4/25,3x16,6/21,2/302/модон бар/1832]
6. *manju ubaliyambuha ajiγan tačin i bidhe*, Манжаар орчуулсан бага суртахуй бичиг [6/24,5x15,9;25,5x15,2/...;18;18,7/374/ модон бар/1851]
7. *čin wen jiye zi bidhe*, Чин вэн жийэз бичиг [1/24,3x15/17/49/ модон бар/1864]
8. *manju gisun i untuhun i hergen i temgetu jorin bidhe*, Манж хэлний сул үгийн тэмдэг заавар [2/31,4x19,5/23,8/109/модон бар/1884]
9. *tuγtan tačire urse urunaqū hūlači ačara bidhe*, Анхан сурах ард эрхбиш уншваас зохих бичиг [6/23,4x14,7/14,8/180/модон бар/1890]
10. *manju juwan juwe ujui bidhe*, Манж арван хоёр толгой үсгийн бичиг [1/25,8x15,1/ 15,6/61/модон бар/1890]
11. *dasame foloho manju gisun i untuhun hergen i temgetu jorin i bidhe*, Дахин сийлсэн манж хэлний сул үгийн тэмдэгт заавар бичиг [2/27,5x16,9;27,7x16,8/18,5;18,8/99/модон бар/1894]
12. *manju mongγo tačire bidhei buleku*, Манж монгол сурах бичгийн толь [11/7,8x12,9/7/

26) 1780년 간행된 인쇄사전에서 필사하였음.

321/гар бичмэл/?]

13. *manju niqan i fe gisun be jofoho ačabuha bidhe*, Манж хятад хуучин үгийг дүйлгэн онолдуулсан бичиг [4/24,5x15,3/18,5/219/модон бар/?]
14. *booi tačiqūi oyongyo jorin*, Гэрийн сургуулийн чухал заавар [4/25,2x15,8/20/104/?]
15. *hergen holboro urebure yangju*, Үсэг холбон боловсруулах байдал [1/26,5x14/19/28/гар бичмэл/?]
16. *suwampin i bidhe*, Сампины бичиг [1/23x23/20/23/гар бичмэл/?]

V. 문학

1. *ilan gurun i bidhe*, Гурван улсын бичиг [24/34,4x23,4/26,2/2328/модон бар/1650]
2. *ilan gurun i bidhe*, Гурван улсын бичиг [24/24,5x12,5/20,5/2607/гар бичмэл/1650]²⁷⁾
3. *ju zi jiyei yoo bidhe*, Жүзийн хураангуйлсан чухал зохиол [11/21,2x17,3/18/243/модон бар/1675]
4. *han i araha gu wen yuwan giyan bidhe*, Хааны бичсэн эртний утга зохиолын үндсэн толь бичиг [40/30x19;30,4x19,5;29,1x18,8;29,1x18,8/20,9;23,1/4955/модон бар/1685]
5. *han i araha čing liyang šan alin i iče ži bidhe*, Хааны бичсэн Чинлянг шан уулын шинэ жи бичиг [10/29,2x18,4;24,4x15,5/16,2;17,4/707/модон бар/1701]
6. *jing ping mei bidhe*, Жин пин мэй бичиг [48/25,1x16,4;23,1x15,6.;19;18,8/2743/модон бар/1708]²⁸⁾
7. *jing ping mei bidhe*, Жин пин мэй бичиг [48/24,5x16,3/18,7/1517/гар бичмэл/1708]
8. *ts'ai g'an tan bidhe*, Зай гэн тан бичиг(эрдмийн үндэс тэнхимийн бичиг) [2/25,5x16,7/19/94/гар бичмэл/1709]
9. *manju niqan hergen I qatčime araha si siyang gi ušun I bidhe*, Манж хятад үсэг хавсарган бичсэн Си сянг ки-гийн дууны тэмдэглэл [4/21,8x14,1/13,7/170/модон бар/1710]
10. *han i araha alin i toγso de halhūn be jailaha ji bidhe*, Хааны бичсэн, уулын тосгонд халуунаас зайлсан тэмдэглэл бичиг [1/27x17,5/13,5;17,5/88/модон бар/1711]
11. *han i araha sing li jing i bidhe*, Хааны бичсэн, чанар зүйн нарийн журмыг өгүүлсэн бичиг [12/26,418,3;27,5x18,5/906/модон бар/1717]²⁹⁾
12. *han i araha muγden i fujurun bidhe*, Хааны бичсэн Мүгдэний магтаалын бичиг [1/35x20/20,5;23/1027/модон бар/1743]³⁰⁾
13. *emu tangyū orin saγda i gisun i sarkiyan bidhe*, Нэгэн зуун хорин өтгөсийн үгийн сийрүүлэл бичиг [8/29,2x19,2/19,1/688/модон бар/1791]

27) 전권의 숫자와 내용은 두 판본이 같으나 단지 페이지 숫자가 다른 필사본이다.

28) 명나라 때 권력을 장악한 귀족의 행패에 관한 견책을 서술했다.

29) 강희황제 재위 56년(1717)의 이 서적 외에 전권의 수, 페이지 숫자는 같지만 강희황제 재위 54년에 간행된 “han banjibuha sing li jing i bidhe/황제가 저술한 상리정” 라고 한 다른 이름의 서적이 있다.

30) 만주어는 32종의 서체가 있는데 본 책에는 14종류의 서체로 기술하여 14권을 저술하고 각 권의 끝 부분에 서체의 기원에 관하여 간략하게 설명했다. 이 책은 고종황제(건륭) 1743년 가을 목등 고을로 출발할 기회에 대청의 첫 도읍 지였던 목등 고을 그 부근의 산강, 자연 풍경을 찬양한 시를 서체로 간행했다.

14. *emu tangyū orin sayda i gisun i sarkiyān bidhe*, Нэгэн зуун хорин өтгөсийн үгийн сийрүүлэл бичиг [8/31x16/25,6/250/гар бичмэл/1791]³¹⁾
15. *sonjofi ubaliyambuha liyoo jai ži i bidhe*, Сонгож орчуулсан Лийоо жай жи и бичиг [24³²⁾/25,1x17,1/18,2/1009/модон бар/1848]
16. *ubaliyambuha julgei šu fiyelen*, Орчуулсан эртний утга уянга [16/26,6x15,6/18,4/ 796/модон бар/1851]
17. *jeu gurun i bidhe*, Жэү улсын бичиг [100/25,1x15,5/19/2515/гар бичмэл/?]³³⁾
18. *wargi han gurun i bidhe*, Баруун хан улсын бичиг [15/30x21/19/1234/гар бичмэл/?]
19. *giye žin i bidhe*, Гийэ жин и бичиг [12/24x19/23/811/гар бичмэл/?]³⁴⁾
20. *inenggidari sahangge be ačamjifi gisurehe bidhe*, Өдөр бүр мэдсэнийгээ нэхэж өгүүлсэн бичиг [4/27,5x16,8/22/363/гар бичмэл/?]
21. *cung fung miyen bidhe*, Чүн фүн мийан бичиг [8/27x22/23/337/гар бичмэл/?]³⁵⁾
22. *erdemungge sarγan jui hung iui i bidhe*, Эрдэмт охин Хун иүй-гийн бичиг [5/21x14,5/19/445/ гар бичмэл/?]
23. *šeng siyan juwan i bidhe*, Шэн сийан жүваны бичиг [32/26x21/19/1315/гар бичмэл/?]

VI. 철학, 도덕, 교훈

1. *han i araha sain be huwekiyebure oyongγo gisun*, Хааны бичсэн сайныг хөхиүлэх чухал үгс [1/37x22,2/21/68/модон бар/1655]
2. *han i araha sain be huwekiyebure oyongγo gisun*, Хааны бичсэн сайныг хөхиүлэх чухал үгс [1/27x13,5/22,5/10/гар бичмэл/1655]
3. *dai hiyoo i jurγan be badarambuha bidhe*, Их суртахуйн журмыг бадруулсан бичиг [43/37,5x23,5/23/1406/модон бар/1672]
4. *inenggidari giyangnaha se šu i jurγan be suhe bidhe*, Өдөр бүр тайлбарласан дөрвөн бичгийн журмыг тайлсан бичиг [26/33,8x23;34x22/22,8/2275/модон бар/1677]
5. *han i araha inenggidari giyangnaha šu ging ni jurγan be suhe bidhe*, Хааны бичсэн өдөр бүр тайлбарласан засагт номын журмыг тайлсан бичиг [19/36x22/ 23/1240/модон бар/1860]
6. *han i araha inenggidari giyangnaha čun čiu i jurγan be suhe bidhe*, Өдөр бүр тайлбарласан шажинт номын журмыг тайлсан бичиг [65/34x21,6/23,4/3284/модон бар/1737]
7. *inenggidari giyangnaha i ging ni jurγan be suhe bidhe*, Хааны бичсэн өдөр бүр тайлбарласан зурхайт номын журмыг тайлсан бичиг [18/34x21,5/23/2026/модон бар]

31) 필사본과 목판본인 이 두 원본은 서로 내용이 똑 같다. 만주의 교육과 문화가 번창하게 된 이유에 관하여 대신과 신하의 대사, 공로에 관한 노인들의 약 60 개 정도의 말을 첫4권에 편성하고, 교육과 교육활동에 관한50개 말, 옛 대사건 10건은 끝 4권에 서술했다.

32) 15,17,18권은 결실 되었음.

33) 명나라 때 구전하는 전설로 보여진다. 이야기 속에는 상나라의 마지막 황제 제신(주)왕을 우왕이 군사를 이끌고 전쟁을 했다는 것을 서술하고 있다.

34) 옛 시인들의 시를 노래한 것에서 선집한 작품이다.

35) 셋 남자와 여자가 결혼하게 된 것에 관하여 서술했다.

8. *jalan de ulhibure oyongyo gisun i bidhe*, Ертөнцөд ухуулах чухал үгийн бичиг [1/22x14,2/16/41/модон бар/1704]
9. *jalan de ulhibure oyongyo gisun i bidhe*, Ертөнцөд ухуулах чухал үгийн бичиг [1/25,5x16,5/20/гар бичмэл/1704]
10. *duin fulehe oyongyo šošohon I bidhe*, Дөрвөн үндэсний чухал хураангуй бичиг [4/23,1x15,4/17,2/168/модон бар/1746]³⁶⁾
11. *han i araha ubaliyambuha duin bidhe*, Хааны бичсэн, орчуулгын дөрвөн бичиг [7/23,6x15,5;26,9x16/18/412/модон бар]
12. *han i araha ubaliyambuha duin bidhe*, Хааны бичсэн, орчуулгын дөрвөн бичиг [7/25,2x16,6/22/434/гар бичмэл/1755]
13. *han i araha ubaliyambuha dasan i nomun*, Хааны бичсэн, орчуулгын, засагт ном [6/23,3x15,4/17/186/модон бар/1760]
14. *han i araha ubaliyambuha jijunge nomun*, Хааны бичсэн, орчуулгын, зурхайт ном [6/23,3x15,4/17/186/модон бар/1765]
15. *han i araha ubaliyambuha irgebun i nomun*, Хааны бичсэн, орчуулгын, шүлэглэлт ном [8/26,3x16,2;24x16/18/404/модон бар/1768]³⁷⁾
16. *han i araha ubaliyambuha dorolon i nomun*, Хааны бичсэн, орчуулгын, ёслолт ном [30/26,7x15,7/17/879/модон бар/1783]³⁸⁾
17. *han i araha ubaliyambuha šajingya nomun*, Хааны бичсэн, орчуулгын, шажинт ном [64/25x16,7/15/2656/модон бар/1784]³⁹⁾
18. *nadan tačihyan be urunaqū hūlabure bidhe*, Долоон сургаалыг эрхбиш уншуулах бичиг [1/23x15,5/19/28/бийрийн бичмэл/1764]⁴⁰⁾
19. *tondo nomun*, Шударга ном [1/24,5x15,8/19/30/модон бар/1851]
20. *ninggun baitai tarγabun gisun bidhe*, Зургаан хэргийн цээрлэл үгсийн бичиг [4/24,5x16/18/142/модон бар/1851]⁴¹⁾
21. *hiyoošungya nomun*, Ачлалт ном [1/28x16/18/28/модон бар/1856]
22. *ilan hačīn i gisun qamčibuha hafan i dasan i oyongyo be isabuha bidhe*, Гурван зүйлийн үг хадмал түшмэлийн засгийн чухлыг хураасан бичиг [2/27,8x17/19/98/модон бар/1822]
23. *ubaliyambuha jalan de ulhibure oyongyo gisun i bidhe*, Орчуулсан, ертөнцөд ухуулах чухал бичиг [4/25x16,5/17,8/91/модон бар/1867]⁴²⁾
24. *enduringge tačihyan be neileme badarambuha bidhe*, Богдын сургаалыг сэнхрүүлэн бадруулсан бичиг [1/27x16,5/18,5/85/модон бар/1890]

36) 이 작품에 계약의 제시, 수정, 균등, 유지 4개의 기본 원칙에 관하여 서술되었다. 즉, 4개의 기본 원칙이란 첫째는 공부를 하여 가정을 흥성하게 하는 것이고, 둘째는 열심히 절약하여 가정을 정돈하는 것이고, 셋째는 친절하게 하여 가정을 평화롭게 하는 것이고, 넷째는 윤리를 지켜서 가정을 보호하는 것을 말한다.

37) 후 세대의 사람들에게 교훈이 주기 위해서 옛날 제나라와 그 때 많은 제국의 정부와 행정부에 대한 성공과 실패를 열거하였다. 1654년 때 쯤 만주어로 번역한 것을 1768년 만주어와 중국어를 부록으로 하여 간행했다.

38) 이 책에 옛날부터 청나라 시대까지 제사, 혼인, 의복과 모자 쓰는 법 등 민족 풍습을 간략하게 서술했다.

39) 1784년 만주어와 중국어로 합병하여 간행했으며 로나라 인궁 첫째부터 로나라 궁 재위 27년까지 모두 242년 동안 중국의 성장 부진, 신하의 좋고 나쁜 점을 기록한 경정이다.

40) 유교책에서 선집한 어떤 부분을 상세하게 설명 등으로 만주어와 중국어를 합본한 책이 된 것을 후에 단지 만주어로 필사한 것이다. 부모, 친척의 효심, 노인과 젊은이, 아동과 아이들을 공경과 자비, 학자에게서 배움, 일을 열심히 하는 것에 관한 것 등 모두 7항목의 교훈서이다.

41) “수신제가치국평천하”를 수행할 때 조심해서 진행해야 한다는 것을 서술했다.

42) 자신의 몸을 닦는 것을 강조한 이 책을 맹보라는 사람이 만주어로 번역하여 1867년에 간행했다.

滿洲語文學 자료의 현황 및 그 연구와 활용

25. *kungz i bidhe*, Күнзийн бичиг [4/24,5x20,5/20,4/129/бийрийн бичиг/?]⁴³⁾
26. *mengz i bidhe*, Мэнзийн бичиг [7/24,3x17/19/420/модон бар/?]⁴⁴⁾
27. *huwang ši gung ni su šu bidhe*, Хуан Ши гүнгийн сү шү/цагаан/ бичиг [1/21,9x14,2/16,5/35/модон бар/?]⁴⁵⁾
28. *s'e šu gi ju bidhe*, Сэ шү жи жү бичиг/тайлбарт дөрвөн бичиг/ [13/24,3x18,8/20,8/794/модон бар/?]
29. *pan ši i šošohon leulen i bidhe*, Пан ши-гийн хураангуй шүүмжлэлийн бичиг [1/22x14,2/16/54/модон бар/?]⁴⁶⁾
30. *mujilen be dasara oyongγo hačin I bidhe*, Сэтгэлийг засах чухал зүйлийн бичиг [1/23,5x12, 17,5/30/гар бичмэл/?]
31. *orin duin hiyoošun i bidhe*, Хорин дөрвөн ачлалын бичиг [1/23,3x13,2/19/13/гар бичмэл/?]⁴⁷⁾

VII. 법률

1. *daičing guruni i fafun i bidhe qooli*, Их Чин улсын цаазын бичиг хууль
 - a. [1/37x22.5/26-31/77/модон бар/1672]⁴⁸⁾
 - b. [30/36,5x22/28/814/модон бар/?]
 - c. [30/37,5x22,5/30/1882/модон бар/1726]⁴⁹⁾
 - d. [47/36x23,3/25/2120/модон бар/1741]⁵⁰⁾
 - e. [47/36,4x23,2/24,5;30/2932/1803]⁵¹⁾
2. *hesei toytobuha hafan i jurγan i qooli*, Зарлигаар тогтоосон түшмэлийн явдлын яамны хууль [3/30x20/19/144/модон бар/1742]
3. *uqanju be qadalame jafara qooli*, Босгуулыг захиран барих хууль [2/36x22/24/168/модон бар/1740]
4. *hesei toytobuha daičing gurun i uheri qooli i qooli hačin i bidhe*, Зарлигаар тогтоосон Их Чин улсын бүгд хуулийн хууль зүйлийн бичиг [180/29,5x19/20,5;23,8/12016/модон бар/1731]

43) 유교의 152편을 만주어로 번역한 초고이다. 누가 언제 번역했는지 알 수 없다.

44) 만주어와 중국어로 주해 번역되어 있다.

45) 황사공의 교훈. 청나라 다해 선생이 만주어로 번역하였다.

46) “수신제가치국평천하”에 관하여 서술했다.

47) 은혜와 효도와 관련된 중요한 교훈의 일을 옛날의 각종 경서에서 수집하여 베껴 썼다.

48) 순치 3년/1647/에 저술한 30권을 시대에 맞추어 수정하여 47권으로 만들어 강희 10년(1672)에 재 간행되었다.

49) 강희황제 시대에 청나라의 법률서를 몇 번 감수하고 추가하는 등 개정하였지만 간행되지는 않은 것 같다. 이것을 응정황제가 감수하고 머리말을 써서 1726년에 간행했다. 예전에 법률서는 458항목 이었는데 이것을 446 항목으로 수정하고 그 위에 법 824조항을 첨부하여 “주석한 대청 법률”라고 칭했다.

50) 건륭황제 때에 첨가와 삭감하고 다시 같고 닦아 47권을 만들어 1741년에 간행했다.

51) 예전의 47권 법률 조항을 변경하지 않고 그대로 남기고 단지 첨부한 법률을 상당한 조항을 추가하고 어떤 중국어를 만주어로 번역하여 가경황제 때/1803/에 간행되었다. 첫 권의 간추린 법률 6페이지에 “가경황제 6년/1802/ 3월 이후 법률을 건륭황제 11년/1747/에 보고하여 결정한 대로 앞으로 차츰차츰 추가하여 제작소에 주면 5년이 된 후 저술하여 법률서 뒤에 부록하여... 행할 것은 영원한 법이 된다”라고 쓰여져 있다.

5. hesei toγtobuha manjusai wečere medere qooli bidhe, Зарлигаар тогтоосон манж нарын тайх тавиглах хуулийн бичиг [6/30x20/20/413/модон бар/1747]⁵²⁾
6. hesei toγtobuha čooḥai jurγan i baitai qooli i bidhe /jaqūn γūsai čooḥai qooli/, Зарлигаар тогтоосон цэргийн явдлын яамны хэргийн хуулийн бичиг /найман хошууны цэргийн хууль/ [32/27,6x17,5/16/2438/модон бар/1802]
7. hesei toγtobuha čooḥai jurγan i baitai qooli bidhe /niowanggiyan durun i qūwaran /, Зарлигаар тогтоосон цэргийн явдлын яамны хэргийн хуулийн бичиг /ногоон тугийн хороо/ [32/26,17,1/18,5/2411/модон бар/1802]⁵³⁾
8. hesei toγtobuha čooḥai jurγan i baitai qooli bidhe /niowanggiyan durun i qūwaran i qooli/, Зарлигаар тогтоосон фэргийн явдлын яамны хэргийн хуулийн бичиг /ногоон тугийн хорооны хууль/ [40/30x19,7/23/3518/модон бар/?] ⁵⁴⁾
9. hafan sindara dasan i durun, Түшмэл тавих засгийн дүрэм [1/23x12/15,5/16/гар бичмэл/?]

VIII. 몽골어 책 보관소에 있는 만주어 책⁵⁵⁾

1. Манж монгол үсгийн Богдын сургаалыг сэнхрүүлэн бадруулсан бичиг [1969/96]
2. Монгол хятад манж үгийн тулгар бичсэн өчүүхэн тэмдэглэл [1275/96]
3. Монгол улс анх манж улсаас тусгаарлах тухай харилцаж байсан хэргүүдийн түүвэр [1553/96, 9094-95]
4. Манж Монголын холбогдсон түүхт байдал [39-42/96]
5. Манжийн тэгүбүри [8791/96]
6. Манжийн хаадын он дараалал, арга он ба 12 жилийн өнгийг үзүүлсэн бичиг [1175/96]
7. Манж үсгээс монголоор орчуулсан хойд газрын аймгийн ойллого бичиг[1100/96]
8. Манжийн хаанаас Жавзандамба хутагтад буулгасан зарлиг, шагнасан зүйлийг сийрүүлэн бичсэн дэвтэр, Төр гэрэлтийн 21р он. [1278/96]
9. Манжийн хааны зарлигаар төвдийн хэрэг шийтгэгч сайд Жан амбан бээр Бадаргуулт төрийн 33р онд Төвд нарт сургамжилсан захиа дүрмийн бичиг
10. Манжийн хааны зарлигаар Жавзандамба ламд удаа дараа буулгасан зарлиг ба шагналын тухай [1177/96]
11. Манж номын товчоо данс [4014/96]
12. Гурван зүйлийн үг хадмал түшмэлийн засгийн чухлыг хураасан бичиг[2547/96]
13. Гурван зүйлийн үгээр хавсарсан нэрт эрдэмтэний хураасан бичиг [2540-45/96, 2548-49/96, 2551-59/96]
14. Богдын сургаалыг сэнхрүүлэн бадруулсан бичгийн оршил [2503/96]
15. Богдын сургаалыг сэнхрүүлэн бадруулсан бичиг [1361-62/96]

52) 만주인의 숭배예식, 기도주문어와 용기사용법, 그림 등을 포함한 법을 1747년에 간행했다.

53) 명령으로 결정한 노곤 토그(푸른 깃발) 지역의 법과 규칙의 기강이다.

54) 간행년월 미상. 많은 도에 거주하고 있는 노곤 토그(푸름 깃발)의 군인에 관한 법률이다.

55) 몽골 서적 등록에 있는 그대로 실었다.

滿洲語文學 자료의 현황 및 그 연구와 활용

16. Хааны бичсэн манж үгийн толь бичиг [3430/96]
17. Хааны бичсэн манж үгийн толь бичиг.Тайлбар толь. [1925-26/96]
18. Хааны бичсэн нэмж тогтоосон манж үгний толь бичиг 1-32 дэвтэр. [1879-89/96,1894-1903/96, 1904-13/96]
19. Хоёр зүйлийн үг хадмал сургаалын бичиг болой. [3482/96]
20. Манж монгол дөрвөн үсгийн толийн түүвэр бичиг [3433/96]
21. Манж монгол үсгийн сурах бичиг ба чин ван ги мин-гийн бичиг [3559/96]
22. Манж монгол үсгийн бичмэл. Эрдэмтний хэлэлцсэн үгийн тэмдэглэсэн сурах бичиг [3358/96]
23. Манж монгол хятад гурван зүйлийн үсэг хавсарсан толь бичиг [3367/96]

몽골에 있는 만주어 연구, 문헌의 역사는 아주 오랜 역사를 가지고 있다⁵⁶⁾. 몽골에 보관되고 있는 만주 문헌들은 시간이 지날 수록 손실되고 있는 실증이지만 지금 있는 이들 서적과 경전의 보관에 요구되는 조건, 보존, 전자전산 입력, 연구 사용 등등 중요한 과제들에 직면하고 있다. 또한 단일본을 마이크로 필름을 저장하고, 복제하여 연구자들이 볼수 있게 하여 연구를 시작하는 것이 제일 시급한 일이다.

56) 1382년 중국어와 위반되는 주석 “Ий Йи Йүи”책을 저술한 허윤채는 학자들의 입증으로 몽골인이었다면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위반되는 만주어로 몽골인들이 저술한 제일 오래된 것이다.

참고문헌:

- М.Баярсайхан Т.Отгонтуул(1997), “Монгол -Манж толь бичиг” УБ, МУИС хэвлэх үйлдвэр.
Г.Буянтогтох М.Баярсайхан(1992), “УТНС-ийн манж хөмрөгийн ном зүйн бүртгэл” УБ, МУИС хэвлэх үйлдвэр.
А.Лувсандэндэв(1962), “Гучин зургаат тайлбар толь” ОУМЭ-ний анхдугаар их хурал, 1-р дэвтэр УБ.
Чой.Лувсанжав Ц.Шархүү(1968), “Манж Монгол толь бичиг” УБ.
Го.Мижиддорж(1992), “Нэгэн зуун хорин өтгөсийн үгийн буулгал” хэмээх номын тухай МУИС МСХ, МС, УБ.
Л.Мишиг(1995), “Манж Нишан удганы бичиг” УБ.
Л.Мишиг(1959), “Улаанбаатар хот дахь улсын номын сангийн манж номын хөмрөгт байгаа манж номын гарчиг” УБ.
Б.Ринчен(1959), “Тонгки фүка аку хэргэн и бидхэ” УБ.
Я.Шаарийбуу(1999), “Манжийн утга зохиолын дээж” УБ.
Т.Отгонтуул(2009), “*Нишан удганы бичиг*” (Nišan saman-i bidhe)УБ,Соёмбо хэвлэлийн газар.
Э.Мөнхцэцэг(2003), Монгол улс дахь манж номын бүртгэл, Түүхийн судлал, УБ,боть XXIV, х 172-178.
Т.Отгонтуул(2001), “Mongyul daki manju sudulul-un toyimu” Journal of Inner Mongolia Iniversity, Philosopher&Social Sciences in Mongolian, Hohhot, China, 2001.1.(97), pp83-89.
Я.Цэвэл(1978), Нэхэн дурсах дуртгал, Шинжлэх ухаан амьдрал, №3. х12.
Т.Отгонтуул:
Lecturer/Ph.D/, Department of Mongolian language and Linguistics, Faculty of the Humanities, School of Art and Sciences, National University of Mongolia. [Tel:+\(976\)-9907-9819](tel:+976-9907-9819) E-mail: totgontuul@yahoo.com

만주어 학습을 위한 『御製淸文鑑』 어휘의 형태론적 연구 -권1을 중심으로

김양진(경희대)

1. 서론

한국에서의 만주어 학습은 전통적으로 조선시대 사역원에서 구축한 『청어노걸대』 등의 淸學四書를 통해서 이루어져 왔다. 이러한 전통은 현재까지 이어져서 최근에 이르기까지 한국인의 만주어 연구의 출발점은 흔히 『청어노걸대』 나 『삼역총해』 의 강독을 통해 이루어지는 것이 일반적인 흐름이었다. 최근에는 일본에서 출간된 『만주어 문어입문』 (하내양홍, 청뢰의삼랑측부 편저, 2002)나 대만에서 출간된 『어문청정』 (장길발 편역, 1998) 등 국외의 주요 만주어 학습서가 국내에서 만주어를 학습하는데 적극적으로 활용되고 있고 고려대 민족문화연구원에서 자체 만주어 학습서인 『초급 만주어』 (이선애·김경나, 2015)가 출간되는 등 다양한 만주어 학습을 위한 공구서가 활용되고 있다.

본고는 이러한 만주어 학습에 최초의 만만사전인 *Han i araha manju gisun i buleku bithe*(HMB, 『御製淸文鑑』)¹⁾을 활용할 필요가 있음을 강조하고 그 방안을 탐색하기 위해 작성된 것이다. 사전으로서의 HMB(1708, 『御製淸文鑑』)에 대한 본격적인 논의는 江橋(2001)에서 이루어진 바 있으나 국내에서는 이에 대한 본격적인 소개가 이루어지지 못했다. 이에 앞서 성백인(1999)에서 국내의 사전편찬자들이 <청문감>류 사전의 뜻풀이에 주목할 필요가 있음을 언급하고 abka(하늘), edun(바람), elden(빛), ici(오른쪽), niyalma(사람), šun(해), usha(별)의 예들을 간략히 소개하면서 이 사전의 독특한 뜻풀이 방식에 주목하였고 이후 정제문·김주원(2008)에서 『어제청문감』의 뜻풀이 형식(메타언어)을 정리하여 소개하고 뜻풀이의 실제 사례를 muke(물), hashū(왼쪽),

1) 이 사전은 동아시아 최초로 자국의 어휘를 자국의 언어로 풀이한 사전으로 백과사전과 언어사전의 성격을 겸한 사전으로 청나라 성립 후 강희제 때에 이르러 표준 만주어를 확립하고 만주어를 언중들에게 널리 보급하기 위한 목적으로 황제의 흥정으로 자국어 어휘를 자국어로 뜻풀이하여 편찬한 근대적 개념의 사전이다. 김양진(2014)에서는 이 사전의 권두 서명이 '*Han i araha manju gisun i buleku bithe*'(황제가 만든 만주말의 거울 책)으로 모두 만주어로만 되어 있기 때문에 이를 서명으로 부를 때는 '한 이 아라하 만주 기순 이 불러쿠 비트허' 혹은 '만주 기순 이 불러쿠 비트허'라고 부르고 영문 약자를 활용하여 HMB 등과 같이 쓸 것을 제안하였다. 이 사전은 1771년에 수정증보되면서 <御製增訂淸文鑑>이라는 제목이 붙었는데 일반적으로 이에 근거하여 이 사전의 이름을 <御製淸文鑑>이라고 부르지만 본고에서는 김양진(2014)에 따라 원 제목을 로마자화하여 '*Han i araha manju gisun i buleku bithe*'(황제가 만든 만주말의 거울 책)로 표기하고 HMB로 약어화하여 사용하되 편의상 HMB(1708, 『御製淸文鑑』)과 같이 『御製淸文鑑』을 괄호 안에 넣어 보이도록 하겠다.

ici(오른쪽), julergi(남쪽), dambagu(담배)를 통해 보이면서 *HMB*(1708, 『御製清文鑑』)의 모든 풀이말을 우리말로 옮기고 이론적 논의를 충실히 소화할 필요가 있음을 강조한 바 있다. 이에 김양진·신상현·오민석(2014)에서는 *HMB*(1708, 『御製清文鑑』)에 대한 그동안의 국내 연구 경향이 주로 편찬 경위나 전체적인 구조에 대한 논의를 크게 벗어나지 못하였음을 지적하면서 이 사전의 첫번째 부분인 “abkai šošohon(天部)” 4則 가운데 “abkai hacin(天文類) - uju”의 67단어의 뜻풀이 및 용례를 완역하고 이를 『御製增訂清文鑑』 및 『漢清文鑑』과 대비하여 그 출입을 살펴 향후 이 사전의 한국어 번역의 기준을 보였고 김양진(2014)에서는 동아시아 최초의 1언어사전으로서의 만주어사전 *HMB*(1708, 『御製清文鑑』)의 사전학적, 언어학적 의의를 본격적으로 논의한 바 있다. 본고는 *HMB*(1708, 『御製清文鑑』) 가운데 abkai šošohon(天部)와 erin forgon šošohon(時令部) 및 na i šošohon(地部)를 포함하는 <권1>의 단어를 중심으로 *HMB*(1708, 『御製清文鑑』)을 만주어 학습에 활용할 방안을 찾아보고자 한다.

HMB(1708, 『御製清文鑑』)<권1>에는 abkai šošohon(天部)에 1類 4則 201語, erin forgon šošohon(時令部)에 1類 7則 224語, na i šošohon(地部)에 1類 9則 334語로 합계 759단어가 포함되어 있고 훗날 수정증보된 『御製增訂清文鑑』(1771)에 추가된 단어 215단어를 포함하여 총 974단어를 대상으로 논의하되 필요에 따라 다른 연구 성과나 사전의 다른 부분에 있는 단어들도 참조하여 논의를 진행하도록 하겠다.

어제청문감 : 12,111

어제증정청문감 : 20,222

2. 만주어 사전 *HMB*(1708, 『御製清文鑑』)과 만주어 학습

앞에서 논의한 것처럼 김양진(2014)에서는 *HMB*(1708, 『御製清文鑑』)가 갖는 사전학적, 언어학적, 그리고 문화사적 측면에서의 의의를 다루면서 이 사전의 특징으로 다음의 내용을 정리한 바 있다.

첫째, *HMB*(1708, 『御製清文鑑』)은 이 사전의 편찬 이전에 중국에서 편찬된 유별(類別) 사전이나 대역어 사전들과 달리 만주어 표제어를 만주어로 뜻풀이한 최초의 뜻풀이 사전이며, 규범으로 삼은 어형과 어구만을 수록하고 있는 표준 만주어 사전이기도 하다. 이는 당시 많은 만주인들이 만주어를 잊어가고 한화(漢化)되어 가고 있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만주어의 성음(聲音)과 자획, 그리고 문장의 규범을 정하고 만주어 어휘의 정확한 뜻을 널리 알리고 보존하고자 한 목적에서 편찬된 것이다. *HMB*(1708, 『御製清文鑑』) 이전에도 과거시험을 위한 표준적인 운서(韻書) 등과 같은 규범적인 사전들이 편찬된 적이 있긴 하지만, *HMB*(1708, 『御製清文鑑』)처럼 표제어의 뜻풀이를 단순 대역어가 아닌 현대 뜻풀이 사전과 같은 형식으로 제시한 사전은 찾아보기

힘들다는 점에서도 이 사전은 사전학적으로 가치가 높은 사전이다.

둘째, *HMB(1708, 『御製清文鑑』)*을 통해 17-8세기의 만주어의 어휘의 전체상을 확인할 수 있고, 표제어의 정확한 의미도 확인 가능하다는 점에서 언어학적으로도 뜻깊은 사전이라 할 수 있다. 어느 한 언어를 연구함에 있어서 해당 언어의 사전 유무는 그 연구 결과에 큰 영향을 끼칠 수 있음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다. 또한 그 사전이 외국인이 아닌 당시 그 언어에 대한 직관을 가지고 있던 사람들에게 의해 편찬되었다고 한다면 그 가치가 더 높다고 할 수 있다.

셋째, *HMB(1708, 『御製清文鑑』)*의 만주어 뜻풀이는 일상적인 당시의 실제 의미를 평이한 뜻풀이 방식을 통해 보임으로써 근현대 사전 편찬의 한 전범을 보이고 있다는 점에서 사전학적으로 매우 유의미한 사전이다.

김양진(2014)에서는 이 사전의 만주어 뜻풀이를 통하여 향후 만주문자로 쓰여진 방대한 만주어 문헌을 정확히 해독하는 데 도움을 받을 수 있으며 이를 토대로 18세기 만주인들이 당시의 사물, 사람, 사건을 어떻게 바라보고 인식했는가에 대해서도 알 수 있다는 점에서 *HMB(1708, 『御製清文鑑』)*가 당시의 문화와 역사를 파악하고 이해하는 데에 활용도가 높은 문헌 자료임을 지적하고 이 사전의 사전학적 의의를 더 밝히기 위해서는 이 사전 속 표제어에 대한 어휘 범주에 따른 정리 및 고찰이 필요하다고 보았다.

(1) 형태론적 범주에 따른 정리 및 고찰

① 실질형태소(어휘): 불변화형(명사, 형용사, 부사, 감탄사, 조사. 조사는 불변화형으로 처리)과 변화형(동사), 합성어, 파생어, 단일어

② 형식형태소(접사) : 어미, 파생접사

③ 기타 명사, 동사, 형용사, 부사, 감탄사 및 조사, 어미, 기타 중간적 형태들

(2) 통사론적 범주에 따른 정리 및 고찰

① 명사 : 선후행 결합 제약 여부 확인.(특히 서술어와의 의미 제약 여부, 논항제약 여부 확인.) 격 결합 관계 확인. 명사구 확장의 문제 검토 및 고찰.

② 동사 : 선어말, 어말어미의 결합 양상 확인. 우언적 표현(보조동사?, 복합동사 등) 여부 확인, 동사 하위 부류(능동-피동, 주동-사동, 자타양용, 비대격성, 능격성 여부 등) 확인. 격틀 및 의미역 구조 확인. 존대법 및 시상 체계 실현 양상 점검 및 고찰.

③ 형용사 : 명사 수식 및 서술어 실현 여부 확인. 형용사 하위 부류(성상, 비교, 소유/존재, 판단, 평가, 심리 등) 점검 및 고찰.

④ 부사 : 목록화. 서술어 수식 제약 확인. 부사 하위 부류 점검 및 고찰.

⑤ 감탄사 : 목록화. 범주별 유형 분류(간투사, 호칭어, 의성, 의태 등)

(3) 의미론적 범주에 따른 정리 및 고찰

- ① 의미론적 대범주: 사람, 사물, 사건
- ② 각 범주별 하위 구분

(4) 관용어구의 정리 및 고찰

- ① 관용어구의 목록화 및 정리
- ② 관용어 서술어의 논항 관계 정리

본고에서는 김양진(2014)에서 *HMB*(1708, 『御製清文鑑』)의 사전학적, 언어학적 의의의 대강만을 간략히 소개한 데서 더 나아가 이를 만주어 학습에 적극적으로 활용할 방안을 찾아보고자 한다.

3. 만주어 사전 *HMB*(1708, 『御製清文鑑』)를 활용한 만주어 학습의 실제

만주어 사전 *HMB*(1708, 『御製清文鑑』)을 만주어 학습에 활용할 수 있는 방안 중 가장 중요한 것은 이 사전의 만주어 뜻풀이를 활용하는 것이다. 성백인(1999), 강교(2002), 김양진(2014) 등에서 반복해서 언급된 것처럼 이 사전의 만주어 뜻풀이는 근대 동아시아 어휘 풀이의 전범으로 유의미할 뿐더러 만주어의 표준적 의미를 이해하는데 핵심이 된다. 나아가 이 사전의 배열이 유별로 이루어지면서 온톨로지 기반의 동원 어들이 같은 자리에서 놓여 있는 경우가 많은데 만주어의 어원이 같은 단어들을 함께 다루면서, 나아가서 한자어나 몽골어 및 한국어 관련 단어들 가운데 어원을 공유하는 단어들을 함께 다룸으로써 만주어 학습의 효율성을 증대할 수 있다. 이 사전의 여러 단어들로부터 확인할 수 있는 조어법의 양상을 만주어 교육에 활용할 수도 있다. 또한 이 사전의 여러 곳에서 확인되는 다의어나 유의어의 배분 역시 만주어 어휘 교육에 활용될 수 있으며 『御製增訂清文鑑』(1771)에 기록된 한자어나 『漢清文鑑』(1779)에서 확인되는 근세 한국어 등의 정보들도 만주어 학습에 폭넓게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3.1. 뜻풀이의 활용

3.2 同源語의 활용

#foso#šun biyai genggiyen elden be. foso sembi. #<天·天文1>

#fosoko#šun i elden goire be. fosoko sembi. šun teni tucike be. inu šun fosoko sembi. #<天·天文1>

#fosoba#šun biyai fason. muke buleku. eici šugilehe③ tetun de fosofi. ulame gūwa bade fosokongge be. fosoba sembi..#<天·天文1>

#fosolhon#šun i fason halukan ojoro be. fosolhon sembi..#<天·天文1>#

3.3 조어법의 활용

3.3.1 파생

3.3.2 합성

3.3.3 중첩

3.3.4 영과생

3.3.5 음운교체

3.3.6 축약(준말)

3.3.7 혼성

3.3.8 유추

3.4 다의어 및 유의어의 활용

3.5 기타 정보들의 활용

4. 맺음말

<참고문헌>

- 김동소(1972), “國語와 滿洲語의 基礎語彙 比較研究.”, 상산이재수박사환력기념논문집, 형설출판사. 133-156.
- 김동소(2004), “錫伯語 文語 研究 (其一) --言語學 術語를 對象으로--”, 알타이학보 14. 한국알타이학회. 23-41.
- 김동소(2005). “만주어 주기도문에서의 "yaya hacin i jemengge ci colgororo....."의 내원(來源)”, 번역학연구 6-1. 한국번역학회. 5-18.
- 김양진·이효운(2012). “역학서(譯學書)에 나타난 색채어 계열 말[馬] 명칭 연구-『어제증정청문감(御製增訂淸文鑑)』의 만주어 뜻풀이를 중심으로”, 민족문화연구. (2012.12.31.) 민족문화연구원.
- 김양진·신상현·오민석(2014). “<御製淸文鑑> 「天部」 校勘 및 譯註 研究”, 인문학연구 25. (2014.6.30.) 인문학연구원. pp.121-160.
- 박은용(1969), 『滿洲語文語研究. 1-2』. 형설출판사.
- 朴恩用(1969), “滿洲語 文語 形態素 研究-接尾辭篇”, 효성여대 연구논문집 4.
- 朴恩用(1974), “한국어와 만주어의 비교 연구(上)”, 효성여대 연구논문집 14-15.
- 朴恩用(1975), “한국어와 만주어의 비교 연구(中)”, 효성여대 연구논문집 16-17.
- 성백인(1990), “한국어와 만주·통구스제어의 비교 연구”, 대동문화연구 24. 성균관대학교 대동문화연구원.
- 연규동(2006). “만주어의 친족명칭 연구”, 알타이학보 16. 한국알타이학회. 53-76.
- 연규동(2011). “만주어의 색채 관련 부가어 연구”, 언어학 61. 한국언어학회. 185-209.
- 연규동(2012). “만주어의 색채어”, 알타이학보 22. 한국알타이학회. 63-92.
- 劉昌惇(1957), “漢淸文鑑 語彙考-文獻語와의 對比-” 국어국문학 17, 국어국문학회. 3-14.
- 이기문(1958), “A Comparative Study of Manchu and Korean”, Jahr Ural-Altäische bücher 30.1-2.
- 이기문(1967), “한국어 형성사”, 한국문화사대계 5, 고려대학교 민족문화연구원
- 이기문(1977), “한국어와 알타이제어의 어휘 비교에 대한 기초적 연구”, 동아문화4
- 이등룡(1984), “알타이제어(돌궐, 몽고, 만주, 통구스 및 한국어)의 서술동사 비교연구”, 대동문화연구 18, 성균관대학교 대동문화연구원
- 이등룡(2001), “한국어의 친족어를 찾기 위한 연구”, 인문과학31, 성균관대학교 인문과학연구소
- 정광 역(2006, C.I.백워드 지음.) 고구려어-일본을 대륙과 연결시켜주는 언어. 고구려연구재단 번역총서 7.
- 정광.(2011), 『삼국시대 한반도의 언어연구』, 박문사.
- 최학근(1964), “국어수사와 Altai어족 수사와의 어느 공통점에 대해서”, 조운제박사회

갑기념논문집

崔鶴根(1973), “滿洲語 造語法 研究”, 論文集 5 서울대학교 교양과정부 1-47(47쪽)

崔鶴根(1980), 『알타이 語學論考-文獻과 文法』. 玄文社

Ramstedt, G. J.(1928), “Remarks on the Korean Language,” *Mémoires de la Société Finno-Ougrienne* LVIII:441-453, Helsinki: Suomalais-Ugrilainen Seura(李基文 編 (1977: 67-82)에 재수록.)

Ramstedt,G,J. 1949. *Studies in Korean Etymology*. Helsinki.

Comrie, B. (2008), “The role of verbal morphology in establishing geneological relations among languages”, *Transeurasian verbal morphology in a comparative perspective: geneology, contact, chance*. edit. Lars Johanson and Martine Robeets. Harrassowitz Verlag·Wiesbaden, 7-20.

Martine Robeets(2008), “Trans-Eurasian: Can verbal morphology and the controversy?”, *Transeurasian verbal morphology in a comparative perspective: geneology, contact, chance*. edit. Lars Johanson and Martine Robeets. Harrassowitz Verlag·Wiesbaden. 81-114.

Ki-Moon Lee, S. Robert Ramsey(2011). *A history of the Korean language*. Cambridge ; New York : Cambridge University Press.

Alexander Vovin(2014), “Borrowing of verbal roots across language families boundaries in the ‘Altaic’ world”, *알타이학보* 24. 알타이학회.

Heine, B., & Kuteva, T. (2005). *Language contact and grammatical change*.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